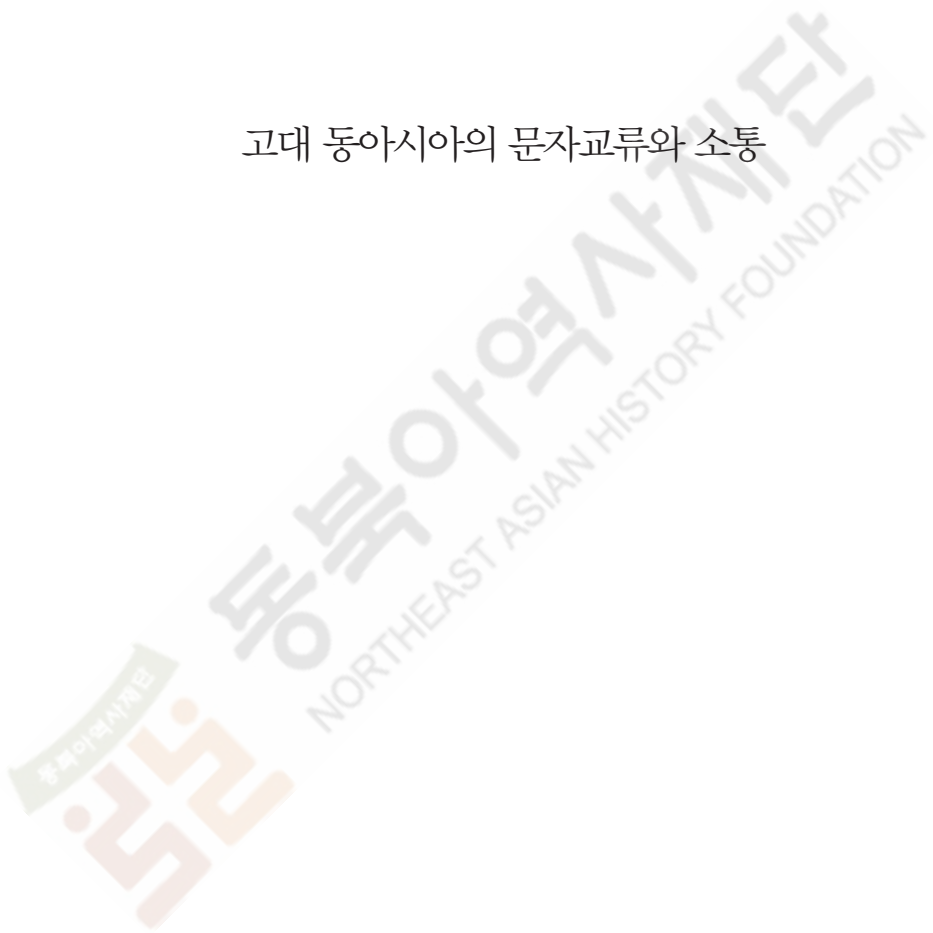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한·중·일 간의 교류가 점차 다변화되는 가운데 상호 우호 협력과 평화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아시아는 유서 깊은 역사와 함께 세계 문명사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화발전은 각 나라들 사이에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통의 도구로 문자를 일찍부터 사용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지금까지도 ‘한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그 역사·문화적 함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9년 9월 동아시아 사회의 교류와 소통의 도구였던 한자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하는 “고대 문자 자료로 본 동아시아의 교류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발표한 논문을 모아 이번에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자문화가 동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교류와 소통의 지적 유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아울러 최근 비화된 역사 갈등 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학술회의에서 논고를 발표해 주시고, 이를 보완하여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국내·외의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1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차 례

●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이기동

1. 머리말	13
2. 중국의 다양각색의 비문헌자료-은허의 복사(卜辭)에서 돈황문서까지	15
3. 한국의 비문과 일본의 목간	22
4. 비문헌사료의 효용-새로운 역사상 형성의 가능성	30

●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김병준

1. 머리말	39
2. 군현체제의 식자(識字)계층	43
3. 낙랑군과 주변지역의 한자 사용	56
4. 다양한 형태의 어법과 선택	65
1) ‘中’의 용법	66
2) ‘之’의 용법	73
3) ‘節’의 용법	77
5. 맺음말	82

●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여호규

1. 머리말	87
2.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정	89
1) 한군현을 통한 한자문화의 전파와 수용	89
2) 중앙집권체제 정비와 한자문화의 정착	96
3. 문자자료에 나타난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양상	102
1) 문자자료의 출토현황	102
2)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양상	108
4. 맺음말	118

● 백제와 신라의 한자·한문 수용과 변용 윤선태

1. 한자문화권에 대한 재인식	127
2. 백제의 문자생활과 차자표기	132
3. 신라의 차자표기와 구두	143
4. 신라에서 이두 탄생과 그 조건	151

● 일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전개 사토 마코토

1. 머리말-한자문화의 수용과 일본 고대국가	161
2. 7세기 귀족의 한자 수용	163
1) 왜국의 귀족과 도래승	163
2) 유학생·유학승의 귀국	165
3) 백제의 망명귀족	166
3. 7세기 지방호족의 한자 수용	168
1) 지방호족의 한자 수용	168
4. 8세기 전반의 귀족과 한자문화	174
1) 나가야왕	174
2) 쇼무 천황	177
5. 8세기 한자문화의 지방전개	179
1) 하치만바야시 관아유적	179
2) 습서목간	182
6. 맺음말-고대 지방관아와 한자문화의 전개	186

● 동아시아에서 서사재료와 문자의 서진 세키오 시로

-고창·누란·우전을 중심으로

1. 머리말	191
2. 고창군시대의 서사재료	192
3. 고창군시대 문서행정 시스템	193
4. 고창군시대 비한인의 문서	196
5. 고창국시대 문서행정 시스템	197
6. 고창국시대 소그드인의 문서	200
7. 고창국시대 교부문서	202
8. 누란의 서사재료	203
9. 맺음말	205

● **고대 한국의 당대 서법문화 수용** 왕위엔진

1. 문화적 시각에서 수용의 다양한 경로	209
2. 당태종과 고구려·신라의 서법	214
3. 왕희지 서풍과 집자의 유행	217
4. 구양순 서법의 수용	222
5. 불교문화와 서법	227

● **고구려 서풍의 특징과 독창적 미의식** 김수천

1. 머리말	233
2. 고구려 서풍의 특징	236
1) 비, 호우, 각석	236
2) 묵서	249
3) 전명	258
4) 금동불상명문	261
3. 고구려 서예에 나타난 미의식	269

● **동아시아의 한자 자체와 문헌의 성격** 이시즈카 하루미치

1. 머리말	279
2. 한자 자체 규범 데이터베이스	280
3. 한자 자체와 문헌의 성격	286
4. 맺음말	291

● **동아시아의 문자문화와 한문의 수용 양상** 김영옥

1. 한-중 언어접촉과 이두의 발생	295
2. 한자와 훈민정음	305
3. 한자문화권에 대한 재인식	309

● **한·일 속한문(俗漢文)의 세계** 모리 히로미치

—『일본서기』 구분론과 종결사 ‘之’

1. 머리말	315
2. 고대 한국의 이두와 속한문	316
3. 일본 ‘변체한문’에 보이는 이두식 표기	318
4. 『일본서기』 해제	319
5. 『일본서기』 구분론	321

6. 『일본서기』의 왜습과 편수과정	323
7. α군 특유의 오용과 습관	325
8. 문말 ‘之’의 기능	327
9. 후쿠다 료스케의 『일본서기』 ‘之’ 연구	328
10. 『일본서기』에 보이는 문말의 ‘之’	329
11. ‘之’의 분류	331
12. ‘之’의 특수한 용법과 분포	333
13. β군의 편재와 α군의 예외	338
14. α군의 예외와 후인의 가필	340
15. 백제 사료와 속한문	342

● ‘中’의 문법적 의미와 기능 동즈차오

1. ‘中1’의 용법과 기능	349
1) 中1 · 명사	349
2) 中1 · 동사	352
2. ‘中2’의 용법과 기능	353
1) 명사 · 中2	354
2) 대명사 · 中2	364

● 한국 고대 문자자료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之’ 정재영

1. 머리말	373
2. 초기 이두문에 나타나는 서술형 종결어조사 ‘之’	374
1) 고구려의 자료	375
2) 백제의 자료	376
3) 신라의 자료	379
3. 제2단계 이두문에 나타나는 서술형 종결어미 ‘之’	383
4. 동아시아 문자사에서 ‘之’의 사용과 관련된 영향관계	393
1) 일본의 고대 문자자료에 나타나는 ‘之’와의 관계	393
2) 한역(漢譯) 불경자료와 한대(漢代)의 간독자료에 나타나는 ‘之’와의 관계	398
5. 맺음말	403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이기동(동국대학교)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이기동
동국대학교

1. 머리말

근대 중국에서 실증사학(實證史學)의 기틀을 확립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푸스넨(傅斯年)은 7년간 영국과 독일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여 1928년 설립한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어언(語言)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역사학의 과학성을 고취하는 한편 사료(史料)의 전문적인 연구를 중시하여 동(同)연구소의 공작(工作) 취지로 “근대 역사학은 다만 사료 연구와 다름없다”라고 못 박은 일이 있다. 이 경우 사료의 양식(樣式)은 단일한 것이 아니며, 매우 다양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역사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전적 저술을 남긴 독일의 베른하임(Ernst Bernheim)은 모든 사료를 전설(傳說)과 유적(遺蹟),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그가 말하는 전설이란 어떤 사건부터 이야기가 전해지는 가운

데, 후세(後世) 사람들이 견해를 중복 첨가하여 서술한 것을 가리킨다. 한편 그는 유적을 협의(狹意)의 유적과 기념물로 나누었는데, 그중 기념물은 그 자체가 역사기념(歷史記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역사학의 이론가에 따라 사료를 직접사료와 간접사료, 혹은 침묵의 사료와 설명적 사료, 원(原)사료와 2차(轉次)사료, 신출(新出)사료와 전세(傳世)사료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세기는 오랜 세월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침묵의 사료, 그러니까 원사료를 다량 발견하여 특히 고대사(古代史) 분야에서 실로 눈부신 진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흔히 ‘비문헌사료(非文獻史料)’로 통칭하고 있는 이들 지하 사료가 고대 지중해세계와 더불어 동아시아세계의 종래(從來)의 역사상(歷史像)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내지 재구축(再構築)을 강박(強迫)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세계 역사학계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동아시아에서 이들 비문헌사료의 발견과 그것이 초래한 고대사상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고대 동아시아세계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역시 중국이다. 주지하듯 중국문화는 너무나 조숙(早熟)하여 동아시아 고대문화의 원류(源流)를 형성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고대문화·국가의 형성은 한자문화와 율령(律令)제도를 기초(基調)로 하는 중국의 문화와 법제도가 주변지역으로 파급·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정한 정치적 교섭을 가지며 부단히 대응한 결과 성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출현한 비문헌사료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다음 그것을 한국과 일본이 각기 수용하는 역사적 계기와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이리

한 여러 종류의 신출사료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여 이들 사료가 새로운 역사상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나아가 고대사 연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 중국의 각양각색의 비문헌자료

—은허의 복사(卜辭)에서 돈황문서까지

중국에서 문자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시기는 기원전 14세기, 즉 은(殷, 상(商))왕조의 안양기(安陽期)였다. 그것은 1899년 황허 강의 북안(北岸) 가까운 하남성(河南省) 안양현(安陽縣) 소둔(小屯)의 은허(殷墟)에서 문자가 새겨진 갑골(甲骨)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1928년부터 1937년 중일전쟁으로 중단될 때까지 중앙연구원의 관계 당국이 은허에서 실시한 본격적인 발굴조사 결과 비로소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갑골문(甲骨文)은 상형문자로 복점(卜占)을 행할 때 신의(神意)를 묻는 내용인데, 흔히 복사(卜辭)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한 해독(解讀) 작업이 차츰 진행되면서 그동안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던 은왕조의 후반기 역사가 조금씩 해명되었다. 현재 해독이 가능한 갑골문자(甲骨文字)는 총 4,500여 자 가운데 1,500자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어쨌든 이로써 『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에 기록되어 있는 은왕조의 왕통계보(王統系譜)와 역대 왕의 이름이 대체로 올바른 것이었음이 판명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은에 대신한 주왕조(周王朝) 시대에는 악기인 종(鐘)과 제기(祭器)인 정(鼎)에 문자가 많이 새겨져서, 이미 1천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들 기물(器

物)의 명문(銘文)을 연구하는 이른바 종정학(鐘鼎學)이 발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송대(宋代)에는 이러한 고동기(古銅器)를 많이 수집하여 저명한 문인이요 역사가인 구양수(歐陽脩)가 『집고록(集古錄)』으로 정리한 바 있고, 유명한 화가였던 휘종(徽宗)의 제창(提唱)으로 종정학이 한때 번성한 적도 있다. 그 뒤 청대(清代)에 이르면 고문자학(古文字學)과 고사학(古史學)이 발달하면서 종정학 연구가 한층 더 심화되는데, 지난 세기에는 금문(金文)이라는 이름 아래 그 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서주사(西周史)의 해명에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특히 문화대혁명이 일단락될 무렵부터 장문(長文)의 금문(金文)자료를 잇따라 발견하여 바야흐로 보다 정리된 서주사를 쓸 수 있음을 전망하게 되었다. 다만 금문 연구의 한계 또한 명백하다. 그것은 고대사에는 연대학(年代學)이 흠(欠)할 수 없는 기초이며, 특히 기년(紀年) 문제에서는 제왕의 재위연대수가 그 출발점인데, 서주시대(西周時代) 각 왕의 재위연대는 이 금문의 편년(編年) 연구로도 확정(劃定)하지 못한 채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¹ 이 같은 점은 대략 제12왕조가 대두(擡頭)하는 기원전 2000년경 이후는 겨우 10년 내외의 오차밖에 나지 않는 이집트 파라오들의 재위기년과 비교할 때 은주사(殷周史)의 큰 취약점이라고 생각된다.

주(周)는 기원전 770년 북방민족의 침략을 받아 서안에서 동방의 낙양(洛陽)으로 천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동주기(東周期)는 고대 귀족제가 쇠퇴하는 가운데 예기(禮器)로서 청동기시대 역시 종언(終焉)을 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천(東遷) 이후 약 반세기 뒤에 시작하는 춘추시대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연대기적 기술이 끝나는 기원전 468년으로

1 貝塚茂樹(1979), 『中國古代再發見』, 岩波書店, 186쪽.

종지부를 찍고, 그 뒤 전국시대(戰國時代)가 250년 가까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부터 견포(絹布)에 쓰여진 백서(帛書)가 등장하여, 운반과 보관이 편리하다는 이점으로 그 뒤 1천년간 기록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근교의 고묘(古墓)에서 도굴된 기원전 4~5세기경 초(楚)에서 만든 백서는 미국으로 유출되어 현재 뉴욕 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보관 중인데, 1967년 8월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 1매의 견포편(絹布片)을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열어 다각도로 논의한 일이 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일본의 후지에다 아키라(藤枝晃)는 심포지엄 기간에 맞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백서의 특별전관(特別展觀) 때 실물과 함께 섬유조직까지도 볼 수 있는 적외선 초 확대사진을 보았을 때의 감격을 명저 『문자의 문화사』(1971)²에서 생생하게 기술한 바 있다. 장사(長沙)에서는 1973년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 3호)에서 12만 자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백서가 출토되어 중국 고대의학과 사상사 연구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편 전국시대부터는 이 백서와 더불어 죽간(竹簡)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일찍이 서진(西晉) 초기인 기원후 279~280년경에 전국시대 위(魏)의 양왕(襄王, B.C. 318~296)의 묘(하남성(河南省) 급현(汲縣) 소재)이 도굴되었을 때 수습한 다량의 고서를 『급총서(汲冢書)』라 하여 성가(聲價)가 매우 높았는데, 그중 『죽서기년(竹書紀年)』이 은주교체기(殷周交替期)의 기년 획정에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75년 호남성(湖南省) 운몽현(雲夢縣) 수호지(睡虎地)의 진묘(秦墓)에서 1,000여 매의 죽간(竹簡)이 나와 진율(秦律)의 조문(條文)과 해

2 藤枝晃(1971), 『文字の文化史』, 岩波書店, 120~132쪽.

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또한 2002년 6월에 삼협(三峽) 댐 수몰 예정지역인 호남성(湖南省) 용산현(龍山縣) 리야진(里耶鎮)의 진한(秦漢) 시대 성곽 유적에서 진대(秦代)의 죽간 3만 6000여 매를 발견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진대사(秦代史)는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2년 산둥성(山東省) 임기현(臨沂縣) 은작산(銀雀山)의 한묘(漢墓, 1호묘)에서 죽간 7,500여 매가 나왔는데, 그중 대반(大半)이 망실(亡失)되었던 병서(兵書)로 중국 병학(兵學)사상 연구에 새로운 도표(道標)를 제시했다. 한편 1983년에는 호북성 강릉현(江陵縣) 장가산(張家山)의 한대(漢代) 고묘(古墓)에서 1,200여 매의 죽간이 나왔는데, 그중에는 ‘이년율령(二年律令)’이라는 제목이 붙은 도합(都合) 526매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2년(二年)’은 여후(呂后)의 집정 2년(B.C.186)일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한데, 8년 전에 동 보고서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 ‘이년율령’이 출간되어 이미 정밀한 석문(釋文)과 주석(注釋)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보다 시대가 내려가는 삼국시대 오(吳)의 죽간을 1996년 장사시(長沙市) 중심부 주마루가(走馬樓街)의 오래된 몇 개의 정호(井戶)에서 대량으로 발견한 것도 특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호에서는 죽간 10만여 매 이외에도 목간 2,400여 매를 함께 발견하였는데, 그중 오왕(吳王) 손권(孫權) 가화(嘉禾) 4년(235)과 동 5년(236)에 작성한 대형 목간 「이민전가별(吏民田家別)」(중전에는 전전조세권서(佃田租稅券書)라고 칭함)는 당시 소작제도와 관련하여 세세한 규정을 보여주고 있어 삼국시대 사회경제사 연구를 새롭게 자극하고 있다.

진(秦)은 중국천하를 통일한 뒤 겨우 10여 년의 단명으로 끝나버려, 이후 수년간의 내전 끝에 기원전 202년 한이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이 진·한 교체기부터 새로 등장한 것이 바로 돌에 문자를 새기는 전통이었다. 문자개혁과 도량형의 통일로 유명한 진의 시황제는 전국 각지를

순행할 때마다 통일의 위업을 찬미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기』에는 석비(石碑)가 모두 7개나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고, 태산(泰山) 등지에 겨우 그 단편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 석각(石刻)의 전통은 한대에 들어와 차츰 보급되기 시작하여 후한대에는 개인의 공덕과 유덕(遺德)을 기리는 기공비·송덕비·묘지 등 석각자료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이들 자료는 후대까지 비교적 많이 유존(遺存)되어 현재 역사 연구의 보조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대사(漢代史) 연구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목간이다. 후한시대에 들어오면 그동안 포(布)나 동경(銅鏡) 등을 포장(包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던 종이가 서사용(書寫用)으로 개량되는 등 종이 질이 크게 좋아졌으나, 현재 종이에 쓰인 한대 문서류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목간은 청동이나 돌에 비해 내구성이 거의 없으므로 건조한 사막지대나 정호를 비롯한 저습지(低濕地) 등 특수한 곳에만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한대의 목간은 실로 방대한 양에 달한다. 이 한(漢)·진(晉)대의 목간은 20세기 초두(初頭)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에 도전한 유럽의 학술탐험대원(學術探險隊員)들이 잇따라 발견하여 학계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즉, 1901년 헝가리 출신의 영국인 스타인(Aurel Stein) 경(卿)과 스웨덴의 헤딘(Sven Hedin)이 1개월 간격으로 각각 타림(Tarim) 분지 남연(南緣)의 니아[Niya, 니아(尼雅)]유적과 그 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로프노르[Lop Nor, 라포박(羅布泊)]의 호안(湖岸) 서단(西端)의 누란왕국(樓蘭王國) 유적으로 추정되는 폐허에서 3~4세기경의 진대(晉代) 목간을 발견했다. 그 뒤 스타인은 두 차례 하서회랑(河西回廊)의 한대 유적에서 둔황간간(敦煌漢簡)을 발견했고, 1930년 감숙성(甘肅省)과 내몽골자치구에 있는 에치나천류역(川流域)의 한대유적에서 헤딘(Hedin) 조사단의 베리이만(Forke Bergman)

이, 이른바 거연(居延, Edsin Gol)한간(漢簡) 1만 매를 발견했다. 신중국(新中國)이 성립된 뒤 1973~1974년에 중국의 연구자들은 베리이만이 조사한 지역에서 2만여 매에 달하는 신거연한간(新居延漢簡)을 다시금 발견하였다. 그 뒤 둔황시(敦煌市) 동쪽에 있는 전한 중기~위·진 시대의 역전시설(驛傳施設) 유적에서 2만여 매의 목간을 출토한 바 있다.

이처럼 한대 목간이 주로 서쪽 변경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무제(漢武帝)의 흉노 원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듯 진의 시황제의 원정으로 만리장성 너머로 쫓겨난 유목(遊牧)민족국가 흉노는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급속히 세력을 회복하여 한의 서부 변경지대를 크게 위협했다. 이에 한의 무제는 기원전 133년부터 기원전 90년까지 대흉노 전쟁을 2회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둔황군 등 하서 사군(四郡)을 설치하고, 국경의 최전선에는 많은 봉수(烽燧, 망루(望樓))와 성채를 쌓아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지난 세기에 발견한 한간은 바로 이 서역 경영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 목간의 출현으로 한대의 행정제도, 특히 중앙의 국가권력이 변방의 말단까지 굴절 없이 관철되었던 여러 구체적인 양상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3~4세기에 걸쳐 황제가 내리는 명령인 책(冊)을 종래의 간독(簡牘)에서 종이에 서사(書寫)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죽간·목간의 시대는 끝났다. 4세기경 이후 10세기경까지 종이에 서사한 각종 문서가 목간이 발견되기 시작한 바로 같은 시기에 역시 동 투르키스탄 지역 탐험(探險)에 나선 유럽 연구자들에 의해 둔황과 투르판(Turfan)에서 수집되었다. 1907년 스타인과 그 익년(翌年)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Paul Pelliot)가 둔황 막고굴(莫高窟, 천불동(千佛洞))의 석실(石室)에서 수집한 다량의 고사본 중에는 상당한 분량의 고문서류가 포함되어 있어 연

구자들의 흥미를 집중시켰다. 이 돈황문서는 4세기경의 것이 가장 오래고, 11세기 초의 것이 가장 늦은데, 그 대부분은 9~10세기에 작성된 문서들이다. 이 중에는 5호16국(五胡十六國)에 속하는 서량(西涼)의 호적(416年)의 단편(斷片) 등이 관심을 끄는데, 다만 당왕조(唐王朝)시대의 문서는 몇 점이 되지 않는다.

한편 돈황에서 서북쪽으로 900km 떨어진 고창국(高昌國)의 고지 투르판(Turfan,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소속)의 분지(盆地)에서도 1902~1907년간 독일의 학술탐험가인 그뤼네델(Albert Grünwedel)과 르코크(Albert A. Von Le Coq)가 3회에 걸쳐 적지 않은 고사본·고문서를 발견하였다. 이 투르판 문서 중 한문 문서는 당이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인 8세기 중엽 무렵의 것이 대부분이다. 즉, 당대의 행정과 관련있는 문서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호적과 징세와 관련된 민정(民政)관계의 서류, 변경지방의 군사 관련 사항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어, 당의 율령제를 연구하는 데는 돈황문서 이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끝으로 돈황·투르판 문서의 수집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세기 초두에 일본 교토[京都] 서본원사(西本願寺) 중주였던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가 조직한 서역탐험의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1908~1909년 제2차 오타니탐험대원이었던 약관 20세의 다치바나 즈이조[橋本初]는 로프노르 호(湖) 근처의 누란(樓蘭) 왕국의 유지(遺址) 해두고성(海頭古城)에서 4세기 전반 전량국(前凉國)의 서역장사(西域長史)였던 이백(李柏)이 인근의 연기국(焉耆國) 등 몇 나라의 국왕에게 전달한 서신을 포함한 이른바 이백문서(李柏文書)로 불리는 일군의 고문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뒤 제3차 탐험 때인 1912년에는 동료인 요시카와 고이치로[吉川小一郎]와 함께 돈황에서 500여 권의 고사본을 수집하는 한편 투르판 문서도

입수하여 일본에서 돈황학 연구 붐을 조성하는 데 큰 자극을 주었다.

3. 한국의 비문과 일본의 목간

한의 무제는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서쪽으로는 대완(大宛)을 원정하여 흉노의 우견(右肩)을 절단하려 했고,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원정하여 흉노의 좌비(左臂)를 끊으려고 했다. 고조선은 한의 수륙(水陸) 5만 군의 침략을 받아 왕험성(王險城)이 있던 평양에서 1년간 항전(抗戰)하다가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 한은 고조선 영역에 낙랑군을 비롯한 4개의 군을 설치하여 통치했다. 그로부터 26년 뒤 낙랑군 남쪽의 진번군(眞番郡)을 폐지하여 남부도위(南部都尉)를 두었고, 다시 7년 뒤 낙랑군 동쪽의 현토군(玄菟郡, 남쪽의 臨屯郡을合併함)을 요동지방으로 이치(移置)한 뒤 이곳에 동부도위를 두었다. 이처럼 낙랑군은 한제국(漢帝國)의 동방지배의 최전선으로, 3000km 떨어진 서역지배의 최전선인 돈황군과 마찬가지로 관리와 군인들을 파견하여 장새(障塞)를 수축(修築)하고 봉수(烽燧)를 정비하여 한족의 내침(來侵)에 대비했다. 또한 돈황군이 변경 지역 실정에 맞는 '북변설령(北邊絮令)'이라는 법령을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관리들에게 적용한 것처럼 낙랑군 역시 60여 조가 되는 설령(絮令)을 만들었다.

지난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 이 낙랑군의 치소(治所)가 있던 평양시 남쪽 낙랑구역의 고분군에서 낙랑군 예하(隸下) 25개 현 중 22개 현의 이름이 보이는 190여 개에 가까운 봉니(封泥)를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낙랑군의 통치지역에서 간독을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봉니는 문서류나 귀중한 물품을 발송할 때 이를 봉하는 데 쓰이는

점토이기 때문이다. 1931년 낙랑구역의 고묘에서 예체로 “겸삼필(兼三匹) 고이조선승전평근견리재배봉(故吏朝鮮丞田脇謹遣吏再拜奉) 제(祭)”라고 쓰여 있는 길이 23.7cm의 목찰(木札) 1매가 출토되어, 일본의 오바 오사무(大庭脩)는 이를 낙랑한간(樂浪漢簡)이라 이름 붙였는데,³ 이는 얼마 전까지 학계에 보고된 한간의 유일한 예였다. 하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북한 당국이 낙랑구역에 통일가(統一街)와 대규모 통일시장(統一市場) 그리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낙랑군 시대 유물이 출토되고 죽간과 목간도 일부 수습했다. 그중 『논어(論語)』의 제11·12편 전문을 기록한 죽간을 편철(編綴)해서 책서(冊書)의 형으로 사용했던 것을 수습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으나,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알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때 북한 당국이 정백동(貞柏洞) 제364호분에서 기원전 45년(한원제 초원 4년) 낙랑군 예하 25개 현의 현별 호구 통계를 기록한 목간을 발굴했음이 몇 해 전 윤용구(尹龍九) 박사의 집념 어린 추적으로 한국학계에 알려졌다.

이처럼 420여 년간이나 존속했던 낙랑군의 유적에서 출토한 한간이 소수에 불과하여 일종의 적막감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실제로 낙랑군시대에 간독의 사용이 성행한 것은 낙랑구역 내 석암리(石巖里) 고묘에서 연(硯)이 몇 점 나온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낙랑군 당국과 교역을 행하고 있던 주변 사회에도 간독이 보급되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남해안의 경상남도 창원군 다호리의 목관묘(木棺墓)(제1호)에서는 붓과 더불어 삭도(削刀, 글자를 긁어 없애는 작은 칼)가 출토된 바 있다. 이보다 시대가 조금 내려가지만, 백

3 大庭脩(1979), 『木簡』, 學生社, 62쪽.

제 최초의 도성지(都城址)로 생각되는 서울시 풍납동 토성(土城)에서도 연
과 더불어 문자가 새겨진 토기류를 발견하였다.

한국 고대 문자자료로는 환두대도(環頭大刀)와 같은 철검에 새겨진 명
문(銘文)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4~5세기경 백제에서 만들어 일
본열도에 전해져서 현재 나라현[奈良縣] 덴리시[天理市] 이소노카미 신궁(石
上神宮)에 있는 칠지도(七支刀)가 유명하다. 그러나 금석문(金石文) 자료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석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옛부터 석
재가 풍부하여 고대·중세를 통해 사원에 많은 석탑을 조영하여 일찍
이 일본의 고미술(古美術)·고고학(考古學) 연구자들 사이에서 ‘석탑의 나라’
라고 불리곤 했는데, 현재 중국 동북지방[만주(滿洲)]인 길림성 집안(集安)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호태왕비(好太王碑)]’는 대표적
인 것이다. 서기 414년에 제작한, 전문(全文) 1800자에 가까운 이 비문
이 고구려사, 나아가서는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이다. 실로 이 비문
의 내용은 5세기 초까지의 고구려 국가의 모든 발전 과정을 평가하는
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의미에서 고구려사 연구의 출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구려의 비문으로는 1979년 충청북도 충
주에서 발견한 5세기경의 ‘중원고구려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시기
고구려와 신라 양국관계를 구명(究明)하는 데 긴요한 내용이 보인다. 한
편 1971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발견한 백제 무령왕(501~523) 능에서는
다량의 유물과 함께 왕과 왕비의 지석[誌石, 매지권(買地券)]이 출토되어 그간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신라는 7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 한반도에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했는데, 이 신라의 역사도 비문 연구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한국고대사 연구가였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1950년대에 들어와 회고하기를, 근대적 의미에서 신라사 연구의 진정한 출발은 진흥왕(540~576) 순수비부터라고 하면서, 선구자로 김정희(金正喜, 1786~1856)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뛰어난 서예가이며 관료였던 김정희는 문과 급제 전인 1816년 현 서울의 진산(鎭山)인 북한산에 올라가 고비(古碑)를 뒤덮고 있던 이끼를 걷어낸 다음 탁본을 작성하여, 이것이 바로 진흥왕순수비라고 단정하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관련 기사와 대조하면서 본격적인 비문 연구에 착수했다. 진흥왕은 고대 인도의 아소카왕처럼 신정복지(新征服地)를 순행(巡行)할 때마다 기념비를 건립했는데, 1929년까지 모두 4기가 발견되어 오랫동안 신라사 연구에 1등 사료로 계속 주목을 모았다. 그 뒤 1989년까지 잇따라 6세기대의 비석을 발견하여 서기 503~591년 사이에 대체로 10여 년 간격으로 만들어진 10기 이상의 비석을 확보하였다. 그중 503년에 건립된 경상북도 영일군 냉수리(冷水里)의 비석은 민간의 어떤 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 갈문왕[葛文王, 부왕(副王)에 상당]이 신료들과 협의하여 판결한 사실을 새긴 것이다. 또한 524년에 건립된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鳳坪里)에서 발견한 비문도 변경지역에서 일어난 모종의 사건에 대해 조정(朝廷)이 해당 관원들을 문책하여 장형(杖刑)을 가한 판결문 내용을 새기고 있어 한국학계에서는 이를 율령과 관련된 비석으로 보고 있다.⁴ 이로써 신라의 국가통치방책(國家統治方策, statecraft)이 법흥왕 7년(520)의 율령 반포를 계기

4 2009년 5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中城里)에서 신사년(辛巳年)에 건립된 신라의 고비(古碑)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증왕 2년(501)으로 짐작되며, 냉수리비와 8.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로 족제적(族制的)인 것으로부터 법제적(法制的)·관직적(官職的)인 시대로 돌입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이보다 시대가 조금 늦은 나머지 비문들은 신라의 지배 아래 들어간 신점영지(新占領地)의 지배방식과 촌주를 수장으로 한 재지사회(在地社會)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신라사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신라가 언제부터 종이에 서사하기 시작했는지는 불명하지만, 늦어도 8세기에는 행정문서나 사경(寫經) 등에 종이를 사용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것은 정창원(正倉院)에 있는 제1, 제2의 신라장적(新羅帳籍)이나 국보로 지정된 신라 화엄경 사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화엄경 사경의 발문(跋文)을 보면 이는 755년 완성되었다. 한편 정창원 보물 중에는 8세기경 신라에서 수입한 교역품인 전(箋)에 신라 묵서(墨書)가 있는 마포(麻布)의 소전(小箋)이 달려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종이와 관문서 작성에 쓰이던 시기에 한편으로는 목간을 사용하였음이 30여 년 전 처음으로 알려졌다. 즉, 1975년 신라의 고도(故都) 경주의 안압지에서 50여 매의 목간이 발견된 것이다. 이 연못(池)은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한반도에 영토적(領土的) 야심(野心)을 드러내고 있던 어제까지의 동맹국(同盟國)인 당제국(唐帝國)을 상대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던 674년에 만든 궁원지(宮苑池)로, 목간은 주로 경덕왕(景德王, 742~765) 때 왕과 동궁의 시종·비서 기능을 담당했던 세택(洗宅, 뒤에 중사성(中事省)으로 개명)과 내성(內省)의 예하 여러 관청에서 사용한 것이다.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의 이성시(李成市) 교수는 이들 목간 중에서 중국의 책서를 의식하여 ‘책사(策事)’로 시작하는 왕의 명령서라든가 조정의 첩(牒)을 급사(急使)가 국경지방으로 체송(遞送)한 사실, 그리고 평성궁적(平城宮跡) 목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양식의 병위(兵衛)관계의 것이 포함되어 있음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밖에는 단순한 표찰인 경우가 많다.

그 뒤 왕궁이 있던 경주 월성(月城)의 해자(孩子)를 비롯하여 그 근처의 관아로 추정(官衙推定)되는 유적, 그리고 7세기 초두(初頭) 삼국항쟁기(三國抗爭期)에 신라의 국경수비대가 주둔했던 서울시 남교(南郊)의 이성산성(二聖山城)의 저수지 등에서 각각 소량의 목간을 발견하였다. 또한 백제 최후의 고도였던 부여에서도 왕릉의 계곡인 능산리(陵山里)에 있는 사지(寺址)를 비롯해서 궁남지(宮南池) 혹은 관아지(官衙址)에서 백제시대의 목간이 약간 출토되었다. 특히 능산리의 사지에서 발견한 목간 중에는 사자사구(四字四句)의 운문 형식을 갖춘 시가(詩歌)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사용을 위해 손칼로 얇게 깎아낸 목간 껍질 129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궁남지에서 나온 1매의 목간은 백제 후기의 호구 파악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 밖에도 2005년 인천광역시 계양(桂陽)산성에서 『논어(論語)』 제5편 ‘공야장(公冶長)’의 문구를 습서한 목간을 발견하였는데, 발굴단에서는 이를 3~4세기경의 백제시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나주 다시면 복암리(伏巖里) 고분군 주변의 제철 관련 수혈(竪穴) 유구(遺構)에서 백제 후기의 호구 파악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목간은 물론 토지 단위에 따른 소출량(所出量)을 보여주는 문서 목간을 비롯하여 여러 부찰(付札) 목간이 대량으로 나와 큰 흥미를 끌었다. 한편 가야(加耶)시대 유적으로 뒤덮여 있는 김해시 봉황대의 구릉에서는 『논어』 ‘공야장’의 일부 구절을 습서한 목간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함안군의 성산산성(城山山城) 저수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246매에 달하는 6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해당하는 신라 목간이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일본서기(日本書紀)』 ‘흠명기(欽明紀)’에 자주 보이는 안라국(安羅國)의 주읍(主邑) 소재

지인데, 6세기 중엽 신라에 병합된 뒤 백제의 침공에 대비한 최일선 군사기지가 되었다. 이 산성에서는 묵서용(墨書用) 붓과 삭도 그리고 제침축(題籤軸)으로 추정되는 4매의 목간 등 다량의 목간 사용을 암시하는 유물이 반출되었는데, 이들 목간은 각지에서 낙동강 수계(水系)를 따라 이곳에 수납된 물자의 하찰(荷札)과 동원된 사람의 명적(名籍)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한국의 고대 비문헌사료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일본에 대해서는 사토 마코토[佐藤信] 교수의 전문 논문이 실려 있으므로 문외한에 불과한 본인이 감히 논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누구보다도 일본의 고대사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동종의 한국 측 자료와 비교해보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는 중국·한국·일본의 3국 간에는 서로 비슷한 생활체험이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기원후 2세기 후반경 낙랑군의 사자(使者)나 가야(伽耶)의 상인들이 드나들던 국제도시 이도국(伊都國)의 소재지인 후쿠오카현(福岡縣) 마에바루시[前原市]의 히라바루(平原) 고분에서 출토한 방격구구사신경(方格規矩四神鏡)에 ‘상유선인불지노(上有仙人不知老)’ 등 길상구(吉祥句)가 새겨진 것이 31면이나 되고, 또한 같은 시기의 것으로 짐작되는 내행화문경(內行花紋鏡)에도 ‘장의자손(長直子孫)’ 등 명문이 보여 이미 야요에[彌生]시대 말기에 한자와 접했던 것이 분명하다. 고분시대에 들어와 5세기 후반경 축조한 것으로 짐작되는 지바현[千葉縣] 이치하라시[市原市]의 이나리타이[稻荷臺] 고분과 사이타마현[埼玉縣] 교다시[行田市]의 이나리아마[稻荷山] 고분, 혹은 구마모토현[熊本縣] 다마나군[玉名郡]의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등에서 각각 문자를 새긴 철검이 나오고 있고, 특히 115자에 달하는 이나리아마 고분의 명문은 야마토[大和] 정권의 ‘동국(東國)’ 지배를 뒷받침하는

절호의 자료로 유명하다. 그런데 한국 연구자 입장에서 평소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일본의 비문자료나 지식(誌石) 등 석각(石刻)자료가 한국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7~8세기 목간 시대가 되면 사정은 크게 역전된다. 30여 만 매를 헤아리는 일본 목간은 이제 겨우 500여 매에 불과한 한국 목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긴 일본의 경우에도 공진물(貢進物)의 부찰(付札)이 압도적으로 많고, 책서(冊書)·편철(編綴) 같은 것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단간영묵(斷簡零墨)이 주를 이루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文書) 형태의 목간이 적지 않아 양국 모두 지목병용(紙木併用)시대였음에도,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9년에 목간학회(木簡學會)가 발족하는 등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최근 고단샤(講談社)에서 출간한 『일본의 역사』 총서는 전 26권 가운데 와타나베 아키히로(渡邊晃宏)가 나라(奈良)시대를 내용으로 하여 집필한 제4권의 책명을 『평성경(平城京)과 목간(木簡)의 세기(世紀)』(2001)라고 명명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고대 사료로서 목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만 목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주로 히라카와 미나미[平川南] 교수의 집념 어린 작업으로 7~9세기 관아(官衙)유적은 물론 집락(集落)유적에서 출토한 토기에 쓰여진 묵서라든가 8세기 말경 동북지방의 다가조(多賀城)를 비롯한 몇몇 성적(城跡)의 토갱(土坑, 穴)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칠지(漆紙)에 쓰여진 묵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목간의 전성시대에 묵서토기(墨書土器)와 칠지문서(漆紙文書)로 한 문서행정(文書行政)이 관아부터 촌락사회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던 양상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4. 비문헌사료의 효용 - 새로운 역사상 형성의 가능성

고대 동아시아문명의 중심이 중국이고, 일본과 더불어 한국은 그 주변(周緣)이 되는 구조에서 동아시아 세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문자는 바로 고대문명의 주요한 지표인데, 중국은 문자자료의 선진성과 다양성에서 한일 양국을 단연 압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찍이 후지에다 아키라가 오로지 정치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정치 문자’라고 성격을 부여한 목간만 하더라도 중국의 것과 한일의 것은 그 시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중국에서는 종이[紙]를 서사자료로 사용하기 이전 시기인 한대에 목간을 행정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한 반면, 한일 양국에서는 7·8세기 지목병용시대에 널리 사용하였다. 오바 오사무는 중국과 일본 목간의 연대상의 갭(gap)을 한국 목간이 일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일본의 목간 사용은 어쩌면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시사한 바 있다.⁵ 또한 기토 기요아키[鬼頭清明]도 안압지에서 나온 신라 목간이 연월일(年月日)을 목간의 맨 앞에 기재하는 등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이 일본의 7세기대(代)의 목간 표기법과 일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서식(書式)은 중국의 6조 시대(6세기 말까지) 이전의 금석문에도 용례가 있어, 중국·한국·일본에는 서식 전파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지적을 한 바 있다.⁶ 그러나 실제로 한국 목간을 본 도노 하루유키[東野裕之]는 우선 재질의 상위(相違)에서 한일 양국의 목간에는 위화감을 느낀다고

5 大庭修 편저(1998),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355쪽.

6 鬼頭清明(2004), 『木簡の社會史-天平人の日常生活』, 講談社學術文庫, 34쪽.

토로하고 있다.⁷

수학사가들은 19세기 이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설형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을 발견하였는데 현재 약 50만 개에 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중 순전히 수학과 관련된 것은 약 300개이며, 그중 200개는 수표(數表)이다. 이로써 고대 바빌로니아 수학은 그 전모(全貌)를 드러낸 셈이고, 나아가 고대 그리스 수학은 이로부터 주로 대수학을 전수받았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동아시아의 비문헌사료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하긴 중국에서도 오랜 세월 망실한 고대의 각종 의서(醫書)와 병서(兵書) 등이 지하에서 다량 출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처럼 출토자료만으로 하나의 학문 분야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선진시대(先秦時代)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존 문헌, 즉 고전이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두에 갑골문과 돈황간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왕귀웨이(王國維)가 그 연구방법으로 지하문화재와 문헌의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창한 것도 이 같은 사정에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 작고한 이기백(李基白) 선생은 일찍이 신라 정치제도에 관한 논문에서 “금석문(金石文)이 사료로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정사(正史)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것과는 차이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하긴 선생은 이에 부가(附加)하여 “사료의 인멸이 심한 고대사의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항상 그렇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광개토왕릉비와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7 東野治之(2002), 『木簡研究』 24호, 差頭言.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앞의 주장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⁸ 이는 비문헌사료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에 일종의 경고를 한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지난 세기 동아시아 각지에서 나온 새로운 지하사료가 그동안 사료의 제약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던 고대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어 역사상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연구경향을 촉진시킨 점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새로 발굴한 사료의 성격은 매우 다양한 편이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중에는 문헌사료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각종 정보를 독점 제공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은허(殷墟)의 복사(卜辭)와 은·주대의 금문자료, 돈황과 거연의 한간 등은 바로 당대의 당안(檔案)이고 8세기 헤이조쿄(平城京)의 목간은 ‘지하의 쇼소인문서(正倉院文書)’와 다름없다. 더욱이 문헌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기록에 다소간의 개변(改變)이나 과장(誇張)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지하에서 나온 문자자료는 어디까지나 실무 목적으로 작성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생한 것일 뿐 아니라 실제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도미야 이타루(富谷至) 교수는 한대 목간으로 알 수 있는 중층적 문서행정이야말로 중국 고대 전제(專制)국가를 성립·유지시킨 요인이 아닐까 추론하면서, 이를 종이 사용이 일반화된 시대인 당의 율령국가와 대비시킨 바 있는데,⁹ 매우 흥미 있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비록 적은 수량이지만 생생하고 박력에 넘치는 지하사료야말로 풍부한 문헌사료를 갖고서도 실감하기 어려운 국가의 성격 문제와 같은 거대담론(巨大談論)을 유발케 하는 특유의 힘을 갖고 있다.

8 李基白(1974), 「新羅下代の執事省」,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朝閣, 187쪽.

9 富谷至(2003), 『木簡·竹簡の語る中國古代—書記の文化史』, 岩談書店, 218쪽.

그러나 역시 지하사료가 고대사 연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미시사적(微視史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료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외견상 매우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중대한 문제의 구명에 소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땅에서 나온 1매의 백서를 실견한 후지에다 아키라는 태평양의 멜라네시아·폴리네시아 문화와 유사하다는 사실에 강렬하게 매료되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¹⁰ 또한 일본의 묵서토기(墨書土器)는 한 두자만 쓰인 너무 빈약한 자료에 지나지 않으나, 이것은 히라카와 미나미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문헌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하층 사회, 고대사회의 신앙형태, 인간의 심층(深層) 의식(意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어 실로 미시사·심성사(心性史) 연구를 위한 절호의 자료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¹¹

앞에서 보았듯이 지난 세기 동아시아 각지에서 출현한 비문헌사료들은 비문과 돈황문서를 제외하면 모두 지하에서 출토한 것이다. 즉, 발굴로 나온 고고학 유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위치, 층위관계, 분포상황, 반출유물 등 출토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본 목간 연구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기시 도시오(岸俊男)는 고고학적 고찰이 빠진 목간 연구는 그 사료가치를 반감한다고까지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¹² 사실 갑골문자의 편년(編年)에 대한 획기적 시안을 제시했던 등초빈(董作賓)은 갑골문이 나온 갱위(坑位)를 그 유력한 논거로 거론했다.

10 藤枝晃, 앞의 책, 130쪽.

11 平川南(2000), 『墨書土器の研究』, 吉川弘文館, 참조.

12 岸俊男(1977), 『宮都と木簡—よみがえる古代史』, 吉川弘文館, 125~139쪽.

이는 안압지에서 나온 목간을 상기할 때 절감(劫感)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일본의 후지와라쿄(藤原京)에서 적지 않은 약물(藥物) 목간과 함께 광물성 약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황·백운모(白雲母)·백석영(白石英)·자철광(磁鐵鑛) 등 소편(小片)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역시 약물 목간이 나온 안압지나 월성해자(月城海子)에서도 이 같은 유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발굴 당시 이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서둘러 발굴을 끝낸 아쉬운 경험이 있다.

또한 문자자료의 출토상황에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출토사료를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료의 보존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한·진대 목간이 나온 돈황·거연(居延)·누란(樓蘭) 등은 건조한 사막이거나 초원지대여서,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나 안압지나 월성해자 그리고, 헤이조쿄 목간은 습기 찬 진흙에서 나온 것이므로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면 손상되기 때문에 발굴 즉시 포르말린(formalin)액에 담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문자의 교류와 관련하여 본인이 경험한 한 실례를 말씀드리고 싶다. 이를테면 『삼국사기』 권38 「직관지(職官志, 上)」에는 신라의 중요 관청인 집사성이 본디 품주(稟主) 혹은 조주(祖主)의 후신이라고 했는데, 종래 이 조주의 조(祖)자를 조(祖)의 간오(刊謨)로 보는 주장이 유력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경우를 보면 조(租)는 조(祖)의 고자(古字)로 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일본 시모쓰케국부적(下野國府跡)에서 나온 791년경의 목간에 ‘조곡(祖穀)’이라 표기한 사례가 보이며, 또 다지마국부(但馬國府)로 짐작되는 후카다(深田)유적에서 ‘조미진(祖未進)’이라 표기한 목간이 나와 『삼국사기』의 기록이 결코 착오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하지만 목간 연구에는 기재(記載) 내용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래 형태로 복원하려는 고문서학적 연구가 긴요하다는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도 고대 한국과 일본의 목간 비교 연구는 절실하다.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김병준(서울대학교)

동북한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觀世音菩薩
億那由他不可說
不可說阿僧祇劫
於諸師長恭敬尊重
無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行喜利見善

於諸師長恭敬尊重
無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行喜利見善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김병준
서울대학교

1. 머리말

한반도에서 한자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이다. 낙랑 무덤과 유적에서 봉니(封泥), 인장(印章), 와당(瓦當) 등의 다양한 명문자료와 함께 각종 문방구가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낙랑군초원사년 현별호구다소□□(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 낙랑 목간과 『논어(論語)』 목간이 공개되어 낙랑군에서 중국 내지와 동일한 수준의 문자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 또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창원(昌原) 다

1 손영중(2006), 「낙랑군 남부지역(후의 대방군지역)의 위치-‘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다소□□’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198 ; 손영중(2006), 「요동지방 전한 군현들의 위치와 그 후의 변천(1)」, 『역사과학』 199 ; 尹龍九(2009), 「平壤出土〈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研究」, 『목간과 문자』 3 ; 金秉駿(2008),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

호리(茶戶里) 유적에서 문자를 기록하는 붓과 삭도(削刀)를 발견하여² 낙랑군의 문자생활이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음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한반도의 한자 수용과정을 설명할 때에는 낙랑군의 한자 사용을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으로 평가해왔다.³ 그 까닭은 무엇보다 양자를 연결시킬 관련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낙랑을 한반도 역사와 구분해서 이해하려는 경향, 또 중국 대륙에서 전래한 문화를 ‘한인(漢人)’과 배타적으로 연결시키는 반면, ‘비한인(非漢人)’을 이들과 대립구도로 이해하여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⁴ 즉, 극히 일부 계층인 ‘한인’들이 한자를 수용하고 이해했을 뿐, ‘비한인’인 일반인들이 직접 한문을 구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자가 ‘중

少□□」木簡을 단서로, 『목간과 문자』 1 ; 이성시·윤용구·김경호(2009), 「平壤 貞柏洞364號墳 出土 竹簡 『論語』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4.

2 李健武(1992), 「茶戶里遺跡出土 붓(필)에 대하여, 『考古學誌』 4.

3 낙랑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로는 李成珪(2003), 「韓國古代 國家의 形成과 漢字 受容, 『韓國古代史研究』 32 ; 李成市(2005), 「古代朝鮮의 文字文化」(平川南, 『古代日本文字の來た道』, 大修館書店)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낙랑군 내부에서 수 세기에 걸쳐 문서행정을 담당했던 자들이 後漢末 韓으로 유입되기도 했으며, 낙랑군 소멸 이후에 고구려는 물론 백제와 일본의 초기 문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한자 수용 과정에서 낙랑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Kim Byung-Joon(2010), “The Introduction of chinese characters into Korea : The Role of Lelang Commandery,” *Korea Journal* 50-2, pp. 10~14 참조.

4 필자는 낙랑군의 주민이 ‘한인계(漢人系)’와 ‘비한인계(非漢人系)’ 집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그 지배 역시 분리통치했다는 기존의 연구경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기 위해 편의상 그 구분을 이용할 뿐이다. 이 글의 결론도 이원화된 종족분리 정책이라는 입장으로는 낙랑군의 문자생활과 한반도의 한자사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에서 들어왔으므로 초기 그 주요 담당계층은 '한인'이었겠지만, 군현 지배가 진행된 이후에도 한인의 문자 독점이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낙랑군 주변 토착세력의 한자 수용이나 낙랑군 소멸 이후 한자의 확산도 '중국계 망명인', '낙랑 한인 유민'과 같은 '한인'들이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낙랑군의 지배구조를 이분법적 종족 차별 구도로 이해하는 연구경향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낙랑군에 '한인'과 '호[胡, 토인(土人)]'의 구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구분은 지배의 일시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종족적 차별지배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호'는 '한인'과 같이 모두 호적(戶籍)에 편입되었고, 기본적으로 세역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했으며, 관리 등 용도 얼마든지 가능했다.⁵ 그렇다면 문자생활에서도 '비한인'이 특별히 배제될 필요가 없었다고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낙랑의 문자 사용은 종족 구분 대신 구조적 필요라는 측면에서 다를 필요가 있다. 문자를 수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자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해야겠지만, 동시에 그 문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소비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는 사회적 '구조'에서 근본적 배경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사람'의 종족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낙랑의 한자 사용을 종족적 구분에서 벗어나 구조적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자연히 비한인계의 한자 사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열릴 것이다. 일찍이 이성규 교수가 낙랑군에서 문서행정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출신 속리들을 다수 양성하였을 것이라고 지

5 金秉駿(2006), 「중국 고대 簡牘자료를 통해 본 낙랑군의 군현지배」, 『歷史學報』 189 ; 金秉駿(2008), 앞의 글.

적한 바 있듯이⁶ 현지 출신 속리를 포함한 비한인계에서 적극적으로 문서행정 담당 계층을 찾을 수 있다면, 한반도의 한자 변용과정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별도의 이해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국어학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연구가 한반도의 언어 사용방식이 중국과 상이했음을 강조하고 한자 수용과정에서 한반도만의 특수한 변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은 원칙적으로 낙랑에서 다수의 비한인이 문자 사용에서 배제되었다는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낙랑에서 사용했던 한문 어법을 지나치게 표준적이고 정통적인 단일한 전형(典型)으로 이해했던 것도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낙랑의 문자 사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고찰하여 한자의 전래와 수용 그리고 변용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만 낙랑군의 문자자료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낙랑군과 유사한 한대(漢代) 변군(邊郡)의 상황을 통해 문서행정의 상황을 추정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이른바 변체한문(變體漢文)을 한대 공문서와 비교하여 변용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한다.⁷

6 李成珪(2006), 「中國郡縣으로서의 낙랑」, 『낙랑문화연구』, 동북아역사재단, 61~71쪽.

7 이 글의 기본 착상은 Kim Byung-Joon(2010), 앞의 글 후반부에 기초하되 관련자료와 설명을 대폭적으로 보충·확대한 것이다.

2. 군현체제에서 식자(識字)계층

진한(秦漢)시대 군현체제에서 문자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의외로 매우 많은 사람이 문자생활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다름 아닌 한대 군현지배의 문서행정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한대 군현지배의 핵심은 문서행정이었다. 중앙이 결정한 황제의 주요 정책 방향은 물론 모든 행정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했다. 수호지진간(睡虎地秦簡)에 보이는 내사잡률(內史雜律)에는 “모든 정무(政務)는 문서로 해야 한다. 구두(口頭) 신청 혹은 대리인의 신청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⁸ 내군(內郡)의 일상적인 제민지배(齊民支配)는 물론이거니와, 변군의 방어 업무도 문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서행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분과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문서행정이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어느 정도로 시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자.

중앙에서 반포된 각종 정책은 군(郡)에 도달한 뒤 일반적으로 현(縣) → 향(鄉) → 이(里)의 행정조직을 따라 전달되었지만, 군사조직이 설치된 지역에는 도위부(都尉府) → 후관(候官) → 부(部) → 수(燧)의 순서로 전달되었다. 일반적으로 명령 접수 및 보고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일반 행정조직의 향, 그리고 군사조직의 부 단계에서였다.⁹ 거연한간(居延漢簡)에는 부에 배속된 후장(候長) 혹은 후사(候史)가 소속 수의 근무 기록을 비롯해 수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작성해서 보고한 많은 사례를 쉽게

8 『睡虎地秦墓竹簡』[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1978), 文物出版社], 秦律十八種, 105쪽 “有事請也, 必以書, 毋口請, 毋羈請. 內史雜.”

9 富谷至(2010), 『書記官への道』, 同氏著, 『文書行政の漢帝國』, 名古屋大學出版社.

찾을 수 있다. 또 한대 개인 명적(名籍)에 현명(縣名)과 이명(里名)이 보일 뿐 향명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명적을 향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호구 통계의 작업도 향에서 문서로 작성하여 현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문서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곳은 이와 수였다. 문서가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현견처(顯見處)]에 크고 분명하게 써두어[명백대편서(明白大扁書)] 백성들이 모두 잘 알도록 했다[영백성진지지(令百姓盡知之)].¹⁰ 이와 수의 모든 구성원이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표자인 이정(里正)이나 수장(總長)은 문서를 읽고 전달해야 했다. 이와 수의 구성원들이 일단은 이러한 문자에 자주 노출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거연한간은 변경지역에 설치된 수가 어느 정도 문서 기록과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다음의 간독은 문서 기록을 위한 목간이 다량으로 수급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다.

① 三月 錢四百

出入兩行二百 居攝二年正月壬戌省卒王書付門卒蔡愴
財用 檄廿三尺札百 (續齊內漢簡 99ES17SH1 : 2)

② 凌胡隧厭古隧廣昌隧各請輸札兩行隧五十繩廿丈須寫下詔書 (敦煌漢簡釋文：1944 : 釋TH.1684A)

10 『居延漢簡釋文合校』[謝桂華·李均明 編(1987), 文物出版社] 3255 : 合139.16 “五月甲戌居延都尉德庫丞登兼行丞事下庫城倉 用者書到令長丞候尉明白大扁書鄉市里門亭顯見.” ; 『敦煌懸泉置漢簡釋粹』[胡平生·張德芳 編(2001), 上海古籍出版社] “十一月己卯, 敦煌太守快·丞漢德敢告部都尉卒人, 謂縣: 叔盜賊史赤光·邢世寫移今□□□□部督趣, 西到各益部吏, □泄□捕部界中, 明白大扁西向亭市里□□□□, 令吏民盡知□□”(I 0309③ : 222) ; “五月壬辰, 敦煌太守彊, 長史章, 丞敞下使都護西域騎都尉, 將田車師戈己校尉·部都尉, 小府官縣, 承書從事下當用者, 西到白大扁西向亭市里高顯處, 令亡人命者盡知之, 上赦者人數太守府別之, 如詔書.”(II 0115② : 16)

①의 내용은 3월에 400전의 지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그 내역은 양행(兩行) 200개, 격(檄) 23개와 척찰(尺札) 100개였다. ②는 능호수(凌胡隧), 염호수(廛胡隧), 광창수(廣昌隧)의 3개 수에서 수마다 찰과 양행(兩行) 50개씩과 승(繩) 20장을 요청했던 내용을 전한다. 각 수마다 찰과 양행, 격(檄)과 같은 목간 서사재료를 구입하거나 지급했다는 것이다. 각 수마다 이 정도 양의 서사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수, 즉 봉수대마다 문서 기록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¹¹

또한 다음의 간독을 보면 원칙적으로 문서 처리 능력이 있어야 하는 하급관리 외에 수에 근무하는 수졸들도 종종 문서 처리에 동원되었던 것 같다.

- ③ 縣承塞亭各謹候北塞隧，卽舉表，皆和盡南端亭，亭長以札署表。到日時(敦煌漢簡釋文：2457：釋TH,2146)
- ④ 第十燧卒史譚……案甄，治簿(居延漢簡釋文合校 9356：合525.4+4500：合203.8)
- ⑤ □卒諷讀 火品約第十七候長勝客第廿三(居延新簡 3451：E.P.T52：33)

③에 따르면 정장(亭長)이 찰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반면, ④는 제10수(第十燧) 소속 졸사(卒史)인 담(譚)이 봉수대에서 맡아 했던 일 중에는 참호를 살피는 일과 함께 문서를 작성하는 일도[치부(治簿)]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봉수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약을 읽고 외울 것(諷讀)을 강제적으로 요구했다. ⑤에 의하

11 紀安諾(2007), 「漢代邊塞備用書寫材料及其社會史意義」, 『簡帛』第2輯, 488~489쪽.

면 졸(卒)도 그 대상이었다. 단지 ‘지품약(知品約)’이라고만 되어 있는 간독과 비교하면,¹² 이때의 ‘독(讀)’은 식자(識字) 능력을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었다.¹³ ①, ②와 같이 수에서 서사재료를 공급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③ 수장(隧長)¹⁴ 혹은 ④ 졸사(卒史)가 간단한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춘 것이 분명하며, ⑤의 졸(卒)처럼 기초문건을 ‘읽을[讀]’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 수장을 제외하고서도 수 안에 식자 능력을 갖춘 자들의 존재를 별도로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은 본래 문자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이들이 수졸로 차출되기 이전에 자신의 향리(鄉里)에서 문자교육을 받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변경에 도착한 뒤 변경의 방어 업무를 맡기 위해서 단기간 동안 새롭게 교육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향리에서는 이들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읽어야 할 필요가 적지만, 일단 수졸이 된 뒤에는 방위시설 간에 운영되던 문서행정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서 식자 능력을 강요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수졸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의 본적지로 되돌아가는데, 적어도 여생 동안 기초적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향촌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¹⁵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 수졸 중에 중원 내군에서 징발되어 온

12 『居延新簡』[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等 編(1990), 文物出版社] “省候長鞍馬追逐具吏卒皆知 火品約不”(7716 : E.P.F22 : 237) ; “知櫝 火品約”(3465 : E.P.T52 : 45)

13 『居延新簡』 “卒一人櫝 火品未習”(3488 : E.P.T52 : 66) ; “皆諷讀知條品方循”(5792 : E.P.T59 : 274)

14 『居延漢簡釋文合校』[謝桂華 等 編(1987), 文物出版社] “居延擊胡隧長孤山里公乘樂熹年卅徙補甲渠候史代張赦”(18 : 合3.19)도 隧長이 候史로 인사이동된 사례이지만, 候史로 발령된 것은 곧 隧長의 識字 능력을 의미한다.

15 邢義田(1993), 「漢代邊塞吏卒의 軍中教育-讀〈居延新簡〉札記之三」, 『大陸雜誌』 87-3.

농민들 외에¹⁶ 변경지역 토착민의 숫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하급관리들의 경우에는 현지인의 비율이 더욱 많았다. 한대에 장리(長吏)의 본격적 회피제를 철저히 지켰던 것은 윤만한간(尹灣漢簡)에서 잘 알 수 있지만,¹⁷ 하급관리의 경우는 현지인을 채용하였음이 거연한간에 잘 나타난다. 모미야마[糶山明]의 연구에 의하면 후장 이하 사리(士吏), 영사(令史), 위사(尉史), 후사(候史)들의 명적(名籍)을 조사한 결과,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액군(張液郡) 출신자가 담당했다고 한다. 특히 가장 말단 단위인 수장의 경우가 가장 분명했다. 거연도위부(居延都尉府)가 관할하는 수에는 거연현(居延縣) 출신자가, 견수도위부(肩水都尉府)가 관할하는 수에는 역득(鐸得)·거란(居蘭)·소무(昭武)·저지(氐池)의 각 현 출신자를 각각 임용하였다. 액제납하(額濟納河) 하류에 위치하는 거연현(居延縣)은 거연도위부(居延都尉府)에 가깝고, 역득(鐸得) 이하의 현은 하서통랑(河西通廊)의 견수도위부(肩水都尉府)에 더 가깝다. 즉, 수장은 가장 가까운 현에서 채용했던 것이다.¹⁸ 따라서 군사 말단조직에서 문서행정에 투입된 자들 대부분은 현지인으로서 새롭게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치한간(懸泉置漢簡)에 이 지역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강인(羌人)이 공문서를 우송하는 우졸(郵卒)을 담당했다는 것도 좋은 사례이다.¹⁹

16 『居延新簡』“戍卒東郡臨邑馬□里樊非人”(E.P.T52 : 5) ; “東郡白馬城西里大夫莊游戒”(E.P.T57 : 53A) ; “東郡白馬武始里張奴年卅五 武武”(E.P.T57 : 53B) 등.

17 李成珪(1998), 「前漢 縣長吏의 任用方式 : 東海郡의 例 - 尹灣漢牘〈東海郡下轄長吏名籍〉의 分析」, 『歷史學報』 160쪽.

18 糶山明(1999), 『漢帝國と邊境社會 - 長城の風景』, 中央公論社, 128쪽.

19 『敦煌懸泉置漢簡釋粹』“入東綠緯書一封, 敦煌長上詣公車. 元始五年二月甲子旦, 平旦受遮要奴鐵柱, 卽時使御羌行.”(II 0114② : 165) ; “檄一, 長史夫子印, 詣死者雍州牧治所. □□一封, 敦煌太守章, 詣死者雍牧治所. …… □檄一, 督郵印, 詣淵泉. 二月乙巳日食時, 佐永受御羌歸卽時歸行.”(I 0114① : 11) ; “入西書八, 郵行. …… 永平十五年三月九日人定時, 縣(懸)泉郵孫仲受石靡郵牛

일반 농민들, 그것도 중인 출신과 달리 한자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을 장액군(張液郡) 제현(諸縣)의 현지인이 과연 식자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식자 능력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자를 읽고 정해진 공문서 작성원칙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히 문서 출납을 처리하는 단계는 문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글을 작성하는 단계와 큰 차이가 있다. 한대에는 하급관리의 기본 자격조건으로 일정한 재산과 함께 회계(會計) 능력과 ‘능서(能書)’를 요구했는데,²⁰ 여기서 능서란 문자를 읽고 쓰는 식자 능력, 즉 전자(前者)를 일컫는다.

- ㉠ 肩水候官候史大夫尹□勞二月廿五日能書會計治官民頗知律令文年廿三歲長七尺五寸籛得成漢里。(居延漢簡釋文合校 7183 : 合306.19)
- ㉡ 候長公乘蓬士長當中勞三歲六月五日能書會計治官民頗知律令武年卅七歲長七尺六寸。(居延漢簡釋文合校 9597 : 合562.2)

㉠은 23세의 후사로서 문리(文吏)였고, ㉡는 47세의 후장(候長)으로서 무리(武吏)였지만, 모두 능서, 회계(會計), 파지율령(頗知律令)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서사 능력과 관련한 관리의 자격조건에는 능서와 다

羌。”(VF13C① : 5) ; “黃龍元年六月壬申, 使臣宏·給事中侍謁者臣榮……詔傳□吏甘使送康居諸國客, 斥候蓋典副, 羌……爲駕一封軺傳, 三月辛□……。”(II 0114④ : 277) ; “元延二年二月乙卯, 魚離置羌御離吉受縣(懸)泉置嗇夫敞。”(II 0111② : 21) ; “二月癸巳日中時, 受魚離羌人, 淵泉吏行……。”(V 1511② : 22) ; “羌屈調作柱, 二月戊戌作, 名御解, 鄉吏。”(II 0114④ : 83) ; “庚申, 羌人六人作, 辛丑, 左尉偉功至置, 嗇夫至置, 辛未, 在, 使馬子都轉粟十六石之澤上, 庚子……。”(II 0114③ : 606)

20 張金光(1984), 『論秦漢的學吏制度』, 『文史哲』1984-1.

른 별도의 자격, 즉 史가 있었다. 거연한간과 둔황한간(敦煌漢簡)에는 하급관리의 史와 不史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 ㉓ 居延甲渠第二隧長居延廣都里公乘陳安國年六十三建始四年八月辛亥除 不史 (居延漢簡釋文合校 EPT 51 : 4)
- ㉔ 玉門千秋隧長敦煌武安里公乘呂安漢年卅七歲長七尺六寸 神爵四年六月辛酉除功一勞三歲九月二日其卅日 / 父不幸死憲定功一勞三歲八月二日訖九月晦庚戌故不史今史 (敦煌漢簡釋文 1384 : 釋 MC.1186B)
- ㉕ 校甲渠候移正月盡三月四時吏名籍 第十二隧長張宣史 索府籍 宣不史 不相應 解何 (居延漢簡釋文合校 129,22+190,30)

한대의 하급관리는 임용 시 능서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상태는 史의 단계가 아니었다. ㉓의 사례를 보면, 건시(建始) 4년 8월 신해(辛亥)에 진안국(陳安國)이 거연(居延) 갑거후(甲渠候) 제2수장으로 임명되었던 사실을 전하지만 이때 그는 不史였다. ㉔는 신작(神爵) 4년 6월 신유(辛酉)에 여안한(呂安漢)을 옥문(玉門) 천추수장(千秋隧長)에 임명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옛 날에는 不史였으나 지금은 史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故不史今史). ㉕는 갑거후에서 올린 리명적(吏名籍)에 제12수장 장선(張宣)이 史라고 되어 있으나 부적(府籍)을 살펴보았더니 不史라고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어찌된 것인지 해명하라는 내용이다. 세 가지 사례 모두 수장의 사례인데, ㉓처럼 맨 처음에 임용될 때에는 不史 상태였으나 ㉔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史가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㉕처럼 거짓으로 史인것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不史 상태로도 얼마든지 수장의 직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에서 최소한의 문서 작성이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不史의 조건으로도 문서 작성

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㉞에서 언급된 무리(武吏)도 ‘능서’할 수 있었지만 不史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不史라고 해도 문서를 읽고 간단한 행정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일정한 과정을 거쳐 史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한 史의 지위는 거짓으로 꾸며야 할 정도로 많은 하급관리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율(秦律)과 한율(漢律) 모두 능서자(能書者)를 史와 구분하였다.

㉞ 下吏能書者，毋敢從史之事。²¹

㉞ 史·卜不足，乃除佐。…… 吏德罷·佐勞少者，毋敢擅史·卜。²²

史가 부족하면 보충하되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하다는 한율 ㉞의 규정은 능서자라고 해서 史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진율 ㉞에 비해 완화된 감이 있지만, 양자 모두 능서와 史의 자격을 구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과연 史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관련 규정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㉞ 試史學童以十五篇，能諷書五千字以上，乃得爲史。有以八體試之，郡移其八體課太史，太史誦課，取最一人以爲其縣令史，殿者勿以爲史。三歲壹并課，取最一人以爲尚書卒史。²³

㉞ 太史試學童，能諷書九千字以上，乃得爲史。又以六體試之，課最者

21 『睡虎地秦墓竹簡』秦律十八種，107쪽.

22 『二年律令與奏讞書』[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2007), 上海古籍出版社], 史律 481, 483.

23 『二年律令與奏讞書』史律 475~476.

以爲尙書御史史書令史。吏民上書，字或不正，輒舉劾。²⁴

① 尉律，學童十七已上，始試。諷籀書九千字，乃得爲史，又以八體試之，郡移大史并課，最者以爲尙書史，書或不正，輒舉劾之。²⁵

㉠㉡㉢는 시간적으로 각각 전한 초기, 전한 중기 이후, 후한이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단계에서는 史의 자제(子弟)가 세습하는 경향이 많았던 반면, ㉡㉢단계에는 이미 일반인에게 학동(學童) 자격을 개방하였다.²⁶ 또 ㉠단계에는 ‘15편’이라고 규정한 특정 교재의 내용을 공부하고 5천자 이상을 암기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史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에서는 9천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史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의 ‘15편’에 대해서는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의 ‘사주(史籀) 15편’으로 추측하는데, 이것이 전서(篆書)로 쓰인 자서(字書)이므로, 시험 내용에는 글자의 암송(諷) 외에도 전서와 같은 자체[字體, 서(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²⁷ 史가 된 이후에도 승진을 위해 자체[㉠의 ‘팔체(八體) ①의 ‘육체(六體)』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돈황지역에서 수집된 삭설(削屑)에는 여러 서체를 연습한 흔적이 확인된다.²⁸ 이와는 달리 史와 구분되는 ‘능서자(能書者)’는 간단한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면 그뿐이었으므로 쉽고 빨리 쓸 수 있는 서체, 즉 예서체(隸書體)를 익히는 정도에 머물렀을 것

24 『漢書』卷30 藝文志, 1721쪽.

25 『說文解字』序.

26 漢初까지는 史의 자제로서 17세 이상인 자가 學官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점차 하급관리가 능력에 따라 史에 임명되기도 하면서 史의 세습은 사라졌다.

27 宮宅潔(2009), 『秦漢時代の文字と識字』, 富谷至 編, 『漢字の中國文化』, 昭和堂.

28 初山明(2008), 『削衣, 觚, 史書』, 汪濤·胡平生·吳芳思 主編, 『英國國家圖書館藏斯坦因所獲未刊漢文簡牘』, 上海辭書出版社.

이다.

그러나 서체만은 아니었다. 史의 기원이 문자 해독 능력자 또는 기록자에서 비롯되었고 그 때문에 역사의 기록과 전승을 담당했지만, 그와 동시에 고대의 문자가 갖고 있는 주술적 성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史는 점복·제사관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좌전(左傳)』과 같은 기록에는 史가 무(巫)·축(祝)·종(宗)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으로, 그 직분은 일상적인 제의(祭儀)도 주관하면서 몽(夢)·일식(日食)·혜성(彗星)·강신(降神) 등과 같은 이변과 신이(神異)에 대한 해석과 그 구체적인 길흉의 내용까지 예측하여 중요한 정사(政事)와 전쟁, 외교 자문역도 담당하였다.²⁹ 한대 태사령(太史令)은 천문(天文)·역법(曆法)·성점(星占)을 관장하였으며, 실제 사마천(司馬遷)도 ‘태사(太史)’ 전통을 계승하여 천운(天運)의 이법(理法)에 맞는 지상질서 확립에 참여하고자 했다.³⁰ 그렇다면 史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식자(識字)만이 아니라 습득해야 할 전문지식이 필요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㉞를 기록한 전한 초기 사율(史律)에는 선진시대의 전통을 이어 史에 대한 규정 외에 복(卜)과 축(祝)이 되기 위한 규정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서(史書) 3,000자와 복서(卜書) 3,000자를 암송하고 써야 하며, 축이 되기 위해서는 7,000언(言)을 암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과 축의 조건인 ‘사서 3,000자’, ‘복서 3,000자’, ‘7,000언’은 단지 관련 글자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

29 李成珪(2002), 「史官의 傳統과 中國 歷史敍述의 特色」, 『강좌 한국고대사』 제5권 문자생활과 역사서의 편찬, 가락국사적개발원, 222쪽.

30 李成珪(1987), 「『史記』의 構造的 理解를 위한 試論」, 同氏著, 『史記 - 中國古代社會의 形成』, 서울대출판부, 20~24쪽.

에 담긴 전문지식을 시험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³¹ 따라서 史가 익혀야 하는 ‘15편’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글자지식을 뛰어넘는 전문지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⑥단계에서 5,000자가 ①②단계에서 9,000자로 바뀐 것도 그것이 글자의 양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변경에서 간단한 문서 작성을 담당하였던 모든 수장이나 수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거연한간에 능서라고 표현된 자들을 모두 史라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식자 능력에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군사조직의 마지막 단위인 수에서도 간단한 식자 능력을 갖춘 자들을 배치하여 문서행정을 처리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史의 단계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단한 문서 작성을 위해 기초적인 식자 능력을 훈련받을 경우 얼마든지 실무행정에 투입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³²

사실 간단한 식자 능력은 결코 군사조직에서만 교육하는 것은 아니

31 특히 卜이 된 이후에 3만 자 이상을 암송할 수 있는 자를 승진시킨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3만 字는 글자의 숫자가 아니라 전문지식이 담긴 서적의 양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앞에 쓰인 3,000字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양의 서적이라는 뜻이며, 전문지식의 습득이라는 점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二年律令與奏讞書』史律 478 “卜學童能誦書史書三千字，徵卜書三千字，卜九發中七以上，乃得爲卜，以爲官廵。其能誦三萬以上者，以爲卜上計六更。缺，試脩法，以六發中三以上者補之。”；479~480 “以祝十四章試祝學童，能誦七千言以上者，乃得爲祝五更。大祝試祝，善祝·明祠事者，以爲冗祝，冗之。不入史·卜·祝者，罰金四兩，學佻二兩。”

32 『急就篇』과 居延漢簡 공문서의 글자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急就篇』을 익혔을 때 거연한간 정도의 공문서 작성에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急就篇』의书名도 문서행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글자들을 익혀 필요한 업무에 ‘急就’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康美京(2002), 「漢代 識字教育과 文書行政能力—『急就篇』의 構成과 內容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다. 다수의 농민이 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향리(鄉里)에서 소리(小吏)가 되기 위해 문자 능력[학서(學書)]을 배울 수 있었던 경로는 문헌자료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 ㉠ 農事未起, 命成童以上, 入大學, 學五經 …… 命幼童入小學, 學書篇章. (『四民月令』正月條)³³
- ㉡ (王充)六歲教書 …… 八歲出於書館, 書館小僮百人以上, 皆以過失袒謫, 或以書醜得鞭, 充書日進, 又無過失. (『論衡』自紀篇)

㉠은 『사민월령(四民月令)』에 기재된 것으로서 유동(幼童)은 소학(小學)에, 성동(成童)은 대학(大學)에 들어가 교육을 받는 후한(後漢) 당시의 상황을 전해준다. ㉡도 왕충(王充)이 6세 이후 서관(書館)에서 학습한 상황을 전해주지만, 특히 서관에 소동(小童)이 100여 명 이상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당시 출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소리(小吏)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소리에게 반드시 요구했던 식자 능력에 대한 교육이 향촌에서 이루어졌다는 위의 사례들은 결코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농한기(農閑期)를 특별히 지정한 것에 주목하면, 그 대상으로 농민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³⁴ 『한서(漢書)』에 의하면 전한(前漢) 경제기(景帝期) 촉군(蜀郡)에서 문옹(文翁)이 지방 학관을 세운 이후 전국적으로 학관이 세워졌는데, 학업 이후 특별한 혜택을 보장했기 때문에

33 『四民月令』에서는 8월과 11월에도 각각 동일한 내용을 전한다. “八月, 命幼童入小學.” ; “十一月, 命幼童讀孝經·論語·篇章, 入小學.”

34 エノ・ギ・レ(2009), 「古代の識字能力を如何に判定するのか」, 高田時雄 編, 『漢字文化三千年』, 臨川書店, 138쪽. 『漢書』卷24 食貨志에도 小學에서의 학습을 계절과 연계시키고 있다(“時月, 餘子亦在于序室, 八歲入小學, 學六甲五方書計之事.”).

이곳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져 부자들은 뇌물까지 썼다고 한다.³⁵ 이것은 군현(郡縣)의 학관에 많은 일반민의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요컨대 진한시대 군현체제에서는 향촌이나 군사조직의 말단까지 문서행정이 관철되었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하급관리는 물론 일정한 수의 일반민까지 간단한 문자 교육을 받아 문서 작성에 동원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중원의 한인계(漢人界)뿐 아니라 한자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토착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최근까지도 문맹률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 확실히 그 식자 범위가 의외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곧 모든 행정 절차를 문서로 진행하려고 했던 문서행정 구조의 유무에서 비롯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서행정에 필요한 식자 능력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었으며, 토착인을 비롯한 일반인의 문서행정 참여는 이 중 초급 수준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학습·사용하면서 습득된 것이었다.

35 『漢書』 卷89 循吏傳 “富人至出錢以求之.” 3626쪽.

3. 낙랑군과 주변지역의 한자 사용

이상 한대(漢代) 서쪽 변경에 해당되는 거연(居延) 지방을 중심으로 하급관리와 일반민의 식자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곳은 낙랑군과 같이 전한(前漢) 중기 이후 군현지배가 실시되었던 곳이었다. 물론 낙랑군 관련 문헌 기록에 하서사군(河西四郡)과 같은 대규모 사민(徙民)이 특기되지 않았다는가, 흉노 등 이민족과의 전쟁과 대치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가 하는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낙랑군에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사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³⁶ 한(韓) 등 주변세력과 대치하면서 이를 방어하는 군사조직, 즉 동부도위(都尉)·남부도위라는 도위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은 하서사군과 동일하다. 두 지역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율령(律令)과 원칙에서 운영하던 군현이었다는 점, 더욱이 한 무제 때 설치한 변경 군현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양자를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충분히 유효하다.

먼저 낙랑군에서는 거연·돈황에서처럼 공문서 목간이 다량으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문서행정이 기본적인 군현지배의 근간이었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모든 정무(政務)는 구두(口頭)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률(秦律) 내사잡률(內史雜律)의 규정을³⁷ 낙랑군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하였을 것이다. 거대한 영역을 단일한 황제 지배체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확히 문서로 기록한 행정이 불가피한 것이었겠지만, 더욱이 낙랑군처럼 중앙과 언어습관이 다른 곳의 지배는 문서행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전한말에 편찬한 『방언(方言)』에

36 金秉駿(2006), 앞의 글, 174~176쪽.

37 각주 9번 참조.

는 당시 한(漢)왕조는 여러 방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³⁸ 서로 다른 방언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중앙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두가 아닌 문서를 사용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 한대 군현의 장리들은 본적지 회피제도 원칙에 따라 임명했는데, 이 때문에 장리와 현지 출신인 속리(屬吏)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도 문서행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까닭 중의 하나였다. 낙랑군이 변군이었기에 오히려 문서행정이 더 필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자. 진한시대 호적(戶籍)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서 작성은 향(鄉)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향에서 작성한 호적의 부분(副本)은 현(縣)에 제출하여 현 단위에서 집계했고, 그 뒤 군(郡)으로 보고하여 군에서 다시 한 번 집계했다. 낙랑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호적을 작성하고 집계하였을 것이다. 평양(平壤) 정백동(貞柏洞) 364호 묘에서 출토한 ‘낙랑군초원사년현별호구다소□□(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 목간에 낙랑 25개 현의 호구수가 집계되어 있는 사실은 이러한 호적문서 행정의 실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아직 호적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고, 향과 현급 단위의 집계 문서를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군의 집계는 향 단위의 호적 작성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³⁹ 그렇다면 낙랑군에서도 향에서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다수의 소리(小吏)들을 상정해야 마땅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향리에서 교육받았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38 雷紅霽(2007), 『秦漢歷史地理與文化 分區研究-以『中記』,『漢書』,『方言』爲中心』,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40~145쪽.

39 金秉駿(2006), 앞의 글, 160쪽.

소리가 되기 위해 6~8세의 유동(幼童)들이 서관(書館)에 들어가 글 읽기와 쓰기 등 소학(小學)을 배웠고, 그 숫자도 100여 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물론 내군과 변군의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변군이라고 해서 문서행정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닌 이상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식자 교육을 크게 중시했을 것이다. 왕충(王充)과 함께 100여 명의 학동(學童)이 교육을 받았던 서관도 장강 하류의 회계군(會稽郡) 상우현(上虞縣)이었다. 한 무제는 회계 이남 지역의 백성들을 강회(江淮) 사이로 사민시킴으로써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군현지배를 포기했으므로⁴⁰ 회계가 곧 실질적인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상우현은 군치(郡治)도 아닌 일개 현에 불과했다. 전한 경제시기 촉군(蜀郡)에 학관(學官)을 설치한 이후 전국적으로 학관을 확대했다는 기록도⁴¹ 식자 교육이 증원에 국한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낙랑군의 학관 혹은 서관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식자 능력은 반드시 문서작성이라는 직무를 갖고 있는 향의 소리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 가령 중앙에서 낙랑군을 거쳐 향까지 내려온 각종 문서는 다시 최하위 행정단위인 리로 전달해야 했고, 이 경우 그 숫자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리에서 이 문서를 읽어 백성들에게 알리는 자들의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공식 문서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문자가 쓰였다. 낙랑군의 유물 중에는 벽돌, 기와, 옷감, 동전, 인수(印綬) 등에 쓰인 문자가 적지 않다.⁴² 다만 전문(磚文)이나 와문(瓦文) 혹은 옷감에 쓰인 문자는 길상(吉祥)의 의미가 훨씬 강하고, 동

40 『史記』 卷114 東越列傳 “詔軍吏皆將其民徙處江淮間，東越地遂虛。” 2984쪽.

41 『漢書』 卷59 循吏傳, “至武帝時，乃今天下郡國皆立學校官，自文翁之始云。” 3626쪽.

4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第1卷,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전에 쓰인 전문(錢文)은 실용적 의미를 갖지만 왕망(王莽) 시기를 제외하곤 모두 오수전(五銖錢)이므로 문자 식별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자가 유통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회의 문자생활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인수도 실질적인 봉인 기능 외에 권위의 상징으로 수여되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식자 능력을 전제로 해야 그 권위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적어도 묘석(墓石)이나 동경(銅鏡)에 적힌 한자는 그것을 만드는 공장(工匠)의 문자 지식이 반영된 결과다. 또 문자는 일상 경제생활에서도 널리 쓰였다. 시조(市租)를 수납할 때, 재산을 양도할 때, 계약을 맺을 때마다 권서(券書)를 작성하여 관부에 제출해야 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동시에 그 위조 여부도 철저히 감시했다.⁴³ 민(民)이 본격지를 떠나 여행할 때에도 반드시 자신의 신분과 지참한 물품 세목을 적은 통행증을 발급했다.⁴⁴ 아직까지 낙랑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거연이나 기타 지역에서 확인되는 일상 문서, 즉 일반민들 사이에 오간 편지, 계약서, 통행증, 비문(碑文) 등을 낙랑군에서도 사용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낙랑군의 일반민은 어떤 방식으로 식자(識字) 교육을 받았을까? 순전히 개별적인 필요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습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독학으로 소리(小吏)가 되었다는 문헌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⁴⁵ 문서행정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서관(書館)

43 『二年律令與奏讞書』 戶律 334~336 ; 金布律 429~432.

44 宋眞(2005), 「漢代 通行證 制度와 商人의 移動」, 『東洋史學研究』 92.

45 『漢書』 卷76 王尊傳 “少孤, 歸諸父, 使牧羊澤中, 尊竊學問, 能史書, 年十三, 求爲獄小吏.” 3226쪽; 『後漢書』 卷76 第五訪傳, “少貧孤, 常傭耕以養兄嫂, 有閑暇, 則以學文.” 2475쪽.

이외의 사적인 학습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한 대에는 또 하나의 주요한 방식이 가능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군사조직의 속성 교육이었다. 낙랑군에는 다른 변경지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군사조직이 있었다. 거연의 문서행정이 도위부(都尉府) - 후관(候官) - 후(候) - 수(隧)로 이어지는 방위조직에서 시행한 것이었듯이, 낙랑군의 남부도위와 동부도위에서도 동일한 조직과 문서행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군사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역시 다수의 수졸을 문서행정에 투입되어야 했을 것이다. 거연지역의 봉수대에서 문서 작성을 위한 서사재료를 구입하고, 여기에 소속된 수장(燧長) 혹은 그 휘하의 졸(卒)들이 간단한 문서 작성에 종사했듯이, 낙랑의 군사조직에서도 동일한 상황을 추정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들의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으로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들 및 기초적인 식자 능력을 가진 자들까지 상정한다면 그 수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복역 이전에 식자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일반민이 수졸(戍卒)로 징집되어 방위업무에 복역하면서 기초적인 속성 교육을 받아 기초적인 문서행정에 동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수졸은 일정한 복역기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들은 귀향한 이후 군역에 복무하면서 습득했던 식자 능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문자생활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거연의 군사조직에 동원된 자들 중 타군(他郡) 출신 외에 본군(本郡)에서 징발한 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것처럼, 낙랑군도 대부분 본군의 군현민이 복역했을 것이다. 흉노세력이 큰 위협이었던 당시 국제 정세로 보아 타군 출신은 북방 혹은 서북방 변경에 주로 투입한 반면, 낙랑군에 타군 출신 수졸을 강제 동원했을 가능성은 적다. 낙랑지역 토

착민의 언어습관은 내지와 달랐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전국적인 문서행정의 시행을 위해 강제로 식자 교육을 받아 문서행정에 동원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군현을 처음 설치했을 때에는 인근의 군현에게서 일정한 인력 수급이 불가피했을 터인데, 이것이 곧 낙랑군이 설치되자마자 문서행정 인력인 속리(屬吏)를 인근(隣郡)인 요동군(遼東郡)에서 충당한 까닭이다.⁴⁶ 그러나 이들은 곧 낙랑 본군 출신으로 대체되었고, ‘한계(漢係)’는 물론 ‘동이계(東夷係)’ 군민도 속리로 충원했다.⁴⁷ 거연이나 둔황지역에서 ‘비한인계’, 특히 강인(羌人)들이 문서행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컨대 낙랑군의 속리 및 일반 군현민의 경우 모두 본군 출신이 직접 식자 교육을 받아 문서행정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기에 따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가령 후한 초 도위(都尉)를 폐지하면서⁴⁸ 자연히 휘하의 변경 방위 업무도 크게 축소했을 것이며, 이런 변화로 다시 봉수대의 문서 처리 업무와 수졸 교육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한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변군의 방어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이나 고구려 및 부여 등 주변지역으로부터 공격이 이어진 것을 고려하면 낙랑군의 기본적인 방어체계는 지속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군현 내부의 각종 문서행정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을 것이며, 기타 일상생활에 쓰이는 문자도 변함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충당하기 위한 학교제도 또한 변동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후한 이후 군현 하급관리의 규모가 전한

46 『漢書』卷28下 地理志 “玄菟樂浪 …… 郡初取吏於遼東.” 1658쪽.

47 李成珪(2006), 앞의 글, 61~71쪽.

48 『後漢書』卷1下 光武帝紀 建武六年條 “初罷郡國都尉官.” 51쪽.

에 비해 수십 배 이상 증가했다면,⁴⁹ 간단하나마 식자 능력이 필요한 범위가 오히려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낙랑군의 문자생활이 군현지배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롯한 것이라면, 낙랑군이 313년 소멸할 때까지 군현지배의 기본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상 문서행정에 필요한 문자의 보급과 그로 인한 식자계층의 확대는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낙랑군에서도 한대의 다른 군현과 마찬가지로 행정, 군사,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문서행정이 철저히 엄수되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문자 능력을 갖춰야 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직접 문서 작성에 관여한 관리였겠지만, 일반민도 수졸로서 혹은 상품 거래를 위한 필요 등으로 식자 능력을 교육받았다. 중요한 점은 한인과 현지인[토인(土人)]의 구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낙랑 군현민이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문자생활에 노출되었던 것은 결코 한에서 망명해 온 자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한인계(漢人係)가 많아서도 아니었다. 낙랑군의 지배구조가 엄격한 문서행정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구조적 필요성으로 '비한인계'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식자 교육을 받고 문자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다.

한편 한자의 수용이 낙랑군에 국한되었던 것만도 아니었다. 한반도의 여러 정치세력도 한의 중앙정부에게서 각종 문서를 수시로 주고받았던 낙랑군 등 한사군의 영향을 받아 문자생활을 개시(開始)하고 있었다. 불내(不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동부도위에는 옥저(沃沮) 등 영동(嶺東) 7현(縣)이 속해 있었고, 그 치소(治所)는 불내였다. 그 후 동부도위가

49 金秉駿(1997),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古代中國의 理解』 3집.

폐지되면서 이 현들은 낙랑군의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불내는 여전히 공조(功曹)와 주부(主簿) 제조(諸曹)를 두고 예민(隸民)을 충원했다.⁵⁰ 즉, 동부도위하에서 경험한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통치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예민이 다만 동부도위에 속했던 나머지 6개 현과 정치적 관계를 동반하지 않는 한 불내 자체의 문서행정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할 수는 없다. 한편 고구려의 경우 현토군의 지배를 받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경험을 과도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 고구려의 관직체계 속에 주부(主簿)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고구려의 문서행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 즉 고구려 국초(國初)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도⁵² 고구려의 문서행정 시기를 충분히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 한(韓)의 경우도 어느 정도 한자에 접촉할 기회는 열려 있었다. 후한 말 한(漢) 제국의 동요에 따라 낙랑군민(樂浪郡民)이 대거 한으로 도망했다는 기록으로 문자의 전파를 상정해볼 수 있으며,⁵³ 진한(辰韓)의 우거수(右渠帥) 염사착(廉斯矰)의 일화에 등장하는 한인 포로 1,500명도⁵⁴ 한의 문자 이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한에서는 고구려나 불내만큼이라도 문서행정의 시행을 추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4세기 이전

50 『三國志』卷30「魏書-東夷傳」,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 846쪽.

51 『三國志』卷30「魏書-東夷傳」, “其國有王, 其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雛加, 主簿, 優台丞, 使者, 皐衣先人, 尊卑各有等級.” 843쪽.

52 『三國史記』卷20「高句麗本紀」, 嬰陽王 11年條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53 『三國志』卷30「魏書-東夷傳」, “桓靈之末, 韓濊強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851쪽.

54 『三國志』卷30「魏書-東夷傳」引用 魏略,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850쪽.

한반도의 한자 사용은 대부분 낙랑군 등 한사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구려와 불내 등지에서도 낙랑군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문서행정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그들의 문자생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낙랑군에서는 군현지배의 특성상 문자생활을 수반한 문서행정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자를 접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낙랑군이 약 400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서행정이 군현지배의 필수 요소인 이상 위에서 설명한 문자생활 역시 40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했을 것이 분명하다. 단기간 간헐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수십 세대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비한인계를 포함한 다수의 군현민이 사용한 것이라면, 낙랑군의 한자 사용은 내군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더 이상 이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특수한 변군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런 낙랑의 문자생활이 지속적으로 주변부에 영향을 미쳤다면, 주변부가 수용한 한자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문제를 간과했던 것은 그 사용 주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다. 낙랑군의 문자생활 주체를 소수의 한인에 국한하여 이해한다면 한반도의 한자 수용과 변용은 여전히 고구려와 백제 혹은 신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자연히 그 수용 시기도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언어습관의 차이가 크게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낙랑군에 거주했던 비한인계도 넓은 의미의 식자 계층 범위에 넣을 수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이들

의 언어습관이 고구려나 백제와 같은 한반도의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한자의 수용과정에서 변용은 낙랑에서 일찌감치 시작되었을 것이다. 한자와 접촉하는 일이 제한적이었던 주변지역에서 가 아니라 항상 한자를 접하고 사용하는 환경에서 변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군현지배의 문서행정 구조속에서 지속적으로 한자와 접촉했던 이들이야말로 한반도의 한자 수용과 변용의 주체였다는 것이다. 소수의 한인이 한자를 전하고, 이를 고구려 등 한반도의 소수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변용이 발생했다는 종래의 이해는 교정해야 한다. 낙랑군에 편입된 다수의 비한민계가 한자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접촉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언어습관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4. 다양한 형태의 어법과 선택

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타자의 문자를 자신의 언어습관에 맞게 새롭게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미 나와있는 여러 형태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훨씬 무난하다. 적어도 초기 단계의 변용은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낙랑군이 소멸된 이후 한반도의 한자 사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변용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통용되는 다양한 한자 사용 형태 중에서 한반도 언어습관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접할 수 있는 곳은 낙랑군 이외에는 상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특히 고구려에서 변용된 주요 사례로 ‘中’ ‘之’ ‘節’ 등이 있다. 일견 한자 본래 의미와는 달리 쓰인 사례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이 결코 한반도에서만 고유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1) ‘中’의 용법

고구려 등 한반도의 한문 속에 등장하는 ‘中’자를 둘러싸고 이를 한문의 원뜻과는 별개로 간주하여 처격조사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물론 이기문(李基文)은 이미 처격 표시로서 ‘中’의 용법을 북위(北魏)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후 후지모토(藤本行夫)는 거연한간과 운몽수호지 진간에서 유사한 용법을 찾아냈다.⁵⁵ 남풍현(南豐鉉)도 삼국시대의 ‘中’은 한문에서 쓰이는 원뜻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⁵⁶ 김영욱(金永旭)은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해 전자를 이원론적 관점, 후자를 일원론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⁵⁷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진한시대 한문 특히 공문서에 등장하는 ‘中’의 의미가 이미 허사(虛辭)가 되었다는 점이다. ‘中’의 처격조사 용법으로 자주 언급하는 사례가 ‘某月中’의 사례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운몽수호지 진간 및 거연한간을 살펴보자.

㉔ 爰書. 男子甲縛詣男子丙, 辭曰, 甲故士伍 居某里 迺四月中盜牛⁵⁸

55 藤本行夫(1996), 「古代朝鮮の言語と文字文化」, 岸俊男 編, 『日本の古代』 14 ことばと文字, 中央公論社, 246~250쪽.

56 南豐鉉(2000), 『吏讀研究』, 태학사, 64쪽.

57 金永旭(2010), 「古代國語의 處所格 助辭에 대하여-‘中’을 중심으로」, 『국어학』 57집.

58 『睡虎地秦墓竹簡』 封診式, 252쪽.

- ㉔ 鄉某爰書。男子甲自詣。辭曰。士伍。居某里。以迺二月不識日去亡。
迺二月不識日去亡⁵⁹
- ㉕ 魏郡鄴平祿里爵大夫年卅七今年二月中戌詣居延與⁶⁰
- ㉖ 謹驗問威辭迺二年十月中所屬候史成遂徙補居延第三塢長威以/至
今年三月中廿三日遂復以錢廿予威日以償威所送遂絮錢⁶¹
- ㉗ 坐乃四月中不審日行道到屋蘭界中與戍卒函何陽爭言⁶²
- ㉘ 永始二年正月中。禹病。禹弟宗自將驛牝胡馬一匹來視禹。禹死。其
月不審日。宗見塞外有野橐佗□□□。
- ㉙ 四月中用錢六百五□□/日竟⁶³

운몽수호지 진간 및 거연한간에는 ‘某月中’의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㉔, ㉕, ㉖, ㉗, ㉙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中’은 일견 ‘가운데’, ‘안’이라는 본래의 뜻이 다분히 남아 있는 실사(實辭)처럼 보인다. 즉, 단순히 ‘모월에’라는 의미보다는 대체로 특정한 사건이나 행정 처리 과정 중 월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모월의 알 수 없는 어느 날’의 의미로 ‘某月中’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⁶⁴ 특히 ㉖의 ‘금년삼월중입삼일(今年三月中廿三日)’은 3월 가운데의 23일이라는 뜻이 분명하다.

그런데 ‘某月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굳이 그달의 어느 특정한 날을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사실

59 『睡虎地秦墓竹簡』封診式, 278쪽.

60 『居延新簡』2601 : E.P.T51 : 17.

61 『居延新簡』2930 : E.P.T51 : 301.

62 『居延漢簡釋文合校』250 : 合13.6.

63 『居延新簡』287 : E.P.T5 : 66

64 李成珪(2006), 앞의 글과 南豊鉉(2000), 앞의 책 『吏讀研究』은 삼국시대의 ‘中’도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을 알 수 있다. ㉗의 경우는 전체 원서(爰書) 중 남자 갑(甲) 자신, 즉 원고(原告)의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전체 맥락은 굳이 4월 며칠이라는 구체적 날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4월이라는 시점만 밝히려는 상황이었다. ㉘는 명적(名籍) 혹은 원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도 맥락상 특정 일자를 표기할 필요성이 없다. ㉙는 4월 한 달 동안에 사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역시 특정 일자와는 관련이 없다.

반면 ‘某月’의 어느 특정 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나 그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某月中’이 아닌 별도의 용법이 존재했다. ㉚의 ‘모월불식일(某月不識日)’과 ㉛의 ‘모월중불심일(某月中不審日)’, ㉜의 ‘모월불심일(某月不審日)’이 이에 해당한다. ㉚의 경우는 ㉗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진술에 해당되는데, 이때 남자 갑이 ‘모월불식일’라고 한 것은 ‘某月中’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뜻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특정 일자를 말하고자 하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용법이다. ㉛의 ‘모월중불심일’도 원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며, 이것도 분명히 4월의 어느 특정날 일자를 언급하고 싶으나 기억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㉜는 앞부분에는 ‘정월중(正月中)’이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는 ‘모월불심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병(禹病)’의 사건은 특정 일자를 표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中’으로 표기한 반면, 그 일자를 표기해야 하나 알 수 없었던 ‘중견새의 유아탁타(宗見塞外有野橐佗)’의 사건에 대해서는 ‘불심일’로 표기했던 것이다. ‘某月中’의 ‘中’은 실사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다.

‘中’이 허사가 되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某月中’과 ‘某月’을 동일한 텍스트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운몽수호지 진간에는 ㉗, ㉘와 같은 ‘某月中’의 용례와 함께 ‘中’을 생략하고 ‘某月’이라고만 쓰는 경우가 함께 나타난다. 운몽수호지진간 편년기(編年

記)의 “삼칠년(卅七年), 공장평(攻長平), 십일월(十一月), 감산(敢産)”이라는 기록이 이에 해당된다.⁶⁵ 11월에 감이 출생하였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11월이란 11월중이라는 뜻이다. 즉 ‘11월’이라고만 쓰지만 역시 11월 중의 어느 날이라는 뜻이라는 것이다.⁶⁶ 이렇게 동일한 뜻인데도 ‘中’을 붙이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것은 ‘中’의 의미가 허사가 되었음을 말해 준다.

1세기 비문(碑文)에서도 ‘某月中’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남성 언사현(偃師縣)에서 발견한 후한 초기 시정리(侍廷里) 부로탄(父老儼)에는 “이영평십오년유월중[以永平十五年六月中], 조기탄(造起儼)”이라는 기록이 있다. 계약문이라는 비문의 성격상 조직을 만든 시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중’이라고 표기한 것은 ‘6월의 알 수 없는 어느 날’이 아니라 ‘6월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도 송백망석각(宋伯望刻石)의 “원년시월중[元年十月中] …… 영화이년사월중(永和二年四月中)”의 사례도 구체적 일자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10월과 4월이라는 달을 표기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⁶⁷

전래문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가령 『사기』 「고조본기(高祖本紀)의 “십일월중(十一月中), 항우과솔제후병서(項羽果率諸侯兵西)”, “십이월중(十二月中), 수지희(遂至戲)”, 여후본기(呂后本紀)의 “삼월중(三月中), 여후불(呂后祓)”, “칠월중(七月中), 고후병심(高后病甚)”, 「무제본기(武帝本紀)의 “기하육월중(其夏六月中), 분음무금위민사위수후토영방(汾陰巫錦爲民祠魏雕

65 『睡虎地秦墓竹簡』編年記, “卅七年, 攻長平, 十一月, 敢産.” 5쪽.
 66 敢이 출생하기 바로 2년 전 희가 출생하였을 때에는 “卅五年, 攻大野王, 十二月甲午雞鳴時, 喜産”이라고 하여 날짜는 물론 시간까지 정확히 적었다.
 67 永田英正 編(1994), 『漢代石刻集成』圖版·釋文篇, 同朋社, 24쪽, 92쪽.

后土營旁), “사월중(四月中), 지봉고수봉언(至奉高脩封焉)” 등은 본기의 성격상 모두 구체적 일자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달에 발생했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방식이며, 동일한 본기의 앞뒤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某月’의 형식과 구별되지 않는다. 『사기』 연표 중 “사월중(四月中), 효문태후봉(孝文太后崩), “사월중[十月中], …… 모반(謀反)” 등에서도 ‘某月中’의 용법이 나오지만, 동일한 연표의 앞뒤에는 ‘某月’이라고만 쓰인 경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⁶⁸

이와 같이 진한시대 자료에는 ‘某月中’과 ‘某月’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동일한 자료 안에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즉, ‘中’에 ‘그달의 알 수 없는 어느 날’이라는 본래 의미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中’이 붙어 있는 경우와 생략된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中’의 허사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⁶⁹

한편 ‘某月中’의 ‘中’이 갖는 허사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했던 학자들도 ‘某月某日中’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中’을 중국의 한문과는 다른 용법, 즉 처격조사로 볼 수 있다고 여겨왔다. 사실 ‘某月中’을 ‘그달의 알 수 없는 어느 날’이라고 본다면 ‘某日中’도 얼마든지 ‘그날의 알 수 없는 어느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某月中’은 실사이고 ‘某月某日中’은 허사라는 논리는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某月中’이 ‘某月’과 동일한 뜻으로 쓰인 것처럼 ‘某日中’도 ‘某日’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자는 모두 ‘中’은 허사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허

68 『史記』 卷18 高祖功臣侯者年表 “建元元年, 三月, 安侯辟方元年.” 924쪽 ; “征和三年, 十月, 仁與母坐祝詛, 大逆無道, 國除.” 930쪽.

69 ㉔의 ‘今年三月中廿三日’과 ㉕의 ‘四月中不審日’은 ‘某月’과 ‘某日’ 사이에 ‘中’이 들어간 것도 ‘某月某日’이라는 일상적 용법과 비교할 때 虛辭的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의 용법으로 쓰인 ‘某月某日中’이 한반도의 특수한 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 고대의 간독에도 ‘某月某日中’이라는 사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성 장사시 주마루오간(走馬樓吳簡)에서는 “팔월일일중(八月一日中) 적조사(賊曹史) 곽매(郭邁)가 말하기를”⁷⁰이라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는 중국에서도 ‘某月某日中’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또 시간 외에 장소를 지칭하는 어간 뒤에 ‘中’이 붙는 경우도 원래는 그 ‘가운데’라는 뜻에서 기원했지만 종종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는 조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기』 진섭세가(陳涉世家)에 ‘전초문중(戰譙門中)’이라는 표기는 ‘초문 안에서’라기보다 ‘초문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⁷¹ ‘匈奴中’, ‘羌中’은 각각 ‘흉노에서’, ‘羌에서’라는 의미이다. 하천의 이름에 中이 붙으면 ‘그 하천에서’라는 뜻이 된다. ‘漢中’은 한수지역, ‘沅中’은 원수지역, ‘瀘中’은 누수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운데’라는 의미보다 ‘그곳’이라는 장소, 즉 처소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中’의 ‘中’이야말로 ‘에서’라는 처격 조사로 발전하는 근본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용법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시간 명사 뒤에 ‘中’이 붙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 명사 뒤에 ‘中’이 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구려의 ‘中’자 용법은 이상에서 살펴본 진한시대의 공문서에서 보이는 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중원고구려비의 ‘오월중(五月中)’이 나 경주 서봉총(瑞鳳冢) 출토 은합우명(銀盒朽銘)의 ‘삼월중태왕경조(三月中太

70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走馬樓簡牘整理小組 編 (2003), 文物出版社] 第一卷 1.35 “□大夫事 八月一日中賊曹史郭邁白.”

71 『史記』卷48 陳涉世家, “獨守丞與戰譙門中.” 1952쪽.

王敬造)의 ‘中’에 대해서 이를 처격조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정확한 날짜를 기록할 수 없어서 ‘中’이라고 쓴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사적 성격이 많은 진한시대의 ‘中’의 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진한시대와 마찬가지로 ‘某月中’ 외에 ‘某月’이라는 사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평안북도 태산군(太山郡) 용산리(龍山里) 농오산성(籠吾山城) 석각에는 ‘을해년팔월(乙亥年八月)’이라고만 적혀 있다. 김영옥은 이 점에 주목하여 ‘月中’형과 ‘月’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례를 중원고구려비 안에 공존하는 ‘군중상인(郡中上人)’과 ‘군상인(郡上人)’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中’의 수의(隨意)적 성격을 강조했다.⁷² 그리고 한문의 실사로 사용하였다면 수의적 성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를 이두적 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중국에서도 실사가 아닌 자의적 용법, 즉 허사적 성격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이두 용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상에서 필자가 설명한 것은 신라시대 이후 널리 사용하고 있는 ‘中’자의 이두 용법이 중국의 진한시대 용법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진한시대 이래 ‘中’의 용법이 결코 고정적이지 않으며 이미 상당히 허사적 성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구려 등에서 보이는 초기 용법도 결코 어느 하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용법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한반도 초기 이두적 용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한반도의 자체 변용이 아니라 진한시대 공문서의 ‘中’의 용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72 김영옥(2007), 「중원고구려비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8.

2) ‘之’의 용법

진한시대 ‘之’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뒤에 붙어 문장의 마지막에 출현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많은 경우 ‘之’를 지시대명사 용법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간독자료 중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而令丞弗明知, 甚不便. 今且令人案行之, 舉劾不從令者, 致以律.⁷³

㉡ 爲都官及縣效律: 其有贏, 不備, 物值之, 以其價多者罪之.⁷⁴

㉢ 諸侯人來攻盜, 不堅守而棄去之若降之, 及謀反者, 皆要斬.⁷⁵

㉠의 ‘案行之’는 각지를 돌며 잘 살펴 시행토록 하라는 뜻이다. 이때의 ‘之’를 굳이 대명사로 본다면 앞부분 내용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 지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허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은 도관(都官)과 현의 재물 조사 관련 법령을 만들 때, 만약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물건의 가격을 따져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죄를 묻는다는 내용이다. ‘物值之’의 ‘之’나 뒷부분 ‘罪之’의 ‘之’ 모두 지칭 대상이 불분명하다. ㉢의 “기거지 약강지(棄去之若降之)”도 “버리고 가거나 항복한 경우”라는 뜻으로, 이때의 之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두 허사적 용법으로 간주된다.

본래 한문의 ‘之’는 여러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 ‘之’가 타동사와 자동사 뒤에서 대명사로 기능하는 것이 기본 형식이지만, 대명사 기능을 상실한 채 허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之’가 문장의 끝에 오는 경

73 『睡虎地秦墓竹簡』 語書 15쪽.

74 『睡虎地秦墓竹簡』 秦律十八種 113쪽.

75 『二年律令與奏讞書』 賊律 1~2.

우 ‘焉’ ‘矣’ ‘也’와 같은 종결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⁷⁶ 거연한간에 상투적 용법으로 자주 등장하는 ‘敢言之’, ‘白之’⁷⁷ 등은 이런 사례에 속한다. 그런데 ‘之’는 이렇게 동사에 이어진 형태가 아니라 명사 뒤에 이어져 문장의 종결형 어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㉔ 駕傳馬, 一食禾, 其顧來又一食禾, 皆八馬共. 其數駕, 毋過日一食. 駕縣馬勞, 又益壹禾之.⁷⁸

이 조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수레를 끄는 전마(傳馬)에게 사료[禾]를 한 차례 먹이고, 돌아올 때 또 한 차례 먹인다. 모두 8마리가 한꺼번에 먹도록 한다. 여러 차례 수레를 끌더라도 하루에 한 차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레를 끄는 현마(縣馬)가 지쳤을 때는 한 차례 더 사료를 준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우익일화지(又益壹禾之)”는 곧 “우익일화(又益壹禾)”와 동일한 뜻이며, 마지막의 ‘之’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㉔은 ㉑, ㉒, ㉓처럼 동사 뒤에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명사 뒤에 이어지며 문장의 종결형 어미로 사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진한시대 간독자료에서는 ‘之’가 문장 끝에 쓰여 종결형으로 사용할 때 이 글자를 특별히 크게 써서 다음 글자와 거리를 확보하거나 ‘之’의 맨 아래 획을 오른쪽 하단 방향으로 두껍게 써서 ‘之’가 갖고 있는 종결

76 裴學海(1954), 『古書虛字集釋』, 中華書局, 731쪽, 748쪽, 751쪽.

77 『居延漢簡釋文合校』 619: 合32.21 “願復白之杜卿麥事, 叩頭幸甚伏地言.”; 4176: 合183.15B “會壬申旦府對狀毋得以它爲解各 署記到起時令可課. 告肩水候官候官所移卒責不與都吏 □ 卿 所舉籍不相應解何記到遣吏抵校及將軍未知不將白之.”; 6240: 合260.20A “兵書以七月旦發書堂煌將軍, 隨將軍自言饒得第卅六卒 □, 欲留至門君卒問宣白之.”

78 『睡虎地秦墓竹簡』 秦律十八種 47쪽.

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또 공문서에서 ‘敢言之’의 아래쪽에 많은 공백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는 이를 읽는 사람이 ‘之’를 문장의 종결형 어미로 받아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⁷⁹

물론 이상의 용례만으로 상기 진한시대의 ‘之’를 종결형 어미로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차라리 ‘中’과 같이 허사적 성격이라고 보는 편이 무난할 것 같다. 그렇지만 고구려 등 한반도에서의 ‘之’의 용법은 이러한 진한시대 공문서의 용법에서 비롯한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고구려를 비롯해 한반도 이두문의 ‘之’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⁸⁰ 이를 ‘~다’로 해석했던 주요한 원인은 이런 형식이 일반적 한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격적 한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격한문(正格漢文)에서는 종결형 어미로 ‘也’ ‘哉’ 등이 쓰이는 반면 ‘之’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래서 필자는 진한시대 공문서에 등장하는 ‘之’와 ‘也’의 빈도수를 비교해보았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한대의 공문서인 거연구간의 경우 ‘之’가 644회, ‘也’가 48회 출현하였고, 거연신간의 경우 ‘之’가 739회, ‘也’가 41회 출현하였다. 진대의 공문서로 판단되는 이야진간의 경우에는 공표된 내용 중 ‘之’가 112회 출현하는 것에 비해 ‘也’는 2회에 불과하다. 율령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운몽수호

79 물론 秦漢시대 공문서에서는 ‘之’자 외에도 여러 글자에 동일한 형태의 破磔이 확인되는데, 그것은 맨 처음 공문서의 위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富谷至(2009), 『書體·書法·書藝術』, 富谷至 編, 『漢字の中國文化』, 昭和堂] 그러나 공문서에는 ‘敢言之’와 같은 상투어가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이런 현상이 습관화되면서 ‘之’는 종결형 어미의 시각적 기능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80 南豐鉉(2005), 『韓國 古代吏讀文의 文末語助辭 ‘之’에 대하여』, 『口訣研究』 15 등.

지진간 중 진율십팔종(秦律十八種) 부분에는 ‘之’가 240회, ‘也’는 29회 출현하며, 장가산한간 이년율령에는 ‘之’가 231회에 비해 ‘也’가 40회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之’에는 동사 뒤의 허사적 용법 외에도 소유격, 지시대명사, 동사, 인명 등 다양한 의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문서에 등장하는 ‘之’의 용례 중 ‘敢言之’가 차지하는 빈도는 거연구간의 경우 644회의 ‘之’ 중 323회, 거연신간의 경우는 739회의 ‘之’ 중 387회, 이야진간의 경우는 112회의 ‘之’ 중 ‘敢言之’가 83회였다. 무려 50~74%에 달하는 비율이다. ‘敢言之’의 ‘之’가 본래 문법상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진한시대 균현의 관리가 이 정도의 비율로 등장하는 용례에 접하면 이를 종결형 어미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 ‘敢言之’ 외에 동사 뒤에서 허사적 용법 혹은 종결형 어미로 사용한 경우를 합치면 그 숫자는 적어도 2/3에 이른다. 반면 종결형 어미로서 ‘也’는 매우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율령(律令)에 나타나는 ‘也’는 종결형 어미보다는 조건형 어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⁸¹

반면 공문서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문서에서는 종결형 어미로서 ‘也’가 출현하는 빈도가 높았다. 『논어』의 경우는 금본(今本)의 경우 ‘之’가 612회, ‘也’가 533회에 이른다. 간독이라고 해도 서적 혹은 조칙(詔勅)이나 어서(語書)와 같은 훈령(訓令) 부류에서는 종결형 어미로 ‘也’가 자주 출현한다. 장차 더 세밀한 통계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상의 분석으로 대체적으로 첫째, 하급관리와 수졸 등이 작성하거나 접촉한 율령과 공문서에는 ‘也’와 같은 종결사가 적은 반면 ‘敢言之’ 등 허사로서의 ‘之’를

81 『二年律令與奏讞書』 20, “其縣官脯肉也, 亦燔之”; 『二年律令與奏讞書』 29, “鬼薪白粲毆庶人以上, 黥以為城旦舂. 城旦舂也, 黥之.”; 『二年律令與奏讞書』 122, “刑盡而賊傷人及殺人, 先自告也, 棄市.” 등.

종결형 어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하급 관리나 수졸들이 비교적 작성하기 힘든 『논어』 등 서적과 초직 등에서 ‘也’를 종결사로 자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변체한문 혹은 초기 이두적 용법으로 지적되는 종결형 어미 ‘之’의 용법도 진한시대 공문서에 등장하는 용법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적어도 고구려 등지에서 확인되는 종결형 어미 ‘之’가 ‘也’보다 많다고 해서 이를 한반도의 특수한 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특수한 용법으로 동사에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명사에 이어져서 종결형 어미로 쓰인 사례가 확인되는 것도 진한시대 공문서에서 ‘之’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3) ‘節’의 용법

한반도의 고유 한문 사례로는 ‘中’과 ‘之’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節’도 중요한 증거로 종종 거론된다. 중원고구려비문에 ‘節’자가 ‘이때에’의 뜻으로 쓰이는 예가 세 번이나 나타나며, 평양성 각자 성석(刻字城石)에서도 ‘지휘하여’ 혹은 주격조사의 의미가 확인되는데, 이런 용법은 이후 신라에 전파되었고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⁸² 확실히 비문 중간에 갑자기 ‘節’자가 출현하므로 그 뜻을 사전적 의미로 해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를 이두적 표현으로 이해한 것 같다. 필자도 이 글자가 이후 한반도의 특수

82 南豊鉉(2000), 「中原高句麗碑文의 解讀과 그 吏讀의 性格」, 『中原高句麗碑研究』 학연문화사 ; 南豊鉉(2006), 「上古時代에 있어서 借字表記法의 發達」, 『口訣研究』 16.

한 용법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기존 이 해처럼 고구려인이 중국에서 한문을 수입하되 독자적인 방법으로 수용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용법을 진한시대 공문서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3세기 말에 해당하는 운몽수호지진간 그리고 기원전 2세기 초에 해당되는 장가산한간 이년율령에서는 ‘節’이 ‘節’로 읽힌다. ‘節’자 위에 艸 혹은 竹을 덧붙여 놓았지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원 고구려비 등에 나타난 ‘節’자의 윗부분 모습이 艸로 보이는 것과 그 자형이 일치한다.

- ① 其前入者是增積, 可也; 其它人是增積, 積者必先度故積, 當題, 乃入焉. 後節(節)不備, 後入者獨負之.⁸³
- ② 更隸妾節(節)有急事, 總冗, 以律稟食; 不急勿總.⁸⁴
- ③ 官畜夫節(節)不存, 令君子無害者若令史守官, 毋令官佐. 史守.⁸⁵
- ④ 芻稟節(節)貴于律, 以入芻稟時平賈入錢.⁸⁶
- ⑤ 實官佐. 史被免. 徒, 官畜夫必與去者效代者. 節(節)官畜夫免而效, 不備, 代者與居吏坐之.⁸⁷
- ⑥ 軍吏緇擧縣道, 得和爲毒, 毒矢謹臧, 節(節)追外蠻夷盜, 以假之, 事已輒收臧. 匿及弗歸, 盈五日, 以律論.⁸⁸

83 『睡虎地秦墓竹簡』秦律十八種·倉律 35쪽.

84 『睡虎地秦墓竹簡』秦律十八種·倉律 50~51쪽.

85 『睡虎地秦墓竹簡』秦律十八種·置吏律 95쪽.

86 『二年律令與奏讞書』田律 242쪽.

87 『睡虎地秦墓竹簡』秦律十八種·效律 118쪽.

88 『二年律令與奏讞書』賊律 19. 그밖에도 많은 용례를 찾을 수 있다. 『睡虎地秦墓竹簡』秦律十八種·內史雜 109쪽, “毋敢以火入藏府. 書府中. 吏已收藏, 官畜夫及吏夜更行官. 毋火, 乃閉門戶. 令令史循其廷府. 節(節)新爲吏舍, 毋依藏府. 書府.”; 『睡虎地秦墓竹簡』效律 118쪽, “實官佐. 史被免. 徒, 官畜夫必與去者效

①은 나중에 조사했을 때 재고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물건을 넣은 자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②는 갱예첩(更隸妾)에게 급히 일을 시킬 일이 있으면 모두 집합시킨다는 뜻이고, ③도 관색부(官畜夫)가 없으면 군자 무해자(君子無害者) 혹은 영사(令史)로 하여금 임의로 맡게 한다는 내용이다. ④는 추고(芻藁)가 울령이 규정한 가격보다 비싸면 그 당시 시가로 처리하라는 뜻이다. 모두 명사에 이어서 ‘節’을 쓰고 있는데, 주어부를 강조하는 형식이다. 고구려의 용법 중 중원고구려비의 ‘수자절(隨者節)’이라는 평양 각자성석의 ‘소형문달절(小兒文達節)’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종래에는 ‘節’을 ‘이때에’ 혹은 주격조사로 특수하게 이해했지만, 필자 생각으로는 주어 뒤에 이어져 그것을 강조하는 ‘節’의 의미로 보면 충분하다. ⑤는 원래 관색부가 전임자와 함께 물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후임자에게 건네주어야 하지만 관색부가 면직된 후에 물자를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후임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⑥은 독화살은 잘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만이(蠻夷)나 도적을 추격할 때에는 이를 빌려준다는 뜻이다. ⑤와 ⑥ 모두 문장 앞부분의 내용을 받아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이지만, 구절 첫머리에 출현한다. 사실 ‘節’의 고전적 의미 속에는 ‘지금’, 즉 ‘이때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상서(尙書)』 문후

代者。節(節)官畜夫免而效不備，代者與居吏坐之。”；『睡虎地秦墓竹簡』效律 123쪽，“上節(節)發委輸，百姓或之縣就及移輸者，以律論之。”；『睡虎地秦墓竹簡』效律 124쪽，“尉計及尉官吏節(節)有劾，其令丞坐之，如它官然。”；『睡虎地秦墓竹簡』法律答問 239쪽，“何謂琮？琮者，玉檢也。節(節)亡玉若人貿易之，視檢知小大以論及以齋負之。”；『睡虎地秦墓竹簡』法律答問 240쪽，“諸侯客節(節)來使入秦，當以玉問王之謂也。”；『睡虎地秦墓竹簡』封診式 268쪽，“節(節)死久，口鼻或不能涓然者，自殺者必先有故，問其同居，以答其故。”；『睡虎地秦墓竹簡』封診式 276쪽，“●訊丙，辭曰：「外大母同里丁坐有寧毒言，以卅餘歲時選。丙家節(節)有祠，召甲等，甲等不肯來，亦未嘗召丙飲。」”

지명(文侯之命)편의 “즉아어사(卽我御事), 망혹기수준재궐복(罔或耆壽俊在厥服)”이라든가 『사기』 채택전(蔡澤傳)의 “즉군하거언(卽君何居焉)”의 ‘卽’은 모두 ‘지금[今]’의 의미를 갖는다.⁸⁹ 따라서 이 문장도 ‘이제’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의 뜻은 새로운 조건절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 사실 ①, ②, ③도 모두 조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중원고구려비에 나오는 ‘공간(共看), 절(節)’이나 ‘환래(還來), 절(節)’도 이런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卽’의 의미로 이해하면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다. 물론 569년과 589년 평양 각자성석의 ‘작절의(作節矣)’처럼 문장 말미에 나오는 ‘節’은 진한시대 자료 중에서 동일한 사례를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도 ‘卽’이 갖는 부수적 의미로서 ‘바로 그것’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⁹⁰

요컨대 고구려의 ‘節’은 고구려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변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구려 비문에 보이는 ‘節’은 이미 진한시대 ‘卽’의 통자(通字)로 공문서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 한반도의 대표적 이두식 표현이라고 지목되어 온 ‘中’, ‘之’, ‘節’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반도의 이두식 표현이라고 한 것들은 결코 한반도에서만 고립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한시대 이래 공문서 등 여러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동안 이런 용법들이 이른바 ‘순한문(純漢文)’, ‘정격한문(正格漢文)’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변체한문이라고 이해해왔지만, 이는 ‘순한문’, ‘정격한문’의 범위를 사서삼경과 같은 서적에 보이는 전형적 한문이라는 의미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진한시대 간

89 裴學海(1954), 앞의 책, 605쪽.

90 裴學海(1954), 앞의 책, 603쪽.

독에서 확인되는 공문서에서의 용법도 공식적 행정문서와 율령에 출현하는 것이므로 ‘순한문’, ‘정격한문’의 범위에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한반도의 이두식 표현을 중국 내지의 공문서에서도 확인한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변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中’, ‘之’, ‘節’ 용법은 『논어』 등과 같은 서적류 혹은 고급 한문으로 서사된 문서의 용법과는 구별되며, 오히려 진한시대 하급관리와 수졸 등이 접촉하거나 작성할 수 있는 행정문서에서 쉽게 확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진한제국의 문서행정은 제국 전체에 걸쳐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국 내의 다양한 언어 전통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즉, 전국적인 문서 시스템 속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과도 빈번히 문서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낙랑군에서 문서행정을 담당했던 다수의 하급관리와 수졸들은 바로 이러한 ‘中’, ‘之’, ‘節’ 등 다양한 용법에 접촉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이들이 모두 『논어』와 같은 사서삼경 수준의 서적을 읽고 이해했을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보다는 문서행정에 투입되어 반복적으로 공문서와 율령을 사용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문서에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中’, ‘之’, ‘節’의 용법에 익숙해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분명 한반도의 언어 전통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지만, 이들이 새로운 용법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문서행정에 참여했던 자들은 수백 년에 걸쳐 공문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법에 접촉하면서 이것들 중 자신들의 어법환경과 비교적 부합한 것을 자주 썼으며, 이후 고구려 등 주변지역으로 퍼지면서 한반도의 두드러진 전통으로 자리잡아갔던 것

으로 생각된다.⁹¹

5. 맺음말

이 글은 낙랑군의 문자생활을 한반도의 한자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그동안 낙랑군의 문자생활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이유가 문자 습득 계층을 한인으로 한정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낙랑군 연구는 낙랑군의 구성원을 ‘한인계’와 ‘비한인계’로 구분하고 이런 이중적 차별 구조 위에서 군현을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비한인계’ 역시 편호의 대상이며 효율적인 율령지배를 위해 최대한 한화되어야 할 자들이었다. 문자생활에서도 ‘한인’과 ‘비한인’의 구분은 크지 않았다. 내군은 물론 변경지역에서도 ‘비한인계’ 일반인 중에 식자 능력을 갖춘 자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군현지배에 따른 정밀한 문서행정을 위해 상당한 수의 하급 관리 혹은 문서담당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낙랑군의 구조적 문자 보급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각종 한자의 변용 형태도 낙랑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도 좋다. 한반도의 특수한 변체한문 혹은 초기 이두적 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中’, ‘之’, ‘節’의 용례를 진한시대 문서에서 찾아 분석한 결과, 경전 혹

91 어법상의 변용만이 아니라 異體字 및 書體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漢代의 史는 8가지 서체를 익혀야 했으며, 後漢 이후에도 禮書와 함께 草書體가 자주 확인되는 만큼 이를 알지 못하면 문서행정을 처리할 수 없었다. 한반도에서 이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이체자의 접촉과정 중 특정 한자의 서체가 선택되어 정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 서적류보다 행정문서나 율령에서 사용되는 용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반도의 한자 수용과 변용과정은 낙랑군의 문서행정에 투입된 비한인계 하급관리 혹은 수졸들이 진한시대의 행정문서를 접촉하면서 이루어져갔다는 것이다. 낙랑군 ‘비한인계’의 언어습관이 고구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한자의 변용은 한자와 접촉이 많지 않은 주변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언어습관에 맞추기 위해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진한시대 공문서의 다양한 한문 용법을 충분히 접한 낙랑 현지민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에 적합한 형태를 인지하고 이를 다른 사례보다 자주 사용하면서 이후 이두 용법으로 정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필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는 기본적으로 한인에게서 전래했고 그들이 전파했지만, 식자 능력의 정도는 한인 여부가 아니라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 사회의 구조가 결정했다. 진한시대의 군현지배에는 문서행정이 필수였다. 따라서 군현지배가 계승되면 한자 사용이 많아지고 그것을 포기하면 이에 따라 한자 사용도 줄어들었던 것이다.

둘째, 낙랑군의 지배를 ‘한인’과 ‘비한인’의 종족적 이중지배로 보는 기존의 이해 때문에 낙랑군의 문자생활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했었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자는 한인이 독점한 것이 아니었다. 낙랑군의 호적에 편호된 ‘비한인’의 다수가 속리 혹은 수졸이 되어 문서행정을 담당했던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한자 변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순한문’을 지나치게 전형화했다. 사실 상대편이 전형적이어서 자신의 변용을 설

명하기 편한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이두적 용법도 중국의 한문을 ‘순한문’으로 정형화시키고 이것과 다른 측면이 있음을 과도하게 강조했던 것 같다. 그러나 ‘순한문’으로 쓰인 경전류 등을 제외하고도 행정 시스템에 사용하는 다양한 용법이 존재했으며, 일반인들은 이러한 용법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한은 매우 다양한 문화와 언어 전통을 포함하는 제국이었으며, 그것들이 전국적 문서행정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유통되었다. 낙랑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어법과 서체가 혼용된 문서를 접하고 사용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적으로 자주 사용하면서 이러한 서습관을 곧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계승한 것이다.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億那由他不可說
億那由他不可說
億那由他不可說
億那由他不可說

於諸師長恭敬尊重
元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利見善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교

1. 머리말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일찍 국가로서 성장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중국왕조와도 일찍부터 활발하게 교류했다. 고구려는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다양한 선진문물을 도입했을 텐데, 그 가운데 한자문화는 그 자체가 선진문물이면서 동시에 이를 수용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만주나 한반도 지역의 다른 정치체에 비해 상당히 일찍부터 한자문화를 도입하고 발전시켰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 한자문화의 수준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런데 한자(漢字)는 고립어(孤立語)·단음절어(單音節語)인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한 표의문자(表意文字)이다. 고립어는 일반적으로

각 낱말이 하나의 형태소(morpheme)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사(接辭)나 조사(助辭) 등이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고구려어가 속한 한국어는 교착어(膠着語)-다음절어(多音節語)로 분류되는데, 각 낱말은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어근(語根)에 어미를 첨가하여 문법적 의미와 기능을 표시하므로 접사나 조사가 발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두 언어의 어순도 주어+목적어+서술어(한국어)와 주어+서술어+목적어(중국어)로 크게 차이가 난다.¹

따라서 고구려가 일찍부터 한자문화를 수용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두 언어의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한자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다양한 변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는 중국대륙의 선진문물을 수용한 다음, 한반도 중남부나 일본 열도로 전수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양상은 한자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만약 고구려에서 한자문화의 변용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언어권인 한반도 중남부나 일본열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양상을 검토하여 동북아 문화교류 사상 고구려의 위상을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1 이기문(1968), 「고구려의 언어와 그 특징」, 『백산학보』 4, 126~142쪽 ; 이기문(1991), 「삼국시대의 언어 및 문자생활」, 『한국사상사대계』 2, 정신문화연구원, 481~482쪽 ; 정광(2003), 「한반도에서 한자의 수용과 차자표기의 변천」, 『구결연구』 11, 55~56쪽.

2.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정

1) 한군현을 통한 한자문화의 전파와 수용

기원전 108년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고조선 고지와 그 주변 일대에 군현(郡縣)을 설치했는데,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현도군(玄菟郡)을 설치했다. 최근 기원전 45년에 작성한 낙랑군(樂浪郡)의 현별(縣別) 호구부(戶口簿) 목간이 출토했는데, 이는 낙랑군에서 호구조사 등 문서행정을 시행하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² 이로 보아 현도군에서도 문서행정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한자문화도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 다만 이 시기의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한자문화의 전파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 ① 漢時賜鼓吹技人，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高句麗令主其名籍，後稍驕恣，不復詣郡，于東界築小城，置朝服衣幘其中，歲時來取之，今胡猶名此城爲幘溝溲，溝溲者，句麗名城也。(『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高句麗조)
- ② 玄菟郡，武帝元封四年開，高句驪，莽曰下句驪，屬幽州，戶四萬五千六，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縣三：高句驪，遼山，遼水所出，西南至遼涿入大遼水，又有南蘇水，西北經塞外，上殷台，莽曰下殷，西蓋馬，馬訾水西北入鹽難水，西南至西安平入海，過郡二，行二千一百里，莽曰玄菟亭。(『漢書』 권28 하 지리지)

- 2 윤용구(2009), 「평양 출토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연구」, 『목간과 문자연구』 3.
- 3 김병준 교수는 漢代 변방의 戍卒이나 향리의 小吏 등이 문서행정에 동원된 사례를 바탕으로 樂浪郡에도 한자를 해독하는 식자층이 상당히 폭넓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파악했다[김병준(2009), 「낙랑의 문자생활」, 『고대 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발표집].

한편 현도군은 기원전 82~75년경 맥인(緡人)의 공격을 받아 소자하(蘇子河) 방면으로 쫓겨났다. 그렇지만 소자하 방면의 제2현도군이 다시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여러 집단과 교류하며 이들을 분리 통제했는데, 사료 ①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압록강 중상류의 여러 집단이 제2현도군의 치소(治所)까지 나아가 조복(朝服)과 의책(衣幘)을 받았으며, 현도군 산하의 고구려현령(高句麗縣令)이 각 집단의 명단(名籍)을⁴ 관리했다고 한다. 이는 압록강 중상류의 각 집단의 명칭을 한자로 표기하였으며, 각 집단의 수장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 후반 무렵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각 집단별로 한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인물이 적어도 한두 명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료 ②가 주목된다. 상기 사료에는 현도군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도군의 수현(首縣)인 고구려현(高句麗縣) 관내에는 요산(遼山)에서 발원하여 대요수(大遼水)로 흘러드는 요수(遼水)와 그 지류인 남소수(南蘇水)가 있다고 한다. 여기의 대요수는 요하(遼河), 대요수의 지류로 나오는 요수는 요하의 지류인 혼하(混河), 또 요수의 지류인 남소수는 혼하의 지류인 소자하(蘇子河)에 각각 해당한다. 현도군의 수현(首縣)인 고구려현이 혼하-소자하 유역에 위치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료는 제2현도군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상기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한서(漢

4 이 名籍을 고구려 지역의 호구 현황을 기재한 戶籍으로 파악하기도 한다[小林聰(1991), 「漢時代における中國周邊民族の内屬について」 『東方學』 82, 35쪽], 그렇지만 居延漢簡에서 名籍이라는 용어가 각종 명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데서 보듯이[永田英正(1980), 「簡牘よりみたる漢代邊郡の統治制度」, 『講座敦煌: 敦煌の社會』, 大同出版社, 72~73쪽] 상기 名籍도 문맥상 제2현도군에 조복-의책을 받으러 오던 여러 集團의 명단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書』 지리지의 군국별(郡國別) 호구수나 소속 현(縣)의 현황이 전한(前漢) 말의 일괄 자료라는 점도 이를 시사한다.⁵

그런데 상기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도군의 호구수는 4만 5006호, 22만 1845명인데, 소속 현은 3개에 불과하다. 현수(縣數)에 비해 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 이에 양자의 불일치를 현도군의 변천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⁶ 『한서』 지리지의 호구수나 현수가 기본적으로 전한 말의 일괄 자료라는 점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도군 속현인 서개마현(西蓋馬縣) 관내에 마자수(馬訾水)와 염난수(鹽難水)가 흐른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여기의 마자수는 독로강, 염난수는 압록강으로서⁷ 서개마현은 대체로 두 강이 합류하는 위원-초산 일대로 비정된다.⁸ 제2현도군 시기인 전한 말경에도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한군현의 일부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현도군의 호구수는 4만 5000여 호나 된 반면, 현수는 3개에 불과했다. 압록강 중상류에 잔존한 현도군의 속현이 이 지역 전체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왕망(王莽)이 서개마현의 명칭을 ‘현도정(玄菟亭)’으로 개칭했다고 하는데, 한대 변경지역(邊境地域)에서 정(亭)은 변새(邊塞)를 구성하는 최말단 초계조직(哨戒組織)을 지

5 『漢書』 「지리지」의 군국별 호구적은 元始 2년(기원전 2)의 上計簿에 의한 것이며, 所屬縣目은 元延-綏和 年間(기원전 9~8년)에 작성되었다고 한다[윤용구(2006), 「고구려의 흥기와 책구루」,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12쪽의 각주 17 참조].

6 盧泰敦(1999),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와 문화』, 서울대 출판부, 325쪽 ; 윤용구(2006), 앞의 글, 10~11쪽.

7 盧泰敦(1999), 앞의 글, 323쪽.

8 윤용구(2006), 앞의 글, 14쪽.

칭하던 명칭이다.⁹ 이는 왕망 당시 서개마현이 행정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주변지역의 동정을 살피는 전초기지로 전락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4만 5000여 호는 제2현도군이 직접 관할하던 호구수로 보기는 힘들다. 대체로 당시 제2현도군이 간접적인 분리통제책을 시행하던 고구려 지역의 호구까지 포함한 숫자이거나, 아니면 제1현도군 시기의 지배 범위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제1현도군의 호구수를 기재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만약 전자라면 전한 말경 압록강 중상류의 각 집단이 자체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제2현도군에 보고했다고 볼 수 있으며,¹⁰ 후자라면 제1현도군 시기에 호구조사를 시행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대의 호적 작성이나 호구집계는 향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각 향에서 현으로, 각 현에서 군(郡)으로 보고되는 절차를 거쳐 군 단위의 호구집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낙랑군의 호구집계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¹¹ 현도군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도군에서도 현 아래의 향이나 현도군에 내속한 압록강 중상류의 각 집단 단위로 호구집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기원전 1세기경에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문서행정을 시행하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상과 같이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현도군 설치 이래 한자문화가

9 永田英正(1980), 앞의 글, 60~70쪽.

10 漢代에는 주변국 군장이 漢에 內屬한 경우 자신이 거느린 戶口數를 신고했고, 漢 王朝은 이들을 ‘王朝의 民’으로 파악했으며, 內屬民은 납세의 일종으로 遠珍의 奇物을 貢獻했을 뿐 아니라 ‘約’의 형태로 각종 의무사항을 정했다고 한다[小林聰(1991), 앞의 글].

11 김병준(2008), 「낙랑군 초기의 편호과정과 ‘胡漢稍別」, 『목간과문자』 창간호.

전파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때의 한자문화 전파는 현도군의 군현지배나 분리통제를 위한 문서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피동적인 양상을 띠었고, 현도군의 군현지배가 단기간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한자 해독 차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된다.

한편 고구려는 서기 1세기 중후반경 제2현도군의 분리통제책을 극복하고 국가체제를 확립했다.¹² 이로써 고구려는 한자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체제 확립 이후 고구려는 후한(後漢), 조위(曹魏), 서진(西晉) 등과 활발하게 교류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외교문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고구려는 122년에 후한에게서 조서(詔書)를 받고,¹³ 233년에는 손오(孫吳)에 보낼 표문(表文)을 작성한¹⁴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일찍부터 외교문서와 같은 고급 한문을 구사하는 관리나 식자층을 보유했다고 추정된다.¹⁵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 ③ [吳主]因宣詔於句驪王宮及其主簿，詔言有賜爲遼東所攻奪，宮等大烹，卽受詔。[…] 宮遣主簿笏咨·帶固等出安平，與宏相見。(『三國志』 권47 吳書 吳主傳 嘉禾 2년조)
- ④ 公孫度之雄海東也，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破之。[…] 景初二年，大尉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高句麗조)

12 盧泰敦(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韓國古代史研究』 17 ; 여호규(2000),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의 성격과 성립기반」, 『韓國古代史研究』 17.

13 『後漢書』 권85 고구려전 : “遂成還漢生口，詣玄菟降。詔曰 …”.

14 『三國志』 권47 吳書 吳主傳 嘉禾 2년조 : “宮遣皂衣二十五人送旦等還，奉表稱臣，貢貂皮千枚，鷓雞皮十具.”

15 송기호(2002),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강좌』 제5권, 25~27쪽.

3세기 중반 동천왕대에 해당하는 사료 ③에서 주부(主簿)는 손오의 조서(詔書)를 왕과 함께 받고, 외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부가 수행한 외교문서 수령 등의 업무는 중앙·지방관청의 연사(掾史) 중 수석(首席) 관리로서 문서관장과 인신감수(印信監守) 등을 수행하던 한대 주부의 직책과 유사하다.¹⁶ 또한 사료 ④에 따르면 고구려가 공손씨(公孫氏) 정권이나 조위(曹魏)에 원군(援軍)을 파견할 때 대가(大加)와 더불어 주부에게 군대를 인솔하도록 했는데, 실제 군사활동은 독자적인 군사력을 동원하고 지휘한 대가가 담당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주부는 주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료 ③을 참조하면 각종 외교문서의 작성과 해독이 주요 업무였다고 파악된다.

이로 미루어 3세기 중반경 고구려의 주부는 외교문서의 해독이나 작성 등을 총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당시 주부는 대가와 더불어 책을 착용하였으며, 절풍(折風)을 착용한 소가(小加)와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⁷ 또한 초기 관등제에서 대(大)주부는 최상위 관등인 패자(沛者)와 동격으로 파악되며,¹⁸ 이로 보아 주부가 대가에 비견할 정도로 높은 정치적 지위를 보유했다고 추정된다. 즉, 고구려의 주부가 현도군 시기의 속리직(屬吏職)에서 기원했다 하더라도¹⁹ 3세기 중반에는 고

16 俞鹿年 편(1992), 『中國官制大辭典』, 黑龍江人民出版社, 174쪽.

17 『三國志』 동이전 고구려조: “諸大加亦自置使者·皂衣先人, [...]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18 여호규(1992), 「고구려 초기 나부통치체제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27, 54~55쪽.

19 『三國志』 동이전 동옥저조의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 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라는 기사를 참조하면, 主簿가 玄菟郡 시기의 屬吏職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盧重國(1979), 「고구려 국상고(상)」, 『한국학보』 16, 19쪽; 權五重(1992), 『낙랑군연구』, 일조각, 81~82쪽].

급 한문인 외교문서를 총괄하던 최고 엘리트였다고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일찍부터 외교문서 등 고급 한문을 작성하고 해독할 수 있는 엘리트층을 보유했다. 그런데 외국에 원군(援軍)을 파견할 때 대가와 함께 주부를 파견한 데서 보듯이, 대가나 소가 등 다른 지배 세력이 얼마나 한문을 해독할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이다.²⁰ 더욱이 초기 정치체제는 나부(那部)체제로, 계루부(桂婁部)와 각 나부의 대표들이 모인 제가회의(諸加會議)에서 국가 중대사를 의결하고, 구체적인 행정실무는 자치권을 보유한 나부를 단위로 이루어졌다.²¹ 이에 따라 국가 중대사와 관련된 중요 의결사항을 문서로 정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행정실무와 관련한 문서행정이 발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의 한자문화는 외교문서 등 주로 고급 한문을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추정된다. 고급 한문을 구사하는 엘리트는 존재했지만 한자문화를 이해하는 식자층이 두껍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서행정이 광범위하게 발달하거나 문자생활이 일반화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다. 이로 보아 순수한 한문을 고구려 언어체계에 맞게 변용한 한자문화도 거의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아직까지 3세기 이전의 문자자료가 출토되지 않아 한자문화의 구체적인 수용 양상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²²

20 후대의 사례이지만 清代의 최고위직이었던 駐防將軍 가운데 문맹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근무지 이동 시에 신입할 만한 전문 서기[비트허시 : 筆帖式]를 함께 전근시켜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했다고 한다[마크 C. 엘리엇, 이훈·김선민 역(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34~236쪽].

21 盧泰敦(2000), 앞의 글 ; 여호규(2000), 앞의 글 참조.

22 240년대에 건립된 曹魏 『貫丘儉紀功碑』가 고구려 두 번째 도성이었던 中國 吉林省 集安市의 小板岔嶺에서 발견된 바 있으며, 3세기 중후반 曹魏나 西晉의 印章이 集安 일대에서 여러 개 발견되었다(“軍司馬印”, “晉高句麗率善邑長印”).

2) 중앙집권체제 정비와 한자문화의 정착

4세기 이후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 양상은 커다란 전환을 맞는다. 고구려는 서진(西晉)의 붕괴를 틈타 313년과 314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잇따라 점령했는데, 이때 낙랑지역에서만 남녀 2,000여 명을 노획했다.²³ 이때 고구려가 낙랑군에서 노획한 2,000여 명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 지역의 묘제(墓制) 변화가 주목된다. 이 지역 묘제는 본래 전축분(傳築墳)이었는데, 낙랑·대방군 멸망 이후 대방지역에는 전축분을 계속 조영했지만 낙랑(평양)지역은 거의 중단했다. 반면 낙랑군의 중심 고분군에는 고구려계 석실묘를 조영했다고 한다.²⁴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의 점령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고구려가 낙랑군을 점령할 때는 무력으로 진압하고 강력한 응징 조치를 취한 반면, 대방군은 비교적 순조롭게 점령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낙랑지역의 경우 핵심세력이 석실묘 축조집단으로 교체된 반면, 대방지역의 재지세력은 종전의 세력기반을 용인받고 계속 전축분을 조영했다는 것이다.²⁵ 따라서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키면서 노획한 2,000여 명은 주로 낙랑군의 핵심 지배세력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문서행정을 담당하던 관리나 한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식자층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²⁶

‘晉高句麗率善佰長印’, ‘晉高句麗率善任長印’). 다만 이들 金石文의 제작 주체는 曹魏나 西晉 등 중국왕조가 명확하므로 이를 고구려의 문자자료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23 『三國史記』 「高句麗本記」 5 미천왕 14년조.

24 리순진·김재용(2003), 『낙랑구역 일대의 고분발굴보고』, 백산자료원, 509~518쪽.

25 오영찬(2006), 『낙랑군연구』, 사계절, 226~239쪽.

26 낙랑-대방군의 유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한자문화를 향유했다는 사실은

또한 4세기 이후 서진의 붕괴나, 전연의 내분, 전연-후조의 쟁투 과정에서 이탈한 중국계 망명인이 대거 고구려로 내투(來投)했다. 가령 319년에는 동방지역을 총괄하던 진(晉)의 최고 지방관인 동이교위 평주자사(平州刺史) 최비(崔悲)가 요동지역의 패권을 선비(鮮卑) 모용부(慕容部)[전연(前燕)]에게 빼앗긴 다음 고구려로 내투했다.²⁷ 336년에는 전연 내분 시에 모용인(慕容仁)에게 가담했던 사마(司馬) 동수(修壽)가 곽충(郭充)과 더불어 내투했으며,²⁸ 338년에는 전연-후조의 쟁투과정에서 후조에 협조했던 전연의 동이교위(東夷校尉) 봉추(封抽), 호군(護軍) 송황(宋晃), 거취령(居就令) 유홍(游泓) 등이 고구려로 투항했다.²⁹ 또한 344년에는 우문부(宇文部)가 전연에게 멸망당한 다음 그 수장 일두귀(逸豆歸)가 고구려로 망명했다고 한다.³⁰

이처럼 4세기 전반 경 국제정세 변화와 더불어 서진이나 전연에서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인물이 대거 고구려로 망명했다. 물론 상기한 인물 외에도 많은 망명객이 고구려로 내투했을 텐데, 최근 집안 우산하(禹山下)3319호분의 피장자로 밝혀진 ‘중랑(中郎)’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더욱이 이 고분에서는 “태세재정사오월입일(太歲在丁巳五月廿日), 위중랑급부인조개묘와(爲中郎及夫人造蓋墓瓦), 우작민사천(又作民四千), 체암△용(徹罍△用), 영시흥예(盈時興詣), 득향만세(得享萬世)”라는 명문 권운문와당(卷雲紋瓦當)이

낙랑-대방고지에서 4세기로 편년되는 紀年銘 벽돌이 대거 출토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7 『資治通鑑』 권91 晉紀 13 太興 2년 12월(2874쪽).

28 『資治通鑑』 권95 晉紀 17 咸康 2년 1월조(3005~3006쪽).

29 『資治通鑑』 권96 晉紀 18 咸康 4년 5월(3018~3021쪽).

30 『魏書』 권101 열전 85 匈奴宇文莫槐전. 한편 『資治通鑑』 권97 晉紀 19 建元 2년 1월(3058쪽)조에는 前燕에게 멸망당한 다음 逸豆歸가 漠北으로 달아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발견되었는데,³¹ 이는 중국계 망명객이 고구려에 내투한 다음에도 한자 문화를 향유하던 양상을 잘 보여준다.³² 이러한 양상은 336년 고구려에 내투했던 동수(修壽)가 자신의 무덤인 안악3호분에 묘지를 남긴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구사한 한자문화는 우산하3319호분의 와당명문이나 안악3호분의 묵서에서 보듯이³³ 순수한 한문 형태였다. 고구려가 낙랑·대방군의 점령이나 중국계 망명인의 내투를 통해 순수한 한문을 해독하고 작성할 수 있는 지식층을 대거 확보했던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3세기 중반 이래 나부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3세기 중반부터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나부의 지배기반이 해체됨에 따라 각 나부의 지배세력은 도성(都城)으로 집주하여 중앙귀족으로 전진했는데, 이들을 국왕을 중심으로 편제하기 위해 일원적 관등제(官等制)를 정비했다.³⁴ 이 때문에 각 나부가 자치권을 행사하던 압록강 중상류 일대는 곡(谷)-촌(村)이라는 지방행정 구역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간접적 집단지배를 시행하던 정복지역에 대해서도 각 방면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성곽을 축조하고 지방관을 파

31 張福有(2004), 「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 『東北史地』 2004-1 ; 張福有(2005), 「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與考證」, 『中國歷史文物』 2005-3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5), 「通溝古墳群禹山墓區JYM3319號墓發掘報告」, 『東北史地』 2005-6.

32 東晉의 관작을 받고 고구려에 거주하던 漢人[張福有(2005), 앞의 글, 70쪽], 319년 고구려로 망명한 平州刺史 崔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5), 앞의 글, 24쪽] 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33 안악3호분 묵서명문에 대한 소개는 徐永大(1992), 「안악3호분 묵서명」,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참조.

34 여호규(2005), 「고구려 中期 官等制의 구조와 성립기반」, 『역사문화연구』 박성래교수정년기념특별호.

견하여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했다.³⁵ 이로써 국가 차원에서 문서행정을 시행할 토대를 조성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小獸林王)대에 태학(太學)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한편, 불교를 공인하여 불경(佛經) 등을 해독할 수 있는 승려를 대거 양성했다.³⁶ 또한 이때 율령을 반포하여 여러 법령과 규정이 문서화·제도화되면서 문서행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355년 전연과의 조공·책봉관계 체결과 더불어 외교문서 작성도 더욱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가 4세기 전반에 낙랑-대방유민이나 중국계 망명인을 대거 받아들여 한문을 해독할 식자층을 확보했다면, 4세기 후반에는 태학 설립과 불교 공인으로 한자 해독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로 양성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문서행정과 외교문서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추정된다.

실제 357년에 조영한 안악3호분의 묘주(墓主) 정사도(政事圖)에는 성사(省事, 문서를 낭독하는 하급관리)가 묘주에게 문서로 보고하는 장면과 기실(記室, 기록을 담당하던 관리)이 묘주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는 장면이 확인된다.³⁷ 또한 408년에 조영한 덕흥리벽화고분의 마사희도(馬射戲圖)에는 성적을 받아 적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희주기인(射戲注記人)”이라는 목서가 적혀 있다.³⁸ 그 밖에 6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통구사신총의 널방 서쪽 천장에 그려진 신인도(神人圖)에서도 오른손에 붓을 들고 글을 쓰려는 모습이 있

35 여호규(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3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6 소수림왕 2년, 3년조.

37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1958),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4쪽.

38 사회과학원 저, 고관민 역(1985),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조선화보사, 78~79쪽.

다.³⁹ 이러한 벽화 장면은 4세기 중반 이후 한자문화의 보급 양상을 잘 보여준다.⁴⁰

- ⑤ 詔太學博士李文真,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三國史記』 고구려본기8 영양왕 11년조)

상기 기사에 따르면 국초에 처음 문자를 사용할 때 100권짜리 『유기(留記)』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다고 한다. 여기의 국초(國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광개토왕릉비나 『삼국사기』에 전하는 초기 왕계가 소수림왕-고국양왕대에 정립되었다는 연구성과를 고려하면⁴¹ 『유기』도 대체로 이 무렵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² 이러한 역사서 편찬은 한자문화의 정착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데, 인명·지명·관명 등의 주요 고유명사를 모두 한자로 표기하고, 건국설화를 비롯한 각 왕의 사적을 한문으로 기술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기사의 ‘국초에 처음 문자를 사용할 때’라는 표현은 이때 처음 한자를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자-한문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4세기 전반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율령에 기반한 문서행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39 池内宏·梅原末治(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34쪽 및 도판 84.

40 송기호(2002), 앞의 글, 18~21쪽.

41 趙仁成(1991), 「4·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4 ; 盧泰敦(1994), 「고구려 초기 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42 이기백 외(1976),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삼성문화재단, 19쪽.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에서는 4세기 후반경 한자-한문 해독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자-한문을 활용한 문서행정이나 문자생활이 본격화되었다고 파악된다.

그리하여 한자문화는 점차 고구려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후기에 한미한 집안에 이르기까지 각 거리마다 경당(肩堂)을 지어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도록 했고, 각종 유교경전, 역사서, 옥편, 문집 등이 널리 유포되었다는 기사는⁴³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고구려의 한자문화는 5세기 전반경 고구려에 강하게 예측하고 있던 신라뿐 아니라 가야나 백제, 일본열도의 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현재까지 출토된 문자자료를 통해 고구려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43 『舊唐書』 권199 상 동이열전 고려조 : “俗愛書籍, 至於衡門廡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肩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3. 문자자료에 나타난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양상

1) 문자자료의 출토현황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문자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326년에 제작된 ‘태녕사년(太寧四年)’ 명(銘) 권운문와당(卷雲紋瓦當)이다. 그 밖에 국내성(國內城) 일대에서 4세기로 편년되는 기년(紀年)이나 길상구(吉祥句)가 새겨진 권운문와당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4세기 이후 도성을 중심으로 한자문화가 보급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현재까지 발견한 문자자료를 출토 시기와 지역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면, 4세기 집안지역의 권운문와당 명문과 낙랑-대방지역의 기년명전, 벽화고분의 묵서, 비문, 불교 관련 명문, 성벽 석각(石刻), 기타 금속기·토기·기와 명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⁴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자자료 유형은 두 번째 도성인 국내성이 있던 집안(集安)지역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 명문이다.⁴⁵ 현재까지 모두 11종이 확인되었는데(〈참고자료〉 ①), 대부분 4세기로 편년되며 국내성지(國內城址) 일대의 건물지나 중대형 적석묘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출토 양상은 4세기 이후 도성에 거주하던 왕족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한 자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권운문와당의 명문은

44 고구려 문자자료에 대한 종합정리는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여호규(2010), 「1990년대 이후 고구려 문자자료의 출토현황과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참조.

45 집안지역 권운문와당의 명문에 대한 종합정리는 여호규(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104~106쪽의 도표와 그림 및 여호규(2010), 앞의 글, 87쪽의 〈표 1〉 참조.

제작 시기, 제작자나 피장자, 길상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순수한 한문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357년에 제작된 ‘정사(丁巳)’명 와당의 주체가 ‘중랑(中郎)’을 역임한 중국계 망명객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안지역 권운문와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뿔형 권운문 1조를 서로 등지게 배치한 점인데, 이러한 사례는 중국대륙에도 있지만 낙랑지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⁴⁶ 이로 보아 집안지역의 권운문와당은 주로 낙랑유민이나 중국계 망명객이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4세기 전반 낙랑유민의 편입이나 중국계 망명객의 내투와 더불어 고구려사회에 한문을 구사하는 식자층이 두껍게 형성되었다는 추론과 부합한다.

다음으로 낙랑-대방 지역에서 나온 기년명전(紀年銘傳) 명문을 들 수 있다.⁴⁷ 현재까지 모두 15종이 확인되었는데(〈참고자료〉 ②), 주로 제작 시기나 제작자(피장자)만 간략하게 적었고 권운문와당 명문과 달리 길상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 기년명전은 낙랑-대방고지에서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낙랑-대방군 이래의 기년명전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낙랑-대방고지의 기년명전은 그 성격상 고구려가 낙랑-대방 계통의 문자자료로서 낙랑-대방군의 한자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파악된다. 다만 「장무이전(張撫夷塹, 348년?)」이나 「영화(永和) 9년 명전(353년)」의 제작 주체는 중국계 망명객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영화 9년 명전 “영화구년삼월십일요동한현도태수령동리조(永和九年三月十日遼東韓玄菟太守領(修利造)” 명문의 주인공인 동리(修利)는 안악

46 여호규(2006), 앞의 글, 100~113쪽.

47 기년명전에 대한 종합정리는 공석구(1988), 「평안·황해도지방출토 기년명전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65 ; 임기환(1992), 「낙랑 와전토기명」,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참조.

3호분의 피장자인 동수(修壽)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고구려 왕권의 후원 아래 평양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구려가 340년대부터 중국계 망명객을 대거 이주시켜 낙랑-대방지역을 본격적으로 경영하던 양상을 반영하는데,⁴⁸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이 지역의 기년명전 문화를 도입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⁴⁹ 그런데 상기 명문 가운데 ‘영(領)’은 ‘요동한현도태수(遼東韓玄菟太守)’에 대한 서술어로, 순수한 한문 문장이라면 ‘요동한현도태수’ 앞에 있어야 한다.⁵⁰ 이 명문은 한문 문장을 한국어 어순에 맞게 ‘목적어+서술어’로 도치시킨 일종의 이두식 표현에 해당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이두식 표현을 순수한 고구려인이 아니라 평양지역에 있는 중국계 망명인의 무덤에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사례라 하겠다.

세 번째로는 벽화고분의 묵서(墨書)를 들 수 있다.⁵¹ 단순한 문자도안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모두 14기의 벽화고분에서 묵서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집안지역의 모두루총, 장천1호분, 장천2호분 등을 제외하면 모두 서북한 지역에 분포해 있다. 특히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악3호분(357년)이나 덕흥리벽화고분(408년)의 피장자인 동수(修壽)와 ‘△△진(鎭)’은

48 여호규(2009),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178~179쪽.

49 千秋塚과 太王陵 명문전의 내용은 길상구로서(千秋萬歲永固 保固乾坤相畢/願 太王陵安如山固如岳) 제작 시기나 제작자(피장자)만 적은 낙랑-대방고지 기년명전과는 차이가 난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두 고분의 명문전은 낙랑-대방지역 기년명전과 길상구가 포함되었던 집안지역 권운문와당의 전통이 결합된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50 『牟頭婁墓誌』에는 ‘領北夫餘守事’라는 관명이 나오는데, 목적어+서술어(領)로 적힌 영화 9년 명전과 달리 서술어+목적어라는 한문 어순에 입각하여 기재했다.

51 벽화고분의 묵서명에 대한 종합정리는 서영대·노태돈(1992), 앞의 책 「제2장 묵서명」 참조.

중국계 망명인으로 파악된다. 안악3호분에서는 7행 68자의 묘지를 포함해 총 16개소에서 100여 자를 확인했고, 덕흥리벽화고분에서는 14행 153자의 묘지를 포함해 총 56개소에서 600여 자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는 중국대륙에서 유행하던 묘지의 형식이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한다.⁵² 실제 이들 묘지는 순한문으로, 이두적(吏讀)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두 고분의 다른 목서도 중국계 관명, 각종 신선(神仙)이나 신수(神獸)의 명칭, 특정 장면에 대한 설명 등을 기술한 것인데, 역시 이두적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덕흥리벽화고분 마사희도(馬射戲圖)의 '사희주기인(射戲注記人)' 명문의 '주기(注記)'는 '사희(射戲)'에 대한 서술어로, 한문을 한국어 어순에 입각해 '목적어+서술어'로 도치시켜 기술한 이두적 표현이다. 동리묘와 마찬가지로 중국계 망명인의 무덤에서 이두식 표현이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집안(集安)에 있는 모두루층은 광개토왕-장수왕대에 지방장관을 역임한 모두루(牟頭婁)라는 전통 귀족의 무덤인데, 80여 행 800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묘지가 나왔다. 이 묘지에는 건국설화를 비롯하여 모두루와 그 조상의 사적을 서술하고 있는데, 역시 순한문으로 작성했다.⁵³ 그 밖의 벽화고분에서는 간략한 목서만 확인되는데, 역시 이두식 표현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네 번째는 비문인데,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와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중원고구려비가 이에 해당한다. 광개토왕릉비는 4면비

52 孔錫龜(1989), 「安岳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121 ; 孔錫龜(1998),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 129~134쪽.

53 牟頭婁가 역임한 관직은 '領北夫餘守事'라고 하는데, 목적어+서술어[領]로 적힌 영화 9년 명전과 달리 서술어+목적어라는 한문 어순에 입각하여 관명을 기재했다.

로서 총 1,775자에 이르는 방대한 비문인데, 외형은 전통적인 선돌 형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비문 자체는 상당히 세련된 서체와 완성된 한문 문체로 작성되었다. 중원고구려비도 외형상 능비의 축소판에 가까우며, 비문도 상당히 세련된 한문 문체로 작성되었다. 다만 지방에 위치한 탓인지 광개토왕릉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구려 언어체계에 적합한 한문 표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불교 관련 명문을 들 수 있는데, 대화(大和)십삼년명석불상(489년?), 영강(永康)칠년명금동광배(평양 평천리 출토, 6세기 후반), 연가(延嘉)칠년명금동광배(경남 의령 출토, 539년 또는 599년), 경(景)사년신묘명(辛卯銘)금동삼존불입상(황해도 곡산 출토, 571년?), 건흥(建興)오년병진명(丙辰銘) 금동광배(충북 증원 출토, 536년 또는 596년?), 신포시 절골터 금동판 명문(5~7세기) 등 총 6개가 확인되었다.⁵⁴ 이러한 불교 관련 명문의 제작 주체는 승려나 불교신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순상의 일부 어색한 점을 제외하면 순한문에 가까우며 이두적 요소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성벽 석각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마지막 도성이었던 평양성에서 5종을 발견했고, 지방인 태천 농오리산성에서도 마애석각을 확인했다(사료 ⑦ 참조). 평양성 각자성석은 6세기 후반 현재의 평양시 가지에 있는 장안성(長安城)을 축조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축성 개시일, 축성 책임자, 축성 구간 등을 기술했고, 농오리산성마애석각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이러한 성벽 석각은 역역동원이나 지방제도 등 행정실무와 관련된 문자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후술하듯이 광개토왕릉비나 중원고구려비에 비해 이두적 요소나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54 불교 관련 명문에 대한 종합정리는 서영대(1992), 「제4장 불상명문」 및 노태돈(1992), 앞의 책, 「제5장 4. 신포시 절골터 금동판 명문」 참조.

마지막으로 금속기, 토기, 기와 등의 기타 명문을 들 수 있다. 금속기 명문으로는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한 ‘광개토왕호우명문’(415년), 서봉총에서 출토한 ‘서봉총출토은합우명문’(451년?), 집안 태왕릉에서 출토한 ‘태왕릉출토동령명문’(391년 또는 451년) 등이 있다(〈참고자료〉 ③). 신라 도성이었던 경주에서 출토된 ‘광개토왕호우명문’이나 ‘서봉총출토은합우명문’은 5세기 전반 고구려와 신라의 외교관계와 더불어 고구려에서 신라로 한자문화가 전파되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유물이다.⁵⁵ 또한 ‘태왕릉출토동령명문’은 ‘호대왕(好大王)’이라는 명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태왕릉의 피장자와 관련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⁵⁶

기와명문은 최근 집안지역(集安地域)의 대형 적석묘나 환도산성 등에서 많이 출토되었다(〈참고자료〉 ④). 초대형 적석묘의 경우 서대묘 4종, 우산하992호분 1종, 천추총 12종, 태왕릉 7종, 장군총1호배총 5종 등 총 30종, 환도산성에서는 2호문지 9종, 궁전지 12종, 장대지 3종 등 총 24종이 출토되었다. 이들 명문의 서체는 장난스러울 정도로 자유분방하며, 소성(燒成) 이전에 새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와공(瓦工)이 직접 명문을 새겼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⁵⁷ 특히 환도산성에서는 ‘소형(小兒)’명(銘) 기와가 16개나 확인되었는데, 하위 관등 소지자의 한자 해독력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또한 최근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 유적에서 기와명문 3건을 출토하였는데, 그중 1건은 기와의 제작 개수, 사용 개수, 남은 개수 등을 기록해놓은 일종의 산판(算板)으로 추정된다.⁵⁸

55 후보돈(2001), 「신라에서의 한문자 정착과정과 불교수용」, 『영남학』 창간호, 200쪽.

56 여호규(2010), 앞의 글, 91~94쪽 참조.

57 여호규(2010), 앞의 글, 96쪽.

5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외(2009), 「연천 호로고루 - 제3차 발굴조사 현장설

토기명문은 평양의 정릉사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임진강과 한강유역의 보루유적에서 대거 발견되었다(〈참고자료〉 ④). 각종 부호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아차산 제4보루 8건, 시루봉 보루 3건, 아차산 제3보루 5건, 흥련봉 제1보루 6건, 흥련봉 제2보루 4건, 용마산 제1보루 1건, 호로고루 10건 등 총 37건이 확인되었다. 아차산 제4보루에서는 인명(人名) 다음에 ‘형’이라는 존칭 어미를 붙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인명 앞에 후부(後部)라는 부명(部名)을 관칭(冠稱)한 사례도 있다. 특히 개인용 배식기의 명문은 거의 대부분 소성 이후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는데,⁵⁹ 이는 토기 사용자나 보유자가 명문을 새겼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⁶⁰ 이로 보아 고구려 도성과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에도 식자층이 상당수 존재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방통치나 군사방어를 위한 문서행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례이다.

2)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양상

상기와 같이 4세기 이후 고구려 문자자료는 외당명문, 기년명전, 구분 묵서명, 비문, 불상명문, 성벽 석각, 기타 금속기·기와·토기 명문 등 다양한 유형별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다양한 문자자료는 4세기 이후 고구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자문화를 수용하는 과정과 더불어

명회 자료」 29쪽 ; 심광주(2009),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출토 명문자료에 대한 검토」, 『목간을 통해 본 고대의 사회와 문화』(제6회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논문집), 100쪽.

59 여호규(2010), 앞의 글, 108쪽.

60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소화, 59쪽 ; 양시은 외(2009),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 박물관.

어 고구려 상황에 맞게 변용한 양상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도성에서 출토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자자료의 유형은 권운문와당 명문인데, 그 제작 주체는 중국계 망명인이나 낙랑유민 계통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악3호분(357년)이나 덕흥리벽화고분(408년)처럼 초기 벽화고분의 묵서(墨書)도 주로 중국계 망명인이 작성하였다. 이로 보아 4세기 이후 초기 단계에는 낙랑유민이나 중국계 망명인이 고구려의 한자문화를 주도했다고 파악된다. 이는 4세기 전반 경 고구려가 낙랑유민과 중국계 망명인을 대거 받아들여 한자 해독자를 확충한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낙랑유민이나 중국계 망명인이 초기 단계의 한자문화를 주도했다면, 한문(중국어)과 고구려어의 언어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순한문을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4세기의 권운문와당 명문이나 벽화고분의 묵서는 순한문으로 작성했고 이두적 요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동리묘(修利墓, 353년)와 덕흥리벽화고분(408년)에서 한문을 한국어 어순에 입각하여 ‘목적어+서술어’로 도치시켜 기술한 표현이 확인되었다. 동리묘의 ‘요동한현도태수령동리조(遼東韓玄菟太守領修利造)’ 및 덕흥리벽화고분의 ‘사희주기인(射戲注記人)’이라는 명문은 순한문과 달리 서술어 ‘領’과 ‘注記’를 목적어 다음에 기술했는데, 한문을 고구려 언어체계에 맞게 변용한 일종의 이두식 표현에 해당한다. 이들 고분은 모두 중국계 망명객의 무덤으로, 중국 군현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평양지역에 위치했다. 이는 한문을 한국어 어순에 맞게 도치하여 서술하는 이두식 표현을 중국계 망명객이나 중국군현의 관리가 개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한국어 어순에 따른 이두식 표현이 본래 순한문을 구사하던 식자층(識字層)이 한국어(고구려어)의 언어체계에 적응하던

과정에서 개발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대에 태학(太學) 설립과 불교 공인을 통해 관인과 지식인(승려)을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고구려는 한자 해독자의 공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었고, 한자-한문을 해독하고 작성할 수 있는 식자층을 대거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개토왕릉비(414년)의 비문을 상당히 세련된 서체와 완성된 한문 문체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종래 능비 서두 말미의 “왕우홀본동강(王子忽本東罡, 이룡혈승천(履龍眞昇天)”이라는 명문을 “왕어홀본동강(王於忽本東罡), 황룡부승천(黃龍負昇天)”으로 판독하여 “왕을 성 밑 동쪽 언덕에서 황룡이 업고 하늘로 올라가다”로 해석하기도 했다. ‘於’가 대격조사 ‘-을’에 해당하는 이두식 표현이라는 것인데,⁶¹ 이 명문을 “왕우홀본동강(王子忽本東罡, 이룡혈승천(履龍眞昇天)”으로 판독하면 한문 문장으로 해석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 밖에도 능비에 한국어 어순으로 재배치한 문장이 많다고 보기도 하지만,⁶² 일부 어색한 표현을 제외하면 서술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도치할 정도로 완전한 이두식 표현을 찾기는 힘들다.⁶³ ‘之’자를 종결사로 사용한 능비 가장 마지막의 “매인제령수묘지(賈人制令守墓之)”라는 문장을 제외하면,⁶⁴ 능비에 이두적 요소라고 단정할 만한 문장은 없는 셈이다.

61 홍기문(1957), 『이두연구』, 과학원출판사, 28쪽 ; 정광(2003), 앞의 글, 65~66쪽.

62 홍기문(1957), 앞의 책 ; 김영욱(2004), 「한자·한문의 한국적 수용」, 『구결연구』 13 ; 남풍현(2005), 「한국 고대이두문의 문말어조사 ‘之’에 대하여」, 『구결연구』 15.

63 이용(2007), 「광개토왕릉비의 이두적 요소」, 『구결연구』 17.

64 이기문(1981), 앞의 글, 70쪽.

또한 광개토왕-장수왕대에 활동했던 전통적인 고구려 귀족인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도 상당히 세련된 서체와 완성된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종 불교 명문도 일부 어색한 표현을 제외하면 대부분 순한문으로 작성하였다. 이로 보아 5세기경 고구려 중앙(도성지역)의 관인이나 귀족 사회,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한문 문장을 그대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한자문화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4세기 후반 이래 고구려가 태학이나 불교기관을 통해 관인이나 승려를 대거 양성한 결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문서행정을 시행하기 위한 한자 해독자의 저변도 상당히 두껍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전술했듯이 집안지역에서 출토한 명문와(銘文瓦)의 글씨는 거의 대부분 소성 이전에 새겼는데, 이는 와공(瓦工)이나 감독자가 식자층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임진강이나 한강유역의 보루유적에서 나온 개인용 배식기의 글씨는 거의 대부분 소성 이후에 새겼는데, 이는 개인용 배식기의 사용자인 장졸(將卒)들이 식자층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임진강 유역의 호루고루에서는 산판(算板)으로 추정되는 기와명문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기와 생산과 관련된 수공업제도가 문서행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⁶⁵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 중후기에는 중앙의 귀족이나 관인층뿐 아니라 변방 보루에 파견된 장졸이나 장인도 한자를 해독할 정도로 식자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군사제도나 수공업제도 나아가 지방통치도 문서행정에 따라 운영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러한 문서행정은 율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규정에 맞게 시행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

65 여호규(2010), 앞의 글, 96, 113~114쪽.

하여 각종 문자자료의 인명 표기순서가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 ⑥-㉠ 大使者+牟頭婁 / 大兄+冉牟 / 大兄+慈△ · 大兄 + △△ (『모두루모지』)
- ⑥-㉡ 前部 + 大使者 + 多于桓奴 · 主簿 + 道德 / 新羅土內幢主 + 下部 + 拔位使者+補奴 · □□奴 / 古牟婁城守事 + 下部 + 大兄 + 耶□ (『중원고구려비』)
- ⑥-㉢ 漢城下後卍 + 小兄 + 文達 / 小兄 + 相夫若牟利 / 卦婁盖切 + 小兄 + 加群 / 內中百頭 + 上位使 + 尒丈 / 物苟 + 小兄 + 俳須 百頭(?) (『평양성 각자성석』)
- ⑥-㉣ 前部 + 小大使者 + 於九婁 (『태천농오리산성마애석각』)
- ⑥-㉤ 上部 + 兒奄 (『건흥오년병진명금동광배』)

상기 자료에서 보듯이 인명에 관칭된 관직명, 부명(출신지), 관등명 가운데 일부 생략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각 사례를 종합하면 관직명 + 부명(출신지) + 관등명 + 인명 등의 순서로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⁶⁶ 특히 중원고구려비에는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 + 하부(下部) + 발위사자(拔位使者) + 보노(補奴) · □□노(奴)’나 ‘고모루성수사(古牟婁城守事) + 하부(下部) + 대형(大兄) + 야(耶□)’와 같이 인명에 관칭된 관직명, 부명(출신지), 관등명 등을 상기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하고 있다. 또한 관등을 표기할 때도 각종 문자자료에는 ‘-兄’과 ‘-使者’ 등 훈차표기법(訓借表記法)에 따른 명칭만 나오며, ‘-支[형(兄)]’나 ‘-奢[사자(使者)]’와 같이 음차표기법(音借表記法)에 따른

66 『평양성 각자성석』의 ‘物苟+小兄+俳須 百頭(?)’ 중 物苟가 人名이고, 俳須 百頭가 職名이라면, 이는 상기 인명표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⁶⁷

이로 보아 문서행정과 관련한 각종 규정이나 서식이 존재했으며, 이를 근거로 문서행정을 상당히 통일적으로 시행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각종 규정이나 서식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과연 모든 관원이 고구려어와 언어체계가 다른 순한문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완전히 이해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광개토왕릉비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세웠지만 변경지역에 있는 중원고구려비가 주목된다.

중원고구려비는 마멸이 심하여 건립 연대뿐 아니라 1면이 어느 면인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비문의 판독이나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두적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한문 문장을 한국어 어순에 맞게 목적어+서술어로 도치하여 기술한 이두식 문장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

67 고구려 관등제 복원표와 문자자료에 나타난 관등 사례는 다음 표와 같다.

林起煥		武田幸男		異稱		문자자료의 사례
				翰苑	기타	
1	大對盧	1	大對盧	吐卒	對盧(三國史記, 三國志)	
2	太大兄	2	太大兄	莫何何羅支		△(德興里古墳)
3	主簿	3	主簿	鬱折	烏拙(周書)	主簿(中原高句麗碑)
4	太大使者	4	太大使者	謁奢	大相(직관지)	
5	位頭大兄	5	位頭大兄	皂衣頭大兄		
6	大使者	6	大使者	大奢	從大相(직관지)	大使者(牟頭婁墓誌, 中原高句麗碑) 小大使者(농오리산성 마애석각)
7	大兄	7	大兄	襴支		小大兄(德興里古墳) 大兄(牟頭婁墓誌, 中原高句麗碑)
8	拔位使者 (小使者)	8	收位使者	儒奢	(乙奢, 小相, 乙相; 林起煥)	拔位使者(中原高句麗碑)
9	上位使者	9	上位使者	契達奢使者, 乙奢	狄相(직관지) 達相(日本書紀)	上位使(명양성 석각)
		10	小使者		(小相, 乙奢; 武田幸男)	
10	小兄	11	小兄	失支		
11	諸兄	12	諸兄	駮屬, 伊紹, 河紹選		
12	先人	13	先人	先元, 庶人		

서는⁶⁸ 모든 논자가 동의하지 않지만, 광개토왕릉비와 비교하면 이두적 요소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논자가 동의하고 있다.⁶⁹

가령 중원고구려비 전면의 “五月中 高麗太王祖王令□新羅寐錦 世世爲願 如兄如弟 上下相和 守天 東來之 [...] 太子共□□尚□上共看節 賜太翟鄒□食□□賜寐錦之衣服建立處□用者賜之隨者節□□奴客人 □教諸位賜上下衣服教東□夷寐錦逕還來節教賜寐錦土內諸衆人□□□ □王國土□大位諸位上下衣服兼受教跪營之”라는 문장에는 종래 대표적인 이두식 표현으로 지목하고 있는 종결사 ‘之’, 처격조사 ‘中’, 어휘 ‘節’ (‘이때’ 또는 ‘지휘하여’) 등이 모두 보인다. 그런데 최근 김병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之’, ‘中’, ‘節’ 등은 진한대 공문서에서도 상당수 나오는 표현으로, 결코 순수한 이두식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⁷⁰ 더욱이 한국어 어순에 입각한 이두식 표현을 중국계 망명인의 무덤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러한 표현도 고구려인에 앞서 중국계 망명객이나 중국군현 특히 낙랑군 관리가 먼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가 논거를 명확히 제시한 만큼 ‘之’, ‘中’, ‘節’ 등을 더 이상 순수한 이두식 표현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김 교수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표현이 순한문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之’, ‘中’,

68 남풍현(2000), 「중원고구려비문의 해독과 이두적 성격」, 『고구려연구』 10 ; 김영옥(2007), 「중원고구려비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8.

69 ‘중원고구려비’의 이두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고 참조. 이기문(1980), 「이두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52 ; 남풍현(2000), 「중원고구려비문의 해독과 이두적 성격」, 『고구려연구』 10 ; 정광(2003), 「한반도에서 한자의 수용과 차자표기의 변천」, 『구결연구』 11 ; 남풍현(2005), 「한국 古代吏讀文의 문말어조사 ‘之’에 대하여」, 『구결연구』 15 ; 이우태(2005), 「금석문을 통하여 본 한자의 도입과 사용」, 『한국고대사연구』 38 ; 김영옥(2007), 「중원고구려비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8.

70 김병준(2009), 앞의 발표문, 43~49쪽.

‘節’ 등의 표현은 고구려인이 창안한 순수한 이두식 표현은 아니지만, 순한문과 언어체계가 상이한 한국어(고구려어)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을 찾는 과정에서 선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중국계 망명객이나 중국군현의 관리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순한문과 상이한 한국어의 언어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한자문화의 변용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어의 언어체계에 부합하는 종결사 ‘之’, 처격조사 ‘中’, 어휘 ‘節’ 등은 도성에 건립한 광개토왕릉비나 귀족의 묘지인 ‘모두루묘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지방 변경에 세운 중원고구려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구려 사회에 순수 한문문화와 더불어 한문을 고구려어에 부합하도록 변용한 한자문화가 병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벽 석각의 사례가 주목된다.

- ⑦-㉠ 己丑年五月廿八日始役西向十一里小兄相夫若牟利造作(평양성 제1석, 569년)
- ⑦-㉡ 己酉年<三>月廿一日自此下向東十二里物苟小兄俳須百頭作節矣(평양성 제2석, 589년)
- ⑦-㉢ 己丑年三月廿一日自此下向△<下>二里內<中>百頭上位使丈夫作節矣(평양성 제3석, 569년)
- ⑦-㉣ 丙戌十_二月中漢城下後卽小兄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평양성 제4석, 566년)
- ⑦-㉤ 卦婁盖切小兄加群自此東廻上△里四尺治(평양성 제5석, 내성남벽)
- ⑦-㉥ 乙亥年八月前部小大使者於九婁治/城六百八十四間。(농오리 산성마애석각)

상기 자료에서 보듯이 평양성 각자성석에서도 증원고구려비처럼 종결사 ‘之’, 처격조사 ‘中’, 어휘 ‘節’ 등이 모두 나온다.⁷¹ 이는 ‘之’, ‘中’, ‘節’ 등이 순한문과 상이한 고구려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휘로 선호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제1~3석은 축성 개시일, 축성 구간, 축성책임자, 감독행위[조작(造作), 작절(作節)] 등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문장 구성상 축성 구간이 목적구에 해당한다면 축성 책임자는 주어, 감독행위는 서술어에 해당한다. ‘주어+목적어+서술어’라는 전형적인 한국어 어순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서술어보다 목적어가 앞에 나오는 한국어 어순에 가깝다. 특히 제4~5석은 ‘주어(축성 책임자)+목적어(축성 구간)+서술어(감독행위)’라는 한국어 어순에 입각한 전형적인 이두식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순한문으로 기술된 광개토왕릉비나 ‘모두루묘지’ 등과 명확히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들 성벽 석각은 역역동원이나 성벽축조 등 행정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당시 순한문을 구사하는 고급 한자문화와 별도로 고구려어 어순에 입각한 이두식 표현이나 고구려어의 언어체계에 부합하는 한자 어휘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실무행정용 한자문화가 병존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즉, 순한문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하급 관인이나 일반인을 위해 고구려어 어순에 입각한 이두식 문장을 개발하고, 고구려어의 언어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한자 어휘를 집중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양성 각자성석의 작성 주체가 소형(小兒)이나 상위사자(上位使者) 등 하위관등 소지자이고, 제4석의 ‘한성하후부(漢城下後口)’라는 명문에서 보듯이 주로 지방

71 평양성 각자성석의 이두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각주 69)의 여러 논문 참조.

출신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구려 중후기에는 순한문을 구사하는 고급 한자문화와 더불어 고구려 언어체계에 맞게 한자(한문)를 변용한 이두식 한자문화가 병존했다고 파악된다. 물론 종래 견해와 달리 고구려어 어순에 입각하여 한문을 작성한 이두식 표현이나 고구려어의 언어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한문 표현 등은 고구려인에 앞서 중국계 망명객이나 낙랑군 관리가 개발하거나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증원고구려비나 평양성 성벽 각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를 종합하여 널리 통용시킨 것은 고구려인이었다. 특히 이러한 이두식 한자문화는 평양성 성벽 각자에서 보듯이 주로 지방 출신의 하급 관인이 행정실무용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었고, 증원고구려비에서 보듯이 주로 변경이나 지방사회에서 통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태천의 ‘농오리산성마애석각(籠吾里山城磨崖石刻)’(㉗-㉘)은 지방에 세워졌지만 불구하고 순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이 석각의 작성 주체가 도성의 전부(前部) 출신으로, ‘소대사자(小大使者)’라는 중간급 관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깊이 연관된다. 이 석각의 작성 책임자인 어구루(於九婁)는 도성 출신의 중앙귀족으로, 순한문을 해독하거나 작성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연천 호로그루에서 나온 명문와의 “△소와칠백십대와(小瓦七百十大瓦)△백팔십용대사백삼합천(百八十用大四百卅合千)”이라는 문장도 ‘서술어[용(用)] + 목적어[대사백삼(大四百卅)]’라는 한문 어순에 맞게 기술되어 있다. 지방의 수공업 관리도 순한문으로 했던 것이다.⁷² 이는 순한문 사용자층이 매우 두꺼웠다는 사실

72 이 문장은 “작은 기와 710개, 큰 기와 △80개 중에 큰 기와 430개를 사용하고 남은 것의 합이 천△이다”로 해석된다[심광주(2009), 앞의 발표문, 100쪽].

과 더불어 실무행정을 위한 이두식 한자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고구려는 4세기 이후 순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관인과 식자층을 대거 양성한 결과 실무행정에서도 순한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는 실무행정에서 이두식 한자가 크게 발달한 신라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관인층이 순한문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언어체계에 맞는 다양한 이두식 표현을 개발하거나 한자 어휘를 선택하고, 이를 지방의 하급관인이 실무행정을 시행하면서 널리 활용했다.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개발하거나 채택한 이두식 한자문화는 신라로 전해져 더욱 다양하게 창안되고 체계화되었으며,⁷³ 이는 고대 일본의 한자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4. 맺음말

고구려 발상지인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는 현도군을 통해 한자문화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다만 이때의 한자문화 전파는 현도군의 군현지배나 분리통제를 위한 문서행정의 결과물로, 피동적인 양상을 띠었고, 한자 해독자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고구려는 서기 1세기 중후반 국가체제를 확립하면서 한자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토대를 마련했다. 다

73 홍기문(1957), 앞의 책 ; 李成市(1992), 「古代朝鮮半島の漢字事情と日本-6世紀初頭の新羅を中心に」, 『月刊しにか』 9월호 ; 주보돈(2001), 「신라에서의 한문자 정착과정과 불교수용」, 『영남학』 창간호, 199~203쪽.

만 초기에는 주로 외교문서와 같은 최고급 한문을 구사하는 엘리트 중심으로 한자문화가 전개되었고, 식자층이 두껍게 형성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자치권(自治權)을 보유한 각 나부(那部)를 단위로 행정실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문서행정이 발달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런데 3세기 후반부터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서행정을 시행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4세기 전반 낙랑·대방군 점령과 중국계 망명인의 내투로 한자 해독자층을 대거 확보했으며, 4세기 후반에는 태학 설립과 불교 공인으로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관인과 식자층을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고구려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성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외교문서 작성과 문서행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4세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실물 문자자료는 한자문화의 수용과 정착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현재까지 확인된 문자자료의 유형은 와당명문, 기년명전, 고분 목서, 비문, 불교명문, 성벽 석각, 금속기·기와·토기 명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해보면 고구려 중앙(도성지역)의 관인이나 귀족사회(불교계)에서는 순한문을 그대로 사용한 반면, 하위 관인층이나 지방사회에서는 고구려의 언어체계에 맞게 변용한 이두식 표현이 일부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한문을 구사하는 고급 한자문화와 더불어 지방사회의 실무행정 등을 위한 이두식 한자문화가 병존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두식 한자문화를 처음 개발한 것은 고구려인이 아니라 중국계 망명객이나 낙랑군 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순한문을 한국어 어순에 맞게 도치하여 기술한 이두식 표현은 중국계 망명인의 무덤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한국어의 언어체계에 가장 부합하는 한자 어휘인 종결사 ‘之’, 처격조사 ‘中’, 어휘 ‘節’ 등도 이미 진한대(秦漢代)

의 공문서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인들은 순한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다양한 표현을 종합하여 지방사회의 실무행정 등을 이두식 한자문화로 변용했다고 파악된다.

그런데 지방에 소재한 성벽 석각 가운데 중앙의 관인이 순한문으로 작성한 사례가 있으며, 지방의 와공(瓦工)이나 수공업 관리자가 순한문으로 작성한 산판(算板)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실무행정을 위한 이두식 한자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무행정에서 이두식 한자문화가 크게 발달한 신라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고구려인들이 한자-한문의 다양한 요소와 표현을 수용하여 한국어의 언어체계에 어울리는 이두식 한자문화로 변용했지만, 순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관인이나 식자층을 대거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제도로 만들거나 체계를 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고구려인들이 실무행정을 위해 변용했던 이두식 한자문화는 그 뒤 신라로 전해져 다양한 형태로 창안되다가 마침내 통일신라 초기에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동아시아 문자교류사에서 고구려는 한자문화를 동방의 여러 국가에 보급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고립어-단음절어인 한자-한문을 교착어-다음절어(한국어와 일본어) 언어체계에 맞게 변용한 이두식 한자문화의 체계화 과정에서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① 4세기 集安地域 출토 卷雲紋瓦當 명문

‘太寧四年’명 : 太寧四年太歲△△閏月六日己巳造吉保子宜孫. (326년, 國內城址 출토)

‘太寧△年’명 : 太寧△年四月造作 (國內城 南門里 출토)

‘顛作’명 : 顛作 또는 照行으로 판독 (勝利村 소방대 출토)

‘己丑’명 : 己丑年△△于利作 (329년, 서대묘 출토) / 己丑年造瓦△△八 (329년, 우산하992호분 출토)

‘月造記’명 : 歲△△年△月造記 또는 月造記로 판독 (대중목욕탕 출토)

‘太歲’명 : 太歲△△年造瓦九 (집안 제2소학교 출토)

‘戊戌’명 : 泰 / 歲戊戌年造瓦故記. (338년, 우산하992호분, 이수원자남유적, 체육장유적 출토)

‘△歲’명 : △歲在△△年造△ (서대묘 출토)

‘乙卯’명 : 乙卯年癸酉 (355년, 우산하3319호분, 국내성 건축유적 출토)

‘丁巳’명 : 太歲在丁巳五月廿日, 爲中郎及夫人, 造蓋墓瓦, 又作民四千, 餼盒△用, 盈時興詣, 得享萬世. (357년, 우산하3319호분 출토)

‘十谷民造’명 : 十谷民造 / 夫一 (우산하3319호분, 이수원자남유적 출토)

② 4세기 낙랑·대방지역 출토 紀年銘磚

명문	연대 (국가)	출토지	문헌
永嘉七年	313(東晉)	황해남도 신원군 아양리토성	5
建興四年會景作造	316(東晉)	황해도 출토	4
泰寧五年三月十(결락)	327(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용문면 복우리2호분	4
咸和十年太歲乙未孫氏造	335(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면 사지리	4
西邑太守張君壙 建武八年西邑太守	342(後趙)	황해남도 안악군 로암리	7
建武九年三月三日王氏造 奉車△	343(後趙)	전 황해도 출토	4
建元三年太歲 在巳八月孫氏造	345(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가산면 간성리	4

명문	연대 (국가)	출토지	문헌
建元三年(결락)	345(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북부면 야죽리	6
太歲在戊漁陽張撫夷塹 太歲在戊漁陽張撫夷塹 太歲(申)漁陽張撫夷塹 八月八日造塹日八十石酒 張使君塹 使君帶方太守張撫夷塹	348(?)	황해북도 봉산군 문정면 소봉리	1,2,4
建武十六年大歲(결락)	350(後趙)	황해남도 신천군 용문면 복우리 8호분	4
永和八年二月四日 韓氏造塹	352(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북부면	4
永和九年三月十日 遼東韓玄菟太守領佟利造	353(東晉)	평양시 평양역 구내	3
元興三年三月廿日王君造	404(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북부면 서호리	4
建始元季韓氏造塹	407(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용문면 복우리 5호분	4
建始元年(결락)	407(東晉)	황해남도 신천군 용문면 복우리	6

③ 금속기 명문

- ‘광개토왕호우명문’ : 경주 호우총 출토, 415년 제작
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
- ‘서봉총출토은합우명문’ : 경주 서봉총 출토, 451년 제작(?)
外底 : 延壽元年太歲在辛三月△太王教造合杆三斤
蓋內 : 延壽元年太歲在卯三月中太王教造合杆用三斤六兩
- ‘태왕릉출토동령명문’ : 태왕릉 출토, 391년 또는 451년
辛卯年 / 好大王 / △造鈴 / 九十六

④ 토기와 기와 명문

- 집안지역 출토 기와명문
서대묘 : 了(丁), 爵, 昔, 瓦
우산하 992호분 : 富
천추총 : △浪趙將軍---△末在永樂, 年--胡將軍--△, 村, 長安, 嗟

嘆△, △固卒, 王, 前, 後, 上, 下

태왕릉 : 五, 四, 三, 十, 卅, 西人, 田

장군총1호배총 : 小, 魚, 十, 申, 大

환도산성 : 下天倉, 天, 九九, 九, 与, 大, 手, 冂+斤, 君(이상 2호문지)

小兒, 十, 九, 鳥, 大甩, △△---△凡△凡, 安, △娶, 中,
天, 不(이상 궁전지)

工, 弗, 夫△(이상 장대지)

상할릉춘7호묘(적석묘) 토기명문 : 崗(‘광개토왕릉비’ 서체와 유사)

- 평양 정릉사지 출토 토기와 기와명문

토기명문 : 定, 定陵, 陵寺, 卍, 飛, 衆僧, 小玉, 惠堪, 弱元, 歸末, 林木

기와명문 : 寺, 泉, 定

- 임진강 유역 호로고루 유적

토기명문 : 用/木, 八一低低/低, 官, 尹靑桓, 咸國, 中

기와명문 : △小瓦七百十大瓦△百八十用大四百卅合千 ---, 官一, 卅
六日

토제북명문 : 相鼓

- 아차산 일대 보루유적 출토 토기명문

시루봉보루 : 大夫井大夫井, ‘大夫井’, 井, 大, 十, /|\, △, ^△, X, 巾

아차산제4보루 : △吉, △王, 冉牟兒, 支都兒, 後部都△兒, △大, 一△
△, 下官

아차산제3보루 : 木, 田, 王, 六, 丹

홍련봉제1보루 : 父△, 巾頃, 夫, 父, ‘武’자의 좌상부, 武

홍련봉제2보루 : 庚子, 庚, 官瓮, △大

용마산제2보루 : 王 또는 主

백제와 신라의 한자·한문
수용과 변용

윤선태(동국대학교)



觀世音菩薩
億那由他不可說
不可說阿僧祇劫
於諸師長恭敬尊重
無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常利見善

於諸師長恭敬尊重
無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常利見善

백제와 신라의 한자·한문 수용과 변용

윤선태
동국대학교

1. 한자문화권에 대한 재인식

동아시아의 고대사회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한자’를 받아들였다. 이는 한반도, 일본열도 등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 중국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고대사회가 서로 긴밀히 ‘소통’하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자문화권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은 한자나 중국 문화가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주변부 사회로 전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 일본에서는 고대 일본이 중국과 직접 교류로 중국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러한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변부 사회에서 수용한 중국문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인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밑바탕에는 세계의 형성을 ‘중심 위주’로만 사고하는 인식 틀이 숨어 있다. 중심과 주변은 우열 관계가 아니다. 중심과 주변은 세계를 구성하는 ‘동등한 구성원’이다. 중심도 세계의 한 지역에 불과하다. 문명은 중심에서 탄생했지만, 그러한 문명을 변용하고 소비하였던 주변부의 주체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세계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변부의 중심문화 변용은 또 다른 문명창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문화의 수용과 변용에 나타나는 주변부의 내재화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며, 일원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¹ 예를 들어 고구려와 백제는 둘 다 낙랑(樂浪)·대방군(帶方郡)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중국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율령(律令)의 수용과 변용과정에 큰 차이가 난다. 척도제의 경우, 백제는 중국과 큰 차이 없이 후한척(後漢尺), 남조척(南朝尺), 당척(唐尺)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고구려에서는 후한척을 변형시킨 ‘고구려척(高句麗尺)’을 새롭게 창안하였다. 또 이들보다 후발국이었던 신라와 고대 일본은 중국의 척도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부인 고구려가 만든 고구려척을 수입했다.²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중심문화를 소화하는 방식은 서로 확연히 달랐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중심에서 주변부로 문화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주변부가 중심문화를 자신들에게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또 주변부에 따라서는 중심문화가 아니라 다른 주변부에서 변용시킨 문화를 우선 수용하였던 경향도 확인된다. 후발국이었던 신

1 李成市(2000),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49~86쪽.

2 윤선태(2002), 「한국고대의 척도와 그 변화-고구려척의 탄생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98.

라와 고대 일본은 중국문화 자체보다는 같은 주변부였던 고구려문화를 오히려 중심문화를 따라잡는 손쉬운 계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호적제(戶籍制)와 척도제(尺度制) 등에 천착하여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의 중국율령 수용과 그 변용과정을 추적했다. 이는 문명의 중심부에서 들어온 고대국가 건설의 뼈대와 지식이 주변부에서 어떻게 내재화되고, 이를 기초로 한반도 3국이 어떻게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필자 나름의 답변이었다.³ 이 글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작업에 이어, 중국문화 수용의 가장 기초 영역인 한자·한문의 수용과 변용과정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백제와 신라의 문자생활과 그 단층(斷層)을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고대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은 모두 한자를 매개로 중국문화를 수용하였지만, 그 내부에는 문화적 단층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중심과 주변의 낙차만이 아니라 주변부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편차가 있었다. 또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은 한자라는 공통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 지역과 국가별로 한자의 수용 양상이 서로 달랐다. 심지어 신라는 한자를 이용해서 한자·한문과는 완전히 다른 ‘이두(吏讀)’라는 새로운 문자체계를 창안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고대 동아시아세계의 형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부가 한자나 중국문화를 소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역동적인 변용과정, 그리고 주변부와 주변부 사이의 교류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윤선태(2000), 『신라 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고문서와 목간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윤선태(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현재 한국 각지에서 고대 목간(古代木簡)이 출토되어, 기출토된 금석문들과 함께 고대사회의 문자생활을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⁴ 이 중 출토한 백제 목간은 몇 점 없지만, 백제 당대의 일차자료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었던 백제의 한자·한문 수용과 그 변용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⁵ 또 이를 통해 고구려와 신라 문자자료와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며, 한국 고대사회의 한자수용과 그 변용과정에서 백제가 차지하는 위상도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특히 기존의 ‘백제이두기원설(百濟吏讀起源說)’을 재검토하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백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고구려이두기원설’도 포괄한다. 이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자를 빌려와 우리말을 표현하는 표기법 일체를 ‘이두’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두 표기는 고유명사(인명, 지명, 관명 등)의 차자표기(借字表記) 단계를 거쳐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해체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 등 토(土)들이 탄생, 발전하는 이른바 향찰(鄉札)의 단계로 발전했고, 이러한 표기 일체를 모두 총괄해 ‘이두’ 또는 ‘차자표기’로 정의하고 있다.⁶

4 한국 고대목간의 출토 현황과 연구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 바란다.李成市(1997), 「韓國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이용현(2006), 「목간 발굴 30년」,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13~57쪽; 윤선태(2007), 「목간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467~486쪽.

5 이용현(2006), 「부여 궁남지 목간」, 『한국목간기초연구』, 신서원; 이병호(2008),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의 성격」, 『목간과 문자』 창간호; 국립부여박물관(2007), 『陵寺-부여능산리사지 6~8차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소장품조사자료집』;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09), 「나주 복암리 유적 출토 목간」 보도자료.

6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11~56쪽.

물론 이두 표기는 이러한 단계적 진화과정을 거쳐 발전해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이두의 탄생과 기원은 항상 한자·한문의 수용이 빨랐던 고구려나 백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후발 신라는 이들 양국의 표기법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⁷ 그러나 이두 표기를 한문과는 질이 다른 ‘방언문자(方言文字)’로 정의한다면,⁸ 한문에서 이두로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보다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추출하는 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히려 이두의 탄생 시점에 한 발 더 접근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후술하지만 이두 표기를 최종 완성한 것은 신라가 분명하며, 그것도 3국이 서로 공존하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한자 수용이 신라보다 적어도 1세기 이상 앞섰지만 후발 신라가 그들과 공존하던 시기에 그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이두 표기법을 발상하고, 이를 ‘향찰’로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두를 완성시킨 신라에 양국과 다른 특수한 역사적·구조적 조건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은 필자에게 이두의 탄생과 기원을 기존처럼 단순히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7 백제 이두기원설에 대한 기존 연구사는 정재영(2003), 『백제의 문자생활』, 『구결연구』 11, 111~115쪽 ; 김영옥(2003), 『백제 이두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126~127쪽 등을 참조.

8 고려시대 이래로 ‘吏讀’은 행정문서를 생산했던 하급관인인 吏胥들이 사용했던 文語로서, 漢文과 구분되는 ‘方言文字’(자국어 표기하기 위해 창안한 文字)로 이해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한다.

2. 백제의 문자생활과 차자표기

한사군(漢四郡)의 진출로 한국 고대사회는 매우 일찍부터 중국의 한자 문화를 접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한반도 남단의 소규모 정치체들 까지도 한사군과의 교역에 한자를 사용하였다. 이를 알려주는 유물이 바로 경남 창원외의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유적인 다호리의 수장(首長) 무덤에서는 한사군과의 교역에 사용했던 도량형기와 함께 필기구인 ‘붓’ 5자루, ‘삭도’ 등을 발견하였다.⁹ ‘도필지리(刀筆之吏)’라는 어휘가 말해주듯이 붓과 삭도는 당시의 대표적인 문방구였다. 삭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우개와 같은 것이다. 당시의 서사재료였던 목간은 잘못 쓴 글자를 칼로 깎아내 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방구로 삭도가 항상 따라다닌다.

또 『위략(魏略)』에는 1세기 초 진한 염사국(廉斯國)의 수장을 중국 말에 능숙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 이 시기 한자문화의 수용은 다호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들 삼한의 소국에서 사용했던 한자는 내부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중국군현과의 교섭과 교역을 위한 것이었다. 염사국이나 낙동강변의 다호리 지역은 중국군현과의 교통로에 있던 정치체들이었고, 이 때문에 타 지역보다 빨리 한자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백제사회는 낙랑·대방군에 인접해 있었고, 한군현 세력의 분열책동에 일찍부터 맞서왔던 지역의 하나로, 한자와 중국문화의 수용이 고대 한국의 정치체 중에서도 매우 빨랐다. 백제는 낙랑·대방군의

9 이견무(1992), 「다호리 유적 출토 붓[筆]에 대하여」, 『考古學誌』 4.

외압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중국 자체를 모델로 하는, 중국문화의 전반적인 수용으로 통한 국가체제 확립을 추구하였다.

『삼국사기』 근초고왕본기(近肖古王本紀) 말미에는 ‘고기(古記)’를 인용해, “백제는 개국 후 문자로 국가의 일(事)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 ‘박사고흥(博士高興)’을 얻어 비로소 ‘서기(書記)’가 있게 되었다”는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서기’를 백제 역사책의 이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문맥대로라면 근초고왕(346~375) 때에 비로소 ‘국가의 일(事)’ 문자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기사는 백제의 공적인 서기제도화 시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제의 한자수용 자체는 4세기 중반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삼국지(三國志)』에 보이는 3세기에 중국군현 측에서 차자(借字)했던 ‘백제국(伯濟國)’이라는 표기를 백제에서 거의 그대로 국호(國號)로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또 472년 개로왕(蓋鹵王)이 북위(北魏)에 보낸 외교문서에도 백제 ‘서계(西界)의 소석산(小石山)’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역시 『삼국지』의 마한 소국 중 ‘소석삭국(小石索國)’, ‘대석삭국(大石索國)’ 등과 표기 방식에서 유사함이 보인다.¹⁰ 백제의 국호나 주변 지명에 대한 이러한 차자표기는 한성(漢城) 시기 백제의 문자생활이 313년 이후 낙랑·대방계에서 들어온 식자층이 주도하였음을 말해준다.¹¹ 앞서 인용했던 ‘박사고흥’은 바로 그러한 부류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함의하고

10 韓鎭書, 『海東釋史·續地理志』馬韓.

11 백제가 450년에 점을 치는 책인 『易林』과 ‘式占’을 요구한 사실이 『宋書』에 기록되어 있다. 평양의 석암리 201호분과 205호분(王盱墓)에서 출토된 ‘식점’을 치는 도구인 낙랑군시대의 ‘式盤’에 주목할 때, 이 역시 4~5세기 백제의 한자·한문의 수용과정에 낙랑·대방군과의 교류나 백제로 납하한 낙랑·대방계의 식자층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있다.

또 근초고왕 때 공적인 서기제도를 ‘박사고흥을 얻어’ 비로소 시작했다고 기록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백제의 공적인 서기제도가 중국군현의 문서행정 시스템을 능숙히 다루었던 낙랑·대방계의 식자층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백제의 공적 서기제도가 애초부터 한문 기록이었고, 중국군현의 문서행정 시스템에 기초한 이미 상당히 조숙(早熟)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칠지도(七支刀)’이다. 칠지도는 일본 나라현(奈良縣 덴리시[天理市]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도신(刀身)에 6개의 가지가 있는 특이한 형태의 칼이다.¹² 이 도신의 표면과 이면에 금상감(金象嵌)의 명문(銘文)이 있다.¹³ 표면의 명문은 중국에서 도신에 새겼던 길상구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고, 이면에는 백제왕(근초고왕)의 왕세자가 왜왕에게 선물하니, 후세에 보여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⁴ 명문은 유려한 한문으로 되어 있고, 더욱이 상투적인 도검에 관한 중국의 길상구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백제의 식자층이 중국식의 문자문화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백제에서 임나(任那)로 이주한 백제 유망민들을 ‘괄출(括出)’하여 다시 ‘부관(附貫)’시키는 조치를 509년에 취했다고

12 刀身에 기록된 ‘七支刀’라는 글자가 판독되기 전까지 石上神宮에서 ‘六叉鉞’라는 이름으로 전래되었다.

13 도신 표면의 서두에 기록된 칼의 제작 시기인 ‘泰□四年’의 명문을 둘러싸고 이를 3세기에서 6세기로 보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도검의 제작기법, 명문과 서체로 볼 때 4세기 중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4 그동안 칼의 제작 시기나 명문에 보이는 ‘百濟’와 ‘倭’의 국제적 位相을 둘러싸고, 百濟 王世子가 七支刀를 倭王에게 獻上했다는 견해, 百濟가 오히려 倭王에게 下賜했다는 견해 등 한일의 연구자들 사이에 커다란 의견충돌이 있어왔다.

한 기록이 주목된다.¹⁵ 이는 한성 시기 말에 이미 백제에서 ‘호적(戶籍)’을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¹⁶ 또 6세기 전반에 고대 일본으로 이주한 백제계 도래인(渡來人)인 왕진이(王辰爾) 일족들은 외교문서의 해독이나, ‘수록선부(數錄船賦)’, ‘전부정적(田部丁籍)’ 등 능숙한 문서행정을 구현하였고, 기존의 일본 문사층(文士層)과는 구별되는 뛰어난 행정업무처리로 극찬을 받았다.¹⁷

『일본서기』에 전승하는 이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백제의 문서행정 시스템은 이미 6세기 이전에 당시의 주변국들과는 질에서 차이가 나는 고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는 한성 시기 백제의 공적 서기제도가 중국군현의 세례를 받은 식자층을 기초로 중국군현의 문서행정 시스템을 직접 수용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웅진 시기(476~537)의 각종 문자자료에서도 이 점은 잘 나타난다. 우선 무령왕릉 발굴에서 그와 왕비의 묘지석이 발견되었다.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한 후 백제는 웅진(현 공주)으로 천도하였지만, 잇달아 왕들이 귀족들에게 피살당하는 등 지배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무령왕은 이러한 정치적 동요를 해소하고 백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무령왕릉의 전축분(博築墳) 형식은 양(梁)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축조한 것인데, 무덤 내부에서 출토한 묘지석 역시 한문으로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지권의 서식 역시 양의 것을 거의 그대로

15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3년 2월.

16 김영심(2005), 「백제 5방제하의 수취체제」, 『역사학보』 185, 14~21쪽.

17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14년 7월 및 30년 4월; 『日本書紀』 권20, 敏達天皇 원년 및 3년 10월.

18 윤선태(2007), 「백제의 문서행정과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48, 308~309쪽.

따랐다. 이는 당시 백제 중앙의 지배층이 남조문화에 상당히 정도되어 있었음을 잘 말해준다.

또 ‘양관품위사의(梁官品爲師矣)’명(銘) 벽돌은 송산리6호분의 연도 폐쇄용(閉鎖用) 벽돌들 속에서 수습한 것이다. 이 명문의 뜻은 “양(梁)의 관영(官營) 공방(工房)의 제품(製品)을 모범으로 삼았다”로 해석된다. 이는 당시 백제의 와박사(瓦博士)들이 백제 벽돌의 기술적·형태적 계통의 모범을 양나라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통(大通)’명 인각와를 공주 반죽동(班竹洞)의 대통사지(大通寺址)에서 출토하였다. 대통사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의 성왕이 527년 중국의 ‘양무제(梁武帝)’를 위해서 웅천주(현 공주)에 지은 절이다. 대통은 양무제의 연호 중 하나이다.

이처럼 한성 시기 이래 백제의 문자생활은 상당히 중국문화 그 자체에 정도되어 있었다. 그 결과 고구려와 달리 문장표기에서 속한문이나 초기 이두 표기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고, 한문 표기만이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백제 멸망기인 사비(泗批)(538~660)시기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최근에 부여에서 발굴한 목간이나 문자자료가 이를 잘 말해준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여 능산리사지는 백제왕릉인 능산리고분군 서쪽편에 있다. 1992년 이후 발굴로, 이 절터는 중문, 목탑, 금당, 강당 등을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한 전형적인 백제사찰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사지의 목탑지에서 “창왕(昌王, 위덕왕) 13년 정해년(丁亥年, 567년)에 매형공주(妹兄公主, 누이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百濟昌王十三年太歲在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는 한문 명문 기록이 있는 사리감을 발견하였다.

한편 2007년 10월 부여 왕흥사지 목탑의 심초석 아래에서도 “정유년(丁酉年, 577년) 2월 15일 백제왕 창(昌)이 죽은 왕자를 위해 탑을 세웠다.



그림 1 능산리사지 출토 사리감과 명문 탁본

본래 사리(舍利)는 2매였으나 묻을 때 신이(神異)한 조화로 3매가 되었다(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王昌爲亡王子立刹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는 한문 명문을 기록한 청동사리외함(靑銅舍利外函)이 발견되었다.

또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에는 ‘사택지적’이라는 귀족이 나날이 늘어가는 것을 탄식하며, 불교에 귀의하여 금당과 보탑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다. 사택지적은 의자왕 때 상좌평을 지낸 백제의 대귀족으로, 이 비는 그의 말년에 자신의 원찰을 건립하면서 세운 사적비로 이해된다. 비문은 중국 육조풍(六朝風)의 사륙변려(四六駢麗) 문장이며 서체는 웅건한 구양순체(歐陽詢體)로, 문장이나 서체 모두 세련되어, 백제 귀족이 중국문화에 깊이 탐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능산리사지에서는 시가풍(詩歌風)의 서신을 기록한 목간과 승려의 이름을 기록한 문자자료가 여러점 출토되었다. 그런데 승려들의 이름이 모두 한식(漢式)이다.

이들 승려계층은 한자문화 수용과 중국 선진문물의 수용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웅진 시기 이래 耳, 也, 之 등의 허사(虛辭)를 문장 종결로 사용하는 등 속한문으로도 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 까지 나온 사비 시기의 문자자료를 일별(一瞥)하면, 전반적으로 중국식 한문 표현에 근사한 한자·한문의 사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⁹ 그동안 연구자들이 웅진~사비 시기 백제의 이두 표기로 보았던 자료들의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우선 무령왕릉에서 출토한 왕비 팔찌의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卅主耳”라는 명문자료가 있는데, “경자년(庚子年, 520년) 이월(二月)에 다리(多利)가 만들었다(作)”로 해석하고, 이를 우리말 어순의 표기방식으로 이해한 견해가 있다.²⁰ 하지만 낙랑·대방군의 유물을 비롯해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문투가 기물(器物)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두 표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²¹

다음으로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한 목간은 사비천도(泗水遷都, 538년) 직후 6세기 중후반의 백제 문자생활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²² 그중 8차 조사에서 발굴한 사면목간(四面木簡) 1점

19 무령왕릉의 誌石이나 이른바 ‘百濟詩歌’로 알려진 능산리목간 등의 문체를 이두 표기로 이해한 견해가 있지만[김영옥(2003), 앞의 글, 129~144쪽], 한문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 남풍현(2000), 앞의 책, 32쪽.

21 그런데 이 명문의 끝에 기록된 ‘耳’가 종결어미라면, 초기 이두의 단초로 볼 수도 있다[정재영(2003), 앞의 글, 112~114쪽]. 그러나 백제에서는 도량형 단위로, 예를 들어 면적 단위로 사용한 ‘形’처럼, 固有語彙를 표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主耳’ 자체가 하나의 단위 표기일 수도 있다.

22 이병호(2008), 앞의 글 ; 국립부여박물관(2007), 앞의 보고서를 참조.

에 기록된 인명인 ‘저이(猪耳)’를 말음첨기(末音添記)된 석독표기(釋讀表記)로 분석한 견해가 있다.²³ 그러나 이 표기가 말음첨기인가에 대해서는 국어학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²⁴ 이를 방증할 만한 다른 사례를 더 기다려야만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⁵

그런데 이 사면목간의 3면에 보이는 ‘耆’나 ‘也’ 등의 표기나 ‘공백(空白)’ 등은 후술하는 신라의 이두 표기와도 관련 있는 사례여서 주목을 요한다.

陵山里 四面木簡 墨書判讀

- (1) 支藥兒食米記 初日食四斗 二日食米四斗小升一 三日食米四斗 ×
- (2) 五日食米三斗大升 六日食三斗大二 七日食三斗大升二 九日食米四斗大 ×
- (3) △道使△次如逢小吏猪耳其身者如黑也 道使復△彈耶方 ^{牟氏}牟△
耶×
- (4) × 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又十二石

우선 이 능산리목간의 ‘1~2면’은 지약아(支藥兒)에게 주었던 식미(食米)를 기록한 장부인데, 일별(日別)로 의도적인 넓은 ‘공백’을 두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3면’은 이 ‘지약아식미기(支藥兒食米記)’와는

23 김영욱(2007),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 『구결연구』 19, 180쪽.

24 김영욱, 위 논문은 한국목간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2007. 1. 11) 발표논문에 기초한 것이다. 김영욱 교수의 위 발표에 대해 당시 토론을 맡았던 권인한, 정재영 두 교수는 돼지의 방언형으로 ‘도치’가 보고된 바가 없고, ‘耳’의 당시 음가 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5 물론 말음첨기는 예외이지만, 고유명사의 음借表記는 중국에서도 異國의 어휘를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假借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 식의 초기 이두 표기로 정의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구분되는 별도의 기록인데 해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기신자여흑야(其身者如黑也)’ 다음에 역시 의도적인 ‘공백’이 있어, 일단 이를 기준으로 앞뒤 2개의 문장으로 나누고, 계유명아미타삼존불비상(癸酉銘阿彌陀三尊佛碑像)의 백제인 인명어미(人名語尾)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보았다.²⁶

△, 道使인 △次와 如逢, 그리고 小吏인 猪耳 등은 그 몸이 검은 것 같다(其身者如黑也).// 道使인 復△, 彈耶方의 牟氏와 牟△, △耶 [...](누구 등은 어떠어떠하다).//

그런데 ‘기신자여흑야(其身者如黑也)’에서 문장 주체표시 ‘者’나 문장 끝에 ‘也’를 적고, 그 뒤에 의도적인 ‘공백’을 둔 표기법은 후술하는 6~7세기 신라 문자자료의 이두 표기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기신자여흑야(其身者如黑也)’는 한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이를 이두 표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문의 ‘者’나 허사(虛辭) ‘也’의 한문 원래 쓰임새를 이용해서 ‘也’를 주체부로 하여 문말(文末)에 허사를 쓴 다음에 의도적인 ‘공백’을 두어 종지부(終止符) 기능을 하였던 표기방식만은 후대 신라 이두 표기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론을 허락한다면, 신라에서 ‘者’로 주격(主格)을 표현하였던 것이나, 어조사인 ‘耳’, ‘也’, ‘之’ 등으로 문장종결을 표현하였던 것 등이 모두 신라의 소산(所産)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능산리 사면목간 3면의 사례로 볼 때, 백제인 역시 일상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주격조사나 종결어미 등을 가진 교차어였기 때문에, 이를 표기하는 데 한문에서 주체부를 표시하는 ‘者’나, 허사로 끝을 맺는 문장투식(文章套式)을 의

26 이 목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윤선태(2007), 앞의 책, 135~142쪽을 참조.

도적으로 빌려와, 자신들의 교착어를 표현하는 문체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 끝에 빈칸과 같은 구두(句讀)를 표시하는 방법도 고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표기방식은 백제만의 것도 아니다. 이미 중원고구려비 등 고구려의 문자자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 보아 고구려, 백제 양국의 표기법이 신라의 이두표기법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고구려는 물론 백제도 7세기까지 차자표기(借字表記)에서 그 이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공개된 나주 복암리 백제목간이 주목된다. 이 목간자료는 공반 출토된 유물(대형호, 발형토기, 기와 등)로 볼 때 7세기 초로 편년할 수 있다고 한다.²⁷ ‘목간 4’로 소개한 아래 자료로 백제 말기 지방의 문자생활을 이해해보자.

(앞) 郡佐(?) … (판독 불가능) … 文
 (뒤) 受米之及八月八日□嵯支□記□遣之好二□□又及告日□□
 貢之□□ □□□□ □八月六日□□

목서는 앞면에서 뒷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되며, ‘수미지(受米之). 급팔월팔일(及八月八日)’처럼 ‘之’가 의도적으로 문장을 단락짓는 문장종결을 나타내는 허사로 사용한 점을 역력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미’나 ‘급팔월팔일(及八月八日)’처럼 문장 내의 어순은 한문 표기와 같다는 점에

27 이하 나주 복암리 목간자료에 대한 설명과 목서판독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09), 「나주 복암리 유적 출토목간」(보도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제공한 사진의 상태로는 목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 일부 보정하였지만 주로 발굴 측의 목서판독에 의거해 소개하고, 후일 상세한 판독을 거쳐 수정하려고 한다.

서,²⁸ 이 ‘之’를 이두 표기의 종결어미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한문의 종결사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문장종결에 활용했던 속한문체 이상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표기는 6세기 중후반의 능산리 출토 301호 목간에서도 이미 사용한 바 있고, 이 역시 한문 또는 속한문으로 판단되며, 나주 목간과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능산리301호 목간

- × 書亦從此法爲之 凡六了五方 ×
- × 行色也 凡作形中口具 ×

지금까지 검토한 백제의 목간자료를 보면,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에 대한 차자표기는 확인되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사회 모두 중국식의 한문 표현, 또는 그에 근접한 속한문의 표기방식이 주로 확인된다. 웅진 시기 이후 耳, 也, 之 등의 허사를 문장종결(文章終結)로 사용하는 용례가 등장하였지만, 7세기까지도 한문식 어순을 거의 해체하지 않은 채, 단지 허사를 문장종결로 특별히 선택해 사용하는 속한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종결사를 종결어미를 표현한 이두 표기로 단정하기에는 아직도 자료가 부족하다.

물론 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앞으로 백제 관련 자료들이 더 발굴되기를 기다려야겠지만, 후술하는 신라의 이두 표기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제부터는 신라의 차자표기를 검토하면서 백제와 신라 한자문화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출해보자.

28 문서목간인 나주 복암리 ‘목간 5’에도 ‘동사+목적어’의 한문식 어순을 확인할 수 있다.

3. 신라의 차자표기와 구두

신라의 본격적인 한자·한문 수용은 고구려에 정치적으로 예속했던 내물왕~ 눌지왕에 이르는 4세기 말~5세기 초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라의 6세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차자표기법이 고구려에서 이미 실험했던 ‘석독(釋讀)’의 표기방식, 한문의 어순을 우리말 어순으로 조정하는 속한문체(俗漢文體), 그리고 문말(文末)에 ‘之’를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구두(句讀) 표기 등에 기초하고 있었던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한자·한문에 이미 있는 가차의 원리를 빌려온 음독 표기와 달리, 석독 표기는 한자의 ‘표음(表音)’ 기능을 버리고 ‘표의(表意)’ 기능만을 살리되, 이 표의성을 자국어의 새김 발음으로 고정시키는 표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라 관동 대사(大舍)의 대는 신라 때 ‘대’로 읽지 않고, ‘흐(크다)’로 읽혔다. 새김을 이용하는 이러한 표기는 한문에는 없는 독창적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한자의 새김의 형성 또는 고정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이것은 음을 이용하는 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뒤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고구려는 이미 광개토왕비(414년) 단계에서 이러한 석독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광개토왕의 시호(諡號, 죽은 후 칭호)는 고유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따라 표기가 제각각이다. ‘광개토왕비문’에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호우명(壺杆銘)’에는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는 ‘국강상대개토지호태성왕(國岡上大開土地好太聖王)’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칭호들이 음독이라면 ‘광(廣)/대(大)’나 ‘경(境)/지(地)’와 같은 표기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차이는 이 칭호들이 석독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이러한 표기법은 어떻게 창안되었던 것일까? 음만을 이용하여 자국어의 표기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새김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고구려에서는 한자를 음독해서는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표기해도 반드시 한문 문장 전체를 고구려어로 새기는, 즉 석독의 구술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광개토왕릉비’나 호우명, 그리고 ‘모두루묘지’ 등으로 볼 때, 한자의 석독이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표기에 이용한 것도 고구려가 가장 앞섰던 것으로 믿는다.²⁹

이러한 석독 표기의 등장은 한문을 자국어의 어순으로 재배치하는 한문의 탈구축 현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광개토왕릉비문’에 한문이 아닌 고구려어 순으로 표기한 이른바 속한문(俗漢文)의 문장이 간혹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중원고구려비에는 신라 이두문에 종결어미로 쓰였던 ‘-지’자를 규칙적으로 문장의 종결사로 사용하였고, 처격조사로 볼 수 있는 ‘中’자 표기도 확인된다.³⁰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백제처럼 고구려에서도 5세기의 중원고구려비나 6세기 중엽의 ‘평양장안성성벽석각’ 사이에는 1세기 이상의 시차가 있지만, 양 자료 사이에 차자표기 발달에 커다란 진전을 확인하기 어렵다.³¹ 물론 6~7세기 고구려의 문자자료가 현재 얼마 남아 있지 않고 대

29 이기문(1998), 『國語史概說(新訂版)』, 태학사.

30 남풍현(2006), 「上古時代に 있어서 借字表記法の 發達」, 『口訣研究』 16.

31 고구려 후기에 고분벽화 제제가 생활풍속계에서 四神圖系 일색으로 변모하

부분 불교자료여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태천 농오리산성의 석각자료처럼 지방사회의 한자표기 조차도 한문식 표현이라는 점에서 5세기에 나타났던 초기 이두 표기방식이 이후 싹을 틔우고, 더욱 발전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후발 신라의 6세기 중반 자료인 단양적성비(丹陽赤城碑)(550년 이전)의 ‘대인야소인야(大人耶小人耶)’(대인(大人)이나 소인(小人)이나)에 보이는 양보형 조사나,³² 무술오작비(戊戌塲作碑)(578년)에 ‘차성재(此成在)□인(人)’(이를 만들었던 □사람)의 ‘재(在(-겨)’와 같은 ‘선어말어미’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현상이다.³³

이처럼 신라의 문자자료에서는 이미 6세기 중반 이후부터 교착어(膠着語)인 우리말의 특징을 한자로 표기해보려는 노력, 즉 한문의 어순만을 조정하거나 종결사를 덧붙이는 속한문 단계를 뛰어넘어, 각종 격 조사나 어미를 한자를 이용해 직접 표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고구려, 백제에서는 6세기 말 이후 이두 표기법 자체가 정체 또는 퇴조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신라에서는 6세기 말~7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월성해자(月城亥字)149호 목간’이 주목된다.

이 목간은 단면 4각형의 다면목간인데, 월성해자의 매립 시기와 목서에서 확인되는 차자표기법으로 볼 때 7세기 중후반대의 목간으로 추

고, 道教가 고구려사회에 널리 유행하였던 점, 그리고 영양왕 때 太學博士 이 문진이 100권의 『留記』를 5권의 『新集』으로 재편하였던 것 등은 이 시기 借字表記가 가미된 고구려 초기의 한문 작성방식이 퇴조하고, 능숙한 중국식 한문 문장으로 탈바꿈되고 있었던 문화적 사조를 상징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된다.

32 월성해자보고서 4호 목간에도 ‘…… 生耶死耶’ 등 동일한 용례가 확인된다.

33 남풍현(2000), 앞의 책, 1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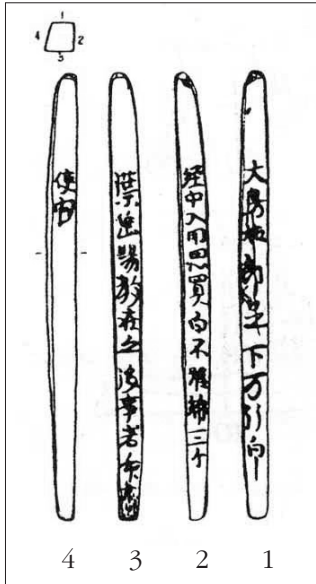


그림 2 월성해자149호 목간

정된다. 이 목간 1면 마지막 글자 ‘丨’를 종래 필자는 백(白)의 끝획으로 보았지만, 후술하듯이 ‘세탁백지(洗老白之)’가 기록된 안압지목간으로 볼 때, ‘백’과 구분되는 글자가 분명하며, 이 역시 ‘之’라고 생각된다.³⁴

月城塚字149號 木簡 墨書判讀

- (1) 大鳥知郎足下万拜丨
- (2)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个
- (3) 牒垂賜教在之 後事者命盡
- (4) 使內

또 필자는 3면의 ‘자’를 과거 ‘약’으로 판독하였지만, ‘자’로 수정하며, 해석은 주체표시 ‘-는(은)’을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를 따른다.³⁵ <그림 2>로 알 수 있지만, 3면은 다른 면과 달리 하단 끝까지 묵서되었다. 서사자(書寫者)가 4면에 서사공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명진(命盡)’에서 문장이 분명히 끝나며, 4면의 ‘사내(使內)’를 “시킨 대로 처리함”과 같이,³⁶ 단독 문단으로 구분해서 해석해야 함을 알려준다.³⁷ 한편 ‘사내’의 ‘내’는 문장 종결형의 차자표기

34 정재영(2008), 「월성해자149호 목간에 나타나는 이두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창간호, 97~103쪽.

35 정재영(2008), 위의 글, 97~103쪽.

36 김영옥(2007), 앞의 글, 180쪽.

37 필자는 과거에 3면과 4면의 묵서를 연결하여 해석했다. 이 목간 各면의 공백으로 볼 때 필자의 과거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로 사용되었다.³⁸ 이에 입각하여 이 자료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大鳥知郎 足下께 万拜하며 아뢰입니다.
- (2) 經에 들어 쓸 걸 생각하여 白不踰紙 12개를 매입하라는³⁹
- (3) 牒을 내리신 命(敎)이 있었다. 뒷일은 命대로 다하였음.
- (4) 시킨 대로 처리함.

이러한 해석을 허락한다면, 이 목간의 목서에는 존경형(시:賜) 선어 말어미도 새롭게 확인되며, 이른바 향가의 향찰(鄉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완숙한 이두 표기가 7세기 후반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이두가 7세기 말 설총 개인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6~7세기에 걸쳐 차차표기가 발전하면서 설총이 최종 정리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위 자료에서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은 3면의 ‘之’ 다음에 있는 의도적인 공백이다.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중국어와의 언어적 차이로 한문을 읽는 데 반드시 우리 식으로 끊는 구두(句讀)나, 한자 하나하나의 해석순서를 단락짓는 문법적 해체과정이 한자의 수용과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 최초의 시도는 광개토왕비나 중원고구려비에서 확인되듯이 문말(文末)에 ‘之’ 등 허사를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고구려의 문

38 박성중(2007), 「이두자 ‘內’의 讀法」, 『구결연구』 19, 164쪽.

39 종래 필자는 149호 목간 2면의 ‘一二箇’를 ‘1~2개’로 번역하였지만, 이 자료가 문서목간이라는 점에 유의한다면, 구입할 종이의 양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명령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김영욱(2007, 앞의 논문), 정재영(2008, 앞의 논문)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를 ‘12개’로 정정하여 번역하였다.

장종결 방식이나,⁴⁰ 앞서 검토한 6~7세기 백제의 문장종결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월성해자149호 목간의 3면처럼 문말의 ‘之’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공백을 두는 발상은 단순히 구두표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두 표기의 성립과정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띄어쓰기한 빈칸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빈칸은 한국의 고대인들이 한문과의 언어적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었던 위대한 발명이었다.

특히 신라인들은 뻣뻣하게 줄지어 늘어선 한문 사이에 빈칸을 상상하고, 그 속에 자신만의 구두와 조사와 어미 등 교착어로 전환을 구현하는 이두 표기를 발명해 집어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향찰 표기에서 어간 부분은 석독하고, 어미 부분은 음독(音讀)하는 ‘훈주음종(訓主音從)’의 이두 표기 체계나, 경전을 해석하기 위해 한문 사이에 토를 다는 구결(口訣)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라에서는 심지어 중국 율령의 문서식을 수용하는 가운데에도, 이를 차자표기가 가미된 새로운 신라식의 문서투식으로 전환시켰다. 아래의 목간은 문화재관리국의 『안압지발굴보고서』(1978)에 ‘1호 목간’으로 이미 소개된 것이지만, 기존에는 이 목간의 적외선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목서관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행한 『신라문화연구』 창간호에 적외선 사진을 실어,⁴¹ 본격적인

40 이기문(1981), 「이두의 기원에 관한 일고찰」, 『진단학보』 52, 70쪽 ; 남풍현, (2000), 앞의 책, 60~67쪽.

41 함순섭(2007),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안압지 목간의 새로운 판독」, 『新羅文物研究』 創刊號, 143쪽.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안압지보고서 1호 목간 판독문

- (1) 洗宅白之 二典前 四□子頭身沐浴木松茵
- (2) □迎□ 入日 □□
- (3) 十一月廿七日典□ 思林

이 목간은 단면 4각형의 다면목간으로 3면에 목서가 있으며, 각 면의 목서는 내용상 위와 같은 순으로 읽어야 한다.⁴² 이 목간은 월성해자 149호 목간과 마찬가지로 단락을 구분 짓는 공백 처리로, 용도 파악이 쉽다. 우선 1면에는 ‘세택백지(洗宅白之)’와 ‘이전전(二典前)’ 다음에 각각 공백을 두었고, 2면은 1면의 목서보다 시작 부분을 한 칸 비워두고 내려 썼다. 3면은 2면보다도 더 내려 썼고, 월일과 인명으로 끝맺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목간의 목서는 발신자(洗宅), 수신자(二典), 문서 본문(四□子~入日□□), 문서 작성 시점(十一月廿七日), 문서 작성 담당자(典□思林)가 기록된 완벽한 수발문서임을 알 수 있다.⁴³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문두) 洗宅이 아웁니다. 二典(2개의 관할관서) 앞.
(본문) 四□子~入日했음.
(문미) 十一月廿七日 典□思林

문두는 얼핏 보면 ‘월성해자149호 목간’과 동일한 투식처럼 보이지

42 橋本繁(2007), 「雁鴨池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創刊號, 106쪽.
43 목간의 형태나 서법으로 볼 때, 본격적인 문서목간을 작성하기 전에 문서식을 습서해본 것이라 생각된다.

만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월성해자149호 목간’은 수신자, 발신자(생략)의 순이지만, 위 안압지목간은 발신자, 수신자의 순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두를 문서 작성 시점과 담당자를 기록하고 있는 문미의 투식과 맞춰보면, 이러한 문서식은 당 율령의 공식령(公式令)의 영향을 받아, 통일기 신라가 새롭게 정립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⁴⁴ 당의 공식령이나 일본 양로령(養老令)의 이식(移式), 첩식(牒式), 부식(符式), 해식(解式) 등과 같이 발신자를 문두에 두고, 이어 수신자, 문서 본문, 문서 작성 연월일, 문서 작성 담당자를 기록하는 방식과 상통한다.

그런데 8세기 이후 신라에서는 당이나 고대 일본과 달리, ‘이(移)’나 ‘해(解)’와 같은 공식령의 문서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문서에 ‘백지(白之)’라는 우리 식의 이두 표기까지 곁들여 있어, 신라 문서식의 독특한 면모를 느낄 수 있다.⁴⁵ 이 경우 우선 첫째, ‘某足下(前)白’이라는 남북조 이래의 문서식이 신라에 들어왔고, 이어 둘째로 차자표기법이 발달하던 7세기 말 ‘월성해자149호 목간’을 작성하던 시점 이전에 이미 ‘某足下(前)白之’라는 차자표기가 가미된 신라의 문서식으로 변형되었다가, 셋째로 8세기 이후 당 공식령에 영향을 받아 ‘(발신자)아됩니다(白之)(수신자)앞(前)’이라는 새로운 순서로 문서식이 변화하는 신라 관문서 서식

44 ‘안압지보고서 1호 목간’은 다면목간이다. 다면목간은 6~7세기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1호 목간이 안압지 건설 직후에 폐기된 것이라면, ‘월성해자 149호 목간’과는 작성연대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월성해자목간과 안압지목간이 신라 문자생활의 단계적 성숙과정을 보여주는 지표유물이라는 점에서 ‘大鳥知郎足下万拜白之’와 ‘洗宅白之 二典前’의 투식은 신라 문서식의 단계적 변화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5 관료층의 한문이해 능력이 매우 향상된 고려와 조선에서도 행정문서가 전적으로 이두로 작성된 것은 모두 이러한 신라의 문서식이 끼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전통시대 행정문서식의 전범은 신라에서 찾아야 한다.

의 단계적인 성숙과정을 상정해볼 수 있다.

특히 ‘월성해자149호 목간’의 ‘丨’는 ‘之’의 일반적인 초서체와 달리 약간의 굴곡도 없이 일직선으로 내리 그었고, 白之의 마지막 획을 생략하여 이어 썼다는 점에서, 당시 ‘白之’라는 문두 말미의 투식을 상용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월성해자 시기의 후반에 들어서면서 신라 식자층들이 이두 표기를 가미한 문서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상용화하면서 문두의 투식이 간략화·부호화하는 문자생활 단계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4. 신라에서 이두 탄생과 그 조건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도 고대부터 자신의 말을 표기하려는 노력이 이미 있었다. 고유한 문자가 없던 한반도의 고대인들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한자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중국어 표기방식 그대로 한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한자·한문 사용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한자·한문을 탈구축(deconstruction)하여 자국어어를 표기해보려는 욕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두’이다.

현재 ‘이두’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선 광의로는 한자를 이용해 고대 한국어 어휘나 문장 등을 표현한 표기방식 일체를 이두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표기, 경전의 내용을 석독하기 위해 창안한 ‘구결(口訣)’ 표기, 그리고 향가(鄕歌)와 같이 가사(歌詞)의 문장 전체를 표기한 ‘향찰’ 표기 등 고대 한국인들이 한자를 빌려와 자국어어를 표기하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차자표기’ 노력을 이두라는 용어로 총칭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두를 운문(韻文)의 시가(詩歌) 표현인 향찰 표기와 엄격히 구분하여, 행정문서나 조성기(造成記), 발원문(發願文) 등 공사(公私)의 실용적 산문(散文) 문장에 사용했던 표기만을 이두라고 아주 좁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⁴⁶

그런데 광의의 의미로 이두를 정의하게 되면, 고유명사 표기에서 이미 이두 표기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이두의 탄생을 설명하기는 의외로 쉽다. 그러나 고대 한국인들의 고유명사 표기법은 중국인들이 주변 민족들과 접촉하면서 이들 민족의 고유어휘를 한자로 표기했던 ‘가차(假借)’의 원리를 일부 원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문식 표기와 이두식 표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고대 한국어의 차자표기 일체를 모두 이두라고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⁴⁷

원래 이두라는 용어는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395년)에 “신라인 설총(薛聰)이 지은 방언문자(方言文字)를 ‘이도(吏道)’라고 한다”거나,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 1287년)에서 “설총이 ‘이서(吏書)’를 지었다”고 한 것, 그리고 훈민정음(訓民正音, 1446년)의 정인지(鄭麟趾) 서문에서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었다”고 한 것 등에 보이는 ‘이도’, ‘이서’, ‘이두’ 등을 총괄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러한 자료에서 보면, 고려시대 이래로 ‘이두’는 행정문서를 생산했던 하급관인인 이서들이 사용했던 문어(文語)로서,⁴⁸ 한문과 구분되는 ‘방언문자’(자국어휘를 표기하기 위해 창안한 문자)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46 이두의 개념 정의에 대한 연구자들의 여러 논의에 대해서는 남풍현(2000, 앞의 책)의 견해를 참조하였다.

47 고유명사의 표기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이두보다는 ‘차자표기’로 통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48 吏讀이라는 용어는 漢文이 고급관료의 教養文語로 확실히 자리 잡고, 이두가 주로 하급관인인 이서층의 문어로 쇠락해가기 시작한 고려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어휘라고 생각된다.

또 균여전(均如傳, 1075년)에 인용된 최행귀(崔行歸)의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한역본(漢譯本) 서문에도, 향가는 “범서(梵書)를 쓴 것 같은 ‘향찰(鄉札)’로 표기하여 중국에서는 이를 알기 어렵다”거나, “이는 설총이 (한자를) 강변(強變)하여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여기의 ‘향찰’은 이두라는 어휘가 등장하기 이전인 나말여초(羅末麗初) 시기에 사용한 동일한 의미의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이두와 마찬가지로 ‘당문’(한문)과 구분되는 설총이 창안한 문자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두의 정의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첫째, 이두가 한문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고대 한국어를 위한 표기체계라는 사실이다. 둘째, 이두는 한자를 빌려와 만든 차자표기였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한자처럼 보이지만, 내적 표기방식은 한문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자체계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두를 정의할 때, 협의의 이두 개념에서 신라시대의 시가와 산문(散文) 표기를 굳이 구분하여 전자는 향찰이고, 후자는 이두라고 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이 신라어를 표기하는 것이라면 시가든 산문이든 주어진 환경 내에서 실사(實辭)의 사용 등에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신라어 표기임에 틀림없다. 표기법상에서는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애초 향찰, 기타 다른 용어나 방언문자 등이 사용되다가 이두라는 말을 고려 이래로 한문 표기와 다른 고대한국어 표기를 대변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의 사용 범위를 단순히 문서투의 산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향찰과 같은 표기에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두를 이렇게 정의해도 그 발생과 기원을 탐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구라도 이두라고 인정할 수 있는 향가의 향찰 표기는 큰 문

제가 없지만, 한문에서 이두로 넘어가는 경계지점, 즉 초기 이두일 경우 그것이 이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한문의 변용과정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자는 문자의 숫자도 엄청나지만, 우리말과 달리 조사나 동사어미의 변화도 없고 어순도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고대인들이 한문을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한자·한문은 애초 굴절어인 중국어 표기를 위해 창안된 것이기 때문에, 음절구조가 복잡하고 어간의 변화가 심한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를 표기하는 데에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한자를 가지고 이두라는 질적 전환을 시도했던 고대 한국인들의 노력은 매우 지난(至難)한 과정이었다. 또 다양한 시도와 혼란을 거쳐 표기체계로 용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6세기 신라에는 『시경(詩經)』, 『상서(尙書)』 등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맹세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맹세문인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552년)은 한문이 아니라,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는 ‘자금(自今)’이 아닌 ‘금자(今自)’로 표기하였다. 당시 신라인이 한문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말 어순에 맞게 한자를 탈구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서기체(誓記體)’라고 하는 이러한 속한문체는 한문에서 이두 표기로 가는 과도기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이두 표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두를 한자·한문과 구분되며, 고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라고 정의한다면, 적어도 교착어적 특징을 표현하는 표기체계를 갖추고 각종 격조사와 어간과 어미를 훈주음종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표기체계를 충분조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단계를 충족하는 현존하

는 문자자료는 앞서 검토한 신라 ‘월성해자149호 목간’의 단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료의 제작시점은 7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설총이 이두를 창안했다”는 각종 전승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자표기의 질적 전환이 신라보다 1세기 이상 빨리 한자·한문을 수용한 고구려나 백제에서 일어나지 않고 후진적인 신라에서 이루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신라가 후발 국가로 한문 이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어 표기가 발전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⁴⁹ 서로 간에 문자생활의 패턴이 달랐던 역사적·구조적 맥락 속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검토하였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한사군과 오랫동안 각축하였고, 강대한 중국세력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 선진적인 중국문화를 모델로 하여, 이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국가체제를 확립시켜나갔다. 또 양국은 낙랑·대방군이 멸망한 이후 이들 지역의 한자·한문문화에 기초한 역사적 자양분을 흡수했다. 이렇게 해서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고대국가체제는 중국식의 한문 구사 능력과 고도의 문서행정제에 기초한 지배체제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신라의 관등(官等) 표기를 보면, 나마(奈麻) 이상의 관등은 고유어휘를 그대로 음차(音借)한 것이고, 그 이하의 관등은 법흥왕의 율령반포(520년) 이후 별도로 한문식의 대·소 구분을 가미한 훈차(訓借)한 명칭으로 새롭게 부가되었다. 이는 신라의 권력구조가 율령반포를 거치면서 점차 보완, 재편되어 갔음을

49 정광(2003), 「韓半島에서 漢字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變遷」, 『口訣研究』 11.

말하지만,⁵⁰ 역으로 남아 이상의 관등체계는 한문으로 표기하기 이전부터 이미 신라사회에 존재·확립되어 있었던 고유의 권력구조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신라에는 한자·한문의 수용 이전부터 권력이 구현되는 일정한 명령전달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문자가 수용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명백히 ‘구두전달체계’일 수밖에 없다.

영일냉수리비(迎日冷水里碑)(503년)로 알 수 있듯이, 신라에는 이미 6세기 초에 한자를 사용해 ‘명령[敎]’과 사법적 후속 조치 등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초보적인 문서행정을 시행하고 있었다.⁵¹ 7세기 중반까지도 관료들의 한문 이해 수준이 낮았는데도⁵² 이처럼 일찍부터 문서행정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와 관련하여 『양서(梁書)』 신라전(新羅傳)의 “무문자(無文字) 각목위신(刻木爲信)”이라는 구절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자가 없는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상용구로 볼 수도 있고, 백제 사신이 양측(梁側)에 신라를 단순히 평하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신라에 백제의 문서행정 시스템과는 구분되는, 각목(刻木, 간단한 목간 기록)과 그에 부수된 ‘구두(口頭)’를 사용한 명령전달 시스템이 6세기 직전까지도 실제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사실의 반영일 수도 있다.

영일냉수리비(迎日冷水里碑)나 월성해자목간(6~7세기) 등 신라초기의 문

50 주보돈(2009), 「職名·官等·地名·人名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한문자 정착」,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이기동 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51 이성규(2003), 「한국 고대 국가의 형성과 한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2, 73~74쪽.

52 무열왕(재위 654~661년) 즉위 초에 唐의 외교문서가 도착하자, 오직 ‘強首’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三國史記』 권46, 強首傳). 이로 볼 때 적어도 신라에는 7세기 중반까지도 고급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식자층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고 생각된다.

서자료들을 보면, 교(敎)(명령) ↔ 백(白) · 구(口)(보고와 집행), 도(道)(이의 제기) 등 문서에 사용한 어휘와 내용이 일상의 구두전달체계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남산신성비(591)의 ‘위문교령(爲聞敎令)’이라는 표현으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국가의 문서적 명령에 관한 어휘(敎/敎令)조차도 애초에 인민에게 ‘듣게 한[爲聞]’ 구두명령에서 전화(轉化)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들 자료로 볼 때, 신라에는 한자·한문에 기초한 문서행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구두로 명령을 전달하는 권력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었고, 그러한 기반이 영일맹수리비에 나타나듯이 매우 빠르게 문서행정 시스템이 정착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백제와는 다른 신라의 원초적인 구두명령 전달 시스템이 신라에 한자·한문에 기초한 문서행정이 수용된 이후에도 그 문서의 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문서의 내용 전달에서 구두명령, 즉 구어체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교착어인 신라어를 그대로 문서에 표기하려는 노력, 즉 이두 표기의 탄생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세기 말 이후 신라에서는 외교문서를 제외하면, ‘해(解)’와 같은 당(唐) 공식령의 문서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문서의 투식도 ‘백지(白之, 아웁니다)’ 등 신라식의 이두 표기로 변용하였다. 이러한 문서 작성 방식이 한자 이해 능력이 앞선 후대 고려와 조선에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한자·한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중국문화 수용의 초기 현상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는 신라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왕의 의지를 관료에게, 또는 관료 상호 간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문서행정의 본질을 지향한 것이었다.

결국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두의 세계에서 달성한 의사소통의 수준을 문서의 세계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답지하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바로 이두 탄생의 신라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신라의 문서행정은 식자층 전반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향하게 되었고, 이는 신라의 이두 표기가 신라의 구어(口語)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 7세기 후반 설총(薛聰)이 이두를 창안했다는 이야기는 식자층 전반이 이두를 공유한 최종적 단계를 상징한 것이며, 이후 신라인들은 한문을 신라어로 해체하고, 한자를 신라의 문자로 전유(專有)하게 된다.

일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전개

日本における漢字文化の受容と展開

사토 마코토(佐藤信, 도쿄대학 대학원)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常春
於諸師長恭敬尊重
元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利見善

觀同於
億世界百千億
億那由他不可
定去界等

일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전개

사토 마코토

도쿄대학 대학원

1. 머리말-한자문화의 수용과 일본 고대국가

고대 일본의 한자문화의 수용과 학습을 둘러싸고 일찍이 중앙의 대학과 지방의 국학의 교육제도 속에서 언급되어왔지만, 이미 30만 점이나 출토된 목간을 비롯하여 금석문·묵서토기·문자기와 등의 출토 문자자료의 전국적인 출현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여 새롭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¹

원래 왜의 대왕 권력하에서 도래계 사람들이 문필 능력을 갖고서 문서사무를 담당한 시대에 비하여 일본의 율령국가가 중국을 배워 중앙과 지방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운용을 위한 문서주의를 도입하면서

1 佐藤信(2002), 「古代における漢字受容」, 『出土史料の古代史』, 東京大學出版會, 발표는 2001년.

중앙관사뿐만 아니라 지방의 국부(國府)·군가(郡家) 등에서도 한자문화가 훨씬 광범위하게 필수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 한자와 한문을 읽고 쓰는 능력과 중국적인 유교 교양을 익힌 관인, 특히 하급관인들이 중앙과 지방에 대량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에서 조세징수는 불가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자문화가 관인, 특히 하급관인들의 필수 채용조건이 되면서 한자문화가 지방에서는 국부와 군가 등의 지방관아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사회로 점차 침투하고 있었다는 도식이 만들어졌다. 이 점은 지방 관아 유적 주변에 출토 문자자료가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열도 각지의 지방 관아유적에서 출토한 목간 등으로 7세기대로 거슬러 올라가 지방호족들이 적극적으로 한자문화를 수용하고 있던 양상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로 한자문화의 침투라는 도식에 대응하여 지방호족들도 주체적으로 한자문화를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호족들의 동향을 전제로 하여 한자문화가 지방사회로 퍼지고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7세기 후반의 비교적 단기간에 일본이 울령국가를 확립한 배경으로서 이러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이 시대의 일본열도에서 한자문화의 수용과 전개는 단순한 한자문화로서만이 아니라 불교·유교·율령법제와 선진적인 기술체계와 문물 등과 혼연일체가 된 선진문화로 수용되었다고 하는 면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본열도의 한자문화의 수용과 전개는 동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와 교류라고 하는 국제적 계기가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지

적²과도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출토 문자자료 등을 통해 고대 일본의 천황과 귀족 그리고 지방호족들이 어떠한 형태로 한자문화를 위시한 법률제도·불교·유교 등의 선진 문화를 동아시아 제국으로부터 수용하고 전개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7세기 귀족의 한자 수용

1) 왜국의 귀족과 도래승

왜국 왕권에서 외교·문필에 종사한 ‘후미히토’ 사람들은 동한씨(東漢氏)·서문씨(西文氏) 등 도래계 씨족이 많았다.³ 5세기에는 ‘왜의 5왕’이 동아시아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왕호와 장군호를 얻으려고 중국 남조 송의 황제에게 조공 사신을 종종 파견한 것이지만, 그러한 외교의 장면에서 상표문을 작성한 것도 그들이었다고 생각된다. 6세기가 되면 왜국과 중국과의 국교는 보이지 않지만 6세기에 불교가 백제왕으로부터 왜국에 ‘공전(公傳)’ 되고, 소가노 마코(蘇我馬子)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가람을 가진 아스카데라(飛鳥寺, 법흥사(法興寺)라고도 함)를 건립할 때에 백제에서 도래한 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승려·기술자 등 왕의 명령이나 그 외의 다른 이유로 일본열도에 도래한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선진적인 문화를 일본에 전했다.

6세기 말에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589년), 고구려 원정(598~614년)을 시

2 石母田正(1970),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3 加藤謙吉(2002), 『大和政權とフミヒト制』, 吉川弘文館.

작하자 동아시아 제국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7세기 초 소가노 마코(우마야도[麿戸]왕으로 나중의 성덕태자, 574~622)의 외교로 왜국은 다시 중국에 견수사를 파견한다. 600년의 견수사 기사(『수서』)에 이어 607년에는 견수사 오노노 이모코(小野妹子)를 수에 파견하였다. 이 시기 왜국의 귀족들은 우마야도왕이 고구려의 승려인 혜자(惠慈)에게 불교를 배우고 백제의 박사 각가(覺哥)에게서 유교 등을 배웠던 사실⁴에서 알 수 있듯이 도래승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또 다음 세대의 후지와라노 가마타리(藤原鎌足), 원래는 나카토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 614~669)도 고구려 도래승 도현(道顯, 도현(道賢)이라고도 함)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⁵ 후지와라노 가마타리는 장자인 정혜(貞慧, 643~665)를 승려로 삼아, 백치사년(653)의 견당사로 당에까지 파견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귀족들이 갖고 있던 대외관과 승려관을 나타내고 있다. 승려는 선진지식을 익힌 존재이고 동시에 동아시아의 국경을 넘어선 존재였던 것이다.

도래인이 왕권의 근거지인 긴키(近畿) 지방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각지에 퍼져 지방사회에도 영향을 준 것은 소가노 우마코가 백제에서 가지고 온 불상을 모시기 위해 승려를 국내에서 찾았더니 하리마(播磨)국에 고구려에서 도래한 환속한 승려인 혜변(惠便)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불교 스승으로 삼았다는 이야기⁶에서 알 수 있다. 중앙귀족뿐만 아니라 지방사회에서도 선진지식을 익힌 도래승과 도래인들을 지방호족들이

4 『日本書記』 추고원년사월기묘조와 추고삼년오월정묘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래승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5 『藤氏家傳』 上卷 鎌足傳·貞慧傳.

6 『日本書記』 민달13년 시세조.

중용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유학생 · 유학승의 귀국

608년(추고16)에 내외한 수사 배세청을 보내기 위해 견수사 오노노 이모코와 함께 수에 파견되어 수에서 당에 걸친 긴 시기에 선진문명을 배우고 돌아온 유학생과 유학승으로는 다카무코노 구로마로(高向玄理, ?~654) · 미나부치노 쇼안(南淵請安) · 민(旻) 등이 알려진다. 632년(서명4)에 민 법사와 640년(서명12)에 다카무코노 구로마로 · 미나부치노 쇼안 등이 귀국하자 왜국의 중앙귀족의 자제들은 다투어 그들로부터 선진지식을 흡수했다.

『일본서기』 황국 3년(644)⁷에는 나카노 오에(中大兄) 황자(나중의 덴지 천황, 626~671)과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등이 미나부치노 쇼안 밑에서 「유교(周孔의教)」를 배우는 일이 보이고, 『등씨가전(藤氏家傳)』⁸에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소가노 이루카(蘇我入鹿, ?~645)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를 포함하는 대부층 귀족의 자제들(群公の子)이 모여들어 민 법사의 집에서 『주역(周易)』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수와 당에서 귀국한 유학생과 유학승들이 한자문화와 불교에 그치지 않는 광범위한 선진문명과 지식을 전하여 7세기 중반부터 율령국가 형성에 미친 정치적 · 문화적 영향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승려 민이 외전의 유교고전인 『주역』을 강의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이 시대 대륙의 선진문화는 불교 · 유교 · 한자문화 · 예제(禮制) 등이 혼연일

7 『日本書記』 황국3년(644) 정월삭조.

8 『藤氏家傳』 상권 겸족전.

체가 되어 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백제의 망명귀족

7세기 중반에 당이 고구려 원정을 시작하자 한반도의 고구려·백제·신라 3국과 왜국은 격동의 시기를 맞아 국제적 위기에 대응한 국가적 집중을 목표로 하였다. 당과 신라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양면 공격하고 660년대가 되면 드디어 당과 신라 연합군은 백제(660년)에 이어 고구려(668년)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신라가 당세력의 배제에 성공하고 한반도에서의 지배를 확립한다.

왜국은 660년의 멸망 후에도 완강하게 저항을 전개한 백제부흥세력의 요청으로 백제 구원군을 파견하지만 663년에 백촌강싸움에서 당·신라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맞는다. 그 전후의 과정에서 다수의 백제와 고구려, 신라인들이 일본열도로 건너왔다.

직접적으로는 665년(천지 4) 8월에 백제에서 도래한 귀족들이 나가토[長門]성(야마구치[山口]현)·오노[大野]성(후쿠오카[福岡]현)·기[椽]성(후쿠오카·사가[佐賀]현) 등의 고대 조선식 산성을 축성⁹한 것은 유명하지만 그들의 영향은 다방면에 이르렀다. 특히 백제로부터 망명해 온 귀족들은 중앙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특히 동국에 ‘안치’된 백제·고구려·신라 도래인들은 각지에서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전하고 동국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덴지 천황의 후계자로 오우미[近江]조정을 주재한 오토모[大友] 황자(648~672)는 ‘문무에 자질이 있다’고 전해지고, 『회풍조(懷風藻)』에 한시가

9 『日本書記』 천지4년(665) 8월조.

전해지는 등 한자문화에 익숙한 인물이었는데, 주위에 ‘빈객’, 즉 브레인인으로 백제에서 망명한 귀족인 사택소명(沙宅紹明, ?~673)·탑본춘초(塔本春初)·길태상(吉太尙)·허솔모(許率母)·목소귀자(木素貴子) 등을 거느린 일은 매우 상징적이다.¹⁰ 그들은 동시에 왜국의 위계와 관직을 수여받고 각각 전문으로 하는 법률·학술·병법·약학·유교·음악 등의 분야를 살려 국가조직의 관료제에서도 중요한 인재로 여겨지고 있다.¹¹

또 덴무 천황의 아들인 오쓰[大津] 황자(663~686)는 문무에 뛰어나고 인망이 있었는데, 신라 승 행심(行心)을 브레인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¹² 나중에 숙모인 지통 천황(덴무 천황 황후)이 자신이 낳은 초벽황자로 황위 계승을 목표로 하자 덴무 천황 사후에 모반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오쓰 황자를 죽임으로 내몬 것은 유명하다. 『회풍조』에는 ‘천문복서(天文卜筮)’에도 뛰어났다고 하는 신라 승 행심이 ‘역모를 꺾었다’고 전하는데, 유력한 황위 후계후보인 오쓰 황자의 강력한 브레인으로 신라로부터의 도래승 행심이 있었다. 오쓰 황자도 『회풍조』에 한시를 전하는데 한자 문화의 면에서도 행심과의 교류는 의미를 갖는 일이다.

이처럼 7세기대 황위 계승후보인 황자들의 브레인으로 백제에서 온 망명귀족이나 신라의 도래승들이 활동했던 일은 우마야도왕의 예를 보더라도 당시에는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망명귀족이 관료가 되는 일은 있어도 대신이나 의정관(대부)까지 승진하는 일은 없었던 것도 유의해야 한다.

10 『懷風藻』 大友皇子傳.

11 『日本書記』 천지10년 정월 시월조.

12 『懷風藻』 大津皇子傳.

3. 7세기 지방호족의 한자 수용

1) 지방호족의 한자 수용

(1) 빠키고국 미타니군의 지방호족

『일본영이기(日本靈異記)』¹³에는 663년 백촌강 패전에서 귀국한 빠키고(備後國 미타니[三谷郡(히로시마현 미요시[三次]시)의 지방호족이 출정할 때에 ‘무사하게 귀국한다면 여러 신들을 위해 가람을 만들겠다’고 맹세한 것에서 기원하며, 백제 사람인 선사 홍제(弘濟)를 불러 함께 귀향하고 훌륭한 가람을 가진 미타니사를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있다.¹⁴

이 설화에서는 백제에서 도래한 승려 홍제는 불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하기 위해 도읍인 아스카 시장에 나가 ‘금단 등의 물건’을 구입하고 나니와쓰(難波津)부터 배로 세토(瀬戸) 내해를 거쳐 빠키고국까지 돌아오는 코스를 거친 것이었다. 지방호족이면서도 아스카에 있는 중앙 시장에서 자재를 조달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다는 것과 일찍부터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그리고 이 미타니사는 발굴 조사된 빠키고데라마치(備後寺町)의 폐사인 것이 명백하다.¹⁵ 이 절은 히로시마현 동부지방의 ‘물 빠짐 기능’이 특징인 백제계 기와가 분포하는 중심 유적으로 “다른 여러 절보다 월등해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하는 『일본영이기』의 기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13 『日本靈異記』 상권 제7.

14 佐藤信(2002), 「白村江の戦いと倭」, 『韓中日シンポジウム 百濟復興運動と白江戦争』, 公州大學校百濟文化研究所; 佐藤信(2005), 「古代地方豪族の漢字文化受容と文學」, 『無名の万葉集』, 風間書院.

15 三次市 教育위원회(1987), 『三次市の文化財』.

이처럼 내륙에 있는 빈고국 미타니군의 군사씨족의 시조는 663년 이전이라는 이른 시대부터 불교나 한자문화를 포함하는 선진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백촌강 패전에도 굴하지 않고 백제의 승려를 동반하여 사원의 가람을 조영하고 빈고 지방에 커다란 문화적·사회적·기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성공했다.

또 『일본영이기』의 다른 설화(상권 제17)는 이요[伊予]국(에히메[愛媛]현) 오치[越智]군 군사의 선조인 오치노아타이[越智直]들이 역시 백촌강싸움에 참전하여 당의 포로가 되었지만 관음보살상에 대한 불교신앙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스스로의 군세를 이끌고 참전한 이요의 군사, 즉 국조급의 지방호족이 이전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불교의 지식적인 결합에서 나아가 정신적으로 ‘국조군’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처럼 서국의 지방호족들은 독자의 루트와 다양한 채널을 구하면서 해외의 선진적인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일본영이기』의 설화를 통해 알 수 있다.

(2) 아와국 국조 씨족

관음사 유적(도쿠시마[徳島]현 도쿠시마시)은 8세기에 아와[阿波]국의 국부가 위치한 땅이고 고분시대 이래 아와 국조 씨족의 본거지에 인접한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7세기의 제2사반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논어』(학이편)의 습서목간을 비롯해 습자 단계에 습서한 「나니와쓰(難波津)의 노래」의 습서목간과 만엽가나로 혼을 기록한 목간 등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¹⁶

16 도쿠시마현 매장문화재연구회(1999), 『觀音寺木簡—觀音寺遺跡出土木簡—』.

아직 율령국이 만들어지기 전인 이른바 ‘대화개신’보다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7세기 전반부터 아와의 지방호족이 적극적으로 한자 문화와 유교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왜국의 대왕권력을 거치지 않고 세토내해를 경유하여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정보와 긴밀히 결합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 관음사 유적(도쿠시마 도쿠시마시) 출토 목간

- a. 子曰學而習時不孤□乎□自朋遠方來亦時樂乎人不亦不愠(左側面)
 (他面略) 長(六五三)mm · 幅(二五) · 厚一四mm
 ○六五型式
- b. 奈尔
 奈尔波ツ尔昨久矢己乃波奈 [(一六〇) (四三)
 六〇一九
- c.] 安子□比乃木較
] 少司椿ツ婆木
- d. 近 [] □マ□ 七九) (三一) 六 ○八一

(3) 시나노, 신농 국조 씨족

동국의 야시로[屋代] 유적군(나가노[長野]현 치쿠마[千曲]시)은 치쿠마가와[千曲川]가 크게 꺾이면서 흐름의 경사를 변환하는 분지의 오른쪽 기슭의 자연 제방에 위치하고, 하천교통과 육상교통의 요충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근처에는 모리[森]장군총고분 등의 유력고분이 입지하여 하니시나[埴科] 군가[郡家]도 근처로 추정되는 등, 시나노[科野] 혹은 신농[信濃] 국조의 본거지에 해당하는 유적이다.¹⁷ 이 유적에서도 7세기의 덴지 천황 시

17 長野縣埋縣文化財センター(1996), 『長野縣屋代遺跡群出土木簡』.

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목간과 698년(무술년)의 이자를 붙인 금전거래 관계로 생각되는 목간과 8세기 초두의 『논어』 습서목간 등이 출토되고 있다. 역시 7세기 중반을 지나서부터 국조급의 지방호족이 한자문화와 유교의 수용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 ◇ 야시로 유적군 출토 목간
 - a. 乙丑年十二月十日酒人
 - b. 『他田舎人古麻呂』

을축년은 천지 4년, 즉 665년이고 백촌강싸움 2년 후, 그리고 임신의 난 이전, 시나노국에 항상적인 국부가 조영되기 이전의 목간이다. 다른 사람의 필적이라고 생각되는 ‘타전사인(他田舎人)’의 부분은 가늘고 정체인 해서풍을 보이는데, 선진적이며 중앙의 서풍을 모방한 것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우지나(氏名)를 보여주는 ‘타전사인’이 나타내는 것처럼 하급관인(도네리) 등이라고 하여 기내의 왕족이나 호족 등과 결합해 가는 중에 7세기의 시나노 지방의 호족이 주체적으로 한자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으로 추측할 수 있다.

- a. ○ [廿] [大万廿]
 戊戌○年八月廿日 酒人マ○荒馬○東酒人マ□□□東
- b. [大] 酒人マ穴人マ万呂
 ○穴マ□□□□ □□マ□人マ大麻呂
 ○

상기 을축년에 이어 무술년, 즉 698년(문무 2년)의 목간에서 인명과 벼 이삭의 속수를 기록하고 있어 가을의 이자놀이 수납에 관련있는 목간

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단부에 작은 구멍이 나 있고 동형의 규격 목간이 2차로 묶이는 문서목간의 이용법을 알 수 있고, 기요미하라(淨御原)령 제하에서 문서의 작성·처리 시스템을 시나노의 지방호족이 수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a. 子曰學是不思
- b. 亦樂乎人不知而不慍

[]

야시로 유적군에서도 『논어』의 습서목간을 출토하고 있다. 관음사 유적과 같이 학이편의 일부로 출토층위와 반출목간부터 지방행정구화가 국군리제 시대(701~717년)의 목간으로 보인다. 이 『논어』의 습서목간도 8세기 초두에 시나노의 지방호족이 한자문화와 함께 유교의 수용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나스 국조 씨족

700년(문무사4년)에 건립한 나스(那須) 국조비(도치기[栃木]현 나스군 유스가미[湯津上]촌)에는 동국의 지방호족인 나스 국조의 나스노 아타이 위제(韋提)가 ‘평독(評讀)’에 임명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비문이 실려 있으며, 받침대 위에 비신을 싣고 그 위에 뚜껑돌을 올린 정돈된 형태와 경질의 화강암에 예리하게 조각한 기술 및 중국 북조풍의 달필로 쓰인 한자와 유교 고전에 능통한 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18 田熊信之(1974), 『那須國造韋提碑文釋解』, 中國·日本史文研究會, 1978년 再版; 田熊信之·田熊清彦(1987), 『那須國造碑』, 中國·日本史學文學研究會 등 참조.

◇ 那須國造碑(栃木縣那須郡湯津上村)

a. 永昌元年己丑四月飛鳥淨御原大宮那須國造

追大壹那須直韋提評督被賜歲次庚子年(七〇〇年)正月

二壬子日辰節珍故意斯麻呂等立碑銘偲云尔(下略)

글의 첫머리에는 11년 전의 측천무후시대에 불과 10개월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명의 원호를 사용하여 ‘영창원년(永昌元年)’(689년)이라고 쓰여 있다. 『일본서기』에는 7세기 후기에 견당사를 669년에 파견한 후 702년까지 보내지 않았고 그 기간 중에 영창원호는 들어 있다. 따라서 단기간의 영창원호 정보는 당과 직접교섭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교류가 있었던 신라가 일본에 전달했을 것이다. 이때는 『일본서기』의 지통 3년(689) 4월 경인조¹⁹와 다음 해인 지통 4년(690) 8월 을묘조²⁰에 보이는 것처럼 신라에서 도래하여 시모쓰케[下野]에 안치된 사람들이 이러한 원호와 비의 건립방법, 비문의 구성 등의 문화지식을 전달했을 수 있다.²¹ 이러한 대륙의 최신 지식을 동국의 내륙에 해당하는 나스의 지방호족들이 신속하게 수용하였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7세기 후반에는 백제·고구려·신라에서 도래한 많은 사람들이 동국에 ‘안치’되는데, 예를 들면 무사시[武藏]국에는 나중의 신라군[新羅郡]·고려군 등의 도래인 중심의 군이 설치된다. 도래인들 중에는 승려 등의 지식인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과 관동지방의 지방호족과 민중들 사이의

19 “以二 投化新羅人一, 居二 于下毛野一”

20 “以二 歸化新羅人等一, 居二 于下毛野一”

21 今泉隆雄(1988), 『銘文と碑文』, 『日本の古代14ことばと文字』, 中央公論社; 坂上康俊(1997), 『大寶律令制定前後における日中間の情報伝播』, 『日中文化交流史叢書2 法律制度』, 大修館書店.

다양한 교류로 전개된 사정을 나스 국조비로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동국의 지방호족이 7세기 말에 최신 외국문명과 한자문화를 적극적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7세기의 일본열도 각지의 지방호족들은 다양한 루트로 한자문화·유교·불교 등 동아시아의 선진문화를 주체적·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호족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율령국가로서 고대 일본이 7세기 후반 단기간에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을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8세기 전반의 귀족과 한자문화

1) 나가야왕

고대 일본의 한시문집인 『회풍조』[751년(천평승보3) 성립]에는 8세기 전기의 대표적인 황족정치가인 나가야왕[長屋王, 729]의 저택에서 만들어진 한시를 꽤 많이 수록하고 있다. 나가야왕의 저택은 문화와 문학의 살롱이기도 하고 때로는 외국사절인 신라사 등을 환영하는 외교의례의 향연을 벌이고 서로 한시를 읊던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나가야왕의 저택에서 읊은 한시를 『회풍조』에 남긴 문인들은 나가야왕가의 문화 살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나가야왕 저택에 출입한 문인들 중에는 도래계 문인의 이름도 보인다.

◇ 『회풍조』 나가야왕의 저택에서 한시를 읊은 시인들

境部王(텐무 천황의 손자)「宴長王宅」

山田三方(도래계 승려로서 신라에 유학하고 나중 환속)「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肖奈行文(고구려 멸망 시에 도래한 肖奈王氏의 자)「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調古麻呂(도래계)「初秋於長王宅宴新羅客」

刀利宣令(백제도래계)「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下毛野蟲麻呂(대학 조교, 문장박사)「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田中淨足「晚秋於長王宅宴」

長屋王「於寶宅宴新羅客」, 「初春於作寶樓置酒」

安倍廣庭「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百濟和麻呂(백제도래계)「初春於左僕射長王宅讌」

吉田宜(조상은 가야의 길씨, 승려에서 환속)「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箭集蟲麻呂(명법박사, 양로올령 찬수자)「於左僕射長王宅宴」

大津首(승려로서 신라에 유학하고 나중에 환속, 음양두)「春日於左僕射長王宅宴」

藤原總前「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藤原宇合「秋日於左僕射長王宅宴」

釋道慈(701년의 견당유학승)「初春在竹溪山寺於長王宅宴追致辭」

鹽屋古麻呂(양로올령 찬수자)「春日於左僕射長王宅宴」

신라에게서 사절을 초빙하여 나가야왕 저택에서 연회를 개최한 때에는 한자를 한 자씩 각자에게 분배하여 그 문자로 운을 떼어 작시하는 방법으로 즉흥 한시를 지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한시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술이 곁들여지면서 관현악이나 춤도 공연하는 등 성숙한 향연이었던 것을 한시에서 알 수 있다. 또 『만엽집』에는 가인으로서 이름 높은 아마노우에노 오후라(山上憶良)가 신귀원년(724) 7월 7일에 나가야왕 집에서 부른 와카(和歌, 권8, 1519번)가 전해지고 나가야왕가의 문

화 살롱에서 문인들을 불러 칠석날 연회를 개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평성경 좌경삼조이방(나라현 나라시)에서 발굴한 나가야왕 저택터에서 출토한 나가야왕가 목간 중에는 ‘발해’, ‘교역’ 등이라고 적힌 것도 보인다. 일본에 불교의 계율을 전한 당승 감진의 전기인 『당대화상 동정전(唐大和上東征傳)』[담해삼선찬(淡海三船撰), 779년(보귀10) 성립]에는 감진이 처음에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몇 안 되는 지식의 하나로 일본국의 나가야왕이 중국의 승려들을 위해 1,000장의 가사를 증정하고 그 옷깃에는 “산천의 경계를 달리 하더라도 바람과 달과 하늘은 매 한가지이다. 여러 불자와 함께 연을 맺고자 한다”라는 아름다운 문장이 자수로 기워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²² 1,000장의 가사와 함께 이 문장이 당의 각지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감진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가야왕은 동아시아에 이름을 알릴 정도로 국제적 문화환경 속에 살았던 귀족이었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도래계 사람들을 포함한 문인들이 모여 서로 한시를 노래하는 나가야왕 저택의 문화 살롱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22 『唐大和上東征傳』 대화상이 답하여 이르기를 “남약의 혜사 선사 죽은 후 왜국의 왕자로 타생하여 불법을 발전시키고 중생을 구제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일본국의 나가야왕은 불법을 숭경하고 1,000장이나 되는 가사를 만들어 당의 대덕과 중승에게 베풀었다고 한다. 그 가사의 끝자락에는 자수한 사구가 있는데, ‘산천의 경계를 달리하더라도 바람과 달과 하늘은 매 한가지이다. 여러 불자에게 부처 함께 연을 맺고자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를 생각하면 정말로 불법흥룡의 인연이 있는 곳이다. 지금 우리들 중에 누군가 저들의 소망에 응하여 일본국에 가서 법을 전할 자 있는가”라고 하자, 모두들 침묵하여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2) 쇼무 천황

쇼무(聖武) 천황(수친왕, 701~756)이 황태자로 있던 시절에 721년(양로5)에 16인의 문인을 선발하였다.²³ 이 중 6인은 신라 유학 경험과 견당사로도당 경험도 있고 백제계 도래씨족의 일원이기도 하는 등, 당과 한반도 제국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① 從五位上佐爲王, ② 從五位下伊部王, ③ 正五位上紀朝臣男人, ④ 日下部宿禰老, ⑤ 從五位上山田史三方, ⑥ 從五位下山上臣憶良, ⑦ 朝來直賀須夜, ⑧ 紀朝臣清人, ⑨ 正六位上越智直廣江, ⑩ 船連大魚, ⑪ 山口忌寸田主, ⑫ 正六位下樂浪河內, ⑬ 從六位下大宅朝臣兼麻呂, ⑭ 正七位上土師宿禰百村, ⑮ 從七位下鹽屋連吉麻呂·⑯ 刀利宣 等이다.

여기서 황태자 수친왕(首親王=나중의 쇼무 천황)에 시중드는 문인들은 모두 한시·화가·학업 등에 이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중에서 당과 한반도제국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⑤ 산전사삼방(山田史三方)은 승려로 신라에 유학한 후에 환속한 경험이 있고 『회풍조』에 대학두로서 한시가 있으며, 『등씨가전』 하권인 후지와라 다케치마로(藤原武智麻呂)전에도 ‘문아(文雅)’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⑥ 야마노우에노오미 오쿠라(山上臣憶良)(660~733?)는 『만엽집』의 가인으로 유명하고 견당사의 소록으로 당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 ⑩ 후나노무라지 오우오(船連大魚)는 백제계 도래씨족인 후나노무라지(船連씨)의 일원이다. ⑪ 야마구치노이미키 타누시(山口忌寸田主)도 왜한씨의 지족인 야마구치노 이미키의 일원이다. ⑫ 사자나미노 가와치(樂浪河內, 고구려하내(高丘連河內))는 천지2년(663)에 백제에서 도래

23 『續日本紀』 양로 5년 정월 경오조.

한 사문영(沙門諫)의 자식으로 대학두까지 지냈고『속일본기』 신희경은 2년 6월 경자조, 『등씨가전』 후지와라 다케치마로전에도 ‘문아(文雅)’로 이름을 날린다. 아버지 사문영은 백촌강 패전 때인 663년에 백제에서 도래한 사람이다. ⑩ 도리노센료[刀利宣利]는 백제에서 도래씨족인 도리(刀利)씨의 일원이고,²⁴ 『회풍조』와 『경국집』에 한시문을 전하고 『만엽집』에도 노래를 남긴다.

『등씨가전』(하권, 후지와라 다케치마로전)에 천평의 문인으로 들어 있는 사람들²⁵은 나가야 왕가와와는 별도로 후지와라씨 계통의 문화 살롱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평가되지만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관인으로서 수항태자의 곁에 있으면서 천평문화를 대표하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 문아라든가 풍류시중·숙유 등의 항목에서 보이듯이 나가야왕 저택 살롱의 존재와 관련하여 한자문화를 궁정에서 중시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의 정창원에 있는 정창원 보물이 아시아 각지에 유래한 수입품들이므로 보아 쇼무 천황 궁정이 갖고 있던 국제적 문화환경을 잘 알 수 있다. 나아가 장기 유학을 마치고 당에서 귀국한 유학생·유학생인 겐보[玄昉, ?~746]와 기비노 마키비(吉備眞備, 695~775)를 중용하기도 하고, 백제왕의 말에인 백제왕 경복(698~766)을 총애한 것처럼 쇼무 천황 주위에는 인적으로도 국제적 환경이 존재하고 있었다. 단, 7세기에 한반도

24 『續日本紀』 천평보자 5년 3월 경자조.

25 風流侍從 六人部王・長田王・門部王・狹井王・櫻井王・石川君子・阿倍安麻呂・置始工/宿儒 守部大隅・越智廣江・肖奈行文・箭集蟲麻呂・鹽屋吉麻呂・梶原東人/文雅 紀清人・山田御方・葛井廣成・高丘河內・百齊倭麻呂・大倭小東人/方子 吉田宜・御立吳明・城上眞立・張福子/陰陽 津守通・余眞人・王仲文・大津首・谷那康受/曆算 山口田主・志紀大道・私部石村・志斐三田次/呪禁 余仁軍・韓國廣足/僧綱 神叡・道慈.

에서 도래한 사람들과 감진(688~763)같이 당에서 도래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제적 위기가 일단 해소된 8세기에는 점차 감소하고,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견당사·견신라사·견발해사의 역할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5. 8세기 한자문화의 지방전개

1) 하치만바야시 관아유적

(1) 군부목간

고대 지방사회에서 한자문화의 수용, 전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최근 발견 예가 증가하고 있는 군부(郡符)목간과 봉함목간이다. 여기서는 하치만바야시 관아유적 출토목간 중 군부목간과 봉함목간을 통해 한자문화가 지방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²⁶

하치만바야시[八幡林] 관아유적(니가타[新潟]현) 나가오카[長岡]는 에치고[越後]국 고시[古志]군 내에 위치하는 8세기 전엽~9세기 전엽의 지방관아 유적이다.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군가설·군서관설·국부 출장소설·관설·역가설·성책설 등이 있지만 이러한 다기능의 지방관아가 모여 있는 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8세기 전엽의 군부목간과 다수의 봉함목간을 출토하였다.²⁷

26 佐藤信(2002), 「越後の古代地方官衙の實像—八幡林官衙遺跡群」, 『出土史料の古代史』, 東京大學出版會.

27 和島村教育委員會(1992, 1993, 1994), 『八幡林遺跡』, 和島村埋縣文化財調査報告書第一集·第二集·第三集.

◇ 하치만바야시 관아유적 출토 목간 1호

(表) 郡司符 青海郷事少丁高志君大蟲 右人其正身率[]

(裏) 蟲大郡向參朔告司□率申賜 符到奉行 火急使高志君五百嶋

[身力] 九月廿八日主帳丈部[]

五八四×三四×五 ○一一

‘군사부(郡司符)’로부터 기재되는 이 군부목간은 양로 연간(717~724)경, 에치고국 간바라(蒲原)의 군사가 군내의 소정에게 국부의 고삭사로 출정과 상신을 명한 소환상이고 동시에 과소(通稱)로 기능을 담당하여 최종적으로 인접한 고시군의 하치만바야시 관아유적에서 폐기된 목간이다. 8세기 초에 에치고국 간바라군의 군사가 군내의 소정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터 공식령(13부식조)에 따라 한 문서목간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것을 접수한 소정인 고시군 오무시(大蟲) 측도 목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식령에 보이는 하달문서의 ‘부(符)’에 따라 ‘군(郡)사(司)부(符)……’라고 쓰인 군부목간은 이미 각지의 지방관이나 군가 유적에서 많이 출토하고 있다.²⁸ 그 출토 예는 8세기 초부터 9세기 중반에 걸쳐 아타메조리(荒田日條里)유적(후쿠시마[福島]현)·야시로유적군(나가노현)·이바(伊場)유적(시즈오카[静岡]현)·스기자키(杉崎)폐사(기후[岐阜]현)·니시가와라(西河原)유적(시가[滋賀]현)·나가오카쿄(長岡京)유적(교토[京都]부)·야마카기(山垣)유적(효고[兵庫]현) 등이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8세기 초두부터 군사가 군내에 명령을 전달할 때에 문서목간을 널리 이용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군사에는 원래 국조 등의 전통적인 지방호족을 임명하기 때문에 그

28 佐藤信(1999), 『郡符木簡にみる在地支配の様相』, 『古代の遺跡と文字資料』, 名著刊行會.

들의 전통적 지배권에 의해 군내에 대한 명령은 사자(목간도 사자가 운반)의 구두전달로도 충분하겠지만 율령제의 문서주의에 따라 군부목간을 이용하였던 것을 지방행정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급 지방호족의 재지배는 율령제 확립과 함께 일찍이 구두로 하는 인격적 지배에서 문서를 통한 행정적 지배로 변질해 갔다고 말할 수 있다.²⁹

(2) 봉함목간

봉함목간은 장방형의 삼나무 하단을 배드민턴 채의 손잡이처럼 만들어 윗부분의 좌우에 한두 군테를 도려낸 형태로 수신 처와 ‘봉(封)’자를 곁에 기재한 목간이다. 정형한 약간 두꺼운 재료를 2장에 걸쳐 갈라서 그 사이에 종이 문서를 끼워 봉한 것으로 걸어둘 수 있게 만들었다.³⁰

하치만바야시 관아유적에서는 다음과 같은 봉함목간도 많이 출토되고 있다.

a. 八幡林官衙遺跡出土木簡32號

上大領殿門

三八五×三六×六 ○四三

b. 八幡林官衙遺跡出土木簡34號

上郡殿門

(二八二)×(二一)×三 ○四三

하치만바야시 관아유적 이외에도 지금까지 헤이조[平城]경(나라[奈良]현)의 나가야왕가 목간·이조대로목간 외에 다자이후[大宰府]유적(후쿠오카[福岡]현)·야마가키[山垣]·고오리아마[郡山]유적(미야기[宮城]현) 등 각지의 지방

29 早川庄八(1986), 「前期難波宮と古代官僚制」, 『日本古代官僚制の研究』, 岩波書店.

30 佐藤信(1997), 「封緘木簡考」, 『日本古代の宮都と木簡』, 吉川弘文館.

관아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치만바야시 관아유적 출토 목간같이 군사·대령에게 보낸 봉합 목간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군사보다 하위인 사람들이 군사에게 종이 문서를 송부하고 있던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8세기 전반에 당시의 변경이었던 에치고국의 고시군에서 봉합에 관한 서찰 예를 분별하면서 종이에 상신 서장을 쓴 군사부터 하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던 것이고 한자문화가 지방에서도 군가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찍부터 침투하고 있었던 양상을 지적할 수 있다.

2) 습서목간

목간 중에는 한자와 한문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습서목간이 있고, 이 습서목간으로 중앙과 지방의 하급관인들의 한자문화 학습 실태를 알 수 있다.³¹ 습서목간을 습서 대상에서 보자면 우선 전적을 습서한 목간이 있고, 한자와 유교의 초학서나 기본서부터 한문의 문예집 등을 습서한 것도 있다. 습서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천자문』, 『논어』, 『문선』, 『위징시무책(魏徵時務策)』, 『왕발집(王勃集)』, 『악의론(樂毅論)』, 『노자』 등의 전적이 알려져 있다. 또 울령의 조문이나 공문서의 서식을 습서한 목간도 있는데, 이것들은 하급관인에게 필요한 지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문자 자체를 습서하는 목간에는 한자를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연습을 했다. 또 『고금화가집(古今和歌集)』의 서문에서 기노 쓰라유키(紀貫之)가 ‘초학자의 코스’라고 소개하는 ‘나니와즈의 노래[難波津の歌]’를 만엽가나로 낙서한 목간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글자를 처음 배우

31 佐藤信(1997), 『習書と落書』, 『日本古代の宮都と木簡』, 吉川弘文館.

는 초화자의 교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습서목간에서는 고대의 한자와 한문의 습득방법을 알 수 있다. 목간은 종이와 달리 작은 칼로 깎아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습서와 낙서를 위한 재료로도 종종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습서목간이 서울의 도성뿐만 아니라 지방유적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는 것이나, 하급관인을 중심으로 하여 사원건축의 조영현장에서 기술자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계층이 습서의 주체인 것으로보아 습서목간의 존재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하 그러한 중앙과 지방에 이르는 하급관인들의 습서목간 사례를 몇 개 소개해보자.

◇ 헤이조경 야쿠시지[藥師寺]유적(나라현 나라시) 출토 목간

a. 池池天地玄黃

宇宙洪荒日月

靈龜二年三月

b. (裏略)

716년(영귀2)에 한자의 초화서인 『천자문』을 습서한 것을 야쿠시지의 우물에서 많은 건축부재 등과 동시에 출토 하였으며, 조영현장에 가까운 인물이 습서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아키타[秋田]성 유적(아키타현 아키타시) 출토 목간

a. 而察察察察察察察之之之之之之之灼灼灼灼灼灼若若

b. 若若若若若若夫夫夫渠渠渠出綠綠波波波波農農農農

아키타성 유적(아키타시)의 외곽 동문에 접하는 관아지구의 우물에서

출토한 습서목간으로 『문선(文選)』 속의 위의 조식(曹植)의 명문 ‘낙신부(洛神賦)’의 한 절을 습서한 것이다. 8세기 중반에 아키타성의 관인이 열심히 『문선』을 배우고 있던 모습이 보인다. 고대 동북의 성책유적이 행정거점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목간이라고 할 수 있다.

- ◇ 법륭사(나라현 이코마[生駒]군 이카루가[斑鳩]정) 5층탑 1층 천장
문살 뒷면 낙서
- a. 奈尔
奈尔波都尔佐久夜己

법륭사 5층탑의 부재 중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기록한 습서로, 필사한 ‘나니와즈의 노래’이며, 법륭사의 조영을 담당한 공인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 후지와라경(나라현 가시와라[橿原]시 · 다카이치[高市]군 아스카[明日香]촌) 좌경 7조 1방 서남평 출토 목간

후지와라궁에서 남쪽으로 주작대로를 300m 정도 내려가 동쪽 측면에 위치하는 후지와라경의 좌경 7조 1방 서남평의 대규모 저택에서 출토한 ‘나니와즈의 노래’의 습서목간이다. 후지와라궁 시기 후반의 연못 유구에서 출토한 목간 중 한 점이다.³²

- a. [異力]
奈尔皮ツ尔佐久矢己乃皮奈泊留己母利□真波 > 留部止

32 奈良文化財研究所(2001), 『藤原京左京七條一坊西南坪發掘調査現地説明會資料』.

[]

佐久□□□□□□職職

[]

b. 奈尔皮職職職馬來田評

三八七×

三四×四 ○一一

‘나니와즈의 노래’의 전문이 보이는 습서이다. 후지와라궁 시대(694~710년)부터 이 노래를 초학들이 필사하여 사용했다.

◇ 이치카와바시유적

이치카와바시[市川橋]유적[미야기[宮城]현 다가조[多賀城]시]은 고대 무쓰[陸奥]의 국부인 다가성의 남면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다가성 남문에서 남쪽으로 뻗는 남북대로의 서쪽 편을 흐르는 하천에서 출토한 목간 1점이 다음의 목간이다. 시대는 나라시대~평안시대 초두 연대라고 한다.³³

a. [略雜力] [略力] [成立家力]

杜家立成雜書要□□書□□□□□

b. 杜家立成雜書要略一卷雪寒呼知故酒飲書 三六〇×三六×六

○一一

『두가입성잡서요약(杜家立成雜書要略)』의 서명과 모두 부분을 습서한 목간이다. 『두가입성잡서요약』은 당초의 정관 연간 경에 성립한 서간의 문례집이고 정창원에 전하는 왕희지를 모방했다는 광명황태후(701~760)의 자필 사본이 유명하다. 한 자씩 정성스럽게 습서하고 있으며, 『두가입성잡서요약』의 권수본을 옆에 두고 쓴 것으로 추측된다. 정창원본과

33 古川一明·吉野武(1999), 「宮城·市川橋遺跡」, 『木簡研究』, 二一號.

는 본문의 일부나 서풍이 다르고 광명황태후 소장본과는 다른 사본이 다가성까지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글자를 배운 관인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고대 지방관아와 한자문화의 전개

각지의 관아유적에서 고대의 문자자료가 대량으로 나온 배경에는 일본의 율령국가가 중국에게서 배운 문서주의가 있다. 문자를 이용한 정보 전달(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명령 전달과 지방에서 중앙에 향하는 정보 집약)로 비로소 율령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서주의는 그 전의 ‘구두의 세계’에서 ‘문자의 세계’로 변환한 것을 말해준다.³⁴ 바꾸어 말하면 천황과 관인들, 중앙정부와 지방호족, 그리고 지방 호족과 민중이라는 여러 관계에서 인격적인 지배와 종속관계에서 관료 제적이고 행정적인 상하관계로 변화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7세기 후반에 일본 율령국가가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아에서는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과 유교적 교양을 체득한 대량의 하급관인 집단이 생겼으며, 드디어 전국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방대한 수의 하급관인들이 단기간에 양성됨에 따라 율령국가가 확립된 것이다.

지금까지 문서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율령국가가 확립되고 그 후에 국부(國府)와 군가(郡家) 등의 지방관아를 통하여 점차 한자문화가 지방사

34 早川庄八(1986), 『前期難波宮と古代官僚制』, 『日本古代官僚制の研究』, 岩波書店.

회로 전해졌다고 보아왔다. 그것은 지방 관아유적에서 나오는 대량의 문자자료(목간·칠지문서·묵서 토기 등)가 증명하고 있지만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최근의 7세기 지방목간이나 지방 관아유적에서 발견한 균부목간이나 봉함목간의 출토 예의 증가 등에 의해 8세기 전반에는 이미 꽤 상당한 규모로 지방 관아의 주변에 한자문화 침투 양상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것에 선행하는 7세기 대에 각지의 국조(國造)들 즉, 지방호족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한자문화와 유교를 도입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율령국가가 단기간에 중앙과 지방에 대량의 관인을 갖추고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열도에서 한자문화의 수용과 전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간·금석문·문자가 쓰인 기와·칠지문서·묵서 토기 등의 출토 문자자료와 문방사우(종이·붓·먹·벼루)와 관련된 고고유물의 발견과 증가로 더더욱 그 구체상이 명백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 한자문화의 기원과 전파를 살피는 중에 한국의 성산산성(함안)에서 출토된 신라목간에 대응하는 6세기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목간의 발견을 기대한다.

동아시아에서 서사재료와 문자의 서진

—고창·누란·우전을 중심으로—

東亞世亞で書寫材料と文字の西漸にかんして

—高昌·樓蘭·于闐を中心に—

세키오 시로(關尾史郎, 니가타대학)



동아시아에서 서사재료와 문자의 서진

—고창·누란·우전을 중심으로—

세키오 시로
니가타대학

1. 머리말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현재 중국·신장웨이우얼[維吾爾] 자치구에 있는 투루판[吐魯番] 분지 투루판시(吐魯番市)·선선현(鄯善縣)·탁극손현(托克遜縣) 일대에, 4세기에 설치된 고창군(高昌郡)이 5세기에 고창국(高昌國)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전망하는 것이다. 중국왕조가 설치한 군현이 독립 정권으로 탄생하는 것이 중국의 서쪽변방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동쪽 변방이나 남쪽 변방에서도 볼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지만, 고창군(高昌郡)시대나 고창국시대에도 한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쪽이나 남쪽 변방의 사례 연구에는 별로 참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들지만, 필자가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의견이나 비판을 받고 싶다.¹

2. 고창군시대의 서사재료

투루판 분지에서는 327년에 5호16국(五胡十六國)의 하나인 전량정권(前涼政權)이 균현제를 시행하여, 처음으로 중국 내륙의 문서행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때 설치한 것은 고창군과 고창·전지량현의 1군 2현이지만, 이 4세기 전반의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균현을 설치하기에 이른 배경에는 중국 내륙에서 온 이주민이 배경이었다.

투루판 분지에 한인이 진출한 것은 기원전 1세기 전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4세기 전반까지 해당 지역에는 ‘고창벽(高昌壁)’이나 ‘고창루(高昌壘)’라고 불리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 말하자면 역대 중국 왕조에게 서방이나 북방의 최전선 기지라고도 할 만한 지역이었다. 이전의 해당 지역 추이에 대해서는 왕소가 개괄하고 있다(王, 1998). 또한 한인의 생활공간으로 완만하게 변모되어가던 것에 대해서는 당장유(唐長孺)가 밝히고 있다(唐, 1979; 唐, 1989). 그러나 균현을 설치한 직접 계기는 4세기 초, 두 8왕(八王)의 난(亂)에서 시작한 중원의 정치·사회 혼란이었다. 중원 가운데에서도 관중지역(關中地域) 사람들은 서방의 하서지역(河西地域)으로 난을 피했다. 그 결과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무위(武威)나 장액(張掖)이라고 하는 하서의 동부나 황허 강 본류(本流), 황수이(隍水) 강 유역 등에는 장씨(張氏) 전량정권(前涼政權)이나 그 후계정권이 많은 교군현(僑郡縣)을 설치한 것이다(關尾, 1980). 이러한 이주는 하서지역민을 자극하여, 제2의

1 이 글은 日本學術振興會의 2005~2008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 「英佛所藏敦煌·吐魯番出土漢文文獻의 古文書學的比較研究(代表: 關尾) 및 日本學術振興會의 2008~2011年度 科學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A) 「出土資料群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그것을 이용한 中國古代史上的 基層社會에 관한 多面的 分析」(代表: 關尾)의 연구성과 일부이다.

이주를 촉발하였다. 그리고 제2의 이주물결은 마침내 하서보다 더 서쪽에 있는 투루판 분지까지 밀어닥쳤다. 이것은 아스타나[阿斯塔那]·카라호자[哈拉和卓] 고분군이나 야르호트[雅爾湖] 고분군을 시작으로, 투루판 분지의 도처에 흩어져 있는 고분군에서 출토한 고창군·고창국 시대 피장자(被葬者)의 본관표기(本貫表記)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關尾·清水 편, 2009].

현재 고창군시대(327~439)의 문서는 호적을 비롯해 계약 문서나 수장의물소(隨葬衣物疏) 등, 종이에 서사(書寫)한 공사(公私)의 각종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스타나·카라호자 고무덤에서 출토한 것이다. 또 그 서사연대로 보건대 360년대부터 370년대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서사재료로 종이와 급속히 보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關尾, 1998).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해당 지역의 묘장에서는 4세기까지 내려가는 간독(簡牘)은 호어(胡語)가 서사된 것 이외는 보고가 없다. 이것은 5세기에 들어가도 목간에 수장의물소(隨葬衣物疏)를 목간에 서사하던 동방의 하서지역보다 종이로 변환이 더 빨랐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내륙에 근접하고 있는 하서지역이 보다 늦은 시기까지 간독을 이용하고 내륙과는 멀리 떨어진 투루판에 더 이른 시기에 종이와 보급되어 있었다는 것은, 언뜻 보면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시점에서는 우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싶다.

3. 고창군시대 문서행정 시스템

4세기 전반 고창군은 당초 고창·전지 2현으로 출발했지만, 반세기 정도 경과한 4세기 후반에는 고녕현의 존재가 확인되며 나아가 1세기

후인 5세기 전반에는 5현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 5현의 내역은 고창·전지·고령의 3현과 횡절현(橫截縣)까지 4현은 알려져 있으나 나머지 1현에 대해서는 불명(不明)하다. 그러나 어쨌든 고창군의 인구 규모가 순조롭게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 450년까지 투루판 분지의 서쪽 절반은 한대에서 이어온 선주민이 세운 차사전왕국(車師前王國)이 있었으므로 한인을 중심으로 한 고창군의 범위는 분지의 동쪽 반을 크게 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의 증설은 동쪽 반이라고 하나, 분지 내의 작은 오아시스도 차츰 한인의 생활공간이 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문서로는 앞서 말한 호적 이외에 군부나 현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관문서도 출토되고 있다. 그 종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서북문헌회(西北文獻會), 1999; 關尾, 2001; 關尾, 2009A; 關尾, 2009B].²

- ① 個人(官員·民戶 등)이 官府에 提出한 것: 啓, 辭
- ② 同一 官府 內의 下級部署에서 上級部署에 提出한 것: 白, 屬, 屬, 條呈
- ③ 下級官府가 上級官府에 上行한 것: 上言
- ④ 上級官府가 下級官府에 下達한 것: 符
- ⑤ 官府 內에서 揭示된 것: 班示

즉, 투루판 분지에 새로 들어선 군현은 단순한 명목상의 존재가 아니라, 문서행정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진~5호16국 시대에 관해서는 지방의 군현 수준의 행정기구 자체에 대한 충분한 사료가 없어 해명에 진전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고창군시대의 관문서는 투루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줄고만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널리 같은 시대 중국의 지방 행정기구와 문서행정 시스템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료로 매우 귀중한 의미가 있는데, 장사시(長沙市) 주마루(走馬樓)의 고정(古井)에서 출토한 삼국오간(三國吳簡)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할 만하다.

또 근래 출토한 4세기 후반 전진(前秦)시대 384년의 호적은 종이에 서사한 현존 호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바뀐 전토(田土)나 노비의 상세한 기록을 각 호마다 병기한 매우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榮, 2007 ; 榮, 2009]. 주지하는 바와 같이 투루판이나 돈황에서 출토한 당대 호적에는 균전제(均田制)를 시행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토의 보유 상황을 병기하고 있다. 그러나 균전제를 시행하기 1세기 전의 호적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關尾, 2008).

5호16국 시대에 선행하는 서진에서는 점전(占田)·과전제(課田制)로 불리는 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일반 민호의 전토 보유를 엄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징수를 전제로 하는 이 제도에서는 민호의 전토 보유를 그 가족구성과 일체화해서 파악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에 따라 호적의 양식도 지금까지의 양식, 예를 들면 삼국오간의 명적죽간(名籍竹簡) 등의 양식에서 크게 개선해야 했을 것이다. 투루판에서 출토한 전진 호적의 특이한 양식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서진시대의 새로운 호적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흔적’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의 투루판에서는 점전·과전제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의 존재는 투루판 고창군에서도 4세기 후반 전진정권 시기에는 전토나 노비의 장악을 포함해 민호에 대한 지배가 확실히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4. 고창군시대 비한인의 문서

고창군시대에 관해 하나 더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비한인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투루판 분지의 서쪽 반에는 차사전왕국(車師前王國)이 있었다. 이 나라의 출신자는 『위서』 권30에 전해지는 차이락(車伊洛)과 같이 중국세계에 있는 국명에서 한자를 빌어 ‘차(車)’성을 붙였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투루판 문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³ 그것보다 중시해야 하는 것은 소그드(粟特)인일 것이다.

아라카와 마사하루[荒川正晴]의 연구를 보면 6세기 중반 이후, 투루판 분지를 무대로 한 소그드인의 교역활동이 활발해졌다[荒川, 1990]. 그러나 그것은 소그드인이 6세기 중반까지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둔황 근처에서 발견한 소그드어의 서간 ‘고대서간’에는 4세기 초엽의 영가(永嘉)의 난이 새겨 있어 이미 이 시기에 그들이 중앙아시아나 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吉田, 1997]. 그렇다면 투루판이 중국 내지(內地)와 그들의 고향인 소그드를 묶는 교역활동 중계지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고창군의 말기에 속하는 고분군의 묘장(墓葬)에서 출토한 목패 안에 ‘인’·‘대인’을 의미하는 소그드 문자를 서사한 것이 있다[고이반(庫爾班)=외력(外力), 1981]. 피장자(被葬者)가 소그드인인지 아닌지는 불명하지만 투루판 분지에서 소그드인의 존재를 강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당시의 투루판 문서로도 소그드인의 존재를 추정할

3 李方·王素 兩氏에 의한 색인[李·王 編(1996)]에 따라 검색하면, 5세기 중엽의 ‘車末都’, 한 명 뿐이다.

수 있다. 소그드의 강국(康國) 출신인 소그드인과 지각 있는 소그드인의 일가가 한인에게 가옥을 임대한 420년대 계약문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關尾, 2004 ; 榮, 2006). 5세기 중순 소그드인이 투루판에서 이미 전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다른 문서로 알 수 있다(關尾, 2005). 즉, 소그드인 가운데는 단순하게 교역활동 도중 해당 지역에 들르거나 단기 체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전토나 가옥을 보유해 그것을 대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다만 한인을 한쪽의 당사자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그드어·소그드 문자로 계약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어·한문으로 문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한어·한문이 보다 보편적인 언어이며 문자였다는 것, 그리고 정착을 시작한 소그드인이 한어·한문에 익숙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고창국시대 문서행정 시스템

중국 내륙, 즉 화북(華北)은 4세기 초 8왕의 난 이후 오랫동안 분열 상태에 있었지만, 하서 서쪽을 다스리고 있던 북량정권(北凉政權)을 넘어뜨린 북위가 439년 통일을 실현하여 분열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 북량의 왕족이 하서에서 서쪽으로 피해 고창에 망명정권을 수립한 것이 고창국의 시작이다. 고창국은 640년, 당에 멸망당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좁은 투루판 분지를 지배했다. 그동안 왕족은 저저씨(沮渠氏)(?~460), 감씨(閼氏)(?~488), 장씨(張氏)(?~496), 마씨(馬氏)(?~501), 그리고 국씨(麴氏)(?~640)로 변천했지만⁴ 그 판도는 투루판 분지를 크게 넘지는 않았다. 고

4 各王國의 存續期間에 대해서는, 王素氏의 見解(王1998)를 따랐다.

창군시대와의 최대 차이는, 저거씨 고창국^[북량망명정권(北凉亡命政權)] 450년에 한대부터 일관해서 분지의 서쪽 반을 다스렸던 차사전왕국을 멸망시켜 투루판 분지 전역을 지배하에 넣었지만, 협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정권운영이 유연(柔然), 고차(高車), 돌궐(突厥) 및 철륵(鐵勒) 등, 주변의 유목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었다는 것, 나아가 북위에 이어 당에 이르기까지의 동시대의 중국 왕조와 정치적인 관계 등이 이 왕국의 행정 기구와 문서행정 시스템의 실체를 크게 규제했다는 점이다.

고창국 역대 왕족은 저거씨 이외는 한인 출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저거씨도 흉노 또는 호(胡)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량정권을 인솔해 40년 가까이 하서지역에 군림한 경험이 있어 저거씨 고창국의 국제(國制)가 특별히 민족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량 망명정권이라고 하는 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큼, 후계인 제씨 고창국과 비교하면, 중국왕조가 갖고 있던 국제의 잔재를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아마 그 후 국제의 변화가 완만하게 이뤄져 6세기 전반 국씨 고창국시대에 도달해 큰 계기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유목세력의 개입으로 감씨, 장씨, 마씨 등 단명(短命) 왕국이 이어져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질 겨를마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유목세력이 그러한 개혁을 저지했을 것이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국씨 왕은 유목세력이 개입할 만한 틈을 메우고자 중원의 북위 왕조와 연계를 모색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결국 중국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투루판 땅에서 고립무원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는 선택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註, 2007].

이렇게 해서 개혁을 거쳐 완성한 고창국의 국제는, 명칭은 중국왕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실태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국도인 고창

이외에 투루판 분지의 전역에 20여 개 군현을 설치하였다. 이 수는 고창군시대의 4배를 넘는다. 분지의 서쪽 반을 새로 지배한 것도 요인이지만, 고창군시대에 비해 인구증가가 현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씨 고창국시대의 군현은 군과 현 사이의 통속관계가 없었다. 군인지 현인지는 오로지 해당 오아시스 도시의 인구 규모나 중요성에 달린 것이었다. 양자 사이에 통속관계가 없다는 것은, 중앙 → 군 → 현이라는 명령·지휘 계통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도 현도 동일하게 중앙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군과 현에 담당 관원은 배치되었지만, 군부나 현부라고 하는 관부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 또 군의 장관인 태수도 현의 장관인 현령도 임명하였지만, 임지로 부임한 형적이 없다. 모두 중앙관이 겸임하고 있어 그들은 부임도 하지 않고, 따라서 장관=군·현의 최고 책임자로 직책을 인수할 것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래라면 군현의 하위에 설치했어야 할 시골이나 마을이 있었다는 형적도 전혀 없다[荒川, 1986]. 군현의 하위 단위로는 겨우 국도인 고창에 ‘방(坊)’이 존재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정도이다(關尾, 1999).

행정기구가 이상과 같다면, 당연하지만 문서행정 시스템도 중국왕조와 동일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독립 정치권력이면서 고창국시대의 관문서 종류는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고창군시대와 비교해도 빈약하다.

- ① 個人(官員·民戶 등)이 官府에 提出한 것 : 辭
- ② 中央官府가 國王·王太子에게 提出한 것 : 奏, 啓
- ③ 中央官府가 地方官員에 下達한 것 : 符
- ④ 官府 內에서 揭示된 것 : 班示

이와 같이 관문서 종류가 적은 것은 문자로 하는 전달 방식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주(奏), 즉 중앙관부가 국왕 앞으로 보내 상정한 상주문서이다. 국씨 고창국의 상주문서도 서식의 관점에서는 중국왕조의 상주문서를 본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안(事案)의 내용은 금전이나 세물(稅物)의 출입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음성언어로 치환할 수 없는 숫자 열뿐인 것이다. 따라서 그 이외의 사안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인사 등은 구두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 『주서(周書)』 권50 고창전이 전하고 있는 이 나라의 특이한 행정실체는 이러한 점에서도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關尾, 2002).

그리고 다시 중국 내륙의 문서행정 시스템이 이 땅에서 부활한 것은 당왕조가 서주(西州)를 설치하는 640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6. 고창국시대 소그드인의 문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라카와 마사하루에 따르면(荒川, 1990) 6세기 중순 이후 투루판에서는 그때까지도 소그드인이 하는 교역활동이 활발히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소그드인은 리더인 ‘살부(薩簿)’에 이끌려 자치적인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소그드에 있는 각각의 모국 국명에서 한 자를 뽑아 성으로 갖는 소그드인은 고창국시대의 모든 종류의 문서에 그 이름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본래는 자주적으로 설치한 살부도 관원이라는 성격을 서로 갖는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사국(史國) 출신의 사성(沙姓) 사람 강국(康國) 출신의 강성(康姓) 사람과 안국(安國) 출신의 안성(安姓) 사람

등은 중앙관부에 관직까지 갖고 있었다. 특히 사성 사람은 왕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높은 지위를 얻고, 교역을 하며 왕실의 재산운용을 위탁받고 있었다[荒川, 2007]. 이러한 소그드인은 투루판에 정주하고 있던 사람들이며, 이미 한어와 한문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그들 일족의 것으로 생각되는 묘장도 야르호트 고분군에서 발견되고 있는데(荒川, 1986), ‘한화(漢化)한 매장관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李, 2007].

물론 교역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는 소그드인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을 손에 들고 고창국 지배하의 투루판 분지를 목표로 각지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소그드인 상인의 모습도 투루판 문서로 알 수 있다. 동방의 중국세계에서 견직물을 가져오는 사람, 서방에서 은이나 각종 향료·약품을 가져오는 사람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소그드인 상인이었다. 수도인 고창에서 거둬 퍼져가는 이러한 사치품 거래에 대해 고창국은 ‘칭가전(稱價錢)’이라는 명목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이 징수야말로 왕실의 재정을 윤택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방에서 온 소그드인 상인 가운데에는 노예를 상품으로 반입하는 사람도 있었다. 해당 지역에 사는 한인이 구매자이며, 이러한 노예의 매매를 둘러싼 계약문서도 잔존하고 있다(吉田 외, 1988). 그 가운데는 1점뿐이지만, 소그드어·소그드 문자로 적힌 문서도 있다. 물론 노예의 구매자는 한인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은 제3자인 소그드인의 입회 아래, 소그드인 ‘서기장’의 인가를 얻어 성립했다는 사실이다. 입회인이나 ‘서기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그드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리카와의 생각이지만(荒川, 1999 ; 荒川, 2003], 한인이 소그드어·소그드 문자로 작성한 계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였다는 점을 보면 따라서 투루판은 다민족 공존의 다언어·다문자 사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고창국시대 교부문서

문자의 행방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 더 지적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고창국 말기 620년 전후에 교부문서(交付文書)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납세자에 대해서 납입처인 정부가 납세증명을 실시한 영수증(領收書)이기도 하다. 세의 납입수속에 관한 상세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수나 당 등, 동시대 중국왕조에게서 도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의 서주가 된 640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이런 종류의 교부문서를 계속 발행하고 있었던 것이 그 증거이다. 그리고 마침내 5대를 거쳐 송대에 들어가면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에 문서 양식이 명확히 법제화된다(關尾, 1998). 이러한 교부문서는 일반 농민층이 문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대에는 한인이든 소그드인이든 동등하게 해당 지역에 정주하고 있던 농민층이 교부문서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동종의 교부문서는 서주가 되어 당의 직접 지배하에 들어간 투루판에 한정되지 않고, 당의 기미(羈縻) 지배를 받던 쿠체(庫車)나 코탄(于闐) 등 오아시스 도시국가에서도 작성하고 있었다. 특히 코탄에서 작성한 교부문서는 한자 옆에 코탄 문자를 병기하여 한자·한문어에 익숙하지 않은 코탄 주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關尾, 1997). 납세를 담당했던(문서를 교부했던) 것은 기미 지배의 일익을 맡은 현지의 코탄인이지만, 한자로 쓰인 그들의 치졸한 자서(自署)는 그 미숙도를 헤아리고도 남는다.

8. 누란의 서사재료

처음에 말한 것처럼 327년에 고창군이 설치된 배경에는 4세기 초두 이후 중원의 혼란상태가 있다.

그런데 투루판과 같이 누란에도 전한시대에 군사거점이 설치되었으며 투루판과 비슷한 상황에서 4세기를 맞이했다. 3세기 말에 호남성의 장사(長沙)나 침주(郴州) 등 서남지역에서 3~4세기 초, 즉 오와 서진에서 간독이 대량으로 발견되기전까지는, 누란에서 출토한 3세기 후반의 간독이 거의 유일한 위진시대의 간독 사료군이였다. 이들은 반출된 종이로 된 문서군과 함께 검토하는 일은 종이와 간독을 함께 사용하던 시대에 두 가지가 어떻게 달리 사용되었는가를 해명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간독이든 종이든 이 땅에서 출토한 사료들은 이백문서(李柏文書) 등 일부부를 제외하고, 거의 4세기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은 하서지역에서 온 이주민이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많은 논자가 말했듯이 이 땅에 물을 공급하고 있던 튀부포호수의 건조화는 자연현상이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투루판에 이주민이 집중된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도 있었다.

또한 누란에서 지목병용 상황은 3세기 후반 서진시대의 일이므로, 이 시기에 3세기 전반보다 종이를 더 많이 이용했던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균현제의 범위 밖에 놓인 변경지역이라는 입지를 고려하면 종이를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투루판이나 누란과 같이 장기간 균현제 범위 밖에 있던 지역에서 하서지역과 같이 균현제 범위 안에 있던 곳보다 서사재료로 종이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일까? 서론과 반복이 되지만 향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서지역에서 이주민이 투루판으로만 온 것은 아닌 듯하다는 것이다. 금세기에 들어 쿠체에서 하서지역의 서단둔황(西端敦煌)의 것과 똑같은 화상전묘(畫像磚墓)가 발견되었고(于 외, 2008),⁵ 니야(尼雅)에서도 둔황의 묘장에서 출토한 것과 같은, 소형의 도관(陶罐)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니야대 편, 2007).⁶ 모두 위진에서 5호 16국 시대에 걸친 것이므로, 이주는 투루판을 넘어 더 먼 서방까지 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규모는 투루판으로 온 이주민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규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니야의 경우 간독(封檢)을 서사재료로 일찍이 중국세계에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서사된 것은 카로슈티 문자이며,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니야대 편, 2007).⁷ 봉검과 짝을 이루는 봉니(封泥)를 포함해서 서사재료 문화가 서사되는 문자문화 이상으로 보편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도 수긍이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자문화권의 외연에 이러한 간독 문화권이 있다고 부를 만한 세계가 퍼져 있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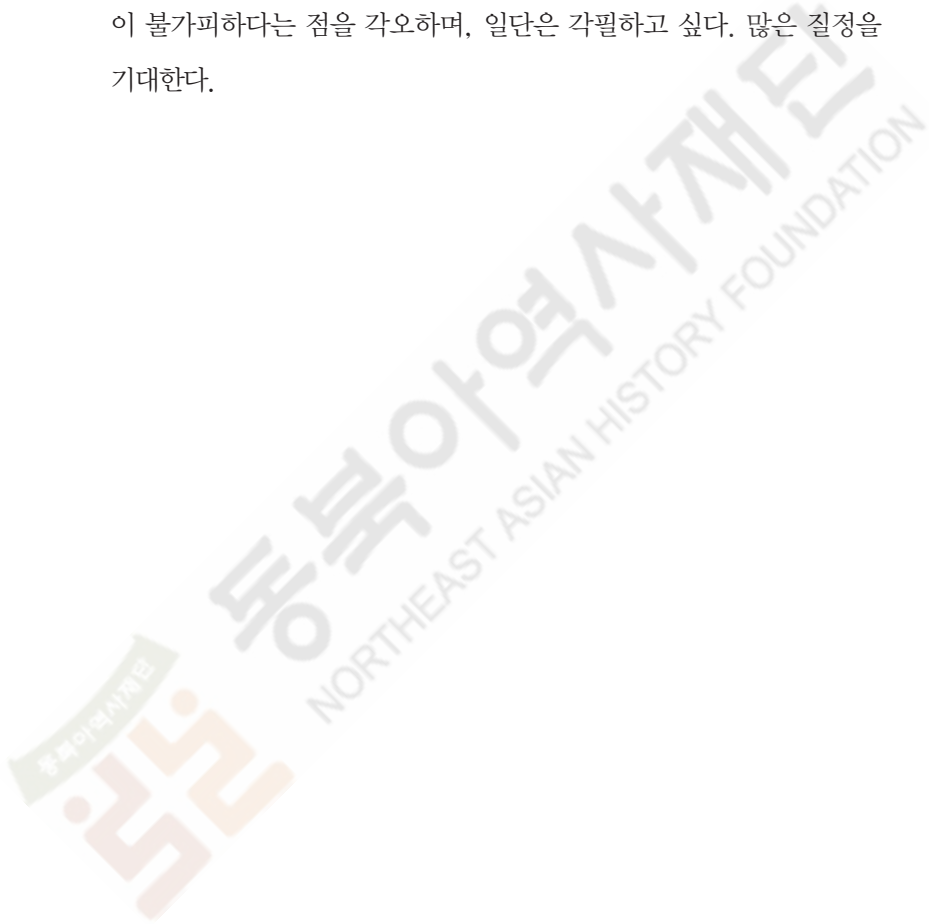
5 특히 1982년 4월에 敦煌市東郊의 新店台2號墓에서 출토된 雕磚(敦博編, 2002 : 54~55)과 같은 기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6 器腹에 문자가 朱書되어 있는 形跡이 있다고 하므로(니야隊編, 2007 : 32), 敦煌과 마찬가지로 鎮墓文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7 카로슈티 문자가 書寫된 封檢은 일찍이 前世紀 初에 출토된 것 외에, 수차례 걸친 조사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최신 보고만 보였다.

9. 맺음말

이상, 잘 정리되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렸지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사건의 소개를 시도했을 따름이다. 처음부터 책임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향후 출토의 문물에 따라 가필이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오하며, 일단은 각필하고 싶다. 많은 질정을 기대한다.



고대 한국의 당대 서법문화 수용

古代韓國對唐代書法的接受

왕위엔진(王元軍, 북경수도사범대학)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常春
樂見佛求薩婆若
於諸師長恭敬尊重
元量善根諸妙善法
利見善

고대 한국의 당대 서법문화 수용

왕위엔진

수도사범대학

중국의 당대 문화는 고대 한국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서법 분야에서 매우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금석문 작품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은 ‘수용’이라는 각도에서 이러한 영향 부분을 고찰한 것이다.

1. 문화적 시각에서 수용의 다양한 경로

대략 2세기 또는 3세기에 한국인은 한자를 사용한 서사(書寫)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한자를 사용한 서사는 시각적인 심미 효과를 반영하고 서법(書法)이 존재하며, 삼국시대에는 한국의 서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법은 일종의 매개체로서 실제 용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종종 문학이나 종교 등의 요소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고대 한국에서 서법은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고대 한국 서법 연구에서 금석문 작품은 가장 직접적이며 유력한 증거이다. 배근흥(拜根興)의 통계에 의하면, “현존하는 한반도와 당조(唐朝) 관련 금석(金石) 비문(碑誌)은 모두 233편”이라고 한다.¹



그림 1 통일신라시대 황복사비편, 왕희지 서법의 영향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유학(儒學) 교육 분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 첫째, 유학생들을 당조(唐朝)의 국학(國學)에 대거 파견하여 공부하게 하였다. 한국의 사서 기록에는 “新羅自事唐以后, 常遣王子宿衛, 又遣學生入太學習業, 十年限滿還國, 又遣他學生入學者, 多至百余人, 買書銀貨則本國支糧, 而書糧, 唐自鴻臚寺供給, 學生去來者相踵”이라는 언급이 보인다. 중국의 어느 학자의 연구와 추정에 의하면, “태종 정관 14년부터 오대(五代) 중엽까지 300년 동안 신라가 파견한 유학생의 수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2,000명이었다. 이 숫자는 매우 방대한 것으로 사방 변경의 기타 나라들의 유학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

1 拜根興(2007), 「朝鮮半島現存金石碑誌與古代中韓交往」, 『陝西師範大學學報』 제 4기.

였다. 당시 당조의 국자감(國子監)에서는 여러 유가경전(儒家經典)을 가르쳤으며, 이를 배울 때에 필연적으로 서사(書寫)와 서사미(書寫美)를 추구하였다. 습자학서(習字學書)는 기초이자 필수과정이다.

당(唐) 고조(高祖) 무덕(武德) 4년에 신라는 처음으로 당에 조공사를 파견하였으며, 당조 또한 통직산기시랑(通直散騎侍郎) 유문소(庾文素)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 “璽書及畫屏風, 錦彩三百段, 自是朝貢不絕” [『구당서(舊唐書)』 권119 「동이전(東夷傳)」] 하였다고 한다. 어느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신라가 당조에 파견한 사절은 126차, 당조가 신라에 파견한 사절은 34차이다.² 사절의 왕래로 당대의 서법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이 한국에 전해진 것이다.

중국문화가 동아시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과거(科擧)는 중요한 경로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선비들이 중국에 와서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특히 한국 각 왕조의 많은 선비들이 중국의 과거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의 문인들과 왕래하였다.

당조의 과거시험은 외국인에게도 참여를 허용하였는데, ‘빈공진사(賓貢進士)’는 외국 응시자가 급제하였을 때 부르는 호칭이다. 가장 최초로 빈공진사가 된 인물은 신라의 김운경(金雲卿)으로 당(唐) 목종(穆宗) 장경(長慶) 원년(821)에 급제하였다. 사서에는 “進士取人, 本盛于唐, 長慶初, 有金云卿者始以新羅賓貢, 題名杜師禮榜” [『옥해(玉海)』 권116 「합평빈공(咸平賓貢)」]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만당(晚唐) 시기 진사의 시가(詩歌) 중에는 ‘빈공진사’를 송별하는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두순학(杜荀鶴)의 시 ‘송빈공 등제후귀해동(送賓貢登第后歸海東)’,³ 장교(張喬)의 ‘송빈공금이오봉사귀본국(送

2 楊昭全(1998), 『唐與新羅之關係』, 載『中朝關係史論文集』, 世界知識出版社.

3 “歸捷中華第, 登船鬢未絲. 直應天上桂, 別有海東枝. 國界波窮處, 鄉心日出時.

賓貢金夷吾奉使歸本國」,⁴ 장빈(張嬪)의 ‘송우인급제귀신라(送友人及第歸新羅)’ 등이 있다.

서법이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당대 문인 중에는 서법에 능한 이들이 많았다. 또한 진사에 합격한 후 관직에 오르려면 이부(吏部)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그중에 서법의 ‘해법주미(楷法適美)’를 요구하였으므로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서법 훈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라인 최치원(崔致遠)은 빈공과에 급제하였는데, 전하는 그의 작품들을 보면 서법이 정묘(精妙)하여 중국에 머무는 동안 교육받은 서법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고려시대 초기의 통치자들도 중국을 본받았기 때문에 시험으로 문관(文官)을 선발하는 과거제(科擧制)에서 서법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었고, 서법을 배우려는 선비들의 열정을 자극하였다. 당대에는 현종(玄宗) 이후부터 서법에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어용서가(御用書家)로 삼았는데, 이들은 서법을 가르치고 서법과 관련하여 황제를 도왔다. 고려의 조정에도 공문서 전문 하급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제도가 있어서, 전해지는 금속 작품들 가운데 많은 수는 바로 한림원(翰林院) 공봉(供奉) 같은 부류의 관원들이 서단(書丹: 금속에 새기기 전 주서(朱書)로 쓴 글씨-역자주)하였는데, “前翰林學士金遠撰并書”라고 기록한 『용두사지철당간기(龍頭寺址鐵幢竿記)』(962) 같은 것이 그것이다.

고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고대 한국인들은 언제나 문(文)과 서(書)를 샀으며,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서법을 배우게 되었다. 『남사(南

西風送君去，莫慮到家遲。”『全唐詩』卷691，「送賓貢登第后歸海東」。

4 “渡海登仙籍，還家備漢儀。孤舟无岸泊，万里有星隨。積水浮魂夢，流年半別離。東風未回日，音信杳難期。”『全唐詩』卷638，「送賓貢金夷吾奉使歸本國」。

史·예장왕억전(豫章王嶷傳)』에는 남조(南朝) 양(梁)나라 문인이자 서법가인 소자운이 동양(東陽) 태수(太守)가 되어 떠날 때, 백제 사신이 건업(建業)에 이르러 그를 만나 서법 작품을 구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소자운을 크게 칭송하며 “侍中尺牘之美, 遠流海外, 今日所求, 唯在名迹”이라 하니, 이에 자운(子雲)이 3일간 배를 멈추고 글씨 30장을 써주고 금화 수백만을 얻었다고 한다. 당대 시인 가운데 백거이(白居易)의 업적은 매우 높는데, 그의 시는 고려에 영향을 주었다. 당(唐) 원진(元稹)의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서문에 있는 백거이 작품은 당대에 널리 전해져 귀천고하를 막론하고 향시 그의 시편을 송독하였다. “又鷄林賈人求市頗切, 自云: 本國宰相, 每以一金換一篇, 甚僞者, 宰相輒能辨別之.”라고 하여 문장을 익히고 시를 읊는 동시에 필히 그 서법의 영향을 받았다.

유종원(柳宗元)은 당대의 중요한 문학가이자 서법가로 한국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명나라 사람 전희언(錢希言)의 『희하·강아첩(戲瑕·姜芽帖)』에는 허문목공(許文穆公)[허국(許國)]이 명을 받아 조선에 사신으로 갔을 때 조선 국왕이 유종원의 『강아첩』에 대해 물어본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往一老先生云: 許文穆公, 昔年以史臣奉使, 冊封朝鮮, 其國王問柳柳州『姜芽帖』, 書法頗佳, 有處可物色否? 文穆一時不知所置對, 事竣還朝, 問諸館中諸公, 亦復茫然, 于是文穆謝病還新都, 以不能應對爲恥, 信乎博識之難也, 余訊故老, 皆不知有『姜芽帖』, 偶閱柳子厚詩, 有重贈劉夢得二首, 其末章云: “世上悠悠不識真, 姜芽盡是捧心人, 若道柳家无子弟, 往年何事乞西賓?” 而劉隨州『禹錫集』中, 亦有答柳柳州三首, 其首篇云: “日日臨池弄小雛, 還思寫論付官奴, 柳家新樣元和脚, 且盡姜芽斂手徒.” 卽此事, 『姜芽帖』信有之乎? 第我輩日聚訟于此, 竟癡龍之間, 猶未及究此僻事, 許公宰輔, 豈暇乏瀾, 不知何足爲病?

비록 명나라 때 일이긴 하지만 조선 국왕이 유종원의 『강아첩』에 관련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의외로 중국 조정의 고관(高官)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유종원의 영향이 이미 한국에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공권(柳公權)의 서법은 당대에 이미 매우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當時公卿大臣家碑板, 不得公權手筆者, 人以爲不孝。外夷入貢, 皆別署貨貝, 曰此購柳書”라 하고 있다. 당시 유공권의 글씨를 구매한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을 것이다.

2. 당태종과 고구려·신라의 서법

당대의 서법에서 태종의 역할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당태종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왕희지(王羲之)의 지고무상한 지위는 없었을 것인데, 혹자는 당태종이 추종하여 왕희지의 ‘서성(書聖)’이라는 지위가 만들어져 이후 서법사의 기본 골격이 다져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당태종은 신라 서법에도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 당태종이 서법과 관련 있는 작품을 신라에 전하면서 신라인의 서법 학습의 범본이 되었다. 둘째, 당태종 자신의 서법이 신라 서법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당태종이 애호하던 왕희지 서풍 또한 신라의 서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관(貞觀) 22년에 신라왕 진덕(真德)이 동생인 국상(國相) 이찬간(伊贊干) 김춘추(金春秋)와 그 아들 문왕(文王)을 파견하여 내조하였다. 태종이 조서를 내려 춘추를 특진시키고 문왕을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으로 삼았으며, 김춘추가 국학(國學)에 가서 석전(釋奠)과 강론(講論)을 참관하기를 청하자



그림 2 당태종의 온천명(당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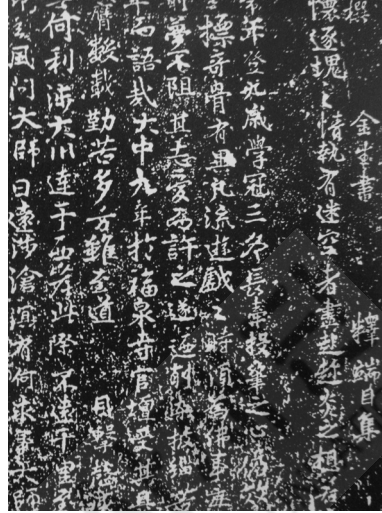


그림 3 신라낭공대사탑명(정명 3년), 석단목의 김성 글씨 집자

태종이 이를 허락하고, 아울러 자기가 직접 지은 온탕비(溫湯碑)와 진사비(晉祠碑) 및 새로 편찬한 『진서(晉書)』를 내려 주었다고 한다.⁵ 사여한 물품으로 보아 당태종의 흥취가 담겨 있는데, 특히 서법을 좋아하여 왕희지를 추종하고 숭배하여 친히 『진서·왕희지전론(王羲之傳論)』을 찬술하여 왕희지가 후세에 서성(書聖)의 지위에 이르도록 하였다. 진사명(晉祠銘)은 당 정관(貞觀) 20년(646)에 건립되었는데,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고 귀환하는 도중에 군신을 거느리고 진사(晉祠)에 머물면서 직접 짓고 쓴 『진사지명병서(晉祠之銘并序)』를 비(碑)로 세운 것으로 행서(行書) 작품이며, 왕희지의 신운(神韻)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서법사(中國書法史)에서 행서로 비를 새기는 것은 당태종의 진사명에서 시작하였다.

‘온탕’은 당연히 온천명(溫泉銘)으로 당태종이 여산(驪山) 온천에서 직접

5 『舊唐書』 권199 상 「東夷傳」.

짓고 쓴 행서 비문(碑文)이다. 이 비는 정관 22년(648)에 건립되었다. 원석은 일찍이 없어졌고, 1900년에 당나라 때 탁본을 둔황(敦煌) 장경동(藏經洞) 석굴에서 발견하였는데 지금은 프랑스 파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온천명은 행서비(行書碑)로 서풍(書風)의 변화가 다양하고 왕희지의 법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당태종이 사여한 탁본이 사본인지, 만약 사본이라면 그가 직접 쓴 것인지 아니면 서수(書手)가 베껴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청 엽창치(叶昌熾)는 『어석(語石)』 권8 「집제가서일칙(集諸家書一則)」에서 “高麗爲唐太宗征服，畏其神，服其教，文字亦罔不率俾。太宗喜右軍書，海東金石集王者，亦有三刻。一爲沙林寺宏覺國師碑，沙門靈澈集，一爲麟角寺普賢國師碑，其正面閔漬文，其陰爲釋山立文，皆集王書也。尤奇者，晋天福五年，興法寺忠湛塔，在朝鮮原州道，崔光胤集唐太宗書，此從右軍書而推類及之，亦可謂慕尙之至矣”라 하였다.

엽창치의 말을 통해 당태종의 왕희지 서법에 대한 애호가 고구려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의 서법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희지의 서법을 집자(集字)한 석각 작품이 출현하였고, 당태종의 글씨를 모아 만든 충담탑(忠湛塔)도 있었다. 집자한 것이라면 분명히 다량의 당태종 서법 작품에 근거하였을 것인데, 고구려에는 당태종의 작품이 매우 많았을 것이고, 아마도 당태종이 사여한 것이거나 그들이 스스로 수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당태종의 서법은 왕희지의 서법을 배운 것으로 특히 행서가 뛰어나다. 당시에 행서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비석이나 묘지 작품은 필히 장중하면서도 안정감이 있고 우아하며 대범함을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는 당태종이 제왕의 신분으로 고대 한국 서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주로 왕희

지 애호 풍조를 이끌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태종의 서법은 비록 취할 바는 있지만 연약하고 아름다울 뿐 굳세고 힘참이 모자라 고대 한국 서법 작품에 끼친 영향은 그리 보편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혹자는 그 영향이 결코 크지 않았다고 말한다.

3. 왕희지 서풍과 집자의 유행

당태종 이세민이 왕희지 서법을 지나치게 애호하여, 세상에 남아 있는 왕희지 진적을 수집하였으며, 그 후 당 황제들도 왕희지 글씨를 좋아하였다. 왕희지 서법 작품을 임모(臨摹)하여 대신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석각에서도 왕희지 서법을 집자하였는데, 함형(咸亨) 3년에 새긴 『회인집왕우군서삼장골교서(懷仁集王右軍書三藏聖教序)』, 개원(開元) 9년에 새긴 ‘당흥복사비(唐興福寺碑)’ 등이 있다. 당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한 것이 약 18기가 있는데, 당대가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회인이 집자한 『성교서(聖教序)』가 가장 빠르고, 스님들이 왕희지 글씨를 집자한 작품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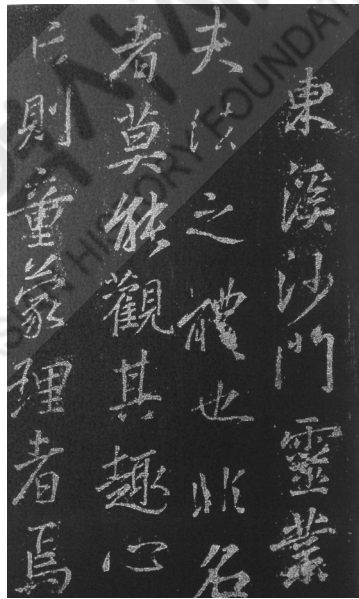


그림 4 영업의 단속사신행선사비

왕희지 서법은 당대중의 추종과 숭배로 그 지위가 최고점에 이르렀으며 중국 당대뿐만 아니라 천하에 두루 미쳐 되어 일본과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에는 왕희지의 서법을 학습하는 것이 전반적인 풍조였다. 왕희지 서법의 수용은 주요하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직접 왕희지의 서법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희지 글자로 집자한 금석 작품을 접하는 것이다.

왕희지 글씨를 배운 것으로는 김생의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朗空大師白月栖云塔碑)’와 석영업(釋靈業)의 ‘단속사신행선사비(斷俗寺信行禪師碑)’(813)가 있다. 884년에 건립된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의 서법은 두 사람이 완성하였는데, 행서와 해서로 되어 있다. 김원과 김언경(金彦卿)이 각각 완성하였는데, 행서 부분은 장법이 산뜻하고 또렷하여 왕희지의 『성교서(聖教序)』를 본받았음이 분명하다. 당나라 때 왕희지 서법을 집자한 각석(刻石) 작품은 매우 많은데, 이러한 방법은 신라에 직접 영향을 주어 신라에서도 왕희지 집자 작품이 많이 출현하였다. 김육진(金陸珍)의 무장사아미타여래조상비(鑿藏寺阿彌陀如來造像碑)(801)와 사림사(沙林寺) 승려 운철(云徹)의 홍각선사비(弘覺禪師碑)(885), 연월을 알 수 없는 황복사비(皇福寺碑)가 모두 왕희지 글자를 집자한 것이다. 엽창치의 『어석』 권 3에는 “自唐太宗伐高麗，威棱遠習 左有豎心，太宗好右軍，書至移其國俗。新羅鑿藏寺碑⁶及高麗麟角寺普賢國師碑，沙林寺宏覺國師碑，皆集右軍書，雖未能抗迹懷仁，亦興福齣碑之亞也。又以好右軍書而并求虎賁之似，興法寺 忠湛大師塔，崔光允集太宗書爲之，‘白云栖云塔’，釋端目集金

6 “碑行書，雜用右軍蘭亭及懷仁大雅所集字，蓋自咸亨開元以來，唐人集右軍書，外國皆知服習，而所用蘭亭字皆與定武本合，乃知定武本，實是唐時所刻因流播於當時耳。” 『海東金石苑(劉燕庭撰)』收 唐鑿藏寺碑(元和)，翁方剛跋云，

生書。金生，唐貞元間新羅人，書法亦入山陰之室也。其篤嗜右軍過於中土鑑賞家津津閣帖矣”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왕희지의 글씨를 어떻게 집자하였던 것일까? 당나라 때 회인이 왕희지 서법을 집자하여 만든 『성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아 신라인이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해 금석 작품을 만드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



그림 5 무장사아미타여래조상사적비, 왕희지 집자

시 한반도에 전해진 왕희지 작품과 선택할 수 있는 왕희지 서법이 많았을 것이다. 왕희지의 서법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영업의 단속사신행선사비(斷俗寺信行禪師碑)는 각 글자의 용필(用筆)과 결구(結構)가 『성교서』와 흡사하여 왕희지 서법에 대한 학습 정도를 엿볼 수 있다.

김생은 성덕왕(聖德王) 10년(711)에 태어났으며, 저명한 서법가이다. 당시 김생은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으나 현재 전하는 것은 매우 적다. 청 유희해(劉喜海)가 편찬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는 「신라낭공대사탑명(唐新羅郎空大師塔銘)」[정명(貞明) 3년]을 수록했는데, 석단목(釋端目)이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발문(跋文)에 “右碑在朝鮮慶尙道榮川郡石南山寺，梁貞明三年崔仁浣撰，釋端目集金生書，…… 跋案，金生唐貞元間新羅人，父母微不知世系，自幼能書，平生不攻他藝，又好佛，隱居不仕，年踰八十，猶操筆不休，行草皆入神，學者寶之，元趙文敏嘗跋金生所書昌林寺碑曰，字畫深有典型，雖唐人名刻未能遠過之，洵非虛譽也”라고 하였다.

양(梁) 정명 3년은 신라 신덕왕(神德王) 6년이다. 석단목이 김생의 글자로 자수가 적지 않은 석각 작품을 할 수 있었다면 당시에 전해지던 김생의 작품이 많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의 사서인 『삼국사기』 권46 「김생전(金生傳)」에는 “崇寧中，學士洪灌隨進奉使入宋，館于汴京，時翰林待詔楊球李革奉帝敕至館，書圖蒞，洪灌以金生行草一卷示之，二人大駭曰，不圖今日得見王右軍手書。洪灌曰，非是，此乃新羅人金生所書也。二人笑曰，天下除右軍，焉有妙筆如此哉。洪灌屢言之，終不信”이라는 기록이 있다. 중국 북송 시기 신라 사신이 김생의 서법 작품을 꺼내자 송나라 관원들이 왕희지 서법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김생의 서법이 왕희지 수준에 필적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김생을 필법의 종사(宗師)로 “東國書法神品第一”이라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석단목이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신라낭공대사탑명(唐新羅郎空大師塔銘)」의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거칠어 아마도 각자를 한 사람이 원래의 모습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희해(劉喜海)가 편찬한 『해동금석원』에는 「신라낭공대사탑명(唐新羅郎空大師塔銘)」을 수록하였는데, 정명 3년이라 하였으며, 청인(淸人) 왕창(王昶)은 『금석취편(金石萃編)』 2편과 『당십삼(唐十三)』, 「낭공대사탑명(朗空大師塔銘)」에서 현경 연간이라 명시하고 “此帖爲朝鮮使臣趙秀三所贈。云是晉時金生所書，碑內未載金生姓氏，字體文體亦不似晉魏人所作，大約是唐碑，苦無書籍可攷”라는 발문을 남기고 있다. 『금석취편(金石萃編)』과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낭공대사탑」을 편찬한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두 책의 문장이 완전히 같아 하나의 탑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해가 있는데, 김생은 711년인 당예종 때에 태어나, 고종 현

경 연간(656~661)에 작품을 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집자 역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석취편』은 잘못되었고 조선 사신 조수삼(趙秀三) 또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금석취편』은 가경 10년(1805)에 편찬되었고,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은 1816년에 조인영(趙寅永)이 중국에 왔을 때 가져온 조선의 오래된 비문의 탁본 수십 종을 유희해에게 주어 이에 기초하여 편찬한 것으로 시간상 『금석취편』보다 늦고 수록된 문장도 더 많다.

한국에서 김생의 영향은 매우 컸으며, 16세기 사람 차천로(車天輅)가 지은 『오산집(玉山集)』 권7에는 “羅代金生筆, 晋時王右軍. 古碑如隔日, 陳迹憶栖云. 臥虎跳龍字, 回鳳舞鸞文. 沈埋還出世, 挑剔番清芬”이라는 시가 전해지고 있어 김생이 한국 서법사(韓國書法史)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전유암산가서(田游岩山家序)」는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목각본(木刻本)으로 역시 김생의 작품이다.

당연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저명한 서법가가 많았는데, 석량지(釋良志), 김인문(金仁問), 한눌유(韓訥儒), 설충(薛聰) 등이다.⁷ 요극일(姚克一)의 서법 역시 “기품(奇品)”이라 칭해졌으며⁸ 왕희지 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7 『韓國古代石刻文化與崔致遠』, (韓)金富順文, 拜根興譯, 載『陝西師範大學繼續教育學院』2004年 第6期 참조.

8 『三國史記』 권48 「姚克一傳」.

4. 구양순 서법의 수용

구양순체(歐陽詢體)는 고대 한국의 서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구양순의 글씨는 일찍이 수(隋)나라에서 이미 명성을 날렸으며, 멀리 해외에까지 알려졌다. 당이 들어선 후 구양순의 글씨는 청색의 화룻불처럼 더욱더 난숙하여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 당 초기에 이미 “八法盡能, 筆力勁險”으로 인식되어 “人得其尺牘文字, 咸以爲楷模”하는 바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일본과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일본의 공해(空海)가 귀국할 때 중국 명인의 목적자로 가운데 오직 구양순의 진적(真迹) 한 권을 가지고 갔을 뿐이다. 그 명성이 전해진 후 고구려에서는 서법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사신을 파견하여 작품을 구매해 갔다. 당 고조가 이러한 사정을 듣고 “不意詢之書名, 遠播夷狄, 彼觀其迹, 固謂其形穉偉耶!”라 하였다고 한다.

구양순의 황보탄비(皇甫誕碑)는 고구려에 영향을 주었다. 이 비는 해서(楷書)로서 수나라 때 건립하였는데, 구양순이 젊은 시절에 쓴 작품으로 긴밀하고 함축적이며 가늘고 힘차다. 옹방강(翁方綱)이 “是碑乃率更行筆最見神采, 未遽藏鋒, 是學唐楷第一必由之路也”라고 한 것처럼 ‘歐體’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엽창치는 “高麗好學歐陽信本體, 劣者如棗梨重開之 皇甫君碑, 佳者亦不乏氣韻, 余所見無爲岬寺遍光零塔, 天骨開張, 得『體泉』三昧”라고 하였다.⁹ 신라시대 한국의 서법은 구양순을 추종하여 커다란 부분을 형성하였다. 신라왕국 시기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한국 서법의 주류는 방정하고 장중한 구양순체라 할 수 있다.

9 叶昌熾『語石』卷二.

구양순은 초당사가(初唐四家)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해법(楷法)이 발전하던 당대에 구양순과 함께 이름을 건줄 수 있는 유명한 서법가로 우세남(虞世南), 저수량(褚遂良), 설직(薛稷), 안진경(顏真卿), 유공권(柳公權), 서호(徐浩) 등이 있다. 그러나 고대 한국에서 구체서법은 다른 서가(書家)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상황은 1350년 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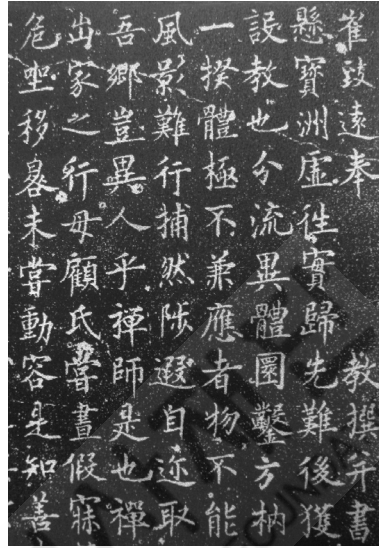


그림 6 최치원이 문장을 짓고 글씨를 쓴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명, 구양순의 영향을 받음

구체서법이 어떻게 이러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까? 대략 다음 몇 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구양순의 신분이다. 구양순 서법이 한국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원인은 먼저 그가 해법을 가르치는 홍문관(弘文館)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당육전(唐六典)』 기록을 보면, 무덕(武德) 초에 수문관(修文館)을 설치하고 무덕 말에 다시 홍문관으로 두었다. 무덕 연간에 구양순이 급사중(給事中)에 임직하고 있을 때, 홍문관에 있는 도서의 필사와 교정을 관장하였다.¹⁰

정관 원년(627)에 구양순은 홍문관에서 해법을 가르쳤다.¹¹ 홍문관 학

10 “其弘文館書繕寫，讎校，亦課而察之。”『唐六典』，門下省卷第八給事中條。

11 “貞觀元年敕，見在京官文武職事五品已上子，有性愛學書及有書性者，聽于館內

생은 모두 5품 이상 관원의 자제들로, 국가의 서법학교를 대표하는 교수의 지위에 오른 구양순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인과 신라인들이 당의 문화를 배우러 가면 훌륭한 스승을 찾기 마련인데, 구양순은 이러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법이 중시되는 것은 도리상 당연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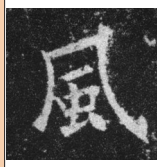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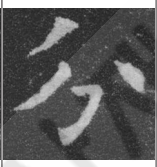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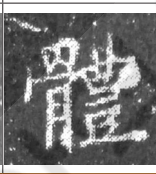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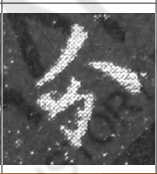

둘째, 법도(法度)의 완비이다. 풍반(馮班)이 “歐陽詢四面停勻, 八方平正”이라 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양순의 글씨는 절구가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엄정하고, 포치(布置)가 뛰어나고 기발한 특징이 있다. 구양순의 해서 비문은 서법을 익히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서 필법’의 규범이었으며, 구양순 서법의 질서정연하고 빈틈없이 치밀한 면모는 그 시대의 심미적 풍격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외부에서 온 학습자들도 법도가 잘 갖추어진 것에 특별한 관심을 부여하였다.

셋째, 고대 한국의 저명한 서법가들이 구양순 서체를 배우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동국유종(東國儒宗)’인 최치원의 서법은 구양순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매우 뚜렷하다. 최치원은 869년 중국에 유학하여 5년 후에 진사에 급제하고, 877년에 선주율수현위(宣州溇水縣尉)가 되었으며, 881년에는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주지양주(駐地揚州)]의 종사관이 되었다. 후당(後唐) 희종(僖宗)은 그를 도통순관승무랑시어사내공봉(都統巡官承務郎侍御史內供奉)에 재수하였다. 884년에 당 사신의 신분으로 귀국하여 신라 국왕에게 시독겸한림학사(侍讀兼翰林學士)와 수병부시랑지서서감(守兵部侍郎知瑞書監)에 재수되었다. 그는 저명한 서법가일 뿐만 아니라 대

學書，其書法內出，其年有二十四人入館。敕虞世南，歐陽詢教示楷法。”對於教示楷法的目的，『新唐書·藝文一』作了介紹：“貞觀中，魏征，虞世南，顏師古繼爲秘書監，請購天下書，選五品以上子孫工書者爲書手，繕寫藏于內庫，以宮人掌之。”，宋王溥『唐會要』卷64「宏文館」記載。

대로 한문학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중국의 『신당서(新唐書)』 「예문지(藝文志)」에는 그의 전이 실려 있고, 『전당시(全唐詩)』 등에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어, 그의 문학적 성취와 함께, 그가 어떤 서법을 선택하고 공부하였느냐 하는 것은 틀림없이 추종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표 1 최치원의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명과 구양순의 구성궁예천명의 글자 비교

<p>구양순 구성궁예천명</p>				
<p>최치원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p>				

최치원의 서법 작품으로는 석각들이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 (887)와 승복사비(崇福寺碑) 단석(斷石) (895)은 최치원이 문장을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그 풍격과 특징이 거의 구양순의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醜泉銘)과 같다. 최치원의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와 구양순의 구성궁(九成宮)의 글자를 선별하여 대비해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승복사비의 잔편은 결자가 시원스럽고 굳세며, ‘구성궁’의 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문들은 한국 경주박물관과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나눠 보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라 전기의 서법가로는 김인문(金仁問)이 있는데, 그의 작품은 그리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태종무열왕비(太宗武烈王碑)를 보면, 완전히

구양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문무왕릉비(文武王陵碑), 김인문묘비(金仁問墓碑), 흥덕왕릉비(興德王陵碑) 등은 모두 구양순 풍의 영향이 분명하다.

한국 금석 작품 중에 구양순의 영향은 <표 2>에 예시하는 작품들을 보면 그 면모를 알 수 있다.

표 2 구양순의 영향이 엿보이는 한국 금석 작품

금석 작품	간립 기간	서자	서법 풍격
태종무열왕비	660	김인문	단정, 수정(瘦挺), 성숙, 구체와 비숫
문무대왕릉비	681	한눌유	단정, 수정, 성숙, 구체와 비숫
김인문비	701		단정, 수정, 성숙, 구체와 비숫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	884	김원, 김언경	해서 부분적 구체, 방정단장, '구성궁'의 영향이 분명함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887	최치원	구체, 황보탄비의 필의를 취함. 수정청준(瘦挺淸俊)
월광사원랑선사탑비	890	석순몽	글자가 가늘고 청준(淸俊)하며 구체의 법도가 있음
보리사대경대사탑비		이환추	황보탄, 도인법사비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	924	석행기	구양통의 서법 풍격과 흡사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940	구족달	구체, 방정단장, '황보탄비'의 영향이 분명함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943	구족달	'방언검비'와 유사함, 북비(北碑)의 특징이 있음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탑비	946	유훈율	'구성궁'과 유사

5. 불교문화와 서법

일본 학자인 서오정(西塲定)은 일찍이 당대의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자, 율령, 불교, 유교 등을 포함하여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교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데는 서법 또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어느 의미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대의 서법과 불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둘의 연관성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승려 계층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불교의 ‘사경’, ‘마애각경(摩崖刻經)’, ‘석판각경(石板刻經)’ 등은 모두 서법을 표현하는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당시 사회는 불교를 숭상하는 분위기여서, 위로는 제왕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도 불교 서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주었다. 당대의 한국은 불교가 국교로서 번성한 시기로, 남아 있는 묘비, 고승을 기념하는 불탑, 사원의 석비 등을 포함한 금석문들은 불교와 관련된 작품이 매우 많으며, 서법 또한 수준이 매우 높다.

고대 한국의 현존 금석문들은 불교와 관계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 서법은 불교의 형식을 빌어 전해졌으며, 당시 승려들 중에서 일군의 걸출한 서각가(書刻家)가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통일신라 서법을 형성한 주요한 신진 세력들로, 서법의 붐을 일으키고 전파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어석(語石)』 권8 「外國人書一則」에는 “中國石刻而異域之人書之, 惟房山雷音洞石經, 有高麗僧達牧書”라 하였다. 달목(達牧)의 『도솔천경(兜率天經)』은 대략 원화(元和) 4년에 쓰여졌다. 선덕왕 때 승려인 양지(良志) 또한 서법에 능하여 『삼국유사』 권4 「석량지전(釋良志傳)」에는 그에 대해 ‘善筆札’

이라 하였고, 일찍이 「靈廟法林二寺額」을 썼다고 하였다. 명인(名人)의 서법 작품을 모은 석각 작품은 당시의 승려들의 공헌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전하는 글씨와 각자(刻字)가 우수한 금석 작품들을 통해 그 서법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데, <표 3>과 같다.

표 3 승려들이 남긴 금석 작품들

금석 작품	시간	찬자	서자	각자	특점
감산사미륵보살 조상기	719	설총	김취원, 석경용		
감산사아미타여래 조상기	720	설총	김취원, 석경용		
단속사신행선사비	813	김현정	석령업		왕희지 「성교서」 풍격, 매우 정묘하고 아름다움
월광사원랑선사탑비	890	김영	석소몽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924	최치원	석 해강		
정토사법경대사지등탑비	943	최언휘	구족달	승광에 장초 행충 행초	



그림 7 화엄사석각화엄경(통일신라), 당대의 사경체와 일치

당대의 불교 ‘사경’의 흥성으로 자형이 정제된 단정하고 장중한 해서가 출현하였는데, 이를 ‘사경체’(寫經體)라고 부른다. 통일신라 시기의 『화엄사석각화엄경(華嚴寺石刻華嚴經)』¹²을 살펴보면, 당대의 ‘사경체’와 결코 다르지 않다. 불교가 크게 흥성한 시대에 불경을 베껴 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당나라에서 전해지거나 각종 경로를 통해서 얻은 ‘사경본’은 고대 한국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서법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승려들 중, 글씨에 능한 사람이 많았는데 첫째, 불교에 서는 불경을 베끼는 것이 공덕을 쌓는 행위로 여겨져 사경 서법의 수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둘째, 관방(官方)에서 행하는 ‘사경’은 정부의 해서 전문가가 완성하는 까닭에 여러 해법이 공정하고 법도를 잘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지영(智永)이 쓴 800본의 『진초천자문(眞草千字文)』이 절동(浙東) 지역 여러 사원에 배포되어 ‘사경’의 범본이 되었는데, 유포된 지역이 절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찍이 돈황 막고굴에서 정관 연간에 임시한 지영의 『진초천자문』이 발견되었는데, 서법의 형신(形神)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기의 『화엄사석각화엄경』의 서법은 지영의 『진서천자문(眞書千字文)』과 유사하다. 아마도 당대 지영의 서법을 ‘사경’의 범본으로 하였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경’ 서법은 서법예술의 중요한 내용으로 불교가 서법예술에 끼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서법은 문화의 구성 요소이면서 또한 문화 전파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고대 한국은 중국 당대의 영향을 받아 서법문화의 기초를 형성했다. 서법의 범본을 선택할 때 구양순이나 왕희지에 더욱 편중하

12 조동원 편(1994), 『增補韓國金石文大系』 권1 제26항 원광대학교 출판부.

였고, 기타 문화 명인인 유종원 같은 사람의 서법 또한 기꺼이 받아들였다. 불교문화와 서법의 밀접한 결합으로 양자는 상호 빛을 발하였고, 고대 문화예술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 이 또한 동아시아 문화가 하나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당연히 중시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 서풍의 특징과 독창적 미의식

김수천(원광대학교)



觀向天
億世界百千億
億那由他不可
定去界等一切

於諸師長恭敬尊重
元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利見善

고구려 서풍의 특징과 독창적 미의식

김수천
원광대학교

1. 머리말

최근 들어 서예가 다른 미술 분야 못지않게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기점은 대학서예의 출현으로부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89년 원광대학교가 서예과를 설립하였고, 잇달아 경향각지에 학부와 대학원이 서예과를 신설하여 전에 볼 수 없었던 서예학의 연구풍토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예학의 연구풍토 속에서 서예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논문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서예사 연구가 시작된 후 20년의 역사는 건축, 도자기, 회화, 조각 등의 미술 분야가 이루어놓은 100여 년의 역사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러나 논자는 서예사 연구의 양적인 빈곤함을 문제 삼기보다는 연구방법이 쇠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한국미술

사 초기 연구자로부터 찾아보았다. 주지하다시피 미술사 연구는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의해 시작하였다. 한국미술은 19세기 말 유럽인들이 관심을 보였고, 독일인 에카르트(Andre Eckardt, 1884~1991)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유종열(柳宗悅), 1889~1961]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 ‘한국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고유섭(高裕燮, 1905~1944), 윤희순(1902~1947), 김용준(1904~1967)으로 이어져 한국미술의 특징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술작품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지닌 사람들이었으며, 다양한 인문학적 교양을 지닌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한국미술을 외래문화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려 했다. 그런데 이 학자들 이론의 공통점은 중국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보다 변용이라는 측면에 더 비중을 두려 했다는 점이다.¹ 수용을 문제 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다 쓴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고, 변용을 문제 삼는 것은 자기화, 창조적 자기역량, 자기다운 모습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오늘날의 한국서에 전반은 이론과 실기 할 것 없이 남의 것을 받아들여 재창조하는 변용의 모습보다는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관점에 더 많은 비중이 쏠려 있었다. 이 글은 고구려 서풍의 특징과 독창적 미의식이 무엇이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래문화의 수용보다는 변용에 비중을 두려고 한다.

1 한국미술이론을 연구한 초창기 학자들의 연구 성향은 대부분 중국미술의 수용적 측면보다는 변용적 측면에 비중을 둬으로써 한국미술의 독창성과 정체성에 대해 많이 언급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日人官學者로 대표되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7~1935]는 한국미술을 중국미술의 변용적 측면보다는 수용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권영필 외 지음(2005), 『한국의 미술 다시 읽는다』, 돌베개 참조.

한국의 서예는 아직까지 중국의 서예와 다르다는 개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미술의 다른 장르(건축, 조각, 회화, 도자기 등)에서는 일찍부터 한국미술의 독창성에 대한 의미부여가 활발하게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서예가 지닌 독창성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미술이론연구자들이 이루어놓은 학문적 성과를 적극 참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미술과 중국미술의 기본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잡한 이론적 개념을 동원하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 이해가 가능하다. 중국여행을 하면서 바라본 궁중건축, 조각, 정원, 도자기, 분묘 등을 상기해보자. 위용과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자금성의 태화전과 포효하는 사자 석물, 정원 어디에 서나 볼 수 있는 기암괴석(奇巖怪石), 박물관에 진열된 화려하고 섬세함을 자랑하는 명칭 자기, 마치 살아 생전의 저택을 연상하게 하는 웅장한 분묘,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 한국 땅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이와 같은 미술양식의 차이는 고구려 미술과 당시 중국미술의 비교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고구려 고분벽화, 금관, 불상, 분묘 등은 당시 중국의 미술문화와 다르다. 예를 들어 신화적인 성분이 농후한 고구려 고분벽화는 특수한 분위기로 평가되고 있으며, 불상은 같은 시대의 중국상에 비해 단순하고 입체감이 두드러지며, 분묘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구려 것이 자연에 가깝다. 이러한 한중미술 비교와 관련한 일련의 지식들은 앞으로 이어질 고구려 서예의 독창성에 대한 언급을 생경하지 않게 하는 기본 지식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구려는 한국서예의 독창적 미의식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 당시 유물 중에서 비문, 목서, 호우, 전명, 금동불상명문 등에

는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창조적 재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고구려 서예의 독창적인 미의식은 백제와 신라 서예의 미의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한국 고대 서예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밝히려고 한다. 아울러 그동안 동서양의 미술사가들이 한국의 건축, 도자기, 회화, 조각사를 연구하면서 밝힌 독창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그와 관련하여 고구려 서예가 지닌 독창적 미의식을 고찰하려고 한다.

2. 고구려 서풍의 특징

1) 비, 호우, 각석

고구려의 비(碑)와 각석(刻石) 글씨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이지만, 당시 중국에서 성행한 글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구려의 비와 각석은 대부분 5, 6세기에 제작한 것들이다. 이 시기는 동진, 남북조시대에 해당하며 비와 각석에 해서가 성행하던 시기인데, 고구려에서는 고풍스런 전서와 예서의 느낌을 주는 글씨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당시 중국의 서예와 성질을 달리한다.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414)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대왕이 붕어한 지 2년 후에 아들 장수왕이 부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훈적비(勳績碑)이다. 그 건립연대는 장수왕 2년이며, 동진(東晉) 의희(義熙) 10년에 해당된다. 이 능비는 4각 기둥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원석(原石)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그림 1). 광개토왕릉비는 6m가 넘는 거비(巨碑)로 지금까지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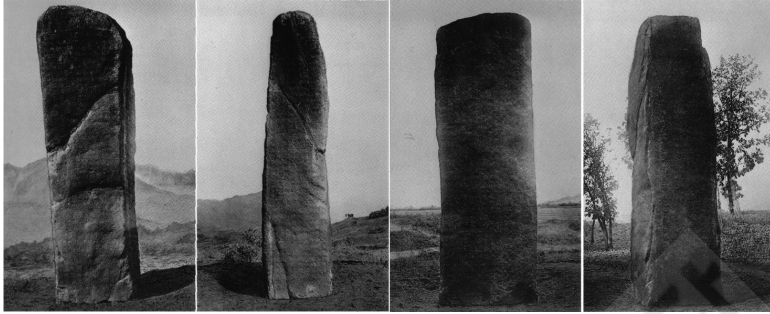


그림 1 광개토왕릉비 4면

계 최대의 것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당시 고구려는 중원의 삼국분란이나 위진 교체기 또는 5호16국 시기의 혼란한 중국을 넘볼 수 있는 동북아의 패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인 광개토왕이나 그 사왕(嗣王)인 장수왕이 동북아에서 최대의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을 것이다.²

광개토왕릉비 서체의 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광개토왕릉비(그림 2)는 서한의 고예(古隸)를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광개토왕릉비가 서풍상 전진(前秦)의 광무장군비(368)(그림 3)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영향설을 펴기도 한다. 그 당시 전진에서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왔고, 교섭관계가 빈번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광개토왕릉비서체가 전진의 서예를 본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개토왕릉비 서체가 낙랑의 전명(傳銘)과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낙랑은 기원전 108~기원후 308년까지 400년간 존속했으므로 낙랑의 전명이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견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낙랑

2 이형구·박노희(1987), 『광개토대왕릉비 신연구』, 동화출판공사, 21~22쪽 참조.



그림 2 고구려 광개토왕릉비



그림 3 전진광무장군비(왼쪽)



그림 4 신안도소마만계역각석(오른쪽)

의 서예는 광개토왕릉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형구는 광개토왕릉비 서체에 대해 말하기를 “필획과 사법(寫法)은 고예법(古隸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진대(秦代) 권량명(權量銘), 서한(西漢) 초 각석(刻石), 한대(漢代) 금문(金文), 전문(博文), 인문(印文)의 전이한 고예(古隸) 풍격을 표현해낸 것에 가깝다”³고 하여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광개토왕릉비가 중국의 다양한 서체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들어 송명신은 「북위와 고구려 서예비교연구」라는 논고에서 광개토왕릉비 글씨가 신망(新莽) 시기의 각석(그림 4)을 모방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광개토왕릉비 연원의 해석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⁴

위에서 제시한 여러 학자의 견해는 광개토왕릉비의 연원을 추적하

3 이형구·박노희(1987), 앞의 책, 39쪽.

4 송명신(2007), 「북위와 고구려 서예비교연구」, 『한중서예의 비교연구』, 한국서예학회 추계학술대회, 13쪽.

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광개토왕릉비의 서체를 설명할 때 중국서예의 영향설만 가지고는 이 서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이 비문에는 외부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용준은 비문에 대한 감회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비는 동양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석 그대로 세운 것과 아무런 修飾이 없으며, 글씨도 雄偉奇崛하여 장엄한 맛을 던져주는 것이 고구려 사람의 기상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 더구나 그 비형(碑形)의 웅대한 맛은 마치 우레 소리를 듣는 것도 같으며, 바다 소리를 듣는 듯한 장엄한 감정을 자아낸다. 돌로 만든 한 덩어리의 비에서 고구려 사람들의 맥박을 같이 느끼고, 고구려 사람의 장쾌한 기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예술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⁵

이 짙막한 글 속에는 광개토왕릉비가 갖는 독창적 성질이 명쾌하게 함축되어 있다. 김용준의 말대로 광개토왕릉비는 모방의 비가 아니며, 고구려인들의 위용과 기상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광개토왕릉비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자연석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형구는 이 능비(陵碑)의 비신(碑身)은 발해(渤海) 연안의 이른바 동이민족 거석기념물의 하나인 선돌(menhir)과 닮았으며, 이 능비는 귀부(龜趺)와 제액(題額)을 갖춘 화려함을 보이는 중국의 비석들과는 달리 자연스러움과 질박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능비와 같은 자연석 비문의 형식을 중원고구려비, 신라진흥왕순수비와 일본 고대삼비(古代三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

5 김용준(1998), 『한국미술대요』, 범우사, 33~34쪽.

면서 이들을 고구려식비(高句麗式碑)라 이름하고 있다.⁶

광개토왕릉비는 일반 예서와는 달리 파책(波磔)이 없이 둥근 점과 직선의 필획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한 느낌’은 단조로운 느낌이 아니라, 불필요한 수식을 모두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순미가 갖는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의식을 논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왔다. 한국미술이 갖는 단순미는 한국미술의 특징을 가장 최초로 제시한 에카르트와 야나기가 강조하였으며, 이들의 이론은 한국미술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광개토왕릉비 서체의 특징인 단순성의 구조가 조선시대 한글 판본체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5). 둥근 점과 직선의 필획만으로 이루어진 광개토왕릉비의 단순화된 구조는 1,000년 후에 제작된 훈민정음판본서체와 경계를 전혀 느끼지



그림 5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와 조선시대 훈민정음판본서체

6 이형구·박노희(1987) 앞의 책, 48~49쪽.

못할 정도로 조화를 잘 이룬다. 많은 사람들이 삼국시대 때 간직하고 있던 한국서예의 정체성과 독창성이 통일신라시대를 기점으로 점점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한국서예사의 기저에는 한민족의 정서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와 조선의 훈민정음판본서체의 관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 이체자

광개토왕릉비에는 이체자(異體字)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이체자 중에는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도 있고, 중국의 여러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이체자도 있다.⁷(그림 6)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있다는 것은 문자사용이 당시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⁸

광개토왕릉비 서체는 매우 다양한 결구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그림 7) 이 비문에는 좌변과 우방의 분배가 좌우대칭형인 글자가 많다.

좌우대칭형	南	富	萬	帝	昔
좌대우소형	記	軌	都	單	賊
좌소우대형	相	領	惟	烟	橫
사다리꼴형	駕	看	羅	言	負
역사다리꼴형	基	男	是	息	恩

그림 7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의 다양한 결구법

7 이 도표는 문자학을 전공한 배옥영 선생의 견해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위의 두 줄은 중국의 비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글자이고, 아래 두 줄은 중국의 제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글자라고 한다. 원광대학교 서예과 논자의 연구실에서 2009년 5월 9일.

8 이형구·박노희(1987), 앞의 책, 40쪽 참조.

이 비문에는 좌변과 우방의 분배가 좌우대칭형인 글자가 많다. 좌우대칭형은 정적이고 근엄함을 느끼게 한다. 그와는 다르게 좌대우소형, 좌소우대형을 한 글자들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글자의 상부(上部)를 작게 하고 하부(下部)를 크게 한 사다리꼴, 그와 반대로 글자의 상부를 크게 하고 하부를 작게 한 역사다리꼴을 한 글자들도 발견된다. 이러한 결구법은 글자에서 역동적 생명력이 느껴지는 요인이다. 상하좌우의 크고 작은 분배는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해학과 골계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외적인 표현기법은 남산돌부처, 석장승, 목장승, 분청사기 등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한국미술 전반에 유전인자처럼 작용하고 있다.

광개토왕릉비 서체는 변화가 많다. 이 당시에 중국에서 제작된 비문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밝혀냄으로써 광개토왕릉비 서체가 지닌 변화미의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에서 보듯이 광개토왕릉비(414)와 동진의 찬보자비(405)는 모두 변화가 많은 부정형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동일자비교표(그림 9)에 나타나듯이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는 동진의 찬보자비보다 변화가 더 풍부하다. 이러한 동중유이(同中有異)한 차이점은 당시 한중비문서예를 도판비교분석을 하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구려 서예가 갖는 부정형적 특징에 대해서는 본장 제4절 ‘금동불상명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밝힌다.

광개토왕릉비 서체의 특징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서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중국의 비문서체는 주로 예기(隸氣)가 있는 해서가 성행하고 있었다. 왜 당시 고구려인들은 중국에서 성행한 서체를 쓰지 않고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성행했던 고예(古隸)를 본받으려고 했을



그림 8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와 동진 찬보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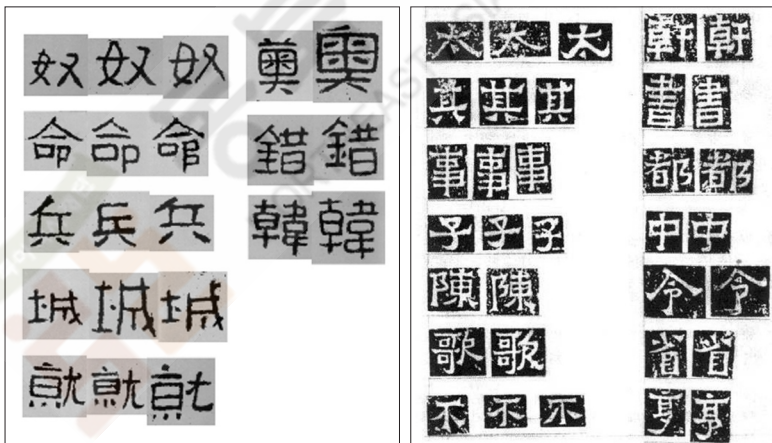


그림 9 고구려 광개토왕릉비와 동진 찬보자비 동일자 비교표

까. 이 당시 대외교섭이 빈번하여 충분히 중국에서 유행하는 비문서체를 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에도 말이다. 이 점에 대해 혹자는 고구려 서예문화의 후진성을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총문준(叢文俊)은 1996년 광개토왕릉비 연구 100주년 고구려 학술대회에서 “고구려가 지역적으로 변방에 위치하고 있고, 한자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데 서법을 숭상하는 기풍이 없었으므로 시대적인 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양동은 “고구려가 중원의 서체변화를 몰라서 서한시대의 고예를 쓴 것이 아니라, 장수왕이 국력을 기울인 이 기념사업에 국가적 권위와 위엄을 갖추기 위해 고구려다운 정취와 풍격이 우러나는 전형적인 자형(字形)을 염두에 둔 고구려의 선택으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의식용 국정서체로 보아야지 단순한 지역적인 편벽성이나 문화적 폐쇄성에서 오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⁹ 김양동의 주장처럼 고구려인들이 당시에 유행한 해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비문의 용도상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진나라 때 진시황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비문의 메시지의 성격에 맞게 송덕비체를 창조했듯이, 장수왕 역시 선왕인 광개토대왕이 이루어 놓은 거대한 업적과 위엄과 권위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서 고심 끝에 선택한 의식용 서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구려인들의 서사문화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광개토왕호우(415)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그림 10). 광개토왕호우는 광개토왕릉비를 제작한 지 1년 후에 고구려에서 제작한 것으로 개별적인

9 김양동(2000), 「중원고구려비와 고구려 금석문의 서체에 대하여」, 『중원고구려비의 신조명』, 제6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2000년 10월 13~14일, 2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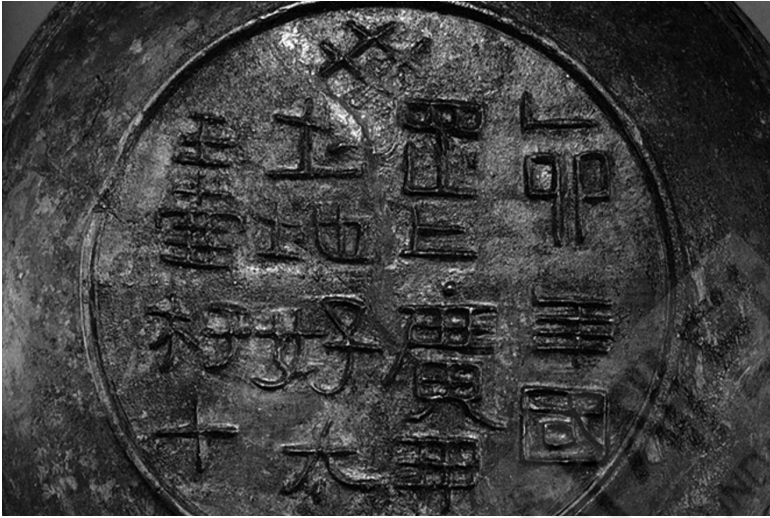


그림 10 고구려 광개토왕호우

글자 형태로 보았을 때 광개토왕릉비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글자 배열[장법(章法)]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금석문은 전혀 다르다. 광개토왕릉비가 계선(界線)을 그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면, 광개토왕호우는 글자의 대소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서로 다르고 글자의 배열 또한 불규칙하다. 이렇게 같은 서체를 쓰더라도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고구려인들이 재료와 용도에 따라 글씨를 적재적소(適材適所)하게 변용시킬 줄 아는 심미적 감수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릉비 서체의 심미적 감수성은 멀리 중원고구려비(5세기 중반)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11). 자연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고풍의 스타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개토왕릉비와 유사하다. 그러나 중원고구려비는 해서적인 필획을 더 많이 가미하고 있다. 해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둥글둥글한 전서의 원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이러한 원필이 반영된 해서는 농오리산성마애각석(5세기 후반)도 마찬가지다



그림 11 고구려 중원고구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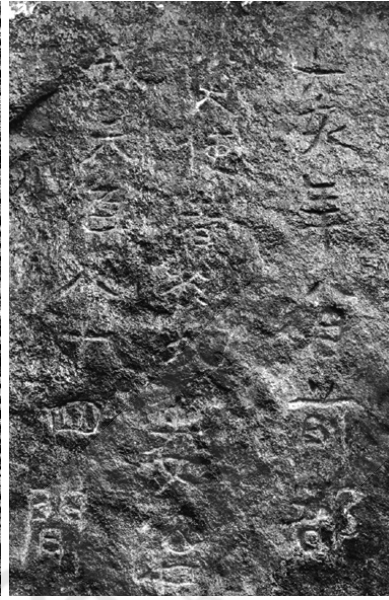


그림 12 고구려 농오리산성마애각석

(그림 12). 이 글씨 역시 전서를 방불케하는 둥근 획을 해서에 섞어 쓰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글자 안과 밖의 공간이 현저하게 넓고 여유롭게 보이며 아주 편안한 느낌을 준다. 굳세고 단단한 선질과 밀도 높은 결구처리로 미루어 서예의 내공이 높은 사람이 쓴 것으로 추측된다.

이보다 1세기 후에 제작된 평양성각석(6세기 후반)(그림 13)은 해행의 필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광개토왕릉비부터 중원고구려비, 농오리산성마애각석이 보여주었던 고풍스런 전예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평양성각석은 해서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오체(五體 :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의 다양한 풍미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글씨 상하좌우의 기맥(氣脈)이 잘 통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마치 좋은 전각 작품을 보는 느낌을 준다.



그림 13 고구려 평양성각석

이 비문은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강유위(康有爲) (1858~1927)의 『광예주쌍즙(廣藝舟雙楫)』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서예이론을 대표할 만한 이론서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강유위는 고구려의 서예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는 「보남(寶南)」이라는 논고에서 고구려 평양성각석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高句麗故城刻石〉(평양성각석) 또한 高古하고 新異한 자태가 있다.¹⁰

여기에서 우리는 평양성각석에 대해 상찬한 강유위가 청말을 대표했던 서예이론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유위는 비품(碑品)이라는 논고에서 비의 등급을 나누었는데¹¹ 평양성각석을 고품하(高品下)

10 「高句麗故城刻石」, 也高古有新異의 姿態 [...] 又像新羅眞興大王巡狩管境碑, 新奇宕逸古樸渾厚, 乃出於外國. [...] 像高句麗故城刻石, 新羅巡狩管境碑, 發現於遼遠의 外國, 但其高美의 地方, 已經冠絕古今. 康有爲, 「寶南」, 『廣藝舟雙楫』.

11 康有爲가 나눈 비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神品, 妙品上, 妙品下, 高品上, 高品

下)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고품(高品)은 높은 품계에 속한다. 고구려 평양성각석은 오늘날 북위서(北魏書)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장맹용비(張猛龍碑)[정품상(精品上)], 장흑여묘지(張黑女墓誌)[정품하(精品下)], 시평공조상기(始平公造像記)[능품상(能品上)]와 수나라의 글씨를 대표하는 용장사비(龍藏寺碑)[정품상]보다도 높은 등급에 속해 있다.¹²

고구려의 고유 서풍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우위의 평양성각석의 견해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고구려의 비와 각석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징은 서풍의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는 서체를 본받지 않고, 고구려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순하고 질박하고 고풍스런 토속 서풍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묵서

고구려에서 발굴된 묵서(墨書)는 매우 희귀하다. 이 시기는 중국서예사의 황금기라 불리는 동진(東晉)과 맞물려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고구려에서 발굴된 묵서는 대부분 벽화에 쓴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묵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동수묘지묵서(冬壽墓誌墨書)(357)(그림 14) : 고구려 고분벽화는 우리나라 미술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미술사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안학3호분의 동수묘지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벽화의 기법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下, 精品上, 精品下, 逸品上, 逸品下, 能品上, 能品下. 康有爲, 앞의 책, 「碑品」.

¹² 김응현(1995), 『書與其人』, 동방연서회, 30쪽.



그림 14 고구려 「동수묘지목서」

있다. 이것이 제작된 시기는 동진시대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왕희지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라는 점과 함께 왕희지의 불후의 명작으로 전하는 「난정서」⁽³⁵³⁾의 제작 시기와 아주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응현이 밝혔듯이 「동수묘지목서」가 갖는 의미는 진적(眞迹)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당시의 묵서는 매우 희귀하며, 「동수묘지목서」와 비슷한 시기에 쓴 왕희지의 진적이 하나도 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묵서는 당시에 서예가가 직접 쓴 육필(肉筆)이 어떤 형태인지를 설명해주는 좋은 자료다. 김응현은 “왕희지가 「난정서」를 쓴 지 몇 년 뒤에 「동수묘지목서」를 제작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면서, 그동안 「난정서」를 위물(僞物)로 보려 했던 주장들이 이 「동수묘지」의 발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았다. 김응현은 동수묘지의 서풍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했다.

동수묘지의 서풍은 가장 寬博하면서 어디 하나 凝滯한 구석을 찾을 길이 없을 만큼 流美하며 중요한 「宣示帖」을 보는 것 같으며 왕희지의 「來禽帖」보다는 너그럽고 자연스럽다. 이로써 동수묘지의 발견은 곧 鍾(중요)·王(왕희지) 이래의 서법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면서 고구려 서법의 높은 수준과 그 格致의 純雅함은 漢晉으로도 描抗할 만하다.¹³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김응현은 「동수묘지묵서」의 서체미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동수묘지묵서」에 나타난 필성(筆性)으로 볼 때 중요한 「선시첩」과 왕희지의 「내금첩」에 비유한 것은 약간의 이의제기를 남긴다. 이유는 서체의 특성상 유사성이 적다는 점이고, 더욱이 왕희지의 글씨는 엄격한 이성과정을 거친 글씨인 데 반해 「동수묘지묵서」는 비교적 솔의적(率意的)인 표현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인 글씨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규복은 이 글씨를 한간(漢簡)부터 이어진 진대(晉代) 초기 해서체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김응현과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다.¹⁴ 「동수묘지묵서」는 서체에 대한 연원은 딱히 어떤 한 서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언할 수 없을 정도로 독창성이 강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벽화에 나오는 그림과 글씨가 갖는 상관성이다. 바로 이 문제는 「동수묘지묵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로부터 모필 서사를 하는 서예 문화권에서는 서화동원(書畫同源)이라는 사고 속에서 글씨와 그림을 이해

13 김응현(1995), 앞의 책, 30쪽.

14 이규복(2001), 『한국서예사1』, 이화문화출판사, 15쪽.

하려 했고, 그림을 그린다 하지 않고 ‘쓴다[사(寫)]’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글씨와 그림이 서로 동근생(同根生)임을 주장하는 서화이론들은 동아시아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이것은 동아시아 미술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논구되는 「동수묘지묵서」 또한 벽화에 나오는 그림과 다분히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동수묘지 서벽에 그려진 묘주초상과 묘주부인상을 보면 벽화의 수준이 매우 세련되고 생명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옷 주름 선의 표현이다(그림 15). 묘주부인상의 옷 주름은 마치 고개지의 춘잠토사(春蠶吐絲)¹⁵를 연상하게 한다.¹⁶ 반면에 묘주초상의 옷 주름은 굵고 거침없는 터치가 광초(狂草)의 필획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동수묘지묵서」 아래에 그려진 인물 장하독(帳下督)¹⁷의 옷 주름은 묘주와 묘주부인의 옷 주름



그림 15 고구려 동수묘지 벽화의 묘주부인, 묘주, 장하독

15 春蠶吐絲는 봄 누에가 실을 토한다는 뜻으로 인물화의 선이 마치 봄 누에가 실을 토하듯이 부드럽고 輕妙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통상 고개지 선묘의 특징으로 일컬어진다.

16 葛路 지음, 姜寬植 옮김(1990), 『中國繪畫理論史』, 미진사, 148쪽.

17 임금이나 높은 지위의 장군 아래 있던 군사 지휘관.

과는 또 다른 분위기이다. 이와 같이 묘사하는 대상에 따라 적재적소마다 표현을 달리하는 변통의 감수성은 「동수묘지묵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동수묘지묵서」는 독립된 글씨가 아니라 벽화와 조화를 이뤄 쓰여진 글씨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 서체를 그대로 모방했다기보다는 묘주와 묘주부인과 장하독의 옷 주름 선이 달라지듯이, 벽화 전체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상황에 맞게 쓴 글씨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 바로 이러한 점은 「동수묘지묵서」 글씨의 결구와 배열을 더 회화적으로 이끈 요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고구려의 벽화가 어떤 특정 서체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벽화와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후에 제작된 「덕흥리고분벽화」에서도 발견하는 바이다.

덕흥리묘지묵서(德興里墓誌墨書)(408)(그림 16) : 덕흥리벽화고분묘지에는 600여 자나 되는 장편의 묵서가 담겨 있다. 글씨는 거칠고 힘찬 느낌을 주며 해서와 행서가 분리되기 이전의 단계로 보여진다. 고광의는 이 묵서가 행서로 접어드는 과도적 요소들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13군태수배례도(十三郡太守拜禮圖)」 묵서는 자형이 활달하고 숙련된 행서로서 묵서의 체세는 왕희지의 행서 중에서 이른 시기의 작품인 「이모첩(姨母帖)」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¹⁸

고광의가 제시했듯이, 이 묵서는 행서의 과도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왕희지의 「이모첩」과 닮아 있다.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으로 보아서는 서진(西晉)의 누란에서 출토한 목간류와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묵서는 앞서 제시한 「동수묘지묵서」처럼 그림과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권영필은 동

18 고광의(2007), 「고구려 서체 연변 연구」, 『제7회 원광서예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원광서예학회, 2007년 5월, 11쪽.



그림 16 고구려 덕흥리묘지의 「13군태수배례도」 벽화와 묵서

수묘지벽화보다 반세기 후에 그려진 덕흥리 고분벽화에 이르러 고구려적인 특징이 더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소박하면서도 고졸한 풍의 배경묘사가 고구려 화공의 숨씨임을 말해준다는 것이다.¹⁹ 벽화 「13군태수배례도」에는 태수(太守)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인물 옆이나 위에 묵서가 쓰여져 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도시적이고 인품이 세련된 사람들처럼 보이고, 한편으로 부리부리한 눈과 시커먼 눈썹과 뺨뺨한 수염이 강직하고 의기에 찬 관료의 모습을 강조한 표현으로 다가온다. 이 묵서에 쓰여진 글씨는 획 하나하나가 활기찬 느낌을 주고 있어서 마치 그림 속의 인물이 지닌 기운찬 모습과 곱힐 줄 모르는 기상을 그대로 이어 표현한 듯하다. 이렇게 그림과 글씨의 기맥이 하나로 무리 없이 잘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서화를 제작한 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장이(蔣彝, 1903~1977)는 서화동원론적(書畫同源論的)인 견해에 입각하여

19 권영필(1996), 「고구려 회화에 나타난 대외교섭」,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 도서출판 예경, 177쪽.

중국의 그림과 글씨는 서로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중국의 회화사에는 그림을 인물화·산수화·화조화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그림들은 크게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면밀하고 부드러운 획으로 주제를 그리는 공필법(工筆法)이고, 또 하나는 단단하고 생생한 획으로 주제를 빨리 그리는 대필법(大筆法)이다.²⁰ 장이의 관점으로 보면 덕흥리묘지 벽화는 묘주 초상화뿐만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13군태수배례도」 역시 대필법과 관계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위에 쓰여진 묵서 또한 그림의 조형어법에 맞추어 거칠면서도 생생한 기운을 살리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어떤 특정 서체를 모방하지 않고 주위 배경에 따라 글씨 스타일을 달리 하는 현상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서예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동기명문, 한나라의 화상석이나 화상전, 와당 등에는 문양의 모습에 따라 글씨가 수시로 달라지는데, 덕흥리고분에 나오는 글씨 또한 벽화의 그림 분위기에 따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거듭 탄생된 서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모두루묘지묵서(牟頭婁墓誌墨書)(5세기 초)(그림 17) : 모두루묘지는 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800여 자나 되는 긴 묵서인데, 아쉽게도 흐려진 곳이 많아서 글씨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분에 해당되는 묵서는 글씨가 지금 막 쓴 것같이 뚜렷하고 생기가 있어 고구려 서예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다. 「모두루묘지묵서」는 필획의 굵기와 경중(輕重)의 대비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유형의 글씨는 삼국시대로부터 남북조시대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사경서체로 보인다. 고평의는 “토로번

20 蔣彝 지음, 정현숙 옮김(2009), 『서예 미학과 기법』, 교우사, 180쪽.



그림 17 고구려 모두루묘지목서(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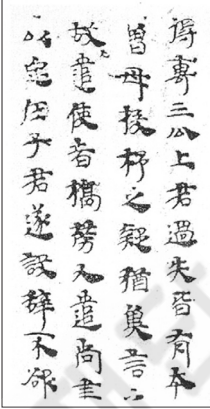


그림 18 토로번 출토 진대 사경 『삼국지』 잔권(오른쪽)

(吐魯番) 등지에서 출토한 진대 『삼국지(三國志)』 잔권(殘卷)이나 사경문자(寫經文字)(그림 18)의 체세와 유사한 점이 있어, 그 영향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²¹ 글자 형태로 보았을 때, 진나라의 사경이 고구려 목서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단 「모두루묘지목서」와 중국의 사경서체와의 차이점은 중국의 일반 사경서체에 비해 바깥으로 펼쳐나가는 기운이 현저하게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저하지 않고 붓망을 노출시켜 속도감 있게 필획을 짙고 뾰족하게 내린 「모두루묘지목서」는 마치 접신(接神) 들린 무녀가 춤을 추듯神明(神明)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을 주는 목서는 당시 중국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모두루묘지목서」가 가진 이러한 특징은 그것이 중국의 사경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창조적인 서예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목서를 이해하기 위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계선

21 고헤의(2007), 앞의 글,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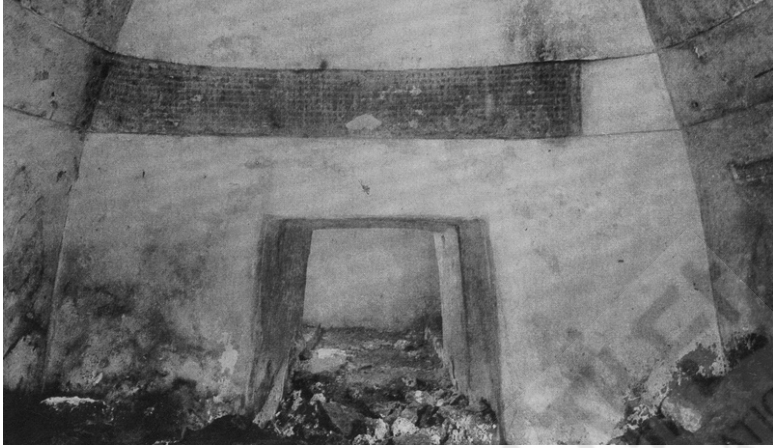


그림 19 고구려 모두루묘지목서가 있는 전실

(界線) 부분에 대한 처리이다. 계선은 글씨는 아니지만 분명 조형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두루묘지목서」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 환경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루 무덤에는 동수묘지와 덕흥리묘지와는 다르게 벽화가 없다. 따라서 「모두루묘지목서」는 화려한 벽화의 장엄물(莊嚴物)이 없으므로 벽화의 장엄을 대신할 수 있는 목서 작품을 고심했을 것이다. 묘지가 쓰인 부분은 회칠한 벽면 위에 다시 싯누른 색의 도료(塗料)가 덧칠되어 있다.²² 이것은 목서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한 바탕지 성격의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거기에 가해지는 계선 또한 글씨 쓰는 것 못지않은 정성과 예민한 감수성을 동원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그림 19). 「모두루묘지목서」에 그려진 계선은 목서만큼이나 예술적이다. 필획 속도

22 한국고대사회연구 편(1992), 『한국고대금석문』, 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91쪽.

의 강약, 굵기의 대비감, 필묵의 윤갈 등을 계선에 동원하여 보다 세련되고 예술적인 효과로 끌어올리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묵서 세 점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중국 글씨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묵서들은 서풍의 양식(style)으로 보아 당대에 중국에서 성행한 어떤 특정 서체를 그대로 모방했다기보다는 벽화와 무덤의 분위기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글씨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 「동수묘지묵서」, 「덕흥리묘지명」, 「모두루묘지묵서」는 고구려인들이 문자를 예술로 만드는데 탁월한 감수성을 가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전명

고구려에서 전하는 전명(傳銘)으로는 「태왕총전명(太王塚傳銘)」과 「천추총전명(千秋塚傳銘)」이 있다(그림 20). 「태왕총전명」은 광개토왕릉비에서 서남쪽 200m 지점에 무너져버린 태왕릉으로 추정하고 있는 무덤의 자갈 돌 가운데서 발견한 것인데, 양각으로 10자가 새겨져 있다. 「천추총전명」은 집안현성 서남쪽 3.5km 마선구하(麻線溝河) 동쪽 기슭 200m쯤 되는 곳에서 발견하였다. 집안지역의 고분 중 최대 규모이다. 무덤을 덮고 있는 돌무지 중에는 회색의 기와편이 널려 있고, 측면에 문자를 양각한 전(傳)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다분히 낙랑전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낙랑문화는 우리나라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형성되는 시기에 삼국의 점이적(漸移的)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삼국초기의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낙랑문화가

순전히 중국문화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유재학은 “낙랑명문유물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입된 한의 것이거나 혹은 한반도 평양지역에서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에 비하여 와전상의 명문은 그 유물의 양태나 용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양지역에서 직접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명문의 내용이나 서체가 중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나라에서 운반이 용이한 것, 즉 인장(印章), 봉니(封泥), 전폐(錢幣), 동경(銅鏡) 등은 대부분 중국의 유물이거나 중국의 양식과 성격이 일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낙랑의 와전(瓦塼)은 한반도의 평양지역에서 조성한 것으로 그 재료나 제작기법 문양 및 명문 등에서 중국과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운반이 불가능한 와전은 그 재료와 용도의 성격상 직접 현지에서 조성하여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상응하는 조형적 표현이 필요했다는 견해이다.²³

김응현은 중국학자 정문작(鄭文焯)이 쓴 『고려국영락왕비석문찬고(高麗國永樂王碑釋文纂攷)』 발문(跋文)을 인용한 논고에서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이라고 쓴 「태왕총전명」의 내용이 중국의 전명에 나타나는 내용과는 다른 독특한 형식임을 지적하고 있다.²⁴ 「태왕총전명」은 기본적으로 광개토왕릉비 서체와 매우 유사하다. 글자들은 한 자 한

23 유재학(1994), 『樂浪塼文研究』, 『서예술논문집』, 남정 최정균교수 고희기념 논문집간행위원회, 196쪽.

24 鄭文焯은 이 글에서 「태왕총전명」에 새겨진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太王陵이 산처럼 安寧하고 매뿌리와 같이 견고하기를 원한다)”의 내용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전명에서 사용하는 문구인 祝詞나 製作年月日과 형식이 다르다”고 보았다. 김응현(1995), 「서여기인」, 동방연서회, 24쪽.

자가 독립되어 있고, 계선안에 쓰여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 「태왕총전명」은 한나라, 낙랑, 동진 등 중국의 전명에 비하여 글자의 크기가 작고 여백을 많이 살렸다. 「천추총전명」은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와 ‘보고건곤상필(保固乾坤相畢)’ 두 종류가 있다.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 명문은 광개토왕릉비 서체와 유사해 보이지만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며, ‘보고건곤상필(保固乾坤相畢)’ 명문은 광개토왕릉비 서체와 닮았지만 글자의 크고 작은 대비를 주어 변화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20 고구려 태왕릉전명과 천추총전명

고구려의 전명(轉銘)은 전하는 유물이 많지 않아 발굴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태왕총전명」과 「천추총전명」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것들은 모두 광개토왕릉비 서체와 유사한 고예에 기초하고 있고, 글자 한 자 한 자를 독립시켜 여백의미를 살리려고 한 흔적이 보이며, 필획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처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금동불상명문

고구려의 서예사를 논할 때 불상명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한 글을 접한 적이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비문과 묵서에 비해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비문과 묵서 중심의 서예사관이 지배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서예사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그 시대의 면모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 서사형태가 미적 형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남겨진 서사의 흔적들은 모두 그 시대의 정신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다. 고구려 불상에 대해서는 불상조각을 연구하는 미술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속에도 불상명문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다. 청동기를 연구할 때 기형, 문양, 명문을 함께 연구하듯이 고구려 불상조각에도 명문서예의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논자는 이 불상명문이야말로 부족한 고구려 서예사 자료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그동안 불상조각사 연구 성과를 끌어들이므로써 포괄적인 서예사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불상조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불상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중국 불상의 양식과 형식, 그리고 제작기법을 받아들여 이를 우리의 정서와 미의식에 맞게끔 변화 발전시켰고, 특정한 불상 양식을 중국에서 받아들였을 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불교 조각의 첫 장을 장식하는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이다.²⁵ 강우방은 교토국립박물관에서 ‘한국미술 오천년전’을 준비하면서 본 불상에 대한

25 강우방(2003), 『불교조각』 1, 솔, 128~129쪽.

감회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0cm도 안 되는 조그만 불상인데도 수십 미터 大佛을 보듯 우람했다. 얼굴은 북위시대 금동불이나 운강 석굴에서 흔히 보이는 것처럼 길쭉하고, 귀는 타원형 판을 붙여놓았을 뿐 귀의 세부 표현은 전혀 없다. 이런 귀는 일본에 있는 중국 석불에서 보았던 터였다. 얼굴도 마른 듯 길고 어깨도 좁아서 몸매가 수척하다. 이에 비하여 온몸을 감싼 가사는 매우 두껍고 옷 주름은 선이 아니라 量感이 넘치는 塊體로 처리하지 않았던가. 이런 표현을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다. 가사의 두꺼운 양감은 고구려 미술양식의 특징을 웅변하는 듯하여 한동안 말을 잃었다. 조그만 불상에서 힘찬 기를 강렬하게 발산하고 있었고 필자는 磁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²⁶

강우방은 가사의 옷 주름 선이 양감 넘치는 괴체로 처리된 것을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강우방은 중국이 인도와 서역에서 불교와 불교미술을 받아들이자마자 중국풍으로 변형시켰듯이, 우리나라도 중국적 요소를 곧 우리 식으로 변형했는데, 그 중심 역할을 고구려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이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은 이러한 사정을 웅변하는 명작이라 했다.²⁷ 김리나는 고구려의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과 양식상으로 비슷한 시기의 중국의 것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불상과 워싱턴 프리어 미술관 소장의 금불상을 비교하면서,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이 중국의 불상과 비슷하지만 고구려적인 요소가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26 강우방 외(2003),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 월간미술, 55쪽.

27 강우방(2003), 앞의 책, 30쪽.

대체로 고구려 상은 중국 상에 비해 광배 문양의 정교성에서는 좀 떨어지고 세부 표현이 간략하며 조각 수법이 약간 투박하나, 강직한 면이 있고 입체감이 두드러진다. 주조 기술의 완성 측면에서 보면 고구려 상이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는 것은 대담하고 꾸밈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형성을 느끼게 한다.²⁸

여기에서 “고구려의 불상이 중국 불상에 비해 광배 문양의 정교성에서는 좀 뒤떨어지고, 세부 표현이 간략하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중국 것을 단순하고 절제 있게 표현하려는 의지로 자기화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강우방, 김리나의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에 대한 견해는 고구려 불상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하였지만,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고구려인들의 혼이 담긴 독창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불상 제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견해가 같다. 고구려의 불상은 당시 중국의 것과 비교할 때 단순하고 광배 뒷면에 명문이 모두 새겨져 있으며, 대좌 아래에 받침다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동시기에 중국에서 제작한 불상은 대부분 표현이 섬세하며, 광배 뒷면에 명문을 새긴 것보다는 대좌 받침다리에 내용을 새긴 것들이 많다. 이러한 점들은 고구려에서 중국의 불상문화를 받아들일 때 자기정서에 맞게 선별 수용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539)에 대해 위에서 강우방은 “불상에서 힘찬 기(氣)를 강렬하게 발산하고 있었고 필자는 자장(磁場)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했으며, 김리나는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는 것은 대담하고 꾸밈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형성을 느끼게 한다”고

28 김리나(2003), 『한국고대불교조각비교연구』, 문예출판사, 73쪽.



그림 21 고구려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과 명문

했는데, 이 불상의 광배 뒷면에 쓰인 명문은 불상이 표현하고 있는 느낌 못지않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필획은 거칠고 계산없이 들쭉날쭉하지만 거기에는 왠지 모를 생명력이 분출하고 있다. 도판을 보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정광원년명관음보살상은 520년에 북위에서 제작한 것으로 후에 제작한 고구려의 금동불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22~23>에서 통해 알 수 있듯이 북위의 정광원년명관음보살상은 고구려의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에 비해 섬세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에 반해 고구려 불상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역동



그림 22 북위 정광원년명관음보살상과 명문

하는 생명력 면에서 뛰어났다. 광배 뒷면에 있는 명문 또한 불상과 비슷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중국의 불상명문은 섬세하고 꾸미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고구려 불상명문은 투박하고 대담하며 힘찬 기백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서로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영강칠년명금동불상(永康七年銘金銅佛像)(551)(그림 23) 명문 역시 즉흥성이 강하고 힘찬 기백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 명문 글씨와 유사하다. 글씨가 시작되는 윗선과 아랫선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있으며, 행간(行間)의 거리가 불규칙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계획성 있



그림 23 고구려 영강칠년명금동불상 명문

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새긴 것으로 보인다. 가로 세로 필획 각도가 일정치 않고 불규칙하게 처리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기법은 명문 글씨가 더욱 생동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또한 생동적이고 영활한 필획과 더불어 글자의 결구와 전체 공간 배열이 주는 편안한 느낌은 대단한 필력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신묘년금동불상(辛卯年金銅佛像)(571)(그림 24) 명문은 위의 불상명문보다 더 한층 역동적이다. 이 글씨는 무(無)가 신명 속에 빠져들어 춤을 추는 형상과도 같이 무작위적이다. 글자는 거의 중복 없는 부정형이며, 어느 한 구석도 구애받은 흔적이 없이 자유분방하다. 이 명문은 무계획적이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썼다는 것은 전체적인 글씨의 배열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 없는 가운데 서예가 갖추어야 할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결구와 장법에 잘 나타나



그림 24 고구려 신묘년금동불상 명문

있다. 첫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 글자를 새기고 보니 이미 전체의 공간을 다 차지해버렸다. 하지만 서사자는 이에 긴장하지 않고 아랫부분에서 적당한 공간을 찾아 마지막 문장을 천연덕스럽게 메워나갔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마지막 문장이 배열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파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화면의 생동감과 보는 재미를 돕는 골계와 해학미를 주고 있다. 고유섭은 이와 같이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계획을 즉흥적으로 이루는 조형미를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했다. “무계획의 계획”은 주로 조선

미술에 대한 추론이었다. 여기에서 논자는 고구려인들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직관적 창조적 세계에 감동한다. <그림 25>에 나타난 동일자비교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묘년금동불상 명문은 쓸 때마다 달라지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형의 글씨는 당시 중국의 불상명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체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학성과 의외성을 동반한 불상명문 글씨는 중국에서 찾기가 힘들다. 전반적으로 보아 고구려 불상명문은 동중정(動中靜)의 감성적인 표정을 하고 있고, 북위의 불상명문은 대부분 이성적인 합리성이 느껴지는 정중동(靜中動)의 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



그림 25 고구려 신묘년금동불상 명문 동일자비교표

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야취적(野趣的)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동중정의 미의식은 비단 고구려 불상명문뿐 아니라, 고구려 서예 전반에 흐르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고구려 서예에 나타난 미의식

고구려 서풍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고구려의 비, 호우, 각석, 묵서, 전명, 금동 불상의 명문들을 살펴봄으로써 고구려 서풍이 일정한 틀이나 특정한 서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서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서풍으로 알려진 광개토왕릉비 서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만, 중국의 서체를 그대로 수용한 서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개토왕릉비 서체는 그 당시 동북아의 패주로서 고구려 기상과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고자, 자연석에 고구려인들의 감수성에 맞는 의식용 서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해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비문의 내용을 담을 만한 글씨로 해서보다는 장엄미를 주는 고예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인들이 용도의 의미를 고려하여 글씨를 상황에 따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은 광개토왕릉비 후에 제작된 광개토왕호우, 중원고구려비, 농오리산성마애각석, 평양성각석과 같은 글씨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고구려 묵서 또한 그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서체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묵서가 벽화의 이미지와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변용(變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

두루묘지목서」는 모두루묘지에 벽화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중국의 사경 글씨를 본받으면서도 그에 머물지 않고 더 멋스러운 필치로 승화시켰고, 이 글씨와 호흡할 수 있는 예술적인 계선을 그려 벽화 없는 묘지의 허전함을 대신하려고 한 것 같다. 이러한 고구려 묘지 목서에 대한 연구는 벽화와 목서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의 고구려 서풍이 상황에 맞게 변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전명 역시 고구려 서풍의 창조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전명에 새겨진 문구가 중국과 다르다는 것도 고구려 문화의 독창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금동불상의 명문 연구는 서예사 연구에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 분야이지만, 불상의 형태와 명문의 글씨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고구려 시대 불상의 명문 또한 고구려 묘지 목서나 광개토왕릉비와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글씨에 비해 훨씬 신명나는 부정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구려 서풍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중국에서 많은 문물들과 함께 그 당시에 유행하는 서체들도 수용했지만, 그 서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용도나 감수성에 맞게 재창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앞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서체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현상은 고구려 서예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백제와 신라의 서예사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백제의 「무령왕릉지석(武寧王陵誌石)」(525), 「창왕명사리감(昌王銘舍利龕)」(567), 최근에 발굴된 「왕흥사지사리함명문(王興寺誌舍利函銘文)」(634), 「미륵사지사리장엄기(彌勒寺址舍利莊嚴記)」(639)(그림 26) 등을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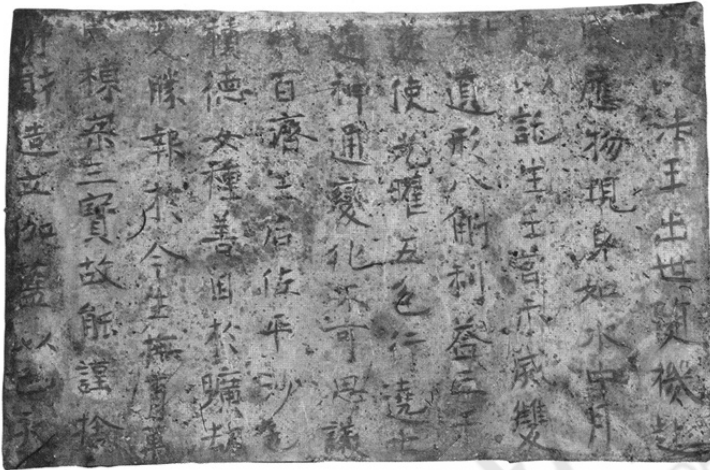


그림 26 백제 미륵사지사리장엄기

서체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계보를 밝힌 분명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신라서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라의 냉수리비(冷水里碑)(503)(그림 27), 봉평비(鳳坪碑)(524)(그림 28), 창녕비(昌寧碑)(561)(그림 29), 무술오작비(戊戌塲作碑)(578),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591) 등은 모두 중국서예와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글씨들이다. 북한산비(北漢山碑)(568), 황초령비(黃草嶺碑)(568)(그림 30), 마운령비(磨雲嶺碑)(568)는 중국비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서풍의 유사점을 들어 북조풍과 연결 지으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어떤 서체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정확한 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서예의 계보추적이 가능한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상황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들은 삼국시대 서예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본뜨지 않고 자기의 주체성을 살려 표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 삼국시대 서예는 해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전예의 고법(古法)을 따르고 있으며, 계산을 초월한 예측 불가능한 부정형(不定形)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림 27 신라 냉수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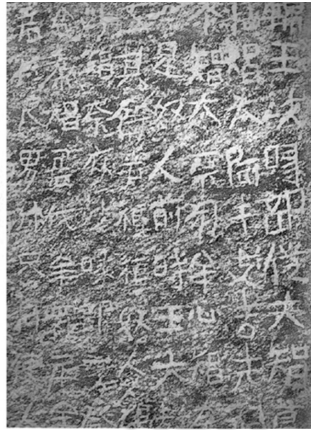


그림 28 신라 봉평비



그림 29 신라 청녕비



그림 30 신라 황초령비

고구려 서예에 나타난 미의식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소원(溯願)의 미의식(美意識)’이다. ‘소원’은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다. 서예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글씨들을 보면 좀 더 본원적인 세계에 접어들기 위하여 거슬러 올라가 고법에서 진의(眞意)를 발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글씨들은 해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서의 필의를 담으려 했고, 때로는 전서의 고풍을 해서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 창조의 깊이를 더하려는 ‘소원’의 미의식은 서예가 시작된 이후로 끊이지 않고 전승되어왔다.

고구려인들은 당대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글씨를 거의 쓰지 않았다. 예를 들어 광개토왕릉비에 당시에 중국에서 성행하던 해서체를 본받지 않고 예서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미감을 지닌 고예를 본받고 있으며, 광개토왕호우는 삼대(三代) 금문을 연상할 정도로 상고(尙古)의 미의식을 존중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고풍을 중시하는 경향은 5세기 후반의 「농오리산성마애각석」과 6세기 후반에 제작된 「평양성각석」과 금동불상 명문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고법을 중시하는 고구려의 서예에 대해 어떤 미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옛것 속에서 모범을 발견하려고 하는 의식은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녀왔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노자(老子)』의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라(복귀어박(復歸於樸))”거나 『주역(周易)』, 「복괘(復卦)」에 “되돌아옴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復其見天地之心].”는 것은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동양의 선인들은 문화의 원형을 출발시킨 원시 상태를, 미숙하여 청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보았던 것이다. 서양의 경우도 멀리 그리스로 거슬러 오르면 바로 동양과 다름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보다 큰 변화와 성장을 보다 큰 붕괴와 혼돈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가능한 한 변화에서 세계를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이었다.”²⁹ 동서양을 막론하고 “막히면 고대로 돌

29 제레미 리프린 저, 김명자·김건 역(1995),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관 엔트로피』, 동아출판사, 3쪽.

아가라”는 말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고대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거대한 창고였다.³⁰ 동아시아의 서예는 특히 복고풍을 중시하는 상고주의(尙古主義)를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불(米芾, 1051~1107)의 『해악명언(海岳名言)』에 실려 있다.

글씨는 예서가 흥성함에 이르면서 大篆의 고법이 크게 무너지게 되었다. 篆籀는 글자 형태에 따라서 大小를 자유자재로 발휘하였으므로, 만물의 표현을 다양하게 알아야 운필의 생동감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각각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예서에서는 처음으로 파책을 만들고 빠른 필세로 표현하게 되어 三代之 법이 없어지게 되었다. 구양순·우세남·저수량·안진경·유공권 등은 모두 변화대소가 없이 한결같은 필법으로 쓰면서 안배와 공교에 힘을 낭비하였으니 어찌 능히 세상에 이름을 세울 수 있겠는가.³¹

인용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불이 고법에서 서예의 원형성(原型性)을 발견하려는 견해는 고풍을 중시하는 고구려 글씨에 대한 의미부여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글씨에서 고법을 중시하는 경향은 비단 미불뿐 아니라, 중국 역대 서예가들이 추구한 보편적인 미의식이었다. 특히 서예의 고법을 추구하려는 경향은 고대 금석서예에 특별히 가치 비중을 두었던 청대 서예가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강유위(康有爲)이다. 강유위는 “고문(古文)을 쓰는 마음가짐으로서, 하(夏)·은(殷)·주(周) 시대의 문장과 전한(前漢)과 후한(後漢) 시대

30 김지하(1999), 『예감에 가득찬 숲 그늘』, 실천문화사, 220~224쪽.

31 書至隸興，大篆古法大壞矣。篆籀各隨字形大小，故知百物之狀，活動圓備，各自自足。隸乃始有展促之勢，而三代法亡矣。歐虞褚柳顏，皆一筆書也，按排費工，豈能垂世。

의 문장이 아니면 읽고 싶지도 않다”고 한 한유(韓愈)(768~824)의 말을 인용하면서, 고문을 배우는 데는, 전한과 후한까지를 모범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서법을 배우는 데는 육조시대까지를 모범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³² 이렇게 고법에서 서예의 원형을 찾으려고 했던 강유위의 서예관은 북위서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장맹룡비나 수나라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용장사비보다 고구려의 평양성각석을 더 높은 등급으로 인정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완당 서예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옹방강(翁方綱, 1733~1818) 역시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의 작품을 배우고 그들이 제시하는 규범에 따르는 일이다”라고 하였는데, 완당 역시 이러한 상고주의(尙古主義)를 자신의 예술론의 기초로 삼고 있다.

완당은 서예의 근원이 되는 전예(箋隸)를 깊이 터득하는 가운데 서예의 묘경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³³ 위에서 열거한 예 이외에도 세상에 명작을 남긴 위대한 서예가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소원의 미의식을 ‘미(美)의 경전(經典)’처럼 생각했다는 것이 서예 문헌 곳곳에 실려 있다.

이러한 전거들은 고구려인들의 서예가 당대에 중국에서 유행한 서체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고구려의 글씨가 서법을 숭상하는 기풍이 없다고 평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인가 반성하게 한다. 오히려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고구려인들이 당시 중국의 유행서풍을 따르지 않고 고법을 중시한 것은 뒤떨어진 서예를 쓴 것이 아니라, 옛것에서

32 康有爲 著, 최장운 역(1983), 『廣藝舟雙楫』, 윤림필방, 124쪽.

33 민주식(1993), 「완당의 예술사관」, 『미술사학』, 미술사학연구회편 V, 학연문화사, 39쪽.

더 큰 의미를 찾으려는 상고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소원의 미의식’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대단히 심원(深遠)하다. 여기에서 고구려 서예의 미의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고구려의 서예가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소원’의 정신 속에는 이미 다양한 창조적 서체미를 싹트게 하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자는 삼국시대 서예의 미의식에 대해 “자연미, 부정형의 미, 선의 미, 졸박원시, 신명의 부정형, 상(象)의 미”라는 이름으로 의미부여를 한 바 있다.³⁴ 이것들은 이 글에서 제시하는 ‘소원의 미의식’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34 김수천(2001), 「한국문화와 서예」,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동아시아문화포럼 7월호, 열화당, 27~46쪽 ; 김수천(2004), 「5~6세기 서예사를 통해본 한국서예의 정체성」, 『서예학연구』 제4호, 한국서예학회, 103~129쪽 ; 김수천(2007), 「한국미술의 독창성과 삼국금석문 서예의 창조성」,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07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6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65~95쪽 ; 김수천(2008), 「미술사와 관련지어 본 한국서예의 독창성」, 『한국서예의 정체성에 대한 학제적 탐구』, 한국서예학회 추계학술발표회, 한국서예학회, 3~36쪽.

동아시아의 한자 자체와 문헌의 성격

東アジアの漢字字體と文獻の性格

이시즈카 하루미치(石塚晴通, 홋카이도대학)



億那由他不可說
億那由他不可說
億那由他不可說
億那由他不可說

於諸師長恭敬尊重
元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利見善

동아시아의 한자 자체와 문헌의 성격

이시즈카 하루미치

홋카이도대학

1. 머리말

예전 동아시아 여러 민족은 한자로 쓰인 문헌을 기본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방대한 한자 문헌이 존재한다. 필자는 한자 자체(字體)에 시대와 지역마다 표준이 존재하며, 그 표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천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30년간 ‘이시즈카 한자 자체자료’를 만들어왔다. 그것을 바탕으로 북해도대학 언어정보학 강좌의 뜻있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쿄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의 기술지원을 받아 ‘한자 자체 규범 데이터 베이스(HNG)’(대표 : 이시즈카 하루미치)라 하여 2005년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 후 매년 문헌과 데이터의 수를 늘리면서 데이터베이스(<http://www.joao-roiz.jp/HNG/>)를 유지해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동아시아 한자 문헌의 자체와 문헌의 성격

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발표 회장과 출석자를 고려하여 특히 『개성석경(開成石經)』·『고려재조본대장경(高麗再彫本大藏經)』, 그리고 『대화녕국장화엄경(大和寧國藏華嚴經)』과 고문서, 목간자료 중 정창원문서 대보(大寶) 2년(702) 호적을 취급하기로 한다.

2. 한자 자체 규범 데이터베이스

HNG는 다양한 입장의 이용자에게 한자 자체와 자체 규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시즈카 한자 자체자료’를 전자화하여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2009년 4월 현재 각 시대와 지역의 문헌 62점에 보이는 4,554자종, 43만 2596자의 정보가 검색 가능하다.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시즈카 하루미치 외 ‘한자 자체 규범 데이터베이스(HNG)’ [일본어학회(2005), 『일본어의 연구』 제1권 제4호]·ISHIZUKA Harumichi(2006), “Database of the normative glyphs in the Hanzi script” (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The British Library, *IDP NEWS* No. 28)·ISHIZUKA Harumichi(2009),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Hanzi Normative Glyphs(HNG) Database*(research, a4d#3) 등에 공표하고 있다. 앞의 이시즈카 외(2005)에서 중국 초당(初唐)의 한자 자체 표준의 존재와 그 표준이 만당(晩唐)의 ‘개성석경’에서 크게 변화되고 그것이 송판(宋版)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초당의 표준 자체를 일본 표준 자체로 정착시키고 중국의 표준이 변해도 기본적으로는 근세의 활판 인쇄문화의 개시까지 유지한 것으로, 문헌과 데이터의 수가 증가해도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초당의 표준

자체에 이르는 중국 남북조와 수의 문헌에 보이는 표준 자체의 존재와 중국 주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한자 문헌에 있는 표준 자체와 추이를 나타내고, 일본 상대에서 근세 초기에 이르는 한자 문헌의 표준 자체를 나타냈다. 그때 의도적으로 사적 문헌도 집어넣어 대비하고, 공적 문헌에는 확실한 자체 표준이 있고 사적 문헌에서는 자체 표준의 비율이 약한 것을 이체자율로 나타내는데(공적 문헌에서는 이체자율이 1%를 넘지 않는다), 그것은 서지 데이터의 경향과도 일치하고 문헌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 한자 자체의 관점이 유효한 것을 말해준다.

현재 HNG에서 공개 중인 각 문헌 내의 총자총수 · 총자체수 · 총자수와 이체자수 · 이체자율을 일람한다. 『개성석경』 · 『고려재조본대장경』의 낮은 이체자율과 동일권의 『일본서기』 문헌에서도 총수와 이체자율에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체자율은 한자 자체의 규범에 대한 의식을 보이는 지표이고, 낮은 이체자율은 규범에 대한 강한 의식을 보이며 문헌이 표준적인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1.00%이다. 『개성석경』 · 『고려재조본대장경』은 이체자율이 낮아 매우 규범적인 문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체의 흔들림은 규범의 흔들림을 의미하며 이체자율의 상승과 연결된다. 『한서양웅(漢書楊雄)』, 『S2577』, 『암기(岩崎紀) 24』 등의 사적인 문헌은 고도의 내용의 사본이기는 하지만 높은 이체자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2문헌 4,554자종 43만 2596자의 통람을 통해 각 시대와 지역마다 표준이 존재하고, 그 표준이 변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문헌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

● 2004년도 공개

分類	資料名(作成年代)	略稱	全體	異體字(率)
初唐寫本	今西本妙法蓮華經 卷五(671)	〈宮廷今西〉	633字種 645字體 4344字	28字 (0.64%)
初唐寫本	守屋本妙法蓮華經 卷三(675)	〈宮廷守屋〉	585字種 592字體 5685字	46字 (0.81%)
初唐寫本	S2577妙法蓮華經 卷八(7C末)	〈S2577〉	780字種 823字體 5605字	114字 (2.03%)
初唐寫本	上野本漢書楊雄傳(初唐)	〈漢書楊雄〉	1573字種 1701字體 4510字	206字 (4.57%)
開成石經	論語(837)	〈開成論語〉	1322字種 1328字體 14325字	5字 (0.03%)
開成石經	周易(837)	〈開成周易〉	1404字種 1420字體 23248字	43字 (0.18%)
北宋版	東禪寺版阿毘達磨大毘婆沙論 卷百七(1100)	〈東禪毘婆〉	357字種 368字體 6979字	42字 (0.60%)
北宋版	齊民要術 卷五(12C 初)	〈齊民要術〉	994字種 1051字體 5464字	97字 (1.78%)
北宋版	開元寺版道神足無極變化經 卷四(1126)	〈開元神足〉	674字種 692字體 5528字	57字 (1.03%)
南宋版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 卷一(1146)	〈華嚴孔目〉	779字種 814字體 16967字	107字 (0.63%)
日本書紀(寫本)	岩崎本 卷二十四(10C)	〈岩崎紀 24〉	1099字種 1173字體 5401字	116字 (2.15%)
日本書紀(寫本)	兼方本 卷二(1286)	〈兼方紀 2〉	1143字種 1166字體 10006字	55字 (0.55%)
日本書紀(版本)	慶長勅版 卷二(1599)	〈勅版紀 2〉	1141字種 1163字體 9920字	65字 (0.66%)
日本寫本	和銅經大般若經 卷二百五十(712)	〈和銅 250〉	161字種 166字體 7476字	10字 (0.13%)
日本寫本	高山寺本大教王經 卷一(815)	〈金剛大教〉	495字種 508字體 6645字	52字 (0.78%)
日本寫本	東禪寺版寫大教王經 卷一(12C)	〈佛說大教〉	794字種 845字體 4291字	118字 (2.75%)

● 2005년도 공개

分類	資料名(作成年代)	略稱	全體	異體字(率)
敦煌南北朝寫本	P2179誠實論 卷八(514)	〈P2179〉	556字種 565字體 6138字	40字 (0.65%)
敦煌南北朝寫本	S2067華嚴經 卷十六(514)	〈S2067〉	629字種 643字體 7528字	37字 (0.49%)
敦煌南北朝寫本	S81大般涅槃經 卷十一(506)	〈S81〉	928字種 959字體 6661字	58字 (0.87%)
敦煌南北朝寫本	P2160摩訶摩耶經 卷上(586)	〈P2160〉	1046字種 1088字體 6008字	54字 (0.90%)
隋寫本	P2413大樓炭經 卷三(589)	〈P2413〉	547字種 574字體 4626字	49字 (1.06%)
隋寫本	隋經賢劫經 卷二(610)	〈賢劫經二〉	884字種 927字體 7762字	86字 (1.11%)
隋寫本	P2334妙法蓮華經 卷五(617)	〈P2334〉	632字種 647字體 5672字	23字 (0.41%)
高昌寫本	大品經 卷二十八(高昌期)	〈京博大品〉	271字種 273字體 1547字	2字 (0.13%)
則天寫本	守屋本花嚴經 卷八(則天期)	〈花嚴守屋〉	443字種 467字體 5166字	64字 (1.24%)
盛唐寫本	S2423瑜伽 法鏡經(712)	〈S2423〉	939字種 965字體 7733字	69字 (0.89%)
日本書紀 (寫本)	圖書寮本 卷二十四(1142頃)	〈圖書紀 24〉	1079字種 1147字體 5260字	93字 (1.77%)
日本書紀 (寫本)	兼右本 卷二十四(1540)	〈兼右紀 24〉	1098字種 1157字體 5425字	102字 (1.88%)
日本寫本	小川本金剛場 陀羅尼經(686)	〈金剛小川〉	501字種 509字體 6118字	18字 (0.29%)
日本寫本	高山寺本彌 勒上生經(738)	〈彌勒上生〉	587字種 605字體 3523字	26字 (0.74%)
日本寫本	守屋本五月一日 經續高僧傳(740)	〈五一續高〉	1400字種 1463字體 5928字	86字 (1.45%)
日本版本	寬治二年刊本成 唯識論 卷十(1088)	〈成唯識 10〉	467字種 490字體 7290字	103字 (1.41%)

● 2006년도 공개

分類	資料名(作成年代)	略稱	全體	異體字(率)
開成石經	孝經(837)	〈開成孝經〉	478字種 478字體 1967字	0字 (0.00%)
吐蕃寫本	S5309瑜伽師地論 卷三十(857)	〈S5309〉	709字種 800字體 7499字	223字 (2.97%)
北宋版	通典 卷一(11C)	〈通典 卷一〉	1126字種 1147字體 6483字	57字 (0.88%)
南宋版	法藏和尚傳(1149)	〈法藏和尚〉	1577字種 1613字體 6967字	53字 (0.76%)
南宋版	後漢書光 武帝紀(1198)	〈光武帝紀〉	1192字種 1225字體 6622字	53字 (0.80%)
韓國寫本	新羅本花嚴經 卷八(754~755)	〈花嚴新羅〉	471字種 481字體 6539字	23字 (0.35%)
韓國印刻本	晉本華嚴經 卷二十(10C)	〈古麗華 20〉	457字種 476字體 7682字	35字 (0.46%)
韓國印刻本	高麗初彫本瑜 伽師地論 卷五(11C)	〈初麗瑜 5〉	598字種 610字體 6188字	55字 (0.89%)
韓國印刻本	高麗再彫本華嚴經 卷六(13C)	〈再麗華 6〉	490字種 494字體 8063字	5字 (0.06%)
大和寧寫本	華嚴經 卷三十八(9~10C)	〈和寧華 38〉	590字種 620字體 7066字	91字 (1.29%)
西夏版	妙法蓮華經 卷一(1149)	〈西夏法華〉	834字種 893字體 9085字	141字 (1.55%)
日本書紀 (版本)	寬文九年版 卷二十四(1669)	〈寬九紀 24〉	1091字種 1178字體 5429字	149字 (2.74%)
日本書紀 (版本)	慶長十五年版 卷二(1610)	〈慶長紀 2〉	1140字種 1228字體 9998字	282字 (2.82%)
日本書紀 (版本)	寬文九年版 卷二(1669)	〈寬九紀 2〉	1140字種 1256字體 10021字	283字 (2.82%)
日本寫本	明惠自筆華 嚴信種義(1221)	〈華嚴信種〉	633字種 651字體 6262字	67字 (1.07%)
日本寫本	親鸞自筆教行信證 卷四(1224)	〈教行信證〉	612字種 633字體 6149字	55字 (0.89%)

● 2007년도 공개

分類	資料名(作成年代)	略稱	全體	異體字(率)
初唐寫本	P2195妙法蓮華經卷六(675)	〈P2195〉	612字種 620字體 4371字	24字 (0.58%)
盛唐寫本	阿毘達磨大毘婆沙論卷百七十(8C 初)	〈正毘 170〉	169字種 196字體 6366字	156字 (2.46%)
盛唐寫本	阿毘達磨大毘婆沙論卷百七十八(8C 初)	〈正毘 178〉	646字種 685字體 6133字	111字 (1.88%)
盛唐寫本	唐經四分律卷第二十(740頃)	〈正四分 20〉	430字種 458字體 9875字	69字 (0.71%)
北宋版	寶篋印陀羅尼經(970年代)	〈寶篋天理〉	615字種 679字體 2621字	107字 (4.41%)
北宋版	金剛般若經(北宋期?)	〈京博金般〉	442字種 449字體 5414字	34字 (0.64%)
大和寧寫本	守屋本華嚴經卷六十七(9~10C)	〈和寧花 67〉	852字種 899字體 9975字	99字 (1.02%)
大和寧寫本	守屋本華嚴經卷六十八(9~10C)	〈和寧花 68〉	801字種 828字體 7245字	87字 (1.25%)
日本書紀(寫本)	鴨脚本卷二(1236)	〈鴨脚紀 2〉	1090字種 1168字體 8805字	257字 (3.04%)
日本寫本	五月一日經四分律卷第十六(740頃)	〈正四分 16〉	436字種 469字體 9824字	94字 (0.97%)
日本寫本	東禪寺版寫最上秘密那鞞天經(12C)	〈最上秘密〉	435字種 466字體 2853字	64字 (3.63%)
日本寫本	金剛大教王經卷第二(12C 初)	〈院政大教〉	457字種 493字體 5711字	98字 (1.76%)
日本版本	春日版大般若經卷八十(13C)	〈春日般若〉	374字種 380字體 7677字	34字 (0.45%)
日本版本	守屋本藥師功德經(1412)	〈藥師功德〉	832字種 884字體 4927字	109字 (2.37%)

HNG는 방대한 한자 문헌 중에서 엄선하여 각 시대와 각 지역의 자체 표준의 실체와 그 변천을 실용례의 전수 데이터로 보인 것이고, 가능한 한 많은 문헌과 자체를 망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따라서 어느 문헌 속에 있는 자수와 대비하는 경우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문헌의 성격을 살피는 중에 어떤 종의 근거가 얻어지는 것을 두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우선 『개성석경』과 『고려재조본대장경』의 이체자율은 매우 낮고 자체 규범을 나타내는 의도와 실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또 『대화녕국장화엄경』은 서사 연대와 지역에 이론은 있는 문헌이지만, HNG상에서 대비해보면 그러한 중에 어떤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또 고문서와 목간자료는 방대한 수량이 존재하고 개개의 자수는 적지 않지만, HNG상에서 대비해보면 어느 종의 근거가 얻어지는 것을 정창원문서 대보 2년(702) 호적의 예에서 알 수 있다.

3. 한자 자체와 문헌의 성격

HNG에서는 연도별로 테마를 설정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04년도는 초당 표준 자체의 존재와 실패, 초당 표준 자체부터 『개성석경』 표준 자체로 이행, 『개성석경』 표준 자체의 남송판의 정착과 일본 고사본의 중국 표준 자체 도입의 전형 등을 나타내는 자료, 2005년도는 초당 표준 자체 이전의 남북조시대와 수의 표준 자체 실패, 일본 자료의 자체 추이의 상세를 나타내는 자료, 2006년도는 한국 자료·중국 주변 자료를 의도적으로 포함하여 중국으로부터 한자문화권 전역에 대한 자체의 전파에 중점을 둔 자료, 2007년도는 이상의 의도를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고 공개했다.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이체자율을 자료 성질의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체자율이란 한자를 여러 번 쓸 때에 자체가 흔들리는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이체자율} = \frac{\text{이체자의 총자수} \times 100}{\text{문헌의 총자수} - \text{고려의 총자수}}$$

‘고려’란 각 문헌 내에 한 용례밖에 출현하지 않는 자종을 표시하고 자체의 흔들림을 파악할 수 없기에 총자수로부터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서의 이체자란 동일한 문헌 내에 복수 자체가 출현하는 자종 중 출현 수가 적은 쪽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성석경』의 이체자율은 『개성효경』이 0.00%, 『개성논어』가 0.03%로 매우 낮고, ‘개성주역’같이 텍스트 원자료의 성질을 남긴 특이한 것이라도 0.18%로 낮다. 또 『고려재조본대장경』의 이체자율도 ‘재려화(再麗華) 6’이 0.06%로 매우 낮다. 이것들은 우수한 고려 텍스트로도 유명한 것이지만 자체 규범을 나타내는 의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 『대화녕국장화엄경』은 서사 연대나 지역에 이론이 있는 문헌이고 발표자도 일찍이 언급하였고[石塚晴通(2005), 『東アジアの漢文典籍と訓点』, 口訣學會 第3回國際學術會議, 『漢文讀法と東アジアの文字』, Seoul市立大學 → 石塚晴通(2006), 『漢文讀法と東アジアの文字』 所收, Seoul], 최근 이시마 다치오[飯島太千雄]가 서가의 입장에서 8세기 발해사본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飯島太千雄 (2008/2009/2009), 『渤海の華嚴經』 出現か(天)(地)(人)], 『修美』 卷27·28·29) 등 여전히 견해가 나뉘고 있지만 (회장 방영화상 1-한국 성암고서박물관 권38, 발해사본(관장 견해) 화상 2-일본 경도국립

박물관 권67, 조선건국기사본(모리야[守屋]도록 해제) 화상 3-중국 국가도서관 권5, 북송사본(도서관 해제) 화상 4-일본 서도박물관 권6, 만당 사본(나카무라 후세쓰[中村不折] 견해), HNG의 현상에서 대비해보면 어떤 근거가 얻어진다(그림 1 참조).

ID		화녕화 38	화녕화 67	화녕화 68	ID		화녕화 38	화녕화 67	화녕화 68
00857	功	10예	22예	15예	04389	於	53예	86예	62예
03159	復	34예	20예	9예	04389b	於	6예		
03312	悉	37예	22예	29예	05643	正	8예	6예	17예
03312b	悉			2예	05643b	正	4예	4예	5예



그림 1 <화녕화 38>, <화녕화 67>, <화녕화 68> 대비

‘부(復)’는 옛 표준 자체에서 통하고 ‘공(功)’은 새로운 표준 자체로 통하며, ‘실(悉)’은 옛 표준 자체에 새로운 표준 자체가 섞이고 ‘어(於)’, ‘정(正)’은 새로운 표준 자체에 옛 표준 자체가 섞여 있다. 또 이체자율은 <화녕화(和寧花) 38>이 1.29%, <화녕화 67>이 1.02%, <화녕화 68>이 1.25%로 모두 1.00%가 넘는다. <화녕화 68> ‘실(悉)’자에 2예가 섞여 있는 신 자체는 <그림 2>(HNG ‘실(悉)’ 제1단-중국 사본, 제2단-중국 석경 판본, 제3단-일본 사본, 제4단-일본 판본, 제5단-주변 사본 판본, 각 단은 왼쪽부터 연대순, 화상 밑의 숫자는 용례 숫자를 나타낸다)와 같이 HNG 전체로 보아 9세기가 되어 나타나는 자체이고, 이체자율·서지·대장경 구성(소재 목록) 등을 함께 생각한다면 9~10세기의 중국 주변 민족의 사경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Hanzi Normative Glyphs
漢字字体規範データベース

漢字字体規範データベース編纂委員会
(代表 石塚暁通)

悉 61(心)

3312 大字典 10655 諸稿



그림 2 HNG '실(悉)자'

ID		금강소천	대적본책	대적미봉	화동 250	미륵상생
00989	卅	1	2	1		2
01395	善	9	2	1	61	15
01767	堅		2	1		1
02473	尼	94	2	3	6	19
02473b	尼			1		
07535	當	5	2	2		13
07535b	當	2		1		
13940	高		1			1
13940b	高					1



그림 3 <금강소천>, <대적본책(大籍本策)>, <대적미봉(大籍味蜂)>, <화동 250>, <미륵상생>, <화엄신라> 대비

또 ‘정창원문서’ 대보 2년(702) 미노국 모토스[本質]군·아하치마[味蜂間]군의 호적은 자종(字種)과 용례 수는 많지 않지만 HNG상에서 대비해보면 어느 종의 근거가 얻어진다. <그림 3>에 ‘삼(冊)’, ‘선(善)’, ‘견(堅)’, ‘니(尼)’, ‘당(當)’, ‘고(高)’자를 언급하여 HNG로부터 시대와 지역을 고려하여 <금강소천(金剛小川)>, <화동(和銅) 250>, <미륵상생(彌勒上生)>, <화엄신라(花嚴新羅)>를 발췌하여 대비한 것을 보인다. 같은 대보 2년의 미노국 호적이 있어도 모토스군과 아하치마군과는 다른 자체를 쓰는 경우가 있고, 같은 아하치마군 호적에서도 이자체를 쓰고 있는 실태를 볼 수 있다. 또 ‘니(尼)’자에서 양 문서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체는 <화동 250>, <미륵상생> 등의 자체의 다양성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그림 4>처럼 HNG 전체로 보는 <경박금반(京博金般)>에서는 그 자체만 쓰이고 있으며, 실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륵상생>은 나라시대의 지방관으로서 공적이 있었던 이시카와 노토시타리[石川年足]의 원경(願經)이지만 ‘高’자에 이른바 ‘구치타카(くちたか)’ 자체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주목된다. 중국 남북조와 초당 및 ‘개성석경’에서도 이른바 ‘하시고타카(はしごたか)’가 표준

Hanzi Normative Glyphs
漢字字体規範データベース
니 44(戶)
2473 大字典 7635 諸集

漢字字体規範データベース編纂委員会
(代表 石塚晴通)

P2179	S2067	P2160	P2413	寶壽經二	P2334	宮廷今昔	P2195	宮廷守屋	S2577	S2577	漢書楊雄	花蘭守屋	S2423	S2423	正興178	正西分20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1	19	10	8	1	5	5	14	1	34	2	1	72	8	1	2	77
開成寺經	開成論語	寶篋天理	寶篋天理	京博金般	開元神咒	法藏和尚	光武聖紀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1	4	10	7	3	1	3	1									
金剛小川	和歌250	弥勒上生	五一禮高	正西分16	金剛大教	院談大教	院談大教	最上秘密	最上秘密	佛說大教	佛說大教	萬葉律種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94	6	19	1	77	12	8	1	3	2	5	1	2				
成禮讚10	春日經古	開讀功德														
尼	尼	尼														
3	11	3														
花籃新寶	和家集38	和家集38	和家花67	和家花67	和家花68	古麗集20	再麗集6	西夏法華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尼								
90	18	1	53	3	5	5	37	17								

그림 4 HNG ‘니(尼)’자

자체이고, 『설문해자』 유래의 ‘구치타카’ 자체는 초당부터 성당에 걸쳐 극히 한정적으로 사용된 자체이기 때문에 고문서와 목간 등에 ‘구치타카’ 자체의 용례가 보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목할 일이다.

4. 맺음말

필자가 대표자로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한자 자체 규범 데이터 베이스(HNG)’의 현상을 소개하면서 한자 자체·이체자율이 문헌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였다.

『개성석경』 『고려재조본대장경』의 이체자율은 매우 낮고, 자체에서도 규범성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서사연대와 지역에 이론이 있는 『대화녕국장화엄경』은 HNG에서 대비해 보면, 9~10세기의 중국 주변 민족의 사경이라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창 원문서 대보 2년 미노국 호적을 보면, 방대한 개수가 존재하고, 개개의 자수가 적은 고문서와 목간자료에서도 자체를 HNG상에서 대비해보면 어느 정도의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동아시아의 문자문화와
한문의 수용 양상

김영욱(서울시립대학교)



觀世音菩薩
億那由他不可說
不可說阿僧祇劫
於諸師長恭敬尊重
無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正喜利見善

於諸師長恭敬尊重
無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正喜利見善

동아시아의 문자문화와 한문의 수용 양상

김영욱
서울시립대학교

1. 한-중 언어접촉과 이두의 발생

중국 고전 “무왕승은계공자륙부석기자수기자불인주지석주지조선무왕문지인이조선봉지(武王勝殷繼公子祿父釋箕子囚箕子不忍周之釋走之朝鮮武王聞之因以朝鮮封之, 『尙書大傳』)”에 보면 한자(漢字)의 한반도 유입시기가 기원전 12세기(주 무왕 16년, B.C. 1119)이지만 여기에 실증 가능한 증거가 없고,¹ 한서(漢書)에는 “기자거지조선교기민이례의전잠직작낙랑조선민범금팔조(箕子去之朝鮮教其民以禮義田蠶織作樂浪朝鮮民犯禁八條)”라 하여 법률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것이 한반도 한자 사용의 실증적 증거라 하기 어렵다.

고고학적 유물이 보여주는 증거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무렵에 한자가 유입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3~4세기에 통용하던 연(燕)나라의 명

1 사마천의 『史記』에도 “武王乃封箕子于朝鮮而王臣也”와 같은 기록이 있다.

도전(明刀錢), 기원전 3세기경의 진과(秦戈)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다(리득춘, 1992 : 11~12 참조). 물론 이러한 유물의 존재가 한민족의 한자 사용을 자동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자 사용이 한상(漢商)이나 한반도에 임시 이주한 한족에 국한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자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유물은 경남 창원시 다호리 목관묘(木棺墓)에서 출토된 5자루의 붓이다.² 기원전 1세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것은 길이가 23cm로 한대(漢代)의 도량형(度量衡)에 따르면 1척(尺)이다.³ 후한(後漢)의 왕충(王充)이 쓴 논형(論衡)에는 ‘知能之人須三寸之舌一尺之筆’이라는 구절이 있다. 다호리의 모필(毛筆)이 1척(尺)이므로 이것이 당시의 붓 규격과 일치했음을 짐작케 한다.⁴ 그러나 그것으로 한민족의 한자 사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호리에서 출토한 붓으로 쓰인 한문 텍스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붓을 관상용(觀賞用) 혹은 부장품(副葬品)으로만 사용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북한에서 발견된 목간(木簡)에는 한자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것은 평양시 낙랑구역의 목곽묘에서 발굴되었다. “낙랑군초원사년현별호□다소□□(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多少□□)”로 시작하는 기록에 따르면, 한족과 토착민의 비율이 14%, 86%라는 것이다(김병준, 2008 : 174 참조). 초원 4년은 기원전 45년으로 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지 63년이 경과한 시기이다.

2 1988년에 발굴되었는데 붓대에는 漆이 발라져 있고 兩端에는 毛筆이 附着되어 있었다.

3 국립중앙박물관 편(2001), 248쪽을 참조.

4 荼戶里 毛筆의 사용 시기가 後漢 蔡倫紙 以前이었고, 毛筆이 削刀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書寫 材料는 木簡이었을 것이다. 削刀는 墨書가 있는 木簡의 表面을 깎아내고서 다시 새로운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우개이다.

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지 불과 60여 년 만에 한족이 14%로 불어났다는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의 비율은 1925년에 2.33%에 불과했고, 식민지배가 강화된 1944년에도 2.84%에 지나지 않았다. 한족의 티베트 지배가 이루어진 1990년에 3.68%이고 그 이후로 중국당국의 사민장려정책이 있는 후인 2001년도에도 5.9%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낙랑 인구가 28만여 명이었으므로 한족의 인구가 4만 명이 상이라는 뜻이다. 만약 이 모두가 순수한 한족이라면 초원 4년(B.C. 45년) 무렵이나 그 이전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어야 한다.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라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여기에 대한 기록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과문(寡聞)인지 몰라도 당시의 낙랑군에 한족이 대규모로 이주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낙랑의 ‘14 : 86’은 ‘한족 : 한민족’이라는 민족 구성에 관한 기록이라기보다 ‘지배(支配) : 피지배(被支配)’라는 정치적·계층적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⁵

무제 3년(B.C. 108년) 낙랑군을 설치하면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통혼이나 토착민의 지배층 편입정책을 통해 지배층의 확대를 꾀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초원 4년에는 식민지배층이 3세대쯤 지나게 된다.

5 김병준(2008 : 140~141)은 낙랑의 지배정책에 종족적 융합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호한초벌을 한족과 토착민의 구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제국의 군현지배의 궁극적 목적은 적극적 통혼정책이나 사민 등을 활용하여 한족의 확대를 꾀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낙랑군의 지배체제는 종족분리적 입장이 아니라 종족융화적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樂浪의 支配體制에 대한 一般的 認識은 三國志 東夷傳의 “漢武帝 伐滅朝鮮 分器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이라는 구절에 근거한 해석으로, 胡漢稍別을 중시하여 漢族과 土着民의 分離支配가 기존의 정설이었다.

본국에서 태어난 한족들은 중국어가 모어였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한반도에서 장기간 생활을 했더라도 한국어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들의 출생지인 식민지 언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모어가 한국어인 경우는 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초원 4년의 낙랑 지배계층은 소수의 파견 근무자를 제외하고 식민지에서 태어난 한족이거나, 한족과 한민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다수를 점했을 것이고 이것은 당시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전면적 언어접촉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언어접촉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확인의 한 방법으로 한자가 언제부터 한국식으로 사용되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자의 한국적 수용(收容)은 이두(吏讀)의 역사를 캐는 데서⁶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두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한국어를 표기한 것이다.⁷ 이두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접촉으로 서서히,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한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비문으로는 원화(元和) 10년(기원 84년)의 점제현(杜蠅縣) 신사비(神師碑)가 있다. 기원전 1세기에 이미 한반도에서 토착민을 포함한 식민지배 계층에서 한자·한문을 통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세기경에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접촉 양상이 문장어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 이두의 기원을 해명할 때 맨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디까지가 吏讀文이고 어디까지가 漢文이냐는 것이다. 吏讀는 訓民正音과 달리, 創造者가 일시적이면서 전면적 혹은 체계적 표기체계를 갖추고서 실제의 한국어 표기에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7 吏讀는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넓게 잡는다. 말하자면, 鄉札, 口訣은 물론이고, 釋讀法, 固有名詞 表記法 等 훈민정음 이전의 漢字 派生 韓國語表記들을 모두 吏讀의 範疇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年四月戊午粘蟬長○○/
 ○建丞屬國會○○○○○/
 ○神祠刻石辭曰/
 ○平山君德配代崇承天○○/
 ○佑粘蟬興甘風雨惠閏土田/
 ○○壽考五穀豐成盜賊不起/
 ○○塾臧出入吉利咸受神光’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기원문(祈願文)을 각석(刻石)한 것이다. 이것은 풍우(風雨)가 순조로워서 토지를 윤택하게 하고, 오곡을 풍성하게 하되, 도적(盜賊)이 일지 않도록 기원한 것으로, 드나드는 길리(吉利)에게 신의 은총을 내려달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두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⁸

다음은 4세기 낙랑지역 출토 벽돌에 새겨진 명문이다.⁹ 1914년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 태봉리1호분에서 명문전(銘文磚)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연대는 34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편, 2001 : 178).

父母 既好且 堅典齋 記之
 부모인 기호차와 견전재가 기록한다
 天生 小人 供養 君子 千人 造 塼以 葬¹⁰

8 신사비의 관독문은 국립중앙박물관 편(2001 : 66)을 참조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해석이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비문 중에서 고대 낙랑시대의 관리로 짐작되는 ‘길리’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 후대의 捷解新語에 나타나는 ‘日吉利’에서 그 용례의 흔적을 비교해볼 만하다.

9 이것들은 4세기 중반 이후이므로 313년 낙랑 멸망 이후의 문자유물이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4세기 고구려 문자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낙랑의 영향 아래 있는 문자자료로 봄직하다.

10 국립중앙박물관 편(2001 : 181)에 따르면 둘째 행의 아홉째 글자는 ‘天’이다. 이것은 再考를 要한다. 天生의 天과 대조해보면 아래 획이 大자로 양옆으로 갈

천생소인이 공양하는 군자 천인이 지은 벽돌로 장례를 치른다.

언어접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구절은 ‘記之’의 ‘之’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평서형 종결형 어미 ‘-다’에 대응한다.¹¹ ‘낙랑전명(樂浪傳銘)’에 보이는 ‘之’의 용법은 5세기 초 고구려 문자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² ‘덕흥리고분묵서(德興里古墳墨書)’의 ‘且食鹽鼓食一椋記之’와 ‘曹職吏故銘記之’, ‘광개토왕비문(廣開土王碑文)’의 ‘制令守墓之’, ‘평양석각문(平壤石刻文)’에서도 ‘-之’가 보인다[서북행십지(西北行涉之)].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에서도 3개의 용례가 있다.[동래지(東來之) / 건립처용자사지(建立處用者賜之) / 교궤영지(敎軌營之)].



그림 1 태봉리 낙랑전명

문종결사(文終結詞) ‘之’는 신라의 문자자료(文字資料)에서 확인할 수 있

라져 있지만 ‘군자천인’에 보이는 ‘천’은 十자 모양으로 아래 획이 수직으로만 내려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문제의 ‘천’을 ‘千’으로 판독한다.

- 11 이런 식의 之라고 해서 모두 한국식인 것은 아니다. 한문에서도 가능한 구절이다. 가령 詩經의 樛木에 나오는 ‘樂只君子(즐거운 군자여) 福履綏之(복됨으로 편안하다)’의 예를 보자면, 이때의 ‘之’는 허사로 쓰여서 종결어미의 역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詩經에 나오는 ‘之’의 用法은 詩歌에 쓰임으로써 운율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이므로 傳銘의 散文과는 그 쓰임에 차이가 있다.
- 12 高句麗人의 漢字使用에 대한 1차 자료 중에서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고국원왕 무덤에 새겨진 68字의 漢字가 있다. 고국원왕은 371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무덤 그림에 남아 있는 表題 漢字의 기록 연대는 4세기 말일 것이다(오희복, 1999 : 11).

다.¹³ 도래인(渡來人) 지역이었던 일본 사가현[滋賀縣]의 모리노우치[森ノ内] 유적지에서 발견한 ‘경직(椋直)’으로 시작하는 7세기 후반 일본 목간에는 ‘椋直傳之’, ‘我者反來之’ 등의 용례가 있다. 1991년 일본 오사카 시의 쿠와즈[桑津] 유적의 아스카 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도 ‘-之’를 확인할 수 있다.¹⁴

之의 용법뿐만이 아니다. ‘塹以葬’에서 이는 ‘도구’를 의미하는 허사(虛辭)로 쓰였는데 중국어와는 달리 후치(後置)되었다. 후치 용법의 ‘以’는 ‘광개토왕비문’에 보인다. ‘顧命世子 儒留王以 道興治’가 있는데, 해석하자면, ‘고명세자는 유류왕으로 도(道)를 일으켜 다스렸다’ 정도이다. 이러한 이의 용법은 신라의 이두에도 보인다. 갈항사(葛項寺) ‘조탑기(造塔記)’에는 ‘娚姊妹 三人 業以 成在之[남자매 삼인의 업으로 일거다(이루었다)]’가 있으며, 이러한 후치(後置) 용법으로 쓰이는 이는 고려(高麗)의 석독구결(釋讀口訣)에

13 咸安 城山山城出土一面墨書木簡 281番은 6世紀中半資料로 現在까지 出土된 新羅木簡으로는 가장 이른 것인데 여기에 書記된 ‘殂鐵十之’를 解釋하면 ‘조철이 10개다’로 終結詞 ‘-之’가 보이고 文章이 韓國語順으로 記寫되었다. [비슷한 時期의 丹陽赤城碑에 보이는 ‘合五人之’도 學界에 널리 알려진 例다. 그 外에도 如郎三之(川前里刻石文), 教令誓事之(南山新城碑) 등이 있다. 신라의 7세기 이두자료에도 평서형 종결어미 ‘-之’가 나타난다. 다음은 월성목간 149호로 4면 중 3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독문은 “牒垂賜 教在之 後事 若命盡”인데 여기에 “教在之”가 보인다. 뿐만 아니라 孝昭王 4년(695년)에 작성된 신라의 村落文書에서도 之가 확인된다. “馬於內 上□一具 上仕之.”

14 별자리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앞면 : (별자리 그림, □安) 欠田里 寡之年 道章白 加之 뒷면 : 各家客 等之 이때의 之도 종결사의 용법이다. 해석하자면, “흠전리의 (수확이) 부족한 해에 도의 문장을 사 되어 더한다.(加之) 각각 집과 손님은 같다.(等之)”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樂浪塹銘에 보이는 ‘之’의 用法은 中國語와 韓國語 사이에 存在하는 크리올의 文法을 보인다는 점에서 中間言語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記之’의 文法이 高句麗에 이어지고 新羅에까지 傳承되어서 吏讀의 文法으로 定着되고 古代日本에까지 傳播된 樣相을 追跡해보면, 태봉리 銘文塹은 韓化漢文의 起源을 斟酌케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도¹⁵ 나타난다.

한자·한문의 한국적 수용(受容)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주제는 석독법(釋讀法)이다. 석독이란 한자를 한국어로 새겨서 읽는 것이다. 한국 최초의 석독은 고구려의 문자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유적지 중에는 모두루(牟頭婁) 무덤이 있는데 무덤의 천장에는 800자가 넘는 문자자료가 남아 있다.¹⁶ 여기에 ‘국강상대개토지호태성왕(國岡上大開土地好太聖王, 44~45행)’이란 구절(句節)이 나온다.¹⁷ 이것을 ‘광개토왕비문’의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과 대조해보면, ‘광개토(廣開土)’가 ‘대개토(大開土)’에 대응(對應)함을 알 수 있다.¹⁸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광(廣), 대(大)’는 동일인명 표기(同一人名表記)이므로 음가(音價)도 동일해야 한다.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나 ‘국강상대개토지호태성왕(國岡上大開土地好太聖王)’을 모두 중국식으로 음독했다면 이와 같은 이표기(異表記)가 나타날 수 없다. 이것은 석독의 유명한 예인 ‘연개소문(淵蓋蘇文) :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로, 이때의 ‘연(淵)’은 “*iri[^{*}는 재구(再

15 過失乙 皆セ 淸淨 ヲ ヲ 1 ヌ ム /과실을 모뎀 청정호안드로 是故 ム /시고로 二地乙 說尸 名下 無垢地 ヲ ノ ヲ /이지를 닐을 일하 무구지여 호리며(금광명경 6장 21행).

16 여기에 대해서는 韓國歷史硏究會 編(2004 : 36~42) 참조.

17 1935년 集安縣中學校의王永璘 교사가 무덤 안에 글씨가 있다고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借字表記法의 기월에 관한 자료로 인식한 국어학 연구논문은, 寡聞인지 몰라도 필자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없었다. 무덤 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廣開土王碑文과 恰似하고 墓地造成年代가 5세기 중반이다.

18 尹善泰 교수(東國大)가 이 사실을 필자에게 처음으로 일깨워주었다. 尹教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構, reconstruction) 표시임)로 석독하고 있다.¹⁹ 동일 인물에 대한 이표기 쌍인 ‘연 : 이리(伊梨)’의 음가(音價)는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과 ‘대’도 둘 중에서 최소한 한 글자는 석독이어야만 한다. 대는 ‘대사(大舍) : 한사(韓舍)’의 대응 예를 고려할 때에 그 음가를 ‘*han’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²⁰

한편 최초의 이두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구려 기록이 있다. 『흠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의 『성경통지(成京通志)』(권108, 18면)에 나오는 것으로²¹ 고구려의 ‘도두(刀斗)’에 관한 기록이 그것이다.²²

“…… 僚舟至冷泉 高麗遣兵來衛銅器 晝以供炊夜用擊警卽古刀斗也
東夷箕子之國猶知重古三代俎斗至漢 尙存則刀斗 尙傳習而近者 ……”

도두는 예부터 전해지는 고구려의 도량형기(度量衡器)일 것이다. 기자

- 19 그러니 우리가 歷史教科書를 통해서 알고 있는 淵蓋蘇文은 [연개소문]으로 발음하기보다는 [이리개소문]이라 하는 것이 실제에 더 가까운 것이다.
- 20 百濟地名이었던 ‘廣津’의 ‘廣’은, ‘漢江의 나루’이므로 이에 ‘廣’을 ‘*han’으로 재構할 수 있다[都守熙(2005 : 37) 참조]. 이에 廣開土의 ‘廣’을 ‘*han’으로 재構할 수 있다. 당시의 高句麗人들이 ‘*han/한’을 借字로 표기하기 위해, 이것을 ‘廣’으로 표시하거나 ‘大’字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 ‘廣’이나 ‘大’字를 借字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異表記 現象이 나타날 수 없다. ‘*han/한’이 異表記를 보인 것은 중요하다. 비문과 무덤글에서 각각 ‘廣’과 ‘大’로 표기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둘 다 廣으로 나타나거나, 大로만 표기되었더라면, 우리는 釋讀의 證據를 捕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廣 : 大’가 ‘大 : 韓’과 마찬가지로 同音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한국 고유의 釋讀表記 기원이 5세기 高句麗에 있었음을 뜻한다.
- 21 이 冊은 臺灣의 商務印書館에서 影印한 것으로 文淵閣 四庫全書 第501冊이다.
- 22 僚舟가 冷泉에 이르자 高麗 遣兵이 와서 銅器를 지키며 그것으로써 낮에는 供炊하고 밤에는 擊警으로 사용하니 이는 곧 옛 刀斗라, 東夷의 箕子之國은 오히려 옛 三代의 俎豆가 重함을 알아 漢에 이르러 尙하여 存한즉 刀斗인 데 尙하여 그 傳하는 習이 近者에 이르렀다.

조선(箕子朝鮮)에서 전해진 동기(銅器)로 취사용으로도 쓰이고 동종(銅鐘) 구실도 했다는 것인데 조두(俎豆)와 통하는 것으로 보아 도두는 두형(豆形)의 도마 모양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동이솔개토착(東夷率皆土着) 희음주가무(喜飲酒歌舞) 흑관변의금(或冠弁衣錦) 기용조두(器用俎豆) 소위중국실례(所謂中國失禮) 구지사이자야(求之四夷者也)’²³라는 기록에서 ‘기용조두(器用俎豆)’가 보인다. 따라서 그 도두는 동이(東夷)의 예기(禮器)였을 것이다.²⁴

‘도(刀)’와 ‘두(斗)’는 ‘되’와 ‘말’에 해당한다. 신라장적(新羅帳籍)에도 도량형(度量衡)의 단위로 도와 두가 있는 것을 보면, 고구려의 도량형 단위가 아마도 신라로 전승된 것이 아닌가 한다. 도두의 도는 그 음이 중국적이라 할지라도 ‘刀’의 뜻이 한국식으로 쓰였으므로 이것은 이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²⁵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한자가 한반도에 유입된 것은 기원전 3세기 무렵이고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기원전 1세기에 한자·한문을 토착인과 이주민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통용하였다. 이러한 언어접촉에서 이두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두는 훈민정음과 달리, 전면적 표기가

23 동이 민족은 대개 토착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술 마시고 춤추기를 즐겨하였다. 간혹 고깔을 쓰고서 비단옷을 입으며 그릇으로는 조두를 사용하기도 하여서 말하자면 중국에서 예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네 가지의 이족들에게서 그 예법을 구하기도 하였다.

24 주지하다시피, ‘俎’는 禮器로서, 중국에는 春秋時期的 楚나라 墓에서 출토된 青銅製 ‘鏤空矩尺紋俎’도 있지만[國立歷史博物館/高雄市立美術館(1994 : 103) 參照], 필자의 寡聞인지는 몰라도, 한국에는 현재까지 그 존재에 대한 발굴보고를 들은 바 없다.

25 되[刀]와 말[斗]은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단위지만 중국에서도 사용된 것이었다. 하지만 ‘刀’와 ‘斗’를 高句麗에서 借字하였고 그것이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른바 借字表記資料로서의 국어사적 의미가 있다.

일시에 출현한 것이 아니다. 한문에 부분적인 한국식 표현이 보이다가 이것이 점차로 확장되어 발달한 것이다. 언어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이 낙랑지역이었으므로 이두가 이곳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기원전 1세기 목간이나 1세기의 낙랑 비문에서 한자소통(漢字疏通)을 확인하였지만, 여기에서 이두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300여 년이 흐른 뒤, 낙랑 유물에서 이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낙랑의 지배층은 그 뿌리가 한족이므로 이두의 발생을 순수한 한민족의 것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두의 발생은 한·중 언어접촉의 소산(所産)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한자와 훈민정음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창제(創製) 목적에서 문자 운용에 이르기까지 한자와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연속적 인식은 창제에 반대했던 신하의 상소(上疏)에서 나타난다.

儻曰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盡反於古
 (崔萬里 上疏, 1444年)

세종(世宗)은 ‘언문개본고자비신자야(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라면서 자방고(字倣古篆)이라 하였지만 이에 맞선 최만리(崔萬里)는 ‘용음합자(用音合字)가

진반어고(盡反於古)'라 하였다. 훈민정음과 한자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음합자가 진반어고'라고 보는 불연속론자(不連續論者)들은 문자 시스템 운용의 기본인 용음에서 훈민정음이 중국전통의 반절법(反切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초중종(初中終)의 삼분법(三分法)에 기초한 음절합자(音節合字)가 고전에는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한자와 달리, 음소문자이면서도 초·중·종성을 합쳐서 한 글자로 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자 1음절의 한자와 동형성(同形性)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체(字體)도 한자와 마찬가지로 방형(方形)을 표준으로 삼았다. 이상의 논점을 수용한다면 훈민정음도 한자와 연속선상에서 그 위상(位相)을 점검해볼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방고전'을 주장했던 15세기 당시 학자들과 세종대왕의 문자관을 새롭게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을 '고전'에서 구하고자 했던 당시의 언술은 사실적 고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자문화사의 관점에 따른 해석문제로 풀어야 한다. 문자를 발명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가질서창조를 의미한다. 그러자면 문자에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이 한자의 기본 원리인 상형(象形)이나 고전(古篆)을 모방했다는 논의를 부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자의 상형과 한글의 상형은 자형이 사물의 형상을 본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한자의 상형은 뜻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가령, '산(山)'의 뜻은 산의 형상이다. 그러나 한글은 이러한 뜻의 세계와 관련이 없다. 'ㄱ'은 그 소리의 세계가 혀의 고부라진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한글의 '상형'이란 한자의 제작원리 중 하나인 상형과 달라서 굳이 한글을 상형자라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종대왕이 굳이 상형이라는 원리를 강조한 것은 문자의 제작원리가 한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한글도 옛 성현들이 만들어낸 문자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훈민정음의 서체도 전서(篆書)와는 닮은 점을 찾기 어렵다.²⁶ 전서는 주나라 왕실문자로 예서(隸書)와 구분되었다. 전(篆)은 둥글고 다소 길쭉하며 획의 굵기가 동일한 반면, 예(隸)는 정방형에 가까우며 획의 굵기도 다르다. 훈민정음과 고전의 공통점을 굳이 형태에서 찾자면 서체 면에서 획의 굵기가 모두 시종여일(始終如一)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창제자는 구체적 양상의 차이점보다는 근본적인 원리의 동일성을 중시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이기불이(理既不二)’라는 해례본(解例本)의 언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訓民正音 解例本)

세종은 스스로 무엇을 새롭게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기불

26 秦의 隸書 이후 중국의 표준 서법이 주나라의 전서와 달라지는데, 예서는 한 예를 거치면서 파책이 나타나고 획의 굵기가 자형에 따라서 달라지며, 전서는 획의 굵기가 동일하고 예서처럼 각진 것이 아니라 획이 둥글게 표현된다. 획의 굵기가 동일하다는 면에서는 한글을 전서와 관련지을 수 있겠지만 한글은 수직 수평의 각진 모습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이 둥글고 부드러운 전서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理既不二)', 즉 모든 이치는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훈민정음의 이치가 이미 존재했지만 '고인불찰이(顧人不察耳)'한 것을 세종 자신이 재발견하여 정리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동아시아 전통과 상통한다.

'자방고전'이라는 구절도 다시 한 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고전'은 주(周) 왕실의 문자다. 그것은 제왕적(帝王的) 권위의 상징이었다. '문자타락설(文字墮落說)'까지 나돌았던 서구의 전통과는 대조적이다.²⁷ 문자 중심의 동아시아적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한자학습서(漢字學習書)인 천자문에서도 읽힌다.

始制文字 乃服衣裳

일반적으로 의식주가 문자의 발명에 앞섰다고 할 것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보다 문자를 앞세우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자의 문자관(文字觀)도 동아시아의 전통 문자문화사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은 19세기 말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성립까지 유

27 소크라테스는 문자를 발명했다는 이집트의 신 토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자의 아버지시여, 당신은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에게 자신들이 진정으로 소유한 것과는 정반대의 힘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기억의 묘약이 아니라, 꾸미는 묘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모양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읽겠지만,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金永旭(2008), 문자의 문화사 강좌 원고, 성균관대학교]. 문자에 의한 사실 왜곡 상황은 고대 카데시 전투의 기록에서부터 확인된다. 기원전 1285년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 싸운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 왕과 맺은 강화조약을 말하며 이집트의 대승을 기념했다. 그러나 히타이트의 수도 보가즈코이에는 같은 조약에 대해서 람세스는 전투에 패해서 군대를 철수한 것이며, 이 전투에서 히타이트가 대승을 거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되었다. 한문이 공식적 문어로서 언문(諺文)을 압도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칙령 1호로 혁명적으로 역전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²⁸

3. 한자문화권에 대한 재인식

한·중·일 3국은 언어 차이에 따라 민족 고유의 문자들을 창안하고 발전시켰다. 한자, 한글, 가나를 문자 그 자체로만 본다면 체계와 그 운용에서 상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아메리카와 유럽의 알파벳과 비교·대조해보면 동아시아의 여러 문자 사이에 공통점도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자문화권의 여러 문자는 방형이다. 알파벳문화권의 제 문자가 선

28 1894년 갑오년 11월 21일, 『고종실록』에는 칙령 제1호에 관한 기록이 있다. 第十四條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漢文 ……(高宗太皇帝實錄卷之三十二, 六十五) 전문이 19조로 되어 있는데 국문과 관련된 조항은 14조로 國文爲本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왕조 이래, 어떤 통치자도 “國文爲本”이라는 선언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國文이 주가 되고 漢文이 부가 되는 이른바 主副顛倒의 대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종이 한글 애호론자였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자의 불편함이나 한글의 실용성 등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도 아니다. 고종 황제의 칙령 이후에는 실록에서도 국문으로 된 기록이 보인다. 을미년 1월 5일자 『고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국한문 혼용체가 있다. “十二月十二日에 我 聖上陛下께서 我國家의 獨立自主 宏는 基業으로 宗廟에 誓告하시며 …… 訛言 煽動 宏는 國賊이 有하거든 共攻하기를 跂望하노라(『高宗實錄』 권33 1장).” 이것은 일종의 포고문으로 內務衙門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알리는 글이다. 여기에 적힌 12월 12일은 음력으로 갑오년에(양력, 고종 32년, 1895. 1. 7) 국왕과 세자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大廟에 가서 祖宗의 靈 앞에 자주독립을 선포한 날이었다.

형(線形)인 것과 대조적이다. 알파벳은 선형으로 설계된 까닭에 서사방식에 제약이 따른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모두 가능한 한자와는 달리, 알파벳의 서사방식은 가로쓰기와 일방향 쓰기로 고정된다. 알파벳도 의식적으로는 세로쓰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알파벳을 인식하기에는 가로쓰기보다 부자연스럽다. 글쓰기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등 한 방향으로만 고정된다.²⁹

이에 비해 한자·한글·가나는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모두 가능하다. 글을 쓰는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쓸 수가 있다. 쓰는 방향에 대한 제한이 없는 까닭에 한자문화권에서는 공통으로 깃발문화가 발달하였다. 큰 깃발에 글씨를 쓸 때에는 세로쓰기가 좋다. 가로로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깃발 폭이 길어져서 곤란하다. 깃대가 높고 폭이 긴 깃발은 바람이 불 때는 깃발을 잡고 움직이기가 힘들며 바람이 잔잔할 때에는 깃발이 접혀져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다.

또한 알파벳문화권에 비해서 한자문화권에서는 문자를 쓰는 방식에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전하는 광고판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알파벳은 광고 문자 제작에 가로쓰기라는 한계가 주어진다. 한자·한글·가나는 가로든 세로든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그 위치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 수만 있다면 전방향의 문자광고판이 가능하다.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모두 할 수 있다는 한자문화권의 장점이 비단 광고 글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을 때,

29 중동의 알파벳은 그 반대 순이지만,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왼쪽에서 시작하든 오른쪽에서 시작하든 마찬가지다.

한자·한글·가나로 된 책이라면 책등에 적혀 있는 제목이 한눈에 들어온다. 세로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파벳은 책등의 제목을 가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책이 책꽂이에 누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글자를 읽기 위해서 고개를 조금이라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³⁰ 좌우읽기, 우좌읽기 등 그 어떤 운용 방향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편리한 문자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한자·한글·가나가 모두 방형 문자라는 형태상의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은 한자문화권이라는 공동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자와 이두, 훈민정음과 한글, 가타카나와 히라가나 등, 삼국의 문자들이 한자문화권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두는 한·중 언어접촉에서 비롯되었다(김영옥, 2008 참조). 한편 일본의 가타카나도 8~9세기 무렵, 일본과 신라의 불교문화의 교류와 전파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2002b 참조).

한글도 마찬가지다. 세종이 중성(中聲)을 발견한 것이나 초성(初聲)·종성(終聲)의 동일성 확인 등, 음운학적(音韻學的) 독창성이 있지만 한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한자문화의 전통이 잠재하는 것이다. ‘자방고전’의 의미도 동아시아의 전통 문자관에 기대어 해석해낼 수 있다

30 가로쓰기의 경우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읽는 경우도 있다. 영어는 좌우 순서이지만 아랍어는 그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한다. 한자·한글·가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큰 간판 글씨나 현판 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영어 문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상상해보자. 독자들에게 글쓰기의 새로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인식 속도는 그만큼 느려질 것이다. 한글과 같이 네모꼴 형태의 문자가 지닌 서사상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김영옥(2007)을 참조할 수 있다.

(김영욱, 2007 참조). 한글을 음절합자로 만든 방형의 글자로 고정하고 이것을 현대까지 한글의 표준서체로 유지하고 있는 까닭도 한자문화권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한자는 동아시아 공동의 코드이다. 알파벳이 한 국가나 한 민족에 머물지 않듯이 한자도 한 민족이나 특정 국가에 귀속된 유물이 아니다. 한자는 동아시아의 공동 문화자산(文化資產)으로 한·중·일 간의 소통도구이자 정신적 기반인 것이다. 한자가 지니는 역사성·예술성·도상성은 이것이 과거의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도 잘 어울린다. 공동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의 한자는 서예 혹은 서도로 불리는 모필문화의 생명력과 예술성, 그리고 도상성이 주는 문자와 의미 간의 유연성 등의 수월성을 지닌 문자 시스템으로서 정보화 시대에도 예술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춘 현대적 소통체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일 속한문(俗漢文)의 세계

— 『일본서기』 구분론과 종결사 ‘之’

日・韓俗漢文の世界

— 『日本書紀』 區分論と終結辭の‘之’字

모리 히로미치(森博達, 교토산업대학)



한·일 속한문(俗漢文)의 세계

— 『일본서기』 구분론과 종결사 ‘之’

모리 히로미치

교토산업대학

1. 머리말

한국이나 일본은 고래(古來)부터 한자문화를 수용했다. 한자는 고립어인 중국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다. 한편 한국어나 일본어는 교착어로 어순 등도 중국어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한자를 차용해 자국어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일본에서는 한자문에 ‘정격한문’, ‘변체한문’, ‘일본어문’이라는 3종의 문체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변체한문은 한층 더 ‘일본화’한 한문과 ‘중국화’한 일본어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어의 발상으로 한어(漢語)·한문의 오용(誤用)이나 기용(奇用)을 ‘왜습’이라고 부르지만, ‘일본화’한 한문은 어휘나 어순의 왜습이 혼재한 한문이다. 한편 ‘중국화’한 일본어문은 부분적으로 한문의 어휘나 어순을 차용하면서도 일본어문을

지향한 것이다.

고대 일본의 한자문화는 한반도의 한자문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변체한문의 왜습에는 한국의 변체한문(속한문)이나 이두문과 공통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되는 이두적 표기나 왜습을 개관한다. 그 다음으로 『일본서기』(30권, 720년 찬)에 보이는 종결사 ‘之’의 용법을 검토해, 『일본서기』 구분론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한자문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겠다.

2. 고대 한국의 이두와 속한문

한국에서는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기까지 일반적으로 문장은 모두 한자로 표기하였다. 한자문에는 한문체 이외에 한자를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 차자표기의 하나가 이두로, 그것을 다용한 것이 이두문이다. 이두에 대한 이하의 설명은 남풍현 『이두연구(吏讀研究)』나 서중학 『이두의 역사적 연구』를 참조했다.

이두적인 표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 ① 高句麗 ‘城壁刻書’(446年?) “丙戌十二月中(中略)自此西北行涉之。”
- ② 新羅 ‘永川葦堤碑(丙辰銘)’(536年) “所內使以見令賜矣。”
- ③ 新羅 ‘戊戌塲作碑銘’(578年?) “另冬里村高□塲作記之。此成在□人者。”

밑줄 친 中·之·以·賜·在는 부속어적인 요소를 표기한 이두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①의 ‘中’은 처격 ‘~에’를 나타내고, ①과 ③의 ‘之’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낸다. 이러한 용법은 중국에 기원이 있다. ②의 ‘賜’는 경어법, ②, ④의 ‘以’는 도구격 조사, ③의 ‘在’는 시제를 나타내는 시상어미(時相語尾)이다. 또한 ③의 문장은 목적어(파선부(波線部))가 동사 ‘作’이나 ‘成’ 앞에 있다. 중국어는 아니고 신라어의 어순을 따랐을 것이다.

이두문은 한국어 표기를 지향한 문장이지만, 한문을 지향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두적 요소가 혼재한 문장도 있다. 이것은 ‘속한문’ 혹은 ‘변체한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 ④ 高句麗 ‘廣開土王碑’(414年) “王於忽本東岡黃龍負昇天.”
- ⑤ 高句麗 ‘廣開土王碑’ “買人制令守墓之.”
- ⑥ 慧超(8世紀新羅僧) 『往五天竺國傳』 “男人並剪鬚髮, 女人在頭.”

④는 정격한문이라고 하면 어순이 잘못되어 있다.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이므로, ‘負’자 뒤에 와야 한다. ⑤의 ‘之’는 종결사 용법으로 비문 전체의 말미에 있다. 덧붙여서 비문은 매행 41자로, 이 ‘之’는 맨 마지막 줄의 제41자째에 놓여 있다.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⑥은 ‘女人有頭’이 되어야 할 곳이다. 현대 한국어도 일본어와 같이 중국어의 ‘在’(소제)와 ‘有’(존제)를 혼동하고 있으며, ‘머리카락을 깎다’를 ‘머리를 깎다’라고 한다. ‘女人在頭’는 신라어 발상에 따라 어휘와 어법을 오용한 것이다(桑山正進 編,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참조).

3. 일본의 ‘변체한문’에 보이는 이두식 표기

이두나 속한문과 유사한 표기는, 고대 일본에서도 금석문이나 문헌 자료에 보인다.

- ⑦ 埼玉稻荷山鐵劍銘(471年?) “辛亥年七月中記.”
- ⑧ 法隆寺金堂藥師如來像光背銘(7世紀後半?) “池邊大宮治天下天皇
大御身勞賜時,”
- ⑨ 太安万侶墓誌銘(722年) “以癸亥年七月六日卒之.”

⑦의 ‘中’, ⑧의 ‘賜’, ⑨의 ‘之’는 ①②③에 보이는 이두적 표기와 같은 용법이다.

문헌자료는 『일본서기』(720년)에 나오는 예부터 들겠다.

- ⑩ 卷6 「垂仁紀」 “其祠立於伊勢國.”
- ⑪ 卷6 「垂仁紀」 “是玉今有石上神宮.”
- ⑫ 卷7 「景行紀」 “是以, 賤城陋口以奉尊號.”
- ⑬ 卷9 「神功紀」 “甲子七月中, 百濟人久氏.”
- ⑭ 卷19 「欽明紀」(百濟聖王上表文) “至於卓淳, 亦復然之.”
- ⑮ 卷19 「欽明紀」(百濟聖王上表文) “故今顯示集在黎民.”

⑩은 목적어 어순이 잘못되어 있으며, 정확하게는 ‘立其祠於伊勢國’이고, ⑪은 ‘有’와 ‘在’를 혼동한 것이다. ⑬의 ‘中’과 ⑭의 ‘之’는 ①이나 ③에 보이는 이두의 처격조사, 종결어미와 동일한 용법이며, ⑫의 ‘以’와 ⑮의 ‘在’는 ②, ③에 보이는 이두와 유사한 용법이다.

일본은 옛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특히 나라시대 이

전, 문필에 종사하는 ‘史’^[후히토]로 불린 서기관(書記官)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 귀화인이나 그 자손이 대부분으로, 한국의 한자문화를 전했다. 고대 일본의 문장 표기에 한반도의 영향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4. 『일본서기』 해제

『일본서기』(30권, 720년 찬)는 일본 최초의 정사(正史)이다. 토네리왕^[舍人親王]이 총재(總裁)가 되어 편찬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의 찬술자(撰述者)가 누구인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 기사(記事)는 신대(神代)에 시작하여 697년의 지토천황^[持統天皇]의 양위로 끝난다. 『일본서기』 없이는 7세기 이전의 일본 역사는 말할 수 없다. 고대사 연구에서 탁월한 문헌이다.

『일본서기』는 고대의 말과 표기를 알기 위한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고사기』(3권, 712년 찬)와 달리 한문으로 쓰여 있다. 권24 『황극기』(皇極紀)의 예를 들어 기재 형식을 보겠다. 3년 6월조(條)이다. 또한 서기의 원문 혼독은 소학관(小學館) 『신편일본고전문학전집』(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의 『일본서기』에 따른다.

是月，國內巫覡等折取枝葉，懸掛木綿，伺大臣渡橋之時，爭陳神語入微之說。其巫甚多，不可具聽。老人等曰，‘移風之兆也。’于時有謠歌三首。其一日，‘波魯波魯爾 渠騰曾枳舉喻屢 之麻能野父播羅’。

【訓讀】是の月に，國內の巫覡(かんなぎ)等，枝葉を折り取り，木綿(ゆう)を懸掛(かけし)でて，大臣の橋を渡る時を伺ひ，争ひて神語(かんと)の入微(たえ)なる説(ことば)を陳(の)ぶ。其の巫(かんなぎ)甚だ多くして，具(つぶさ)に聽くべからず。老人等の曰く，‘移風(ときかわ)らむ

とする兆なり'といふ, 時に謠歌(わぎうた)三首有り. 其一に曰く, '遙々(はろはろ)に言(こと)そ聞(きこ)ゆる 島(しま)の藪原(やぶはら)'といふ.

여기에서는 '요가(謠歌)', 즉 가요[和歌]를 망요 가나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요는 30권 가운데 21권에 걸쳐서 128수나 실려 있다. 가요에 사용한 망요 가나는 468자종 총계 5,480자나 된다.

망요 가나는 가요 외에 이른바 '훈주(訓注)'에도 사용하였다. 훈주는 분주의 일종으로, 본문의 한어(漢語)에 일본어로 읽는 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하에 권14에서 일례를 들어본다.

謠歌

時以新羅人爲典馬, 典馬此云于麻柯毘

【訓讀】〈時に新羅人を以ちて典馬として, 典馬, ここにはウマカヒという〉

훈주의 망요 가나는 약 300자종, 연자수(延字數)는 약 1,300자로 가요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연자수의 약 3분의 2가 권1~3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권27을 제외하고 29권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어 가요가 없는 권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 30권의 각 권의 지수(紙數)는 <표 1>과 같다.

표 1 『일본서기』 각 권의 항수('국사대계본'에 의한다) 합계 727항, β군 : 428항, α군 : 261, 권30 : 38항

군	β													α							β	α	β							
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항 수	49	44	23	16	15	19	30	7	24	16	28	11	20	35	23	7	23	10	50	16	14	34	15	23	42	18	23	20	57	38

5. 『일본서기』 구분론

필자는 본래 중국어 음운학을 전공하였으며 『일본서기』의 망요 가나에 흥미를 가졌다. 이에 대한 연구를 모은 것이 1991년에 발표한 줄저 『고대의 음운과 일본서기의 성립』이다. 그 핵심은 서기의 일부 권들(α군)의 망요 가나는 도래한 중국인이 중국 원음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3절에서 예로 든 가요에서는, 당시 일본어 악센트까지 중국어의 성조로 완전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후 필자의 관심은 『일본서기』의 망요 가나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나 편수(編修)과정에도 눈을 돌렸다. 그리고 1999년에 『일본서기의 수수께끼를 푼다-집필자는 누군가』를 저술했다. 『일본서기』 구분론을 근거로 음운(音韻)·훈고(訓詁)·고거(考據)의 학문에 근거하여 『일본서기』 자체를 분석하여 그 성립과정을 해명한 것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서기』 30권은 표기성격에 따라 α군(권 14~21, 24~27), β군(권 1~13, 22~23, 28~29), 권30으로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α군은 지토조[持統朝에 續(しよく)守(しゆ)言(げん)과 薩弘恪(さつこうかく)이 正音·正格漢文으로 찬술했다. β군은 문무조[文武朝]에 이르러 야마다 노후 히토미가타[山田史御方]가 왜음(倭音)·일본화 한문[和化漢文]으로 찬술했다. 30권은 겐메이조[元明朝]에 기노아소미 기요히토[紀朝臣清人]가 찬술하고, 동시에 미야케 오미[三宅臣]가 兩群에 걸쳐서 한문 서적에 의한 윤색 등을 더했다. 기요히토의 찬술은 왜습(倭習)이 적었지만, 후지마로[藤麻呂]의 가필에는 왜습이 현저했다.

필자는 2001년 4월부터 1년간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에 왔다. 서기의 문장은 정격한문과 일본화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후자

를 연구하려면 고대 한국의 한문 연구가 불가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 연수에서 고려대학교의 심경호 교수에게 신세를 졌다. 뿐만 아니라 심 교수는 졸저를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해주었다(『일본서기의 비밀』, 2006)

졸저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며 뜻 깊은 일이다. 필자가 β군의 집필자로 예상하고 있는 문장박사인 야마다노후 히토미가타는 일본인이지만, 젊은 시절에 신라에 유학해 신라의 한문이나 불교를 배웠다. 그것만이 아니다. 야마다 노후 히토미가타는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서는 ‘제번(諸蕃)’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조상이 한반도에서 도래해 일본에 귀화한 씨족이다. 그 이름은 일족의 거주지인 가와치노쿠니[河內國] 가타노고리[交野郡] 야마다고[山田郷]의 지명에 근거한다.

야마다 노후 히토미가타의 출신과 경력으로 살펴보면, β군의 문장은 고대 한국의 언어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α군에서도 한반도 관계기사 등은 백제계 사료에 따라 찬술한 것도 있다. 향후는 한층 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일본서기』를 연구해주기를 바란다.

6. 『일본서기』의 왜습과 편수과정

필자는 『일본서기』의 망요 가나를 정밀조사한 결과, 정음(한자의 중국 표준음)에 근거하는 α 군과 일본 음(한자의 일본 음)에 근거하는 β 군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음이라는 것은 음운 레벨로는 왜습이며 그 다음으로는 어휘·어법·문체의 왜습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대량의 왜습이 β 군에 편재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하에 대표적인 오용을 4종 들겠다.

- ① “然後洗眼, 因以生神, 號曰天照大神.”(거기에 따라 신을 낳으시고)
(卷1)
- ② “是玉今有石上神宮.”(이 구슬은 지금 石上神宮에 있다)(卷6)
- ③ “卽德麻呂等爲先鋒以進射之.”(곧 德麻呂 등은)(卷28)
- ④ “高枕而永終百年, 亦不快乎.”(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卷6)

①과 ②는 일본 훈에 근거하여 잘못이다. ①의 ‘因以-의해서’는 113회 모두 β 군(권4에만 없음)에 편재하며, ②의 ‘有’는 ‘在’의 잘못. 전 16회 중, 14회가 β 군에 편재하고 있다. 나머지 2회는 α 군으로 ‘此等蝦夷國有何方’과 ‘國有東北’은 모두 권26 「사이메이기(齊明紀)」의 분주에 인용된 이 기노무라지(伊吉連), 하가도코가후미[博德書]의 문장이다. 사료명을 명기해 원문 그대로 전재했기 때문에 오용이 남은 것이다.

③과 ④는 어순의 잘못이다. ③은 부사 ‘卽’을 주어 앞에 둔 잘못이다. ‘卽’에 보이는 어순 오용은 29회가 보이고, 그중 28회까지 β 군에 편재한다. 나머지 1회는 α 군으로, ㉠ “卽身心歸附, 於他易照”, 권19 「흠명기」에 실린 백제의 상표문에 나타난다. 이 상표문은 4자구를 중심으로

하는 미문(美文)이지만, 다른 오용이나 기용도 볼 수 있다.

④는 반어이므로 어순은 ‘不亦快乎’여야 한다. 이러한 부정사에 보이는 위치의 잘못은 15회가 있고, 그 가운데 12회가 β군에 편재한다. 나머지 3회는 α군으로 다음과 같다.

- ㉠ “大臣大連·將相諸臣，咸推寡人。寡人敢不乖。”(내가 어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을 수 있을까)(卷17)
- ㉡ “斯等深不悟情。”(이것들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卷25)

이 중 ㉠는 문맥으로 생각하면, ‘나는(신하의 추천을) 굳이 거스를 수 없다. (그러므로 즉위한다)’는 의미이다. 올바른 한문에서는 ‘不敢乖’이라야 한다. ‘敢不乖’이라고 하면 ‘굳이 거스르지 말고 양보할까’라는 반어가 되어 즉위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은 『오지(吳志)』 「손휴전(孫休傳)」의 ‘將相諸侯，咸推寡人。寡人敢不承受璽符’에 의한 윤색이다. 고지마 노리유키[小島憲之]에 의하면, 한적(漢籍)에 의한 윤색은 『일본서기』 찬술의 최종 단계에서 α군을 중심으로 더해졌다. 이것도 후인이 윤색할 때의 잘못된 것이다.

㉡는 권25 「효덕기(孝德紀)」의 대화 2년의 조칙(詔勅)에 있다. 「효덕기」의 조칙에는 다른 오용이나 기용도 많아, ‘대보령(大寶令)’ 반하(頒下)(702년) 이후의 용어인 ‘어우(御宇)’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효덕기」의 조칙은 α군의 기본적인 편수가 종료되고 나서 『일본서기』 찬상(撰上)(720년)까지 사이에 후인이 가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7. α군 특유의 오용과 습관

『일본서기』의 한문오용이나 기용은 기본적으로 β군에 편재하고, 예외는 인용문이나 후인의 가필문에 나타났다. 그러나 드물지만 α군 특유의 오용이나 습관[筆癖]도 있다.

- ⑤ “**縱**使星川得志共治家國，必當戮辱遍於臣連，酷毒流於民庶。”(縱使星川, 뜻을 얻어 함께 가국을 다스린다면) (卷14)
- ⑥ “**超**懿絕於埃塵。”(에진을 끊고)(卷14)[埴輪馬의 挿話]

⑤는 양보의 접속사 ‘縱(가령~)라고 해도’를 가정(假定)에 잘못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유라쿠 천황[雄略天皇]의 유언으로 『수서(隋書)』의 윤색문이다. 전거(典據)는 다음과 같다.

- ⑧ “**若**令勇秀得志共治家國，必當戮辱遍於公卿，酷毒流於人庶。”(만일 勇·秀로 하여금, 뜻을 얻어 함께 가국을 다스린다면) (『隋書·高祖紀』)

후인이 윤색 가필할 때 생기는 오용이다. ‘縱’의 확실한 오용은 6회가 보이며 모두 α군에 편재한다. 윤색의 잘못이 1회, 한반도 관계 기사가 3회, 대화의 조치가 2회이다. 오용에도 개성이 있는데, 이들은 가필자의 오용일 것이다.

- ⑥도 윤색문으로 전거는 다음 『문선(文選)』의 문장이다.

- ① “**超**懿絕夫塵轍。”(超懿 그 塵轍을 끊고) (『文選·赭白馬賦』)

전거의 『문선』에서는 ‘於’자가 아니고 ‘夫’자이다. 후인이 윤색할 때에 ‘於’자의 습관이 나타났을 것이다. 혼독으로 사용할 때는 ‘어조사’로 써 ‘-을/를’의 용법이다. 이 확실한 습관(筆癖)은 12회가 있다. α군에 11회, 권30에 1회, α군에 11회이다. 내역은 윤색이 2회, 권21에 2회, 대화의 조치가 3회, 한반도 관계 기사가 1회. 권21은 α군이지만, 권21에는 다른 오용이나 기용도 많다. 이 습관도 후인의 가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한반도 관계기사에는 후인의 가필도 섞여 있다. 예를 들면 권20의 기사 안에 “檜隈宮御^[...+禹] 天皇”이 보인다. 이것은 ‘어우(御宇)’의 유어(類語)이며, ‘大寶令’頒下 이후의 용어이다. 편수(編修)의 최종단계에서 가필한 기사이다.

표 2 대표적인 기용·오용·습관의 분포

어구	권	β											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因’ ‘以’		7	6	2		2	6	10	4	19	7	3	2	4									10	2					8	21
‘有’ 所在							3	2		1	1	1	2													2				4
‘卽’ 語順		7	2	1		1	3	1			2	2								1			4	1				3	1	
否定詞 語順						1	4						1					1					3	3		1				
‘縱’ 假定															1			1		1						2				
‘於’ 筆癖														1	1			1		1	4				3		1		1	

8. 문말 ‘之’의 기능

대표적인 이두 종결사의 어투 조사 ‘之’가 있다. 2절에서는 다음의 2회를 들었다.

- ① 高句麗 ‘城壁刻書’(446年?) “丙戌十二月中(中略)自此西北行涉之”
- ⑤ 高句麗 ‘廣開土王碑’(414年) “買人制令守墓之”

이 중 ⑤에서 ‘墓’는 동사 ‘守’의 목적어이며, ‘之’는 종결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①의 ‘之’자는 종결사로 볼 수도 있지만, 지시대명사로 동사 ‘涉’의 목적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고대한어허사사전(古代漢語虛詞辭典)』(北京·商務印書館, 1999 : 836)에는 한문에서는 허사의 ‘之’에 대명사·접속사·조사라는 3종의 용법이 있다. 이 중 구말(句末)에 이용하는 것은 대명사 뿐이다. 대명사로서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여 인간·사물·장소 등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 다음 예와 같이 일부 동사 뒤에 쓰여 지시기능이 ‘허화(虛化)’하고, 동작의 지속 혹은 동작·행위에 대한 강조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公與之乘戰于長勺。公將鼓之。”(공은 북을 치려고 했다.) 『左傳·莊公 10年』

『한사해(漢辭海)』(東京·三省堂, 2000 : 33)는 이 같은 예문을 들어 문말의 ‘之’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동사나 형용사 혹은 동사 용법의 명사 뒤에 놓여 앞의 말이 동사인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형식 목적어다. 나아가 형용사의 뒤에

‘之’가 놓인 것으로서 다음의 예문을 들고 있다.

“恨久之.”(오랫동안 아쉬워했다.) (『史記·陳涉世家』)

특히 『한사해』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久之’의 ‘之’에도 지속이나 강조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두문이나 속한문에 많이 사용하는 종결사 ‘之’자는 정격한문으로서는 기용이지만, 본래는 이와 같은 중국에서 ‘허화’한 ‘형식 목적어’의 ‘之’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은 아닐까 싶다.

9. 후쿠다 료스케의 『일본서기』 ‘之’ 연구

『일본서기』의 ‘之’에 대해서 최초로 본격 연구를 한 것으로는 후쿠다 료스케(福田良輔)의 「서기에 보이는 ‘之’자에 대해」(1934년)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3,842회 ‘之’자의 용법을 9종으로 분류해 각각의 분포를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서기』 구분론에도 접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대개 「安康紀」(권13)와 「雄略紀」(권14)를 경계로 해서 그보다 이전에는 ‘之’자를 빈번히 썼고, 「雄略紀」이후, 「持統紀」(권30)에 도달할 때까지는 ‘之’자를 쓰는 일이 적은 것이다. 게다가 『일본서기』의 편수에 표기가 다른 2종류의 집필자를 상정하고 있다. 古來修史 기록 등은 조선의 귀화인이 주로 관련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러한 귀화인이 참여한 권과 推古朝 이후, 수나 당과의 교통이 개척

되어 직접 당의 문화, 한문에 접한 사람이 참여한 권 사이에는 자연히 用字나 句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의 한문에는 불필요하게 ‘之’자를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 분야의 선인이 말한 바이다.

후쿠다 논문에서 다룬 9종 ‘之’자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제7의 용법이다.

- ① “密來之取倭香山土”(살며시 와서 야마토의 가야마의 흙을 채취했다.) (卷5)
- ② “其邈七日行之不及.”(그 먼 것은 7일 가도 미치지 않는다.) (卷9)
- ③ “吾心清清之.”(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 (卷1)
- ④ “清彦生田道間守之.”(清彦은 田道間守를 낳았다.) (卷6)

이 중 ①, ②는 일본어의 접속조사 ③, ④는 일본어의 종조사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후쿠다는 이렇게 제7의 용법을 한층 더 세분하고 있다. 또한 후쿠다는 각 권에서 9종의 용법에 대한 분포통계도 내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분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제7의 용법에 대해 세분한 통계는 내지 않았다.

10. 『일본서기』에 보이는 문말의 ‘之’

줄고에서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문말의 ‘之’를 검토하여 종결사로 볼 수 밖에 없는 용례를 추출해서 『일본서기』 구분론의 관점으로 논하려고 한다.

『일본서기』에는 문말에 ‘之’를 이용한 예가 798개 있다(망요 가나 3에는 제외). 그 각 권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덧붙여 『일본서기』 사용자구의 검색과 국문학연구자료관의 본문 데이터 검색시스템을 이용했다. 『일본서기』의 텍스트는 구판 『일본고전문학대계본』(이와나미 서점)이다.

표 3 문말 ‘之’(‘망요 가나’ 의 세 가지 사례 제외)의 분포

(합계 798회 β군 : 640회 α군 : 139회 권30 : 19회)

권 권	β														α						β	α	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구	37	76	31	4	20	30	45	9	39	21	33	20	25	31	9	2	6		35	6	8	60	33	5	31	5	1	54	103	19

합계 798회 가운데 β군에 640회, α군에 139회, 권30에 19회가 사용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신정증보국사대계본(新訂增補國史大系本)』(吉川弘文館)에서는 『일본서기』의 종이 수는 합계 727쪽이다. 그 내역은 β군이 428쪽, α군이 261쪽, 권30이 38쪽이다. 따라서 1쪽마다 출현 빈도는, β군이 1.50, α군이 0.53이다. 즉, 문말에 ‘之’가 나오는 비율은 β군이 α군의 약 2.8배에 달한다. 전술한 것처럼 α군은 기본적으로 정격 한문으로 쓰여 있고, β군은 일본화한 한문으로 쓰여 있다. 문말의 ‘之’가 많고 적음은 이러한 양 군의 성격의 상이함 때문일 것이다.

11. ‘之’의 분류

문말의 ‘之’에는 두 종류의 용법이 혼재하고 있다. 하나는 지시대명사로서 동사의 목적어에 쓴 ‘之’이며, 또 하나는 허화한 형식대명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종결사의 어투조사 ‘之’이다. 『일본서기』의 권12 「이중기(履中紀)·반정기(反正紀)」를 예로 들어, 문말 ‘之’의 전 20회를 분석해 보겠다.

제일 먼저 ‘之’자가 지시대명사로서 타동사의 목적어로 사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예는 다음의 16회가 있다. 대명사 ‘之’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은, ①~⑨의 9회가 인간, ⑩~⑬의 4회가 사물, ⑭~⑯의 3회가 장소이다.

◇ 인간이 지시 대상

- ① “因隱山中而待之.”
- ② “於是, 出伏兵圍之.”
- ③ “將助以備兵待之.”
- ④ “今仲皇子無道, 群臣及百姓, 共惡怨之.”
- ⑤ “乃脫錦衣禪與之.”
- ⑥ “然垂大恩, 而免死科墨, 卽日黥之.”
- ⑦ “天皇則喚車持君, 以推問之.”
- ⑧ “既分寄于神車持部, 兼奪取之.”
- ⑨ “天皇悅其強力以喚之.”

◇ 사물이 지시 대상

- ⑩ “仍請赦死罪, 乃免之.”
- ⑪ “獨尋花, 獲于掖上室山, 而獻之.”

- ⑫ “因以，卜之。”
 ⑬ “故自是以後，頓絕以不黥餉而止之。”

◇ 장소가 지시 대상

- ⑭ “太子不知仲皇子自姦而到之。”
 ⑮ “宜廻自當摩徑踰之。”
 ⑯ “自龍田山踰之。”

이 16회에 보이는 ‘之’의 용법은 정격한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의 4회는 종결말의 ‘之’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정격한문으로서는 기용에 속하며, 이두적 표기와 공통이다.

- ⑰ “臣雖知其逆，未受太子命之。”(아직 태자의 명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履仲紀』即位前)[A. 目的語+之]
 ⑱ “其彼來者誰人也，何步行急之。”(어찌 진행되는 방법이 갑작스러운가.) (『履仲紀』即位前)[B. 形容詞述語文+之]
 ⑲ “故三人扶太子，令乘馬而逃之。”(말을 타고 도망쳤다.) (『履仲紀』即位前)[C. 移動의 自動詞+之]
 ⑳ “太子到河內國埴生坂而醒之。”(태자는 가와치국의埴生坂까지 와서 깨달았습니다.) (『履仲紀』即位前)[G. 精神活動의 自動詞+之]

12. ‘之’의 특수한 용법과 분포

이와 같이 필자는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문말의 ‘之’자, 모두 798회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지시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용례이고, 다른 하나는 종결사라고 해석해야 하는 용례이다. 후자의 용법을 편의상, A~I의 9종류로 세분했다.

- A. 体言+之(体言述語文+之, 目的語+之)
- B. 形容詞述語文+之
- C. 移動의 自動詞+之
- D. 停止의 自動詞+之
- E. 生老病死의 自動詞+之
- F. 天候·自然現象의 自動詞+之
- G. 精神活動의 自動詞+之
- H. 表現의 自動詞+之
- I. 其他 自動詞+之

이들 용법의 『일본서기』 각 권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A 체언+之(체언서술문+之, 목적어+之)

군권	β														α							β	α	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구																														
八百之						1																								
弟之											1																			
天之																						1								
地之																						1								
十丈之																						1								
生人之①						1																								
居所之②							1																							
發路之							1																							

군권	β													α							β	α			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구																														
受命之③												1																		
上丑之																		1												
從勅之																		1												
作惡之																							1							
以年之④																													1	
行所之⑤																													1	
招魂之																													1	
有事之⑥																														1
小計						2	2				1	1						2			3		1					3	1	

注 ① '生人之' ⇒ '生田道間守之', 注 ② '居所之' ⇒ '居于泳宮之', 注 ③ '受命之' ⇒ '受太子命之', 注 ④ '以年之' ⇒ '以一年之', 注 ⑤ '行所之' ⇒ '巡行紀伊之', 注 ⑥ '有事之' ⇒ '有勤勞於壬申年役之'

표 B 형용사술어+之

군권	β													α							β	α			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구																														
滿清之	1																													
妙美之		2																												
吉之					1	1																								
饒之					1																									
臭之						1																								
多之							1																							
曠之							1																							
甚之							1																							
豐之											1																			
悲之											1																			
慰之											1																			
急之												1																		
異之													1																	
拙之													1																	
然之																			1		1									
稚之																						1								
空之																							1							
定之																								1						
遲之																													1	
亂之																													1	
小計	1	2			2	2	3				3	1	2					1		1	1	1	1					2		

표 C 이동의 자동사+之

α군 : 4, β군 : 90, 권30 : 0

군권	β													α							β	α			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구																														
來之							1			2	1	1											5	1						
還之						1	1	1	4			1												1					3	3

군권 여구	β													α										β		α			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成之									1										1												
勝之									1																					1	
潰之										1																					
素服之											1																				
畢之											1											1									
訖之																						1									
傾之																												1			
宴之																														2	
絕之																														1	
落之																														1	
見之																														1	
災之																														1	
小計	1				1	1	8			2	1	2								1		1	4					1	8		

여기에서 <표 F> 「기후 · 자연현상의 자동사+之」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한다. <표 F>에 보이듯이 『일본서기』에는 일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日蝕之’ 4회가 보인다. 이 외에 ‘之’자를 문말에 쓴 일식 · 월식을 나타내는 용례에 ‘日蝕有之’(권30에 6예)와 ‘月蝕有之’(권24에 1예)가 있다. 그러나 <표 F>에는 ‘日蝕之’만 제시하고, ‘日蝕有之’와 ‘月蝕有之’는 게출(揭出)하지 않았다. 후자는 중국에 용례가 있고, 정격한문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예이다. ‘日蝕有之’는 일식의 일반적인 표현으로써 정사(正史) 등에 대량으로 보인다.

- ① “春正月辛丑朔，日有蝕之。”(『漢書·惠帝紀』)
- ② “辛未夜，月有蝕之。”(『舊唐書·肅宗紀』)

한편 ‘日蝕之’에 관해서, 중국에서는 문말 ‘之’의 용례가 눈에 띄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之’는 조사로 쓴 용례뿐이다. 모두 수식어(定語)와 피수식어(中心語)를 잇는 ‘~의’라는 조사용법뿐이다.

- ③ “乃奏封事言日蝕之咎矣.”(『漢書·元后傳』)
- ④ “會有日蝕之變.”(『晉書·天文志』)

즉, 중국에 용례가 있는 ‘日蝕有之’와 ‘月蝕有之’는 권30과 α 군에 나타나며, 중국에 용례가 없는 ‘日蝕之’라는 기용은 β 군에 편재되어 있다.

13. β 군의 편재와 α 군의 예외

〈표 A〉부터 〈표 I〉까지를 정리하면, 각 권의 문말 ‘之’의 기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문말 ‘之’의 기용(합계 232예 가운데 β 군 : 216예, α 군 : 15예, 권30 : 1예)

군권	어구	β												α						β		α		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之’ 全例	37	76	31	4	20	30	45	9	39	21	33	20	25	31	9	2	6	35	6	8	60	33	5	31	5	1	54	103	19
	‘之’ 奇用	4	9	2		8	10	24	4	12	8	12	4	11	1	2	1		5	3	28	17	2	1			17	46	1	

문말의 ‘之’의 기용은 합계 232회. 그중에서 β 군에 216회, α 군에 15회, 그리고 권30에 1회가 나타나고 있다. 1쪽마다의 출현 빈도는 β 군이 0.50, α 군이 0.06이다. 즉, 문말의 ‘之’에 보이는 기용의 출현비율은 β 군이 α 군의 약 8.3배에도 달한다. β 군의 편재는 예상대로였다. β 군은 기본적으로 일본화한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之’의 기용은 근소하지만 α 군에도 15회가 있다. 기본적으로 정격한문으로 쓰인 것이 분명한 α 군에서 왜 이러한 예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α 군의 예외, 전체 15회는 다음과 같다.

- ①G “伯孫得駿甚歡，驟而入廄，解鞍秣馬眠之。”(伯孫은 (중략) 말안장을 풀어 말[馬]에 풀[秣]을 주고 잤습니다.) (卷14 「雄略紀」9年 7月 條植輪馬)
- ②H “小楯嘖之曰，何爲太遲，速起儻之。”(小楯는 질책하고 (중략) 신속하게 일어서서 춤을 추어라라고 했다.) (卷15 「顯宗紀」卽位前條·新室壽)
- ③H “小楯者乍起乍居而儻之。”(춤추는 모습은, 혹은 서서 혹은 앉아서 춤추는 것이다.) (卷15 「顯宗紀」卽位前條·新室壽·分注)
- ④C “仍勅副物部連遣罷歸之。”(거기서 칙을 내려 物部連를 데리고 귀국시켰다.) (卷17 「繼體紀」9年 2月條·百濟外交)
- ⑤A “來奏下韓任那政，并上表之。”(아울러 상표문을 받들었다.) (卷19 「欽明紀」2年 7月條·百濟外交)
- ⑥C “百濟紀臣奈率彌麻沙等罷之。”(百濟紀臣奈率彌麻沙 등은 歸國했다.) (卷19 「欽明紀」4年 4月條·百濟外交)
- ⑦I “表奏如此，尙未成之。”(그처럼 奏上은 하지만 전혀 성공하지 않았다.) (卷19 「欽明紀」4年 4月條·百濟外交)
- ⑧B “至於卓淳，亦復然之。”(卓淳도 또한 같습니다.) (卷19 「欽明紀」5年 3月條·百濟聖明王上表文)
- ⑨A “延那斯·麻都之事，問與不問，唯從勅之。”(그저 勅命을 따를 뿐입니다.) (卷19 「欽明紀」11年 2月條·聖明王之發言)
- ⑩B “今亦然之。”(지금도 또한 같습니다.) (卷21 「崇峻紀」卽位前·蘇我物部戰爭·分注)
- ⑪C “馳獵廣瀨勾原而散之。”【‘之’字，日本古典文學全集本(小學館)에 없음，國史大系本·日本古典文學大系本(岩波書店)에 의해 보충】(히로세의 구원에서 사냥을 하고 도망쳐 흩어졌다.) (卷21 「崇峻紀」卽位前·蘇我物部戰爭)
- ⑫C “使收己主，乃起行之。”(겨우 떠났습니다.) (卷21 「崇峻紀」卽位前·蘇我物部戰爭關連挿話)
- ⑬A “百濟國主謂臣言，塞上恆作惡之。”(塞上은 언제나 악행을 일삼

고 있다.) (卷24 「皇極紀」 元年 2月條 · 百濟甲使の報告)

- ⑭B “吾起兵伐入鹿者, 其勝定之.”(이기는 것은 必定이다.) (卷24 「皇極紀」 2年 11月條 · 山背大兄王自殺)
- ⑮C “其葬時帷帳等, 用白布. 擔而行之.”(관은 짊어지고 가라.) (卷25 「孝德紀」 大化 2年 3月 甲申條 · 薄葬令)

14. α군의 예외와 후인의 가필

α군에 나타나는 예외, 즉 문말 ‘之’의 기용(奇用)은 위에 보이는 15회이다. 정격한문으로 쓰여 있어야 할 α군에서 왜 이러한 기용이 보일까. 15회를 모두 검토해서 그 출현의 이유를 생각해보겠다.

먼저 권21 「승준즉위전기(崇峻即位前紀)」의 3회(⑩⑪⑫)이다. 이 3회 모두 ‘소아물부전쟁(蘇我物部戰爭)’ 관계 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기사는 어린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와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가 사천왕에 서원하고 모노노베(物部)군(軍)에 승리하는 1절과 모노노베군의 도토리베노요로즈(捕鳥部)가 분전한 삽화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는 권21 「승준기(崇峻紀)」는 α군에 속한데도 소아물부(蘇我物部) 전쟁 관계 기사에서는 수많은 왜습이나 습관을 볼 수 있다(참고 「聖德太子傳說と用明 · 崇峻紀の成立過程」, 2005a).

- ⑩ “蘇我馬子大臣又發誓言,”(蘇我馬子大臣도 또한 맹세를 하고 말하기를,)
- ⑪ “助衛於我使獲利益.”(나를 도와 지켜)
- ⑫ “誓已嚴種種兵, 而討伐.”(맹세가 끝나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갖추고 토벌했다.)

㉔는 쇼토쿠 태자에 이어서 그 다음에 ‘馬子도 또’라고 하는 의미이므로, ‘又’가 아니고 ‘亦’이어야 한다.

㉕의 ‘於’자는 7절에서 지적인 것처럼 α 군 특유의 습관으로 편수의 최종단계에서 가필된 문장이다.

㉖는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호국품(護國品)』의 “엄사병(嚴四兵), 발향피국(發向彼國), 욕위토벌(欲爲討伐)”과 유사한 표현이며, 고지마 도리우키(小島憲之)는 여기에 따른 운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小島, 1962). 『금광명최승왕경』·『호국품』은 당의 장안 3년(文武天皇大寶 3년, 서기 703년)에 의정(義淨)이 한역한 불전이다. 지통조(持統朝)의 속수언(續守言)이 집필한 것은 아니다. 후인이 가필했다. 즉, 권21의 ‘之’의 기용 3회도 후인의 가필이다.

제2는 권25 「효덕기」의 ㉔로서 대화 2년의 조칙 문장이다. 권25 「효덕기」는 α 군에 속하지만 거기에 실린 ‘大化의 조칙’에는 수많은 왜습이 나타나고 있다. 6절에서 지적인 것처럼 α 군의 기본적인 편수가 종료된 후에 정격한문에 어두운 후인이 가필한 것이다. ‘之’의 기용도 그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3은 권14 「웅략기(雄略紀)」의 ㉔로서 9년 7월조에 보이는 ‘식륵마(植輪馬)’의 삽화문장이다. 이 삽화에는 7절에서 지적인 것처럼 ㉔「超摠絕於埃塵」이라고 하는 『문선』에 의한 운색문이 있다. 전거의 『문선』은 ‘超摠絕夫塵轍’이며 후인이 운색할 때에 ‘於’자의 습관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之’의 기용도 후인이 가필할 때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제4는 권15 「현종즉위기전기(顯宗即位前紀)」에 보이는 ㉔, ㉕의 ‘舞之’로 자동사 뒤의 ‘之’이다. 여기는 주안(酒宴)의 삽화로 ㉔와 ㉕의 ‘舞’ 사이에 세이네이 천황(清寧天皇)이 ‘신실수(新室壽)’를 노래한다. 그 노래는 ‘築立稚室葛根, 築立柱者, 此家長御心之鎮也造りあげた新しい家の, 葛や柱は, この

家長の御心の鎮まりである’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그 가운데에는 ‘拍上賜’(리듬을 맞춰 주십시오)와 같이 이두의 경어법과 같은 표기도 있다. 한자의 음훈을 차용한 일본어문이다. 한문으로 읽으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권15의 찬술자는 한문으로 첨삭(添削)을 가하지 않고, 원래 사료(史料)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 결과 ‘之’의 기용도 남았을 것이다.

제5는 권24 「황극기(皇極紀)」의 ⑭로서 야마시로노 오에왕(山背大兄王)의 자살 기사에 나타나고 있다. 이 기사에도 ‘速可向山求捉彼王’과 같은 어순의 잘못 등 왜습이 적지는 않다. 후인에 의한 가필 가능성도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15. 백제 사료와 속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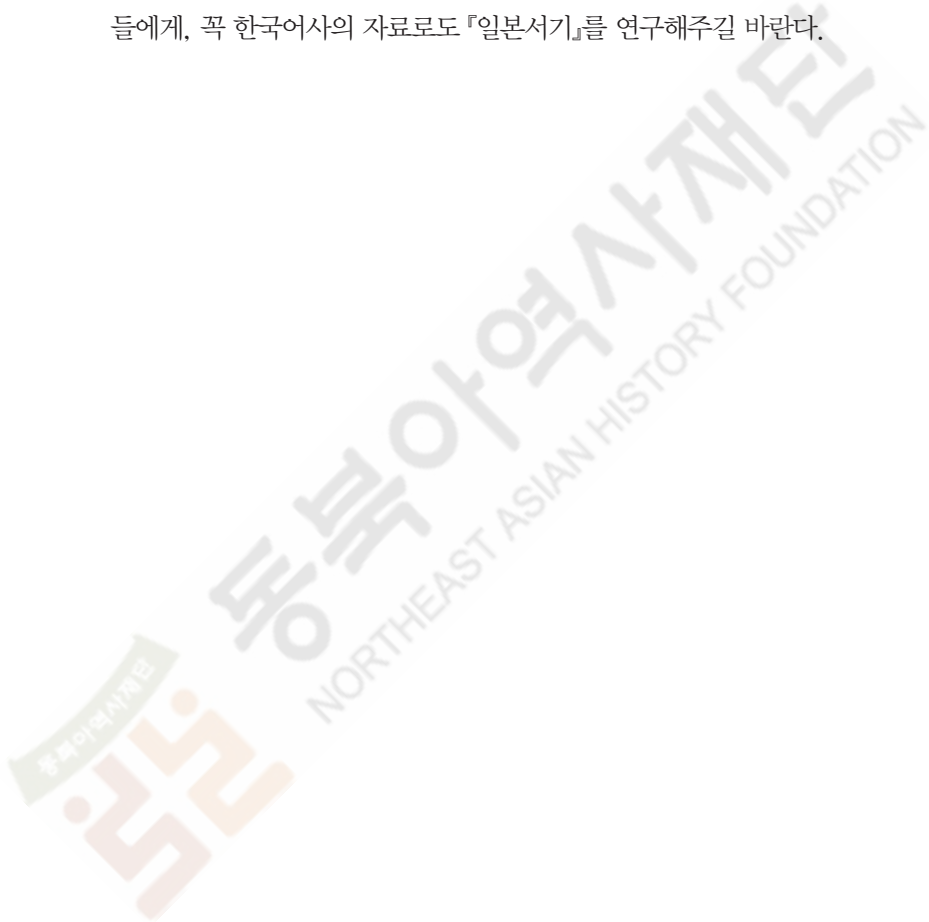
이상 α 군의 예외 15회 가운데 8회를 검토했다. ⑭는 향후의 과제가지만 그 외는 후인의 가필(5예)과 원사료(原史料)의 반영(2예)이었다. α 군의 본래 찬술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남겨진 7회의 ‘之’의 기용은 왜 정격한문으로 찬술되었음이 분명한 α 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 7예는 권17 「계체기(繼體紀)」(④), 권19 「흠명기」(⑤, ⑥, ⑦, ⑧, ⑨), 권24 「황극기」(⑬)에 이용되어 있다. 사실은 이 7회의 기용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관계기사이다.

권19 「흠명기」 등은 기사 대부분이 한반도와외의 외교 관계 기사로 되어 있다. ⑧은 백제 성명왕(聖明王)의 상표문(上表文)에 있는 문장이며, ⑨도 성명왕의 말이다. 물론 성명왕의 상표문이나 발화를 그대로 인용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있는 백제 사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이 ‘之’의 기용은 이두의 종결어미와 같다. 구분론의 관점으로 『일본서기』의 문장과 표기를 검토하면, 『일본서기』는 백제나 신라의 이두나 속한문의 보고(寶庫)로서 큰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 연구자들에게, 꼭 한국어사의 자료로도 『일본서기』를 연구해주길 바란다.



‘中’의 문법적 의미와 기능

略論‘中’的語法意義與語法功能

동즈차오(董志翹, 난징사범대학)



‘中’의 문법적 의미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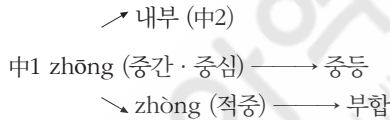
동즈차오

난징사범대학

『설문(說文)·丨부』에서 “中은 안(內)이다. 口와丨을 따르며, 위와 아래가 통한다. 中은 ‘中’자의 고문(古文)이고, 𠄎은 中자의 주문(籀文)이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갑골문(甲骨文)과 금문(金文)의 자형 𠄎 𠄎 𠄎을 살펴보면, ‘中’은 본래 중간/중심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前』3·31·2에는 “용마, 左·右·中, 人三百”이라 하였고, 『粹』579에서는 “王作三□(師)：右·中·左”라 하였다(갑골문과 금문의 용례에는 ‘내부’의 뜻을 가진 것은 없다). 『書』「召誥」에서 “王來紹上帝, 自服於土中”, 孔傳에서 “言王今來居洛邑 …… 於地勢正中”이라 하여 ‘내부’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周禮·考工記·匠人』에서 “國中九經九緯”를 정현(鄭玄)이 “國中은 성안이다”라고 주석하고 ‘中等’의 뜻으로 보았다. 『漢書』「文帝紀」에는 “百金, 中人十家之產業”이라 하였고, 顏師古는 “中, 謂不富不賔”이라 주석하여 ‘적중시키다’로 다시 파생되었는데, 그 음은 ‘zhò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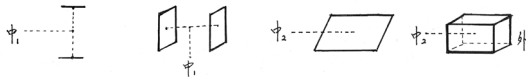
이며 『左傳』 「桓公五年」의 “祝聃射王，中肩”과 같다(또는 ‘百發百中’과 같다). 이 의미에서 다시 ‘적합/부합하다’라는 의미로 파생되었는데, 『管子』 「四時」의 “不中者死，失理者亡”을 윤지장(尹知章)은 “中猶合也，不中三政者則死”라고 주석하였다(또는 ‘正中下懷’와 같다).

갑골문과 금문에는 이 밖에도 ‘中’자가 더 있는데, 이 글자는 ‘백중(伯仲)’의 ‘仲’자의 옛글자이다. 예를 들면, 『중고적(仲姑鬲)』에는 ‘中(仲)姑作羞鬲’, 『상서대전(尚書大傳)』에는 ‘中祀大交霍山’이라 하였고, 정현이 “中은 仲이다. 고자(古字)는 통한다. 봄[春]은 으뜸[元]이고 여름[夏]은 버금[仲]이다”라고 주석하였으며, 후세에는 ‘中’을 ‘仲’으로, ‘中’을 ‘仲’으로 각각 대신하였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이라는 의미의 ‘中’을 ‘中1’로, ‘내부’라는 의미의 ‘中’을 ‘中2’로 각각 표시하기로 한다.

‘中1’(‘중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냄)과 ‘中2’(‘내부’라는 의미를 나타냄)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中1’은 1차원의 일직선상의 양 극단 사이나 그 중간을 가리키므로 참조 항은 두 개이며, ‘좌·우’, ‘전·후’, ‘남·북’, ‘동·서’, ‘상·하’ 등과 대응된다.



반면 ‘中2’는 폐쇄된 경계 안이나 3차원 공간 내부를 가리키므로 참 조항은 한 개이며 ‘외(外)’, ‘표(表)’ 등에 대응한다.

1. ‘中1’의 용법과 기능

- 1) 中1 · 명사(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간에 있음을 나타내며 형용사와 비슷하다. 다른 성분과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앞에 위치한다.)

(1) 위치를 가리킨다 [예 : 현대 중국어의 ‘中途(도중), ‘中游(중류)]

[中1路] 중도, 도중

“朗聞其家被誅也，擁二千餘戶以自固。及聞旱中路而還，謂有內變，不復爲備。”『晉書』「慕容熙傳」

[中1道] 중도 · 도중

“力不足者，中道而廢。”『論語』「雍也」
“結交若失人，中道生謗言。”唐 孟郊『審交』詩

[中1途] 도중

“中塗遇東郭先生。”『列子』「力命」
“中途中途不遇人，直到爾門前。”唐 李白『敍舊贈江陽宰陸調』詩

[中1阪] 산비탈의 중간

“中阪遙望，玄木冬榮。”『文選』宋玉「高唐賦」李善注：
“中阪之中，猶未至山頂。”“始皇之上泰山，中阪遇暴風雨，
休於大樹下。”『史記·封禪書』
“驥垂兩耳兮，中阪蹉跎。”漢王褒『九懷』「株昭」

[中1江] 강의 중간

“頃之，煙炎張天。”裴松之注引『三國志』「吳志·周瑜傳」
“時東南風急，因以十艦最著前，中江舉帆。”『江表傳』

“太清二年，侯景渡江，遣琳獻米萬石，未至，都城陷，乃中江沈米，輕舸還荊州。”『北齊書』「王琳傳」

(2) 시간을 가리킨다 [예 : 현대 중국어의 '中旬(중순), '中秋(한가위·추석), '中古(중고)]

[中1夜] 한밤중

“怵惕惟厲，中夜以興，思免厥愆。”孔傳：“言常悚懼惟危，夜半以起。”『書』「同命」

“盛年處房室，中夜起長歎。”三國 魏 曹植『美女行』

“自十年來，行不益進，業不益修，中夜忖量，自愧於心。”唐 杜牧『投知己書』

[中1宵] 한밤중

“迅雷中宵激，驚電光夜舒。”晉 陸機『贈尚書郎顧彥先』詩(2)

“中宵慨然曰：大丈夫乃爲庾元規所賣！”『世說新語』「尤悔」

[中1夕] 한밤중

“長笛響中夕，聞此消胸襟。”晉 劉伶『北芒客舍』詩

“中夕忽有念，撫裘起逡巡。”唐 白居易『新制布裘』詩

“中夕祭餘分餽飪，黎明人起換鍾馗。”宋 陸遊『歲首書事』詩(2)

[中1夏] 여름의 중간인 음력 5월을 가리킨다.

“中夏用箠快之，至冬而不知去。”『淮南子』「說林訓」

[中1秋] 가을의 중간인 음력 8월 15일을 가리킨다.

“中秋三五夜，明月在前軒。”唐 白居易『效陶潛體』詩(7)

[中1伏] 삼복 가운데 두 번째 복, 또한 두 번째 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하지가 지난 다음 네 번째 경일(庚日)부터 시작하여 입추 후 첫 번째 경일까지 이전 하루의 얼마간 시간

“中伏斷手爲下時，一畝用子一鬥二升。”『齊民要術』「小豆第七」

“六月正中伏，水軒氣常淒。”唐 皎然『五言奉和陸使君長源水堂納涼』

[中1旬] 한 달의 중간 10일

“九月中旬入鉢和國，高山深谷，險道如常。”北魏 楊銜之『洛陽伽藍記·城北·宋雲惠生使西域』

“內園分得溫湯水，三月中旬已進瓜。”唐 王建『宮前早春』詩

(3) 등급·규모를 가리킨다 [예 : 현대 중국어의 ‘中型’(중형), ‘中檔’(중품 : 품질이

중간 정도 수준인 상품), ‘中雨’(강우량이 중급 정도인 비) 등]

[中1等] “公於上等，侯伯於中等，子男於下等。”『周禮』「秋官·司儀

“別遣官經畫市糴，中等戶以下免之。”『宋史』「食貨志上」

[中1人] 중간 정도 수준의 사람

“中人以上，可以語上也；中人以下，不可以語上也。”『論語』「雍也」

“數石之重，中人弗勝。”顏師古注：“中人者，處強弱之中也。”

『漢書』「食貨志上」

[中1才]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

“孔子曰：‘聽訟，吾猶人也。’從此言之，中才以上，足議曲直，鄉亭部吏，亦有任決斷者。”『後漢書』「王符傳」

“此蓋中才之聖，非上智也。”唐 道宣編『廣弘明集·釋道安』「君爲教主」

“陳言生活不須矜，自是中才皆可了。”宋 邵雍『秋日雨霽閑望』詩

2) 中1 · 동사 [예 : 현대 중국어의 '中斷(중단하다)', '中繼(중계하다)', '中轉(도중에 교통수단을 갈아타다)'등]

[中1斷] 중간에서 끊어지다.

“李雄, 字仲儁, 特第三子也. 母羅氏夢雙虹自門升天, 一虹中斷, 既而生蕩.” 『晉書』「李雄傳」

[中1止] 도중에 그만두다.

“孟子少時誦, 其母方織, 孟子輟然中止乃復進, 其母知其誼也.” 『韓詩外傳』卷九

“將興中止, 若往而歸.” 南朝宋 鮑照『舞鶴賦』

[中1輟] 도중에 그만두다.

“伯仁先歸, 釐我國祭, 玄定義乖, 褒脩禮缺, 孔書遂明, 漢章中輟.” 『後漢書』「鄭玄傳」

“謂圭曰: 服之可以延壽, 然不可中輟, 輟則疾作矣.” 『舊五代史』「宋主傳」

[中1分] 중간에서 분리되다.

“項羽恐, 乃與漢王約: 中分天下, 割鴻溝而西者爲漢, 鴻溝而東者爲楚.” 『史記』「高祖本紀」

“哀既而弟子求分財異居, 包不能止, 乃中分其財.” 『顏氏家訓』「後娶篇」

“三山半落青天外, 一水中分白鷺洲.” 李白『登金陵鳳皇台』

[中1立] 중립하다.

“故成王中立而聽朝, 則四聖維之.” 『大戴禮記』「保傳」

“聖子中立, 臣工四環.” 대립하는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宋史』「樂志十三」

“吾秉君以殺太子, 吾不忍, 通復故交, 吾不敢, 中立其免乎?” 韋昭注: “中立, 不阿君, 亦不助太子也.” 『國語』「晉語二」

“貢與邈等分非素結, 今來速者, 計必未定, 及其猶豫, 宜時說之, 縱不爲用, 可使中立.” 『後漢書·荀彧傳』, “不令其有

去就也。”李賢注

고대 중국어에서 이러한 ‘中1·동사’ 구조는 ‘중단’(중간에서 끊다), ‘중철’(도중에 그만두다), ‘중분’(중간에서 분리되다) 등과 같이 왕왕 ‘부사어/서술어’ 구조였다가, 이후에 언어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구들이 점차 수식구조의 2음절어로 굳어졌고(일반적으로 동사), 단어가 되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中斷] 동사, 도중에 끊어지다 “두 기업의 합작이 중단되었다.”

[中止] 동사, 도중에 그만두다 “비가 내려 이번 시험을 중지했다”

[中立] 동사, 대립하는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中轉] 동사, 중간에 손을 거치다 “생산과 소비가 만나면, 중간 과정이 감소된다.”

중간에 교통 수단을 갈아타다 “상해역에 도착한 후, 갈아타는 수속을 해야 한다.”

2. ‘中2’의 용법과 기능

문법 성분으로서 ‘中2’는 주로 정해진 경계 안, 즉 ‘내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방위사이다. 다른 성분과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뒤에 위치한다[그것의 파생의미가 전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로 ‘중관(中官)’은 ‘궁궐의 환관’을 가리킨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1) 명사 · 中2

(1) 공간 범위를 가리킨다 [예 : 현대 중국어 서면어의 ‘家中(집 안), 樹林中(수풀

안) 學校中(학교 안) 등이다. 현대 중국어의 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裏’가 사용된다.]

[田中2] 들판 속

“田中有株，兔走，觸株折頸而死。”『韓非子』「五蠹」

“昔汝南有人於田中設繩罟以捕麋。”晉 葛洪『抱朴子』「道意」

[山中2] 산 속

“明日，絞人爭出，驅楚役徒於山中。”『左傳』「桓公十二年」

[丘中2] 산 언덕 위

“丘中有麥，彼留子國。”『詩·王風·丘中有麻』

[閨中2] 규방 안

“閨中既以邃遠兮，哲王又不寤。”『楚辭·離騷』

“言君處宮殿之中。”王逸注

[舟中2] 배 안

“及諸河，則在舟中矣。”『左傳』「僖公三十三年」

[車中2] 차 안

“射其右，斃於車中。”『左傳』「成公二年」

[胸中2] 마음속

“胸中正，則眸子瞭焉；胸中不正，則眸子眊焉。”『孟子』「離婁上」

“是故明主外料其敵之彊弱，內度其士卒賢不肖，不待兩軍相當而勝敗存亡之機固已形於胸中矣。”『史記』「蘇秦列傳」

그러나 상고(上古)시대 특히 『시경(詩經)』에서는 이런 의미의 표현으로 언제나 ‘中2 · 명사’ 구조가 사용되었다.

- [中2河] 강 속
 “汎彼柏舟，在彼中河。”毛傳：“中河，河中。”『詩·鄘風·柏舟』
- [中2澤] 연못 속
 “鴻雁于飛，集於中澤。”『詩·小雅·鴻雁』
- [中2谷] 산골짜기 속
 “葛之覃兮，施於中谷。”『詩·周南·葛覃』，“中谷，山谷中也。”毛傳
- [中2達] 사망으로 뚫린 도로 위
 “肅肅兔置，施於中達。”『詩·周南·兔置』，“達，九達之道。”毛傳
- [中2洲] 섬 안
 “蹇誰留兮中洲”『楚辭·九歌·湘君』
 “中洲，洲中也。”王逸注
- [中2阿] 언덕 위
 “菁菁者莪，在彼中阿。”『詩·小雅·菁菁者莪』，“中阿，阿中也。大陵曰阿。”毛傳
- [中2止] 섬 안
 “菁菁者莪，在彼中沚。”『詩·小雅·菁菁者莪』，“中沚，沚中也。”毛傳
- [中2林] 숲 속
 “肅肅兔置，施於中林。”『詩·周南·兔置』，“中林，林中。”毛傳
- [中2囿] 동산/우리 안
 “萬逢中囿，孔庶麇鹿。”『石鼓文·壬鼓』
- [中2野] 들판 속
 “葬之中野，不封不樹。”『易·繫辭下』
- [中2心] 마음속
 “行邁靡靡，中心如醉。”『詩·王風·黍離』

상고 문헌 중에서 ‘中2’가 명사와 결합하여 이 명사가 ‘표시하는 사물의 범위 내부’라는 의미를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놓이지만, 많은 경우 명사 앞에 놓이기도 한다. ‘中2’는 『시경』에 가장 집중적으로 출현한다. 『시경』에 모두 67회 출현하는데, ‘中2·명사’가 49회 출현하는 반면 ‘명사·中2’는 7회만 출현한다. 선진(先秦)의 다른 고적(古籍) 중에도 ‘中2·명사’의 현상이 있으나 『시경』만큼 집중적으로 출현하지는 않는다[『맹자(孟子)』에서는 10회 출현한다]. 이전의 어떤 학자들은 ‘중2·명사’ 구조가 압운(押韻)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시경』에서 ‘中2·명사’ 구조가 문중(文中) 혹은 운각(韻脚)이 아닌 곳에 놓이는 것은 65.4%인 반면, 문미(文尾)의 운각에 놓인 것은 34.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구체적인 것은 <표 1> 참조).

표 1 『시경』의 ‘中2·명사’ 구조

형식	수량	비율	운각 여부	수량	비율	응례
‘中2·명사’식	49	87.5%	운각	17	34.6%	中谷, 中逵, 中林, 中露, 中央, 中坻, 中陵, 中阿, 中澤, 中國, 中鄉 등
			비운각	32	65.4%	中心, 中藁, 中田, 中原, 中林 등
‘명사·中2’식	7	12.5%	운각	4	57.2%	泥中, 桑中
			비운각	3	42.8%	丘中

이 외에도 이러한 구조는 선진(先秦) 운문(韻文)이 아닌 다른 문헌에 출현하기도 한다.

[中2心] “以德服人者, 中心悅而誠服也.” 『孟子』「公孫丑下」

[中2庭] “與其妾訕其良人而相立於中庭。”『孟子』「離婁下」

[中2野] “貨財粟米者，彼將日日棲遲薛越之中野，我今將蓄積竝聚之於倉廩。”『荀子』「王制」

이 때문에 張世祿·儲澤祥 등은 이러한 ‘中2·명사’ 현상이 원시 중국-티베트어족[한장어족(漢藏語族), Sino-Tibetan]의 특징이 보이는 흔적이라고 여겼다.¹ 그 예로 向日徵은 『길위묘어연구(吉衛苗語研究)』에서 길위[길위진(吉衛鎮)은 호남성(湖南省) 상서(湘西) 토가족(土家族)·묘족자치주(苗族自治州) 화원현(花垣縣) 남부에 위치한다-역자주] 묘어(苗語) 중 명사와 방위사 성분이 결합된 것이 방위를 나타내는 어휘의 뒤에 놓인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² 또한 중앙민족학원(中央民族學院) 소수민족 언어연구소 제5연구실이 편찬한 『장동어족(壯侗語族) 언어 어휘집』에 따르면,³ 장동어족(壯侗語族)[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며 동태어족(侗台語族)으로도 명명된다-역자주] 언어에도 ‘안·내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기본적으로 모두 ‘방위를 나타내는 성분·명사’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이방계(李方桂)의 분류에 따르면, 묘요어(苗瑤語)[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며 크게 묘어(苗語)와 요어(瑤語)로 구분된다-역자주]와 장동어(壯侗語)는 중국어와 발생학적 관계가 있는 동일한 어족에 속한다. 그러면 ‘中2·명사’는 바로 원시중국어의 흔적인 셈이다[Paul K. Benedict의 분류에 따르면 장동어와 중국어는 발생학적 관련성이 없어서 동일한 어족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上古) 중국어에서 ‘中2·명사’ 현상은 아마도 일종의 언어차용현상일 것이다].

‘中2·명사’의 구조는 중고(中古), 근대까지도 여전히 출현하는데, 그

- 1 張世祿(1996), 「先秦漢語方位詞的語法功能」, 『河北大學學報』1996年 第1期; 儲澤祥(2003), 『現代漢語方所系統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
- 2 向日徵(1999), 『吉衛苗語研究』, 四川民族出版社.
- 3 中央民族學院 少數民族語言研究所 第五研究室 編(1996), 『壯侗語族語言辭彙集』, 中央民族學院出版社.

에는 다음과 같다.

- [中2河] “玄鶴降浮雲, 魚躍中河.” 晉張華『輕薄篇』
- [中2谷] “飛廉鼓於幽隧, 猛虎應於中穀.” 『文選』「成公綏〈嘯賦〉», “中谷, 謂穀中也.” 呂向注
- [中2林] “願爲中林草, 秋避野火燔.” 三國 魏 曹植『籟嗟篇』
“偶獻〈子虛〉登上席, 卻吟〈招隱〉憶中林.” 唐 白居易『及第後憶舊山』詩
- [中2野] “中野何蕭條, 千里無人煙.” 三國 魏 曹植『送應氏詩二首』之一
- [中2波] “乘風宣飛景, 逍遙戲中波.” 晉 陸機『棹歌行』
- [中2丘] “有萋萋之綠薺, 方滋繁於中丘.” 南朝宋 卞伯玉『薺賦』
- [中2池] “中池所以綠, 待我泛紅光.” 南朝梁 沈約『詠芙蓉』詩
- [中2庭] “夫紂雖嗜酒, 亦欲以爲樂. 令酒也在中庭乎? 則不當言爲長夜之飲.” 『論衡』「語增», “眾嫌我獨賞, 移植在中庭.” 唐 白居易『白牡丹』詩
- [中2圃] “遂集乎中圃, 陳師安屯.” 『文選』「班固〈東都賦〉», “中圃, 苑中也.” 張銑注
- [中2心] “憂思連相屬, 中心如宿醒.” 徐幹『中詩』

그러나 이 구조는 『시경』 이후, 특히 중고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여 출현 빈도 또한 급격하게 낮아졌다(출현하더라도 대부분은 의도적인 필요에 의해서였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대체로 성어(成語)에만 보존되어 있다. 이 표현방식은 ‘中1·명사’ 형식과 동일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등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구별과 명확함이 중요한 언어의 기능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그 이후 이 표현방식은 점차 도태되어갔다.

(2) 추상적 집합체의 범위를 가리킨다 [예 : 현대 중국어의 ‘百姓中’(백성 중 가운데), ‘方案中’(계획 중) 등]

[人 ‘中2]

[餓鬼 ‘中2] 아귀(굶주린 사람) 중

[畜生 ‘中2] 가축 중

[奴婢 ‘中2] 노비 중

[庶民 ‘中2] 서민 중

“長者子辯意白佛言：人何因緣得生天上？復何因緣來生人中？復何因緣生地獄中？復何因緣常生餓鬼中？復何因緣生畜生中？復何因緣常生尊貴，眾人所敬？復何因緣生奴婢中，爲人所使？復何因緣生庶民中。”(14-837) 『辯意長者子經』(後魏 法場 譯)

[坐(座)中2] 좌석 중

“項羽既饗軍士，中酒，亞父謀欲殺沛公，令項莊拔劍舞坐中，欲擊沛公，項伯常遮罩之。”『史記』『樊鄴滕灌列傳』

[神仙中2] “王右軍見杜弘治，歎曰：“面如凝脂，眼如點漆，此神仙中人。”『世說新語』『容止』

[古詩中2] “王孝伯在京，行散至其弟王睹戶前，問：“古詩中何句爲最？”『世說新語』『文學』

[衆中2] 사람들 가운데

“衆中每一見，使我潛動魄。”唐杜甫『送李校書二十六韻』

[文章中2] “蘋於文章中長於詩。”『新唐書』『薛蘋傳』

(3) 시간의 범위를 가리킨다 [예 : 현대 중국어 서면어의 '節日中(명절 중)', '假期中

(휴일 중), '黑夜中(밤중)' 등 현대 중국어 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裏'도 사용한다.]

[夜中2] 밤중

“吳王昏乃戒，令秣馬食士，夜中乃令服兵擐甲。”『國語』『吳語』

“布疑其圖己，乃使人鼓箏於帳中，潛自遁出，夜中兵起而布已亡。”『後漢書』『呂布傳』

“海岸夜中常見日，仙宮深處卻無山。”唐 姚合『贈王尊師』詩

[春中2] 봄에

“卿春中求伐豷勿城，吾恐軍士疲勞。”『宋書』『沈攸之傳』

[夏中2] 여름에

“忽然夏中感懷，冷冷不適，足下復何似，耿耿。”晉 王羲之『謝仁祖帖』

“夏中送甘蔗若新發於州，國吏運載樵荻無輟於道。”『宋書』『庾登之傳』

[秋中2] 가을에

“秋中感懷雨冷，冀足下各可耳，脾風遂欲成患，甚憂之。”晉 王羲之『問慰諸帖』

“凡置生二百人，其年秋中悉集。”『南齊書·禮志上』

[冬中2] 겨울에

“若令冬中食者，以草覆之，尙得竟冬中食。”『齊民要術』『種胡荽』

[五更中2] 오경에

“至五更中，果得之。”『三國志』『吳志·吳範傳』

[三四更中2] 삼사경에

“每三四更中，鼓聲四出，幡幟輟路。”『南齊書』『東昏侯本紀』

[九月中2] 9월 중

“九月中，候近地葉有黃落者，速刈之。”『齊民要術·大豆』

[數日中2] 수일 중

“王從其語，數日中，果震柏粉碎。”『世說新語』「術解」

[一夕中2] 하룻밤에

“帝時爲太子，好養武士。一夕中作池，比曉便成。”⁴『世說新語』「豪爽」

이상의 용례로 보면 시간개념이 장소개념보다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상고시기에는 시간명사와 결합하여 어느 일정한 시간 중임을 나타

이상의 용례로 보면 시간개념이 장소개념보다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상고 시기에는 시간명사와 결합하여 어느 일정한 시간 중임을 나타내는 ‘中2’가 비교적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고에 와서는 많이 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현빈도 또한 매우 높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부류는 ‘中·명사’의 방식으로도 표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많은 경우 ‘中·명사’ 형식의 ‘中’은 ‘中1’로서 ‘중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 이러한 ‘명사·中2’ 형식은 어떤 경우에는 ‘명사·中1’과 구분이 쉽지 않은데, 양자의 외적인 형식이 서로 같고, ‘中’이 표시하는 어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秋中’은 ‘가을 중’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명사·中2’에 속하는데, 위에서 제시한 풀 왕희지(王羲之) 『問慰諸帖』의 사례가 그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명사·中1’에 속하기도 하는데, 唐 姚合 “亭亭千萬里，三五復秋中”(『八月十五夜看月』詩)은 그러한 예이다. 여기서 ‘秋中’은 가을의 가운데 시점으로 ‘중추절’이다. 다시 예를 들어 보면 ‘日中’은 ‘태양 속’을 의미하는데, 『論衡』「說日」：“儒者曰：日中有三足鳥，月中有兔蟾蜍”(『論衡』「說日」)라 하여 ‘명사·中2’에 속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명사·中1’에 속하여 정오를 뜻하기도 한다. 예컨대 “從旦被縛至於日中。轉到日沒晦冥大闇。”(後秦 鳩摩羅什 譯，『大莊嚴論』4-268)과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말뜻을 결합해 보고 그 의미를 분별하여야 한다.

(4) 상황, 상태, 과정을 가리킨다 [예 : 현대 중국어의 ‘睡夢中(수면 중)’, ‘昏迷中

(혼미·의식불명 중)]

[夢中2] 수면 중(꿈속)

“西極之南隅有國焉，不知境界之所接，名古莽之國，陰陽之氣所不交，故寒暑亡辨；日月之光所不照，故晝夜亡辨。其民不食不衣而多眠，五旬一覺，以夢中所爲者實，覺之所見者妄。”『列子』·『周穆王』

“勿言一樽酒，明日難重持。夢中不識路，何以慰相思。”南朝 梁 沈約『別范安成』詩

[眠中2] 수면 중

魏武常雲：‘我眠中不可妄近，近便斫人。’『世說新語』·『假譎』

[睡中2] 수면 중

“子京睡中，忽然夢覺，而坐歎曰：……”『敦煌變文集新書』卷八

[病中2] 질병 중

“(習鑿齒)於病中猶作〈漢晉春秋〉，品評卓逸。”『世說新語』·『文學』

[客中2] 여행 중

“我家襄水上，遙隔楚雲端，鄉淚客中盡，孤帆天際看。”唐 孟浩然『早寒江上有懷』詩

“客中歸未得，歲事漸相催。”宋 戴復古『泉南』詩

[念誦中2] “二相應者謂於三念誦中，其作意及出入息，此最相應爲第一也，當勿異者。”(唐 一行 撰『大毘盧遮那成佛經疏』39-785)

[寒中2] 추위 중

“靜裏改詩空憑幾，寒中注〈易〉不開簾。”皮日休『奉和魯望病中秋懷次韻』詩

이러한 구조 또한 모두가 중고 이후에 출현하였다. ‘면(眠)’·‘수(睡)’·‘염송(念誦)’ 등은 본래 동사였고 ‘한(寒)’은 본래 형용사였으나, 여기에 ‘中’이 첨가된 후에는 모두 체언이 되어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을 나타냈고, ‘中2’의 의미 또한 더욱 허사화(虛詞化)하였다. ‘中2’의 의미가 구체적 공간의 범위 → 추상적 집합체의 범위 → 시간의 범위 → 상황, 상태, 과정으로 문법화함에 따라 ‘中2’가 사용되는 영역이 더욱더 커졌으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시체조사(時體助詞)에 속하지 않았다. 근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치사와 배합하여 진행, 지속 상태를 나타내는 ‘在 …… 中2’가 출현하였다[현대 중국어의 유사한 예 : ‘대교정재건설중(大橋正在建設中 : 교각이 현재 건설 중이다.)’ ‘방안제연구중(方案在研究中 : 방안이 논의 중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君之相錄，正在怒中。”『太平廣記』卷二二一“袁天綱”條，出『定命錄』
 “四人正在說笑中，覺得一陣異香吹入鼻孔中來。”⁵『綠野仙蹤』第四十三回

5 張誼生은 『“V中”의 功能特徵及“中”의 虛化歷程』에서 “일본어에는 동작이나 행위의 지속을 나타내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어 한자 ‘中’을 동사의 뒤에 놓는 것이다. 이 표현방식은 중국어의 ‘V中’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時態助詞 ‘中’은 대만 지역에서 가장 발달하여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도 다양하다. 이 현상은 분명히 일본이 대만을 반세기 동안 통치하고 강제적으로 일본어를 보급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語法研究和探索』十一, 商務印書館, 2002년판). 일본어와의 접촉은 ‘中’의 문법화 과정을 어느 정도 가속화시켰겠지만, 일본어와의 접촉이 ‘中’이 문법화된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中’의 문법화는 많은 원인 사이의 복합적인 작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예시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근대 중국어에서 ‘中’은 이미 어느 정도 문법화하여 時體助詞로 발전하는 시작 단계였기 때문이다.

2) 대명사 · 中2[예 : 현대 중국어의 '其中(그중)']

【此中2】 여기, 이 안

“病人便前詣釋言：我欲去，願乞此瓶。釋便與之，語之言：此中有物，在汝所願，病人即持歸。”(西晉 竺法護 譯『生經』3-108)

“爾時，世尊告諸比丘，此中有第一沙門，第二，第三，第四沙門，此外更無沙門梵志。”(東晉 僧 伽提婆 譯『中阿含經』1-590)

“如是論時，我於此中則有名稱。”(後秦 佛陀耶舍共竺佛念 譯『長阿含經』1-103)

“閻浮提中，轉輪聖王，出現世時，此中海道，自然湧現，與水齊平。”(隋 闍那崛多 譯『起世經』1-312)

【是中2】 여기, 이 안

“使美人相和歌之去，曰：是中當有自知者。”『漢書·景十三王傳·廣川惠王越』

“王即問言：大婆羅門！是處可畏無有人民，是中唯是閑靜修道之人獨住之處，仁何緣來？”(三國 吳 支謙 譯『菩薩本緣經』3-55)

“世尊！譬如有人欲見大海，稍稍前行，若見樹若樹相，若見山若山相，當知是中去海尚遠。”(後秦 鳩摩羅什 譯『小品般若波羅蜜經』8-554)

“以虛空爲庫藏，是中珍寶滿虛空中，給濟蒼生，五種之施令無匱乏。”(唐 不空 譯『金剛頂瑜伽略述三十七尊心要』18-293)

【斯中2】 여기, 이 안

“若大士聞斯義得淨定者，疾近受決不久，或見一佛若兩，便受決，或自於斯中受決，得無上正眞道。”(三國 吳 支謙 譯『大明度經』8-489)

“普生斯念：斯中有形之類，蒙祐無量，何況人形？”(東晉 僧伽提婆 譯『增壹阿含經』2-827)

“卽顯空假是此中道之空假耳，非是從彼空假入斯中矣。”(唐 澄觀 譯『大方廣佛華嚴經』36-693)

[阿堵中2] 이 안

“傳神寫照，正在阿堵中。”『世說新語·巧藝』

[箇中2][箇中2] 여기, 이 안

“若得箇中意，縱橫處處通。”唐 寒山『詩』(255)

“箇中妙趣甚語，最是初醒未醉時。”宋 陸遊『對酒』詩

[彼中2] 거기, 그 안

“此摩竭提國有一聚落，彼中有城，名婆呬那。”(東晉 佛陀跋陀羅 譯『大方廣佛華嚴經』9-765)

“彼世尊寶光威輪王如來，有園名愛見，彼中世尊所遊。”(隋 闍那崛多 譯『觀察諸法行經』15-741)

“彼一切相悉能了知，又能了知彼中所有若干衆生種種性，種種色。”(唐 菩提流志 譯『大寶積經』11-232)

“又張雍州啟事稱：彼中蠻動，兼民遭水患，敕令足下思經丞之計。”『南齊書·張敬兒傳』

“德裕曰：杷頭峯北，便是沙磧，彼中野戰，須用騎兵。”『舊唐書·李德裕傳』

[厥中2] 거기, 그 안

“往還其中，於彼住在，厥中生俱會行，於網中行，死不得出。”(三國 吳 支謙 譯『梵網六十二見經』1-264)

“釋亡名者，不知何許人也，居褒城西數十里，號中梁山，數峯迴負，翠碧凝空，處於厥中，行終詭異，言語不常，恒見者弗驚，乍親者可怪。”(宋 贊甯 撰『宋高僧傳』50-847)

[那中2] 거기, 그 안

“願佛爲我說諸佛國功德，我當奉持，當那中住，取願作佛國亦如是。”(後漢 支婁迦讖 譯『無量清淨平等覺經』12-280)

“佛言：止！止！目連，汝神足雖能反此無難。那中眾生，可以一手執蟲，一手反地。”(『失譯附後漢錄』25-41)

“過去諸佛悉那中生，當來諸佛悉那中生，今現在諸佛悉那中生，何因菩薩入大道中？從何因緣入是大道中？”(西晉 竺法護譯『菩薩十住行道品』10-454)

[[就中2] 이 안, 그 안

“就中言不醉，紅袖奉金杯。”庾信『春日極飲』詩

“國有增減，星無進退，災祥禍福，就中不差。”顏氏家訓·歸心』

“千歌百舞不可數，就中最愛霓裳舞。”唐 白居易『霓裳羽衣歌』

[其中2] 이 안, 그 안

“言寡尤，行寡悔，祿在其中矣。”『論語』『爲政』

“其中往來種作，男女衣著悉如外人。”晉 陶潛『桃花源記』

중고시기에는 ‘지시대명사·中2’의 형식이 특히 많았다. 지시대명사는 근칭 지시대명사[차(此), 시(是), 사(斯), 아도(阿堵), 개(個)]와 원칭 지시대명사[피(彼), 필(厥), 나(那); 취(就), 기(其)]를 모두 포괄하며, 구어적 성격이 강한 불교문헌에서 특히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중고 이후에는 중국어 어휘의 2음절화가 빨라져 1음절 방위사의 문법적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지시대명사 뒤에 있던 기능이 점차 2음절 방위사로 대체되었다[예 : ‘저중간(這中間)(여기/이 중), ‘나리면(那裏面)(거기/그 안)]. 근대 중국어 후기에 이르러서는 ‘中’이 지시대명사와 거의 결합하지 않게 되었다. 첫째는 ‘裏’가 ‘中’을 대신 하였기 때문이고(裏는 이미 대명사 접사로 거의 문법화하였다). 둘째는 ‘其中’이 ‘여기, 이 안’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고 ‘거기, 그 안’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식들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 중국어에서 ‘其中’만 남게 된 것이다.

후치 방위사로서 ‘내부(內部)’의 의미를 나타내는 ‘中2’는 선진 시기의 중국어에서 비교적 자주 보이며, 이 의미를 나타낼 경우 ‘內’로도 사용하였으나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명사와만 결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邦內]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而謀動干戈於邦內。”『論語』「季氏」

[封內] “封內甸服。”楊倞注：“王畿之內也。”『荀子』「正論」

[海內] “海內之地，方千里者九。”焦循正義：“古者內有九洲，外有四海……此海內，卽指四海之內。”『孟子』「梁惠王下」

한나라 이후에 비로소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나[예 : ‘실내(室內, 집 안)’, ‘궁 내(宮內, 궁궐 안)’, ‘차 내(車內, 수레 안)’, ‘삼월 내(三月內, 3개월 안) 등], 명사 뒤에 바로 연결되는 새로운 방위사 ‘裏’는 한대에 구어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문헌에서는 이미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筋髓裏] “經主病和者，其病得之筋髓裏。”『史記』「扁鵲倉公列傳」

[宮裏] “王亦聞此女妙，欲納之宮裏。”(東漢 失譯『分別功德論』25-43)

[殿裏] “而稱伯夏教入殿裏，與桓賢言。”蔡邕『對詔問災異八事』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방위사 ‘裏’는 ‘村裏[마을 안]’, ‘河裏[강 안]’, ‘獄裏[감옥 안]’, ‘洞裏[동굴 안]’, ‘甕裏[항아리 안]’, ‘鎗裏[술 안]’ 등과 같이 수십 종류의 구체적인 명사와도 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霧裏[안개 속]’, ‘風裏[바람 속]’, ‘心裏[마음속]’, ‘夢裏[꿈속]’, ‘曲裏[곡 안, 마을 안]’, ‘今夜裏[오늘 밤 안]’ 등과 같이 많은 추상명사와도 결합하여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다. 왕유휘(汪維輝)의 통계에 따르면, ‘中2’와 ‘裏’의 출현 빈도는 동진에서는 약 5:1이다가 수대(隋代)에는 약 2:1로 줄어들었다. 당대 王梵志의 시(詩)에서 ‘中2’와 ‘裏’의 출현빈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해졌다. 敦煌變文에 이르러 ‘這裏[자리(者裏), 여기]’, ‘那裏[거기]’가 나타났고 ‘裏’가 방위사에서 더 나아가 접미사로 문법화하였다. 최소한 늦어도 만당오대(晚唐五代)에는 방위사 ‘裏’가 이미 완전히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 현대 중국어에 이르러 ‘中2’와 ‘裏’ 간에 대체로 서면어와 구어의 구분(문언(文言)과 백화(白話)의 구분)이 생겼으나, ‘裏’는 아직까지는 ‘中2’를 철저히 대체하지 못하여 어떤 관용어에서는 ‘中2’만 사용하고 ‘裏’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사·中2’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토론 중[토론 중에 새로운 문제를 발견]’, ‘담판 중[대화 중에 쌍방이 서로 양해했다]’, ‘전투 중[전투 중에 그가 부상을 입었다]’ 등은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전치사 ‘在’ 뒤에 사용된 ‘영업 중[호텔이 현재 영업 중]’, ‘진행 중[공연이 아직 진행 중]’, ‘연구 중[계획은 여전히 논의 중]’도 있다.

이 외에 또 설명해야 할 부분으로는 ‘中2’ 또한 ‘之中(~중)’으로 말할 수 있으나 중국어 운율상 ‘之中’은 일반적으로 1음절어 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의 ‘수재류설지중(雖在縲絏之中), 비기죄야(非其罪也)’, 『논어(論語)』 「계씨(季氏)의 ‘차재방역지중의(且在邦域之中矣)’와 같은 것들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더욱 그러하여 ‘궁전지중(宮殿之中)’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궁지중(宮之中)’ 혹은 ‘전지중(殿之中)’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또 ‘풍우지중(風雨之中)’이라고는 하지만 ‘풍지중(風之中)’ 혹은 ‘우지중(雨之中)’이라고는 하지 않고, ‘수몽지중(睡夢

6 汪維輝(2000), 『東漢—隋常用詞演變研究』, 南京大學出版社.

之中)이라고는 하지만 ‘수지중(睡之中)’ 혹은 ‘몽지중(夢之中)’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 등과 같다.

이상에서 ‘中’자의 기본적인 의미와 ‘中1(중간)’, ‘中2(내부)’의 연원과 어의, 어법 기능, 기능 방면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中1’과 ‘中2’의 상고에서 중고시기까지의 용법과 사용 빈도의 변화, 그리고 ‘中1’이 점차 구두어에서 ‘裏’의 의미로 대체되는 상황과 중고시기 ‘中2’가 방위사와 지시대명사로 결합되는 다양성 및 점차 소멸되어 ‘其中’으로 통일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中’과 관련된 기타의 의미로는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 ‘中’(zhōng)의 의미는 “②특별히 궁성의 안을 지칭함. 또한 조정(朝廷)을 지칭함, ⑤마음, ⑥감정의 의미로 파생, ⑦내장(內臟), ⑧신체”라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내부(內部)’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⑩그 안에 머무르다, ⑫반, 절반, ⑬간격, ⑭매개, 거간, ⑮소개인, 중개인, ⑯정(正), ⑰균등하다(고르다. 균일하다), ⑳24절기 가운데 중기(中氣), ㉑정오, 하루의 중간, ㉒정오” 등은 모두 의심할 바 없이 ‘중간’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한어대사전』에서는 “中(zhōng) : ⑬적합, ⑲정확한 표준, ㉑가(可), 행(行), 성(成)이라는 말과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비록 ‘중간(中間)’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문화적 배경이 있다. 유가(儒家)에서 강조하는 ‘중용(中庸)의 도(道)’는 주장과 사람을 대함에 편중되지 않고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음을 뜻한다. 따라서 ‘中’의 표준인 ‘적합’, ‘정확’, ‘가(可)’의 의미에 부합한다[【中】zhòng : 1. 화살을 쏘는 과녁, 2. 부딪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칭, 3. 부합, 4. 도달, 6. 시험으로 채용하다, 7. 얻다, 8. 상당, 상응하다, 9. 값에 상응한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10. 치다, 죽이다, 11. 침습

하다, 상해를 입히다, 12. 침습을 당하다, 상해를 입다, 13. 중상을 입다, 14. 받다, 입다, 당하다”
및 “【중】zhòng : ‘仲’의 고자(古字)이다. 1. 각 계절의 중간, 2. 형제 자매의 두 번째” 등의 뜻이
있는데, 이 역시 ‘중간(中間), 중심(中心)’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문법에 관한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보아 그 핵심적인 의미는 당연히 ‘중간(中間)’과 ‘내부(內部)’의 의미이다.

한국 고대 문자자료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之’

정재영(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於諸師長恭敬尊重
元量善根諸妙善法
樂見佛求薩婆若
利見善

億那由他不可
億世界百億
定去界等

한국 고대 문자자료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之’

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고대 금석문이나 목간(木簡)자료 등에서 사용한 ‘之’자의 용법 중 문장을 종결하는 자리에 쓰인 ‘之’에 대해 그 기능과 한국의 이두문에서 종결어미 ‘之’의 발달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자사에서 ‘之’의 사용과 관련된 상호 영향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고대 금석문이나 목간자료 중에는 문말(文末)에 사용되어 문장을 종결하는 어조사(語助辭) ‘之’가 생산적으로 쓰인다. 이런 현상은 ‘中’을 처격조사(處格助詞)로 사용하는 용례들과 더불어 일찍부터 일본의 학자들이나 국어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것이다. 이 예들은 고구려의 금석문에서 쓰이기 시작하여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려초까지 사용한 것

이다. 문장을 종결하는 다른 어조사(語助辭)들에 비하여 한국의 고대 이두문에서 ‘之’ 자가 평서법[서술형(敘述形)]의 문장 종결어미로 많이 쓰이는 것은 한국의 고대 문체론의 큰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之’가 언제부터, 어떻게 문장을 종결하는 다른 어조사들, 즉 ‘也’나 ‘矣’, ‘耳’ 등에 비해 서술형의 문장종결 표지로 많이 쓰이게 되었는지 그 연유(緣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고대 한국어에서 서술형 문장종결어미의 발달과정과 서술형의 종결어 ‘之’가 구결자(口訣字) ‘ㄱ(-다)’[지의 초서체(草書體)]에서 발전한 구결자(口訣字) 입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2. 초기 이두문에 나타나는 서술형 종결어조사 ‘之’

남풍현(南豐鉉, 2005)이 이미 검토한 바 있듯이, 한국의 고대 문자 자료 중에서 ‘之’자 이외의 서술형 종결어미를 사용한 예들은 아주 적다. ‘也’는 신라 자료 중에서는 명활산성작성비(明活山城作城碑, 611년)에 2회, 감산사아미타여래조상기(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720년)에 1회, 갈항사조탑기(葛項寺造塔記, 785~789년)에 1회, 규흥사종명(竅興寺鐘銘, 856년)에 1회가 사용되어 모두 5회밖에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백제의 문서목간(文書木簡) 중 능산리(陵山里) 사면목간(四面木簡)에도 한 번 나타난다. ‘也’가 일반적으로 한 문에서는 서술형의 문장종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이두문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은 것이다. ‘矣’는 ‘평양고구려성벽각자(平壤高句麗城壁刻字, 566년)’에 1회, ‘청제비정원명(靑堤碑貞元銘, 798년)’에 1회, ‘규흥사종명(竅興寺鐘銘)’에 1회, 백제의 금석문에 1회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 ‘耳’는 백제의 금석문에 1회와 영일냉수리신라비(迎日冷水里新羅碑, 503년)에

4회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다른 어조사에 비해 ‘之’를 한국의 고대 금석문이나 목간자료들에서 서술형의 문장 종결어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 고대 문체법(文體法)의 큰 특징이다. 실제로 백제와 신라의 승려들이 저술한 불경(佛經)자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한 ‘之’의 예는 많다(4.2를 참조할 것). 고대 한국에서 ‘之’가 서술형의 문장 종결에 생산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 ‘之’가 한문의 용법에서 기능을 차용하여 우리말 표기로 발달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 고구려의 자료

고구려의 자료 중에서 ‘之’를 문장의 서술형 종결 자리에 사용한 것은 다음 용례가 대표적인 것이다. 판독과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용례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 (1)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비록 富裕한 자라도 함부로 살 수 없다. 솜을 어기고 파는 자는 형을 받는다. 산 사람은 制令으로 守墓한다. (廣開土大王碑, 414년)
- (2) 建立處 用者 賜之/ 建立한 곳은 使用者에게 下賜하였다. (中原高句麗碑, 495년)
- (3) □□國土太位諸位上下 衣服來受教 跪營之/ □□國土의 太位와 諸位 上下人들에게도 衣服을 와서 받으라고 명하고 營에 (와서) 무릎을 꿇게 했다. (中原高句麗碑, 495년 推定)
- (4) 漢城下 後部 小兒 文達節 自此 西北行 涉之/ 漢城下的 後部 小兒 文達이 감독하였다. 여기서부터 西北으로 行하여 涉하였다(걸치었다). (高句麗城壁刻字, 566년 推定)

예문 (1)은 이미 이기문(李基文, 1981)이 이두의 기원을 논할 때 주목한 것이다. 이 ‘之’는 문말 어조사로 사용한 것이다. ‘기유위령(其有違令) 매자형지(賈者刑之)’와 ‘매인제령수묘지(賈人制令守墓之)’ 등에 쓰인 ‘之’의 이런 용법이 발전하여 신라의 이두에서 서술형 문장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2)와 (3)은 ‘중원고구려비문(中原高句麗碑文, 495년 추정)’에 나타나는 예들이다. 이 비문(碑文)에는 한문의 어순도 쓰였지만, 한국어 어순을 반영한 문장도 같이 쓰이고 있다. 이 비문의 서두는 ‘五月中’으로 쓰여 ‘中’ 자의 용법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광개토태왕비(廣開土大王碑)에 비해 중원고구려비의 비문이 고구려적인 한문[속한문(俗漢文)]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의 용례도 같은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고구려 문자자료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之’ 외에도 ‘중원고구려비문’에 나타나는 ‘節’, ‘敎’ 등의 단어가 신라의 이두문에서도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는 등 고구려와 신라의 이두가 하나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것임이 밝혀진 바 있다.¹

2) 백제의 자료

백제의 문자자료는 전하는 양이 많지는 않는데 그것도 한문 문체로 작성한 것이 많은 편이다. 다만 몇몇 자료에서 백제의 속한문, 즉 초기 이두용법을 보이는 자료가 있다. 무령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한 왕비의 은천명(銀鈿銘, 국보 160호)은 한국어 어순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南豐鉉(2000b, 200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김영옥(2008: 220)에서는 고구려 자료 중에서 德興里 古墳 墨書에도 ‘之’가 종결사로 사용된 용례가 두 번 더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旦食鹽鼓食一掠記之’와 ‘諸曹職吏故銘記之’ 등이 그것이다.

백제의 대표적인 초기 이두문으로 볼 수 있다. 국보 160호로 지정된 사마왕(斯麻王) 왕비의 은제(銀製) 팔찌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銘文)이 음각(陰刻)되어 있다.

- (5) ㄱ. 庚子年二月多利作 大夫人分 二百三十主耳/ 庚子年(520年) 2月 多利가 만들. 大夫人의 몫임. (무게) 230銖이다.
 ㄴ. 庚子年(520년) 二月 多利 作 大夫人口 (?) 二百卅 主耳/경자년(520년) 2월에 다리(백제의 장인 이름)가 만들었다. 대부인(왕비) [장신구(은팔찌)는?] 230銖(약 166.920~168.100g)이다.

(5)의 판독과 해석에서 문제는 ‘대부인(大夫人)’ 다음에 나오는 글자다. 이 글자를 분(分)으로 판독하면 (5-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主’는 ‘朱[수(銖)]’와 같은 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위명사 ‘銖’를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초기 이두문에서 은팔찌의 무게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主’다. 그리고 문장 끝에 있는 ‘……耳’는 문장종결사로 해석할 수 있다. ‘耳’를 문장종결사로 사용한 용례는 영일냉수리비(迎日冷水里碑, 503년)에도 4회나 나타난다.

- (6) ㄱ. [……] 土 壬辰年作銘博의 [……] 土 壬辰年作
 ㄴ. ‘梁官瓦爲師矣’銘博의 梁官瓦爲師矣

(6-ㄱ)은 당시 백제 제도 등을 고려하면 “[어떤 외박(瓦博)]사가 임진년(壬辰年, 512년)에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초기 이두문이다. 우리말 문법 형태를 나타내는 ‘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 초기 이두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6-ㄴ)은 우리말

어순의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제식의 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다. (6-ㄴ)의 ‘矣’는 문장종결사이다. ‘矣’가 문장종결사로 쓰인 것이 외에도 ‘고구려성벽각서(高句麗城壁刻書)’ 자료에서 하나 더 찾을 수 있다.² 능산리(陵山里) 사면목간(四面木簡)은 백제 문서자료다. 그중 1면과 2면은 ‘지약아식미기(支藥兒食米記)’이고 3면은 또 다른 내용이다. 능산리 사면목간의 3면에는 ‘기신자여흑야(其身者如黑也)[그 몸은 검은 것 같대]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공격(空隔)’이 있어, 일단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앞뒤 두 개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者’는 주제표지로, ‘也’는 종결 표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백제의 서목간 중 좌관대식기(佐官貸食記)에 나오는 ‘무인년(戊寅年) 유월중(六月中)’의 ‘中’의 용례도 고구려 초기 이두와 신라의 이두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백제의 1차 기록자료에서는 서술형의 문장종결 자리에 ‘之’가 쓰인 용례는 발견되지 않다가 최근에 백제 목간자료에서 발견된 바 있다.³ 그런데 백제의 불경자료에 나타나는 (7)의 경우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2 ‘己丑年五月二十一日 自此下向東十二里 物省(苟)小兒 俳須百頭□節矣’ 『朝鮮金石總覽』에 실려 있는 자료다.

3 그동안 百濟의 1차 기록자료에서는 敍述形의 문장종결 자리에 ‘之’가 쓰인 용례가 발견되지 않다가 2009년 6월 4일자 日刊紙들에 百濟 木簡 중에 ‘之’가 나타나는 자료가 발굴되어 공개된 바 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6월 3일 文化財廳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의 발표에 의하면 昨年에 나주 북암리 고분군(사적 제 404호)에서 발굴된 31점의 木簡 중에 포함된 文書木簡 들 중에는 ‘受米之’와 ‘貢之’, ‘并之’ 등의 백제식 吏讀의 용례가 보인다고 한다. 앞으로 적외선 사진 등을 통하여 이 목간들을 더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敍述形 종결사로 나타나는 ‘之’를 백제의 1차 문자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7) 道藏疏 可考之. 意得道智慧可成就者爲說空也 先既以世諦調伏. 故易得意也. 已上裏書/『道藏疏』(에서 말한다). 생각해볼 만하다. 그 뜻은 「得道の智慧가 成就된다」고 함은 空을 설하기 때문이다. 이미 世諦로 調伏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뜻을 얻기 쉬운 것이다. 已上 裏書

(7)의 예문은 징선(證禪)의 『삼론현의검유집(三論玄義檢幽集)』에서 백제 도장 스님이 저술한 『성실론소(成實論疏)』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다. 김천학(金天鶴, 2008)은 ‘도장소가고지(道藏疏可考之)’는 ‘도장소운(道藏疏云) 가고지(可考之)’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意’자 다음의 내용도 『성실론(成實論)』의 인용으로, 저자인 징선이 쓴 것이 아니라 『도장소(道藏疏)』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 단락에 나타나는 ‘可考之’의 ‘之’자는 금석문이 나 한국의 속한문, 일본의 변체한문 등에 자주 보이는 종지법으로, 변칙한문으로 파악한 바 있다.⁴ ‘可考之’의 ‘之’도 문장을 종결하는 어조사로 사용한 것이다.

3) 신라의 자료

신라의 이두는 일반적으로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시대 이전과 이후의 이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다. 신라초기의 이두문들은 초기적(初期的) 이두문으로 한문식 어순과 한국어 어순이 섞여 쓰였다. 신라에서는 6세기 중반부터는 한자를 완전히 국어 어순으로 배열하는 문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7세기 말부터는 국어어순의 문장에 [토(吐), 국어의 조사나 어미]까지도 표기에 반영하는 이두문으로 발전한다. 이런 문장 표기법은

4 더 자세한 내용은 金天鶴(2008)을 참조할 수 있다.

그 이전 시대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토를 문장 표기에 적극 반영하는 이두문의 발달은 이두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대를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 제2단계 이두의 발달과 설총(薛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⁵

신라초기 이두 자료에서 문말에 쓰인 ‘之’를 살펴보자. 먼저 명사 다음에 ‘之’가 쓰여 문장이 끝나는 예부터 검토해보자.

- (8) 并遊友 妹 麗德光妙 於史郎 安郎主之/ 함께 노닌 벗은 妹 麗德光妙, 於史郎, 安郎님이다. (蔚州川前里書石 原銘, 525年 推定)
- (9) □□兮 女道豆只又悅利 ■■■ 小子刀羅兮 □□□□□ 合五人之/ □□兮와 女 道豆只와 悅利 ■■■, 小子 刀羅兮와 □□□□□ 合하여 5人이다. (丹陽新羅赤城碑, 540년)
- (10) 十三日了作事之/ 13일에 了作한(만들기를 마친) 일이다. (戊戌塲作碑, 578년)
- (11) 如法以 作後三年 崩破者 罪教事爲 聞教令 誓事之/만약 法으로 지은 후 3년에 崩破하면 罪주실 일로 삼아 들으시게 하여(보고 하도록 하여) 맹서하는 일이다. (南山新城碑, 591년)

(8)부터 (11)까지 예들은 명사 다음에 ‘之’가 쓰여 문장을 서술한 것이다. 이 경우는 우리말의 평서법 종결어미 ‘-다’와 같은 기능으로 쓰인 것이다. 이 예들은 다음에서 살펴볼 동사 뒤에 또는 동사와 목적어 구성 뒤에 첨부되어 문장을 종결하는 ‘之’와 더불어 백제나 고구려보다 신라 자료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신라의 이두 발달은 고구려와 백제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즉, 신라에서는 자국화된 한문의 표현법, 즉

5 물론 統一新羅時代 이후의 자료 중에도 따가 없이 漢字를 國語의 語順으로 排列한 初期的 吏讀文도 쓰였지만 그 용례는 아주 적다.

초기 이두문 또는 속한문을 더 자연스럽게 생산적으로 사용하다가 통일 이후 7세기 말부터는 우리말의 토까지도 자유롭게 표기에 반영하는 제2단계로 이두문이 발전한다. 신라에서는 한문을 우리말로 읽는 구결(口訣)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음 예들은 동사(動詞) 또는 동사구(動詞句) 뒤에 문말 종결어조사 ‘之’가 나타나는 경우다. 한국의 고대 이두문 중에는 이러한 용례가 명사 뒤에 ‘之’가 오는 것보다 더 많다.

- (12) 立石碑人 喙部博士 于時教之 若此者獲罪於天/石碑를 세운 사람인 喙部の 博士가(또는 박사인데) 이때에 교를 내렸다. 이와 같은 자는 하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康珍鳳坪新羅碑)
- (13) □者 更赤城因 去使之/(前)者是 다시 赤城因에 가서 일한다(버슬한다). (丹陽新羅赤城碑, 540년)

(12)와 (13)의 초기 이두문들은 한문과 우리말의 어순이 섞여 있는 글들이다. ‘우시교지(于時教之)’와 ‘거사지(去使之)’에 나타나는 ‘之’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것이 아니고 ‘也’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보는 것이 좋다. 문장을 종결하는 서술형 어미 ‘-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14) 이하의 예들은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 초기 이두문이다.

- (14)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만약 나라가 不安하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면 可히 용납될 수 있게 行할 것을 맹서한다. (壬申誓記石, 552年 推定)
- (15) 戊戌年四月朔十四日 另冬里村 高□塢 作記之/ 戊戌年 4月 朔, 14일에 另冬里村의 高 □塢를 만들고 기록한다. (戊戌塢作碑, 578年 推定)

- (16) 辛亥年二月廿六日南山新城作節如法以作後三年崩破者罪教事爲
聞教令誓事之/ 辛亥年 2月 26日 南山的 新城을 지을 때, 만약
法으로 지은 後 3년에 崩破하면 罪주실 일로 삼아 (임금께) 들
으시게 하여 맹서하는 일이다. (南山新城碑 591年)

이 문장들은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하여 작성한 초기 이두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4) ‘가용행서지(可容行誓之)’의 ‘之’와 (15) ‘작기지(作記之)’의 ‘之’를 각각 한문의 구성처럼 지시대명사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한문 구성처럼 이 경우에는 ‘之’가 지시하는 지시내용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어순에서 문장을 끝맺는 서술어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의 ‘서사지(誓事之, 맹서하는 일이다)’의 ‘之’도 앞의 (11)에서 한 번 검토한 것인데, 이것은 ‘맹서하는 일’에 첨부되어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종결어미 ‘-다’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하는 이러한 초기 이두문에서는 ‘之’가 한문의 문법에 따르기보다는 국어의 문법에 따라 문장을 종결하는 평서법 종결어미에 대응한다.

3. 제2단계 이두문에 나타나는 서술형 종결어미 ‘之’

신라가 통일한 후인 7세기 후반에 오면 이두문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보인다. 이것이 곧 본격적인 제2단계 이두문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이두문 중 최고 자료는 월성해자(月城孩子)149호 목간의 이두문이다. 이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감산사아미타여래조상기(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720년)’의 이두문이 우리말의 토 표기를 반영한 최초의 자료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17) (1면) 大鳥知郎足下 万拜 白 | / 大鳥知郎足下 万拜 ㅎ며 ㄷ다
 (2면) 經中 入用 思 買 白不 踰紙 一二 ㄱ / 經기 入用 ㅎ 것을 ㅎ
 아려 구매 ㅎ 것. 白不 踰紙 열두(또는 한 두) ㄱ.
 (3면) 牒 垂賜 教在之 後事者 命盡 / 牒을 내리시어 教(ㅎ)겨다.
 後事는 命대로 다 ㅎ여
 (4면) 使內 / 시기는(브리는)⁶

(17)의 월성해자149호 목간은 신라의 사경소(寫經所)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장 전체가 제2단계의 이두문으로 작성되었으며, 편지 형식의 서두로 시작한다. 월성해자149호 목간은 일본의 초기 목간의 문서 형식인 ‘모족하[某足下, 또는 모전(某前)] 백[白, 또는 신(申)]’의 편지 투로 시작하는 문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사경소 문서의 내용은 첩(牒)으로 내려온 명령에 근거하여 사경(寫經) 제작에 필요한 종이를 구매해달라고 요청

6 이 문서 전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大鳥知郎足下(大鳥知郎에게), 万拜 ㅎ며 사립니다. 經에 入用할 것을 생각하여 구매할 것. 白不 踰紙 열두(또는 한두) ㄱ. 牒을 내리시어 教하셨습니다(명령하셨습니다). 後事는(다음 일은) 명령대로 다하여 하게 할 것.”

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같은 부서 내부에서 또는 동급의 관련된 부서 간에 주고받은 문서로 추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월성(月城)의 존속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하한연대(下限年代)를 7세기 말로 잡고 있다. 월성해자149호 목간의 이두문은 신라 왕경(王京)에서 사용한 7세기 후반의 육필(肉筆)자료이다. 이 문서에 사용한 이두문에는 어순뿐만 아니라 우리말 토를 표기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처격조사 ‘-中(-고) > -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존경법(尊敬法)의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 ‘-賜-(-시-)’와 선어말어미(또는 보조동사) ‘-在-(-겨-)’와 고대 국어의 선어말어미 ‘-內-(-너-)’ 등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목간 1면의 ‘白 | ’와 3면의 ‘敎在之’에서 각각 평서법 종결어미 ‘- | (-다)’와 ‘-之’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면의 ‘敎在之’는 2장에서 검토한 문장 종결표지 ‘-之’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한 우리말 종결어미를 표기한 것이다. 이 단계에 오면 고대 구어체 한문에 보이던 문장 종결어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말 표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용법을 볼 수 있다. 선어말어미 ‘在(-겨-)’ 다음에 서술형 종결어미 ‘-之(-다)’가 통합된 것이다.

이 문서 1면에 보이는 ‘白 | ’의 ‘ | ’는 ‘-之’의 초서체에서 따온 것으로 한국의 이두나 구결문에서 사용하는 반자[半字, 약체자(略體字)]로서 나중에 이것은 구결문자로 발전한다. 특히 구결자 ‘ | ’와 직접 관련있는 ‘ | (-다, -之)’를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치가 크다.’ 이 외에도 구결문자로 사용하는 ‘ㅅ[등(等)]’과 ‘ㅈ[나(那)]’, ‘ㅊ[미(彌)]’ 등은 이두 자료에서도 사용하던 약체자들이다. ‘白 | [백지(白之)]’는 신라의 문서목간이나 일본의 초기 문서목간에서도 자주 쓰이던 표현이다. 최근에 ‘세택백지(洗宅

7 이 자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鄭在永(2008a)과 鄭在永(2008b)을 참조할 수 있다.

白之, 세택이 아릅니다)’로 시작하는 안압지 출토 문서목간에서도 ‘白’을 추
 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문서 양식을 통해 당시 ‘白之’라는 문두 말
 미의 투식(套式)이 상용화되었음도 알 수 있다.

(18) ㄱ. 亡妣官肖里夫人 年六十六 古人成之 東海欣支邊散之/ 亡妣
 官肖里夫人은 나이 66에 古人이 되었다. 東海의 欣支邊에
 뿌리었다.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719년)

ㄴ. 亡考仁章一吉滄 年四十七 古人成之 東海欣支邊散也/ 亡考
 仁章一吉滄은 나이 47에 古人이 되었다. 東海의 欣支邊에
 뿌리었다.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720년)

(18-ㄱ)과 (18-ㄴ)의 ‘고인성지(古人成之)’는 ‘졸지’와 같은 뜻으로 사
 용한 다른 표현이다. ‘고인이 되었다’는 우리말을 의식한 이두식 표현이
 다. 여기서도 자동사 ‘成’ 뒤에 첨가되어 있는 ‘之’는 평서법의 종결어미
 ‘-다’를 표기한 것이다. (18-ㄱ)의 ‘산지(散之)’도,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18-ㄴ)에서는 ‘산야(散也)’로 표현되어 ‘之’가 ‘也’로 바뀌었다. 이
 는 이 이두문의 ‘之’를 지시대명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也(-이다)’와 같
 이 문장의 종결어미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감산사아미
 타여래조상기(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720년)’에는 ‘조재재(助在哉, 돕겨직)’와 같은
 표현이 들어 있어 제2단계 이두문 발달과 관련이 있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선어말어미 ‘在(-겨-)’와 원망(願望)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哉’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19) 이하의 용례는 앞에서 언급한 제2단계 이두문들과 같이
 다른 토들과 함께 종결어미 ‘之’를 결합하여 쓰인 예들이다.

(19) 天寶 十三載 甲午 八月 一日 初 乙未載 二月 十四日 一部 周了

成內之

[천보 13년 갑오(754년, 경덕왕 13) 8월 1일에 시작하여 을미 (755년) 2월 14일에 1부(新譯華嚴經 80권 8축)를 두루(다) 마치 어 이루었다(이루기를 마치었다).]

- (20) 成內 願旨者 皇龍寺 緣起法師 爲內賜 第一 恩 賜 父 願 爲 爲內 彌 第二 法界 一切 衆生 皆 成佛(道) 欲 爲賜以 成賜乎 經之

[이론(또는, 이루려 하는) 서원의 취지는 황룡사 연기법사가 삼으신 것으로(만드신 것으로) 첫째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의 願을 위하여 삼았으며(만들었으며), 둘째는 법계 일체 중생이 다 불도를 이루게 되기를 바라심으로 이루신 것이다.]

- (21) ㄱ. 成內 法者, 楮根中 香水 散尔 生長令內彌 然後中 若 楮皮 脫那 脫皮 練那 紙作伯士那 經寫筆師那 經心匠那 佛菩薩像 筆師 走使人那 菩薩戒 授令彌 齊食彌 右 諸 人等 若 大小 便 爲哉 若 臥宿哉 若 食 喫哉 爲者 香水 用彌 沐浴令只 但 作 處中 進在之

[[사경을] 이론 법은, 닥나무 뿌리에 향수를 뿌려서 생장시키며 연후에 (혹) 닥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벗긴 닥나무 껍질을 불려 익히거나 (하는) 紙作伯士나, 경을 베끼는 필사나, 경심장이나, 불·보살상 필사의 走使人이나 보살계를 받게 하며 齊食하며(齊戒하여 먹으며), 위의 여러 사람들이 만약 대소변을 보거나 (만약) 누워 자거나 (만약) 밥을 먹거나 하면, 향수를 사용하여 목욕시키어야만 오직 만드는 곳에 나아갈 수 있었다.]

- ㄴ. 經 寫 時中 竝 淳淨爲內 新淨衣 禪水衣 臂衣 冠 天冠等 庄嚴令只者 二 青衣童子 灌頂針 捧彌 又 青衣童子 着 四 伎樂人等 竝 伎樂 爲彌 又 一人 香水 行道中 散彌 又 一人 花 捧 行道中 散彌 又 一 法師 香爐 捧引彌 又 一 法師 梵唄 唱引彌 諸 筆師等 各 香花 捧尔 右念行道爲 作處中 至者 三 歸依尔 三 反 頂禮爲內 佛菩薩 華嚴經等 供養爲內 以後中

坐中昇經寫在如

[경을 베낄 때에는 (더불어) 순정한 新淨衣와 禪水衣, 臂衣, 冠, 天冠 등으로 장식시킨 두 청의동자가 관정침을 받들며, 또 청의동자에 붙여 네 기악인들이 모두 기악하며, 또 한 사람이 향수를 가는 길에 뿌리며, 또 한 사람이 꽃을 받들어 가는 길에 뿌리며, 또 한 법사가 향로를 받들어 이끌며, 또 한 법사가 범패를 부르면서 이끌고, 여러 필사가 각기 향화를 받들어서 右念 行道하여 (사경을) 만드는 곳에 이르면 삼귀의씩 세 번 정례하고 부처와 보살과 화엄경 등을 공양한 이후에 자리에 올라 경을 베꼈다(베낄 수 있었다).]

ㄷ. 經心 作彌 佛菩薩像 作 時中 青衣童子 伎樂人等 除 余 淳淨 法者 上 同之

[경심을 만들며 불보살상을 그릴 때에 청의동자와 기악인들을 제하고 나머지 순 정법은 위와 같다.]

ㄹ. 經心 內中 一收 舍利尔 入內如

[경심 안에 1枚의 사리씩 넣었다.]

위의 예문들은 ‘신리화엄경사경조성기(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755년)’의 이 두문이다. (19)의 ‘成內之’는 ‘이르느다’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선어말어미 ‘-內-’와 서술형(평서법) 종결어미 ‘-之’로 분석된다. 고대 국어의 선어말어미 ‘-內-’는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가 아니라 상이나 서법과 관련된 것이다.⁸ (20)의 ‘經之’나 (21-ㄷ)의 ‘상동지(上同之)’도 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이다. (19)의 ‘成內之’와 (21-ㄱ)의 ‘진재지(進在之)’ 등은 초기 이 두문에는 나타날 수 없는 표현이다. 이들은 각각 동사 어간 ‘成-’과 ‘진(進)-’에 선어말어미 ‘-內(-內-)’와 ‘-在(-在-)’를 통합하고 다시 평서법

8 고대 국어의 선어말어미 ‘-內-’에 대해서는 鄭在永(2000)을 참조할 수 있다. 고대 국어 단계는 상이나 서법도 미분화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종결어미 ‘-之(-다)’를 통합한 것이다. 이들은 (17)의 ‘敎在之’와 같은 것으로 우리말의 평서법 종결어미 ‘-다’를 표기한 것이다. 초기 이두문이나 고대 구어체 한문에 보이던 문장 종결어조사(終結語助辭)와는 완전하게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만 확인할 수 용법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은 주로 제2단계의 이두문에만 나타난다.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년)의 이두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의 이두 발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을 더 발견한다. 이 자료에는 평서법 종결어미가 ‘-之(-다)’로 표기되거나 (21-ㄴ)과 (21-ㄷ)에서처럼 ‘-如(-다)’로도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두의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8세기 중반 이후부터 우리말의 평서법의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기 위하여 고대 구어체 한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 ‘-之’와 함께 새로운 토 ‘如’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두의 발달과 한국의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 발달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평서법(서술형) 종결어미를 ‘-之’로 표기하다가 한문의 구조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차자(借字) ‘如’(훈가자(訓假字))로 한국어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결자 ‘- 丨’(다)의 생성과 이두문과 향가(鄕歌)에서 서술형 종결어미로 ‘-之’ 대신에 ‘-如’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의 차자표기법의 변화 또는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755년) 이후 다음의 자료에서도 종결어미 ‘-如’가 ‘-之’와 공존하는 것이 있다.

- (22) 馬於內 上[ㄷ]一具 上仕之 [ㄷ]尾者 上仕而汚去如 (正倉院所藏 第二新羅文書)
- (23) ㄱ. 一切 皆 三惡道業 滅尔 自毗盧遮那是等 覺 去世爲尔 誓內
 之/ 一切 모두 三惡道業이 滅하여서 스스로 毗盧遮那인 것

을 覺하고 去世하도록 다짐한다. (永泰二年銘石毗盧遮那佛造像記, 766년)

ㄴ. 內物是在如/ 內物이다. (上同)

(22)는 정창원(正倉院) 소장 제2신라문서(第二新羅文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상사지(上仕之, 위에 가서 일하다 또는 위로 보내서 일하게 하다)’와 ‘오거여(汚去如, 더럽혀졌다)에서 ‘-之’와 ‘-如’의 공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3-ㄱ)과 (23-ㄴ)에서도 같은 조상기(造像記)에서 종결어미 ‘-之’와 ‘-如’가 함께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세기 중반 이후 자료부터 종결어미 ‘-如’가 새롭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검토될 예들은 남풍현(南豐鉉, 2005)이 검토한 예들이다. 다음의 이두문들이 사용한 ‘-之’도 한문의 기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어의 종결어미 ‘-다’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24) ㄱ. 村主位畚 十九結 七十負 合田 六十二結 十負……竝烟受有之/ 村主의 位畚은 19結 70負이다. 合田은 62結 10負이다…… 모두 烟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다. (新羅帳籍, 7세기 말 또는 758년으로 推定)

ㄴ. 賣如白 貫甲一 合无去因白 馬二 竝 死之/ 팔았다고 보고하는 貫甲(사슴)이 하나, 도합 없어졌으므로 보고하는 말이다. 모두 죽었다. (新羅帳籍, 7세기 말 또는 758년으로 推定)

ㄷ. 合秋子木七十一 竝古之/ 도합 楸子木은 71이다. 모두 늙었다. (新羅帳籍, 7세기 말 또는 758년으로 推定)

ㄹ. 合馬十 竝 古之/ 도합한 말은 10인데 모두 늙었다. (新羅帳籍, 7세기 말 또는 758년으로 推定)

(25) 開元十三年乙丑 三月八日 鐘成記之/ 開元 13年(乙丑年) 3月 8

일에 鐘을 만들고 기록한다. (上院寺鐘銘, 725년)

- (26) ㄱ. 二塔 天寶十七年 戊戌中 立在之/ 두 탑은 天寶 17年(戊戌年) 중에 세웠다. (葛項寺石塔銘, 785~798년)
ㄴ. 娣姊妹 三人業以 成在之/ 오라비와 姉와 妹 三人의 業으로 이루었다(조성하였다). (葛項寺石塔銘, 785~798년)
- (27) ㄱ. 貞元十四年 戊寅 四月十三日 菁堤治記之/ 貞元 14年(戊寅) 4月 13일에 菁堤를 수리하고 기록한다. (永川菁堤碑貞元銘, 798년)
ㄴ. 此如爲 二月十二日 元 四月十三日 此間中 了治內之/ 이와 같이 하여 2月 12일부터 4月 13日, 이 사이에 마치어 수리하였다(수리하기를 마치었다). (永川菁堤碑貞元銘, 798년)
ㄷ. 此中 典大等 角助役 切火·押梁二郡 各□人 尠 起使內之/ 이 가운데 典大等, 角助役은 切火와 押梁 2郡에서 각각 □人씩 동원하여 부리었다. (永川菁堤碑貞元銘, 798년)
- (28) ㄱ. 貞元廿年 甲申 三月廿三日 當寺 鍾 成內之/ 貞元 20年(甲申) 3月 23日 當寺의 鍾이 이루어졌다. (禪林院鐘銘, 804년)
ㄴ. 當寺 古鍾金 二百廿廷 此以 本爲內 十方旦越 勸爲 成內在之/ 當寺의 木은 鐘 2百 20廷. 이것으로 木을 삼아 十方의 檀越을 勸하여 조성하였다. (禪林院鐘銘, 804년)
- (29) 元和五年 庚寅 六月三日 頓表明塔金堂 治成文 記之/ 元和 5年(庚寅) 6月 3日 頓表明이 塔과 金堂을 수리하고 조성한 것을 기록한다. (昌寧仁陽寺碑銘, 810년)
- (30) 奄九月一日 此處至 丁未二月三十日 了成之/ 9月 1일에 이 곳에 (돌이) 이르렀다. 丁未年 2月 30일에 마치어 조성하였다(조성하기를 마치었다). (安養中初寺幢竿石柱銘, 827년)
- (31) □紀元年 己酉 八月 佛成文□□□節中 成之/ 龍紀 元年(己酉) 8月 佛成文□□□ 때에 이루었다. (英陽石佛坐像光背銘, 889년)
- (32) ㄱ. 僧矣段 赤牙縣 鷲山中 新處所 元 聞爲 成造爲內臥乎亦在之 白賜/ 僧들의 경우에는 赤牙縣의 鷲山에 新處所를 처음 奏

聞하여 成造하고 있다고 사뢰시어(보고하시어) (醴泉鳴鳳寺
慈寂禪師碑陰銘, 941년)

- ㄴ. 衆矣 白賜臥乎 兒如 加知谷寺谷中 入 成造爲賜臥亦之 白臥
乎 味 及白/ 스님들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加知谷의 寺谷
에 들어가 成造하시고 있다고 보고하신 뜻이 (官에) 도착되
었다. (醴泉鳴鳳寺慈寂禪師碑陰銘, 941년)
- ㄷ. 國家以 山院名 并 十四州郡縣 契乙 用 成造令賜之/ 國家로
부터 山과 院의 이름(을 주심)과 아울러 14州, 郡, 縣의 契를
써서 造成시키시었다. (醴泉鳴鳳寺慈寂禪師碑陰銘, 941년)

이상의 예는 8세기부터 10세기 중반까지 종결어미로 ‘-之’가 쓰인 용례이다. 이 중에는 2장에서 검토한 초기 이두문에 보이는 ‘-之’와 같은 용법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토들과 함께 사용한 종결어미이다. (24) ‘신라장적(新羅帳籍)’에 보이는 용례들은 이두 토 ‘-之’와 관련해서 본다면 초기 이두문의 특징을 보인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와 이두 사용의 용법을 같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26) ‘갈항사 석탑명(葛項寺石塔銘)’ (785년~798년)의 ‘입재지(立在之)’와 ‘성재지(成在之)’, (27) 영천청제비정원명(永川靑堤碑貞元銘, 798년)의 ‘요치내지(了治內之)’와 ‘기사내지(起使內之)’, (28) ‘선림원종명(禪林院鐘銘, 804년)’의 ‘성내지(成內之)’와 ‘성내재지(成內在之)’, (32) ‘예천명봉사자적선사비음명’(醴泉鳴鳳寺慈寂禪師碑陰銘), (941)의 ‘成造爲內臥乎亦在之’, ‘成造令賜之’ 등은 다른 어미들 뒤에 종결어미 ‘-之(-다)’가 통합된 것이다. 후대의 자료로 내려올수록 이두 토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런 용례는 고대 일본의 변체한문이나 고역(古譯) 불경(佛經), 중국의 한대 간독자료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예들을 통해서 종결어미 ‘-之’를 10세기 중반까지 사

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이두문과 10세기 중반 이전의 제2단계 이두문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하던 문말 어조사 ‘之’와 종결어미 ‘-之’는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755년)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이두 토 ‘如’(-다)로 교체되기 시작하여 고려초인 10세기까지 사용되다가 자취를 감춘다. 평서법의 종결어미라는 흔적은 우리말의 구결에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결자 ‘1’(다)이다. 구결자 ‘1’은 바로 ‘之’자의 초서체에서 생성된 것이다. 초기 이두문과 7세기 말 이후부터 나타나는 제2단계 이두문에서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之’는 1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두문에서 사라진다. 구결문에서는 구결자 ‘1’로 발전하여 고려시대 구결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향가에는 ‘之’를 평서법 종결어미로 사용한 용례는 하나도 없다. 전부 ‘-如’가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는 점도 향가 표기법의 큰 특징이다.

4. 동아시아 문자사에서 ‘之’의 사용과 관련된 영향 관계

고구려시대 자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문말 어조사 ‘之’는 초기 이두문과 제2단계 이두문에서는 생산적으로 쓰였다. ‘也’나 ‘矣’, ‘耳’ 등 다른 어조사에 비하여 ‘之’자가 초기 이두문(初期吏讀文)과 제2단계 이두문에서 문말 어조사나 서술형 종결어미로 자주 쓰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용법은 어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는 고역 불경들에 나타나는 고대 구어체 한문과 한대의 간독 등에 나타나는 중국 고대 문서의 문체 등과 직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일본의 고대 문자자료에 나타나는 ‘之’와의 관계

서술문의 문장 종결사로 사용한 ‘之’가 일본의 변체한문에서도 나타나 일찍부터 일본의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계속하여 검토해왔다. 그러나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이런 영향 관계를 본격 논의하기가 어려웠지만 근래에 와서는 목간자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연구가 이뤄지면서 ‘之’와 관련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상호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문말 어조사 ‘之’는 2장과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고대 한국에서는 생산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초기 이두문부터 10세기 중반까지 평서법의 종결어미로 ‘之’를 생산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고

대 국어와 이두문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이다. 바로 이 ‘之’와 같은 용례가 고대 일본의 변체한문 자료들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오노 야스마로[太安万侶]의 묘지명(723년)에 쓰인 ‘拊之’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33) 太朝臣安万侶以癸亥年(723년)七月六日拊之

(33)의 ‘拊之는 한문의 자동사에 ‘之’가 이어져 문장을 종결한 것이다. ‘拊之와 같은 표현이 구어체 성격이 강한 고대 한문에서도 (드물긴 하지만?) 사용되고 있었고, 한국의 초기 이두문에서도 이에 준하는 표현들이 생산적으로 사용된 것은 동아시아 문자사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함을 말해준다. 태안만려의 묘지명에 나오는 ‘拊之’도 2장에서 논의된 우리의 초기 이두문에 나타나는 서술형 문장 종결사의 ‘之’와 같은 것이다. 오노 야스마로의 묘지명에 나오는 ‘拊之(졸했다)’는 후쿠다 요시스케(1964)의 “書記に見えている「之」字について”에서 논의한 ‘之’들의 용법 중 제7의 용법과 같은 것이다. 후쿠다 요시스케가 분류한 제7의 용법은 ‘之’를 문말어조사로 사용한 것이다. 즉, ‘신라군궤지(新羅軍潰之), 내기행지(乃起行之), 일식지(日蝕之)’ 등의 ‘之’가 그것이다. 이 용례들은 한국의 초기 이두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 외에도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공지(空之), ‘청청지(淸淸之), ‘길지(吉之)’는 문말에서 형용사에 ‘之’가 붙은 예이고 ‘군칙천지(君則天之) 신칙지(臣則地之)’는 명사에 문장을 종결하는 어조사 ‘之’가 통합된 것이다. ‘천지(天之), ‘지(地)’의 ‘之’가 『성덕태자전역(聖德太子傳曆)』에서는 모두 ‘也’로 쓰인 것으로 보아 이 ‘之’가 ‘也’의 뜻으로 쓰인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 서술형의 문장종결

사 ‘之’는 정창원(正倉院)의 고문서에도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⁹ 일본의 변체한문 자료에 나타나는 ‘之’도 중국의 한문 용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고대 초기 이두문에 사용한 ‘之’의 용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之’의 이런 용례들은 일본의 고대 목간들에서도 나타난다. 화화한문(和化漢文)과 관련하여 일찍이 학계의 주목을 받은 자료는 (34)에 나온 목간이다. 이 목간은 1984년 시가현(滋賀縣)의 니시가와라(西河原森) 유적에서 출토한 421번 목간이다.

(34) (前面) 椽直傳之我持往稻者馬不得故我者反來之故是汝卜了
(後面) 自舟人率而可行也 其稻在處者衣知評平留五十戶旦派博士家

(35) ㄱ. (전면) (符籙) 文(欠?)田里 道意白加之

募之乎

(후면) 各家客等之

ㄴ. (전면) (별자리 그림) 북두칠성[符]

□安(晏?) 欠田里 평안의 별. 흠전리는 [籙]

寡之年 (수확이) 부족한 해이다.

道章白加之 道の 文章을 사뢰오니, 더하여

(후면) 各家客等之 각 家와 客이 고루 (거둘 수 있)기를 빕니다

(36) 大德 芳子沈前頓首拜白之 (대덕 방자침 앞에 돈수하고 절하며 사립니다)

(34)의 목간에 대해서는 이누카이 타가시[犬飼隆] (2005)와 이성시(李成市) 교수 등도 한국식 한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미카미

9 더 구체적인 용례들에 대해서는 福田良輔(1964)을 참조할 수 있다. 南豊鉉(2005)에서도 이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한 바 있다.

요시타카[三上喜孝](2008 : 201~202)도 이것을 신라의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문체에 비교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34)와 같이 판독하고 그 전문을 검토한 바 있다.¹⁰ (34)의 ‘棕直傳之[棕直이 전한다]’와 ‘아자반래지(我者反來之)[나는 돌아왔다]’에 쓰인 ‘之’도 우리의 초기 이두문에 나타나는 서술형 문장종결사와 같은 것이다. (35)는 1991년 일본 오사카의 쿠와즈 유적에서 출토한 목간이다. 아스카 시대의 유물로 보이는 이 목간은 함께 나온 토기가 7세기 전반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이 목간의 연대도 7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자료이다.¹¹ (35-ㄱ)의 판독은 이 목간을 발굴하여 보고한 고교공[高橋工]의 판독이다. 그는 이 목간을 “[부록(符錄)] 문전(文田)의 리(里)에서 도의(道意)와 백가(白加)가 모은다. (그 대상은) 각가(各家)의 객등(客等)이다.”로 해석한 바 있다. (35-ㄴ)은 김창석(金昌錫, 2008)의 판독문과 해석문이다. 김창석 교수는 이 자료를 백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로 파악한 바 있다. 김영옥(2009 : 186)도 이 자료 중에서 ‘도의(道意, 韜) 백가지(白加之)’를 주목하여 “도의를 사되어 더하다” 정도로 해석하고 이때의 ‘-之’가 종결사로 쓰이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더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앞면의 마지막 문장과 뒷면의 문장에 보이는 ‘之’의 용법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백제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는 아주 크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2009년 6월 4일자 일간지들이 보도한 나주 복암리 고분군에서 발굴한 문서목간 들 중에 보이는 ‘수미지(受米之)’와 ‘공지(貢之)’, ‘병지(并

10 三上喜孝 교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棕直이 전한다. 내가 가지고 간 벼는 말을 얻지 못한 관계로, 나는 되돌아와 버렸다. 그러므로 너, 복부가 스스로 벳사람을 데리고 가야 한다. 그 벳가 있는 곳은, 의지평, 평류 오십호의 단파 박사 집이다.”

11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金昌錫(2008)을 참조할 수 있다.

之’ 등의 백제식 이두의 용례와 (35)의 ‘도장백가지(道章白加之)’와 ‘각가객(各家客) ㅍ(等)지’ 등 상호 관련성을 비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목간에는 ‘등(等)’자 대신에 약자인 ‘ㅍ’자로 쓰였다는 점도 특기해야 한다. 바로 ‘ㅍ’은 한국 고대 금석문이나 목간과 고대문서 등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구결자 ‘ㅍ’[ㅍ, 등(等)]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것이다. (36)의 예는 김영욱(2009: 188~189)이 재인용한 것이다. 이 자료는 기옥현(琦玉縣) 소부전(小敷田) 유적 출토 목간이다.¹² (36)은 일본 고대 목간에서도 ‘白之’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목간은 ‘白之’의 용례가 신라 자료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변체한문에도 사용되었다는 실증 자료로 중요한 자료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변체한문에서 사용한 ‘之’의 용법은 한국의 초기 이두문에서 문장 서술을 종결하는 ‘之’의 용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들은 정통의 한문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자국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변체한문에는 한국의 제2단계 이두문에서 다른 어미들과 함께 ‘之’를 통합하여 사용한 유형은 보이지 않는다. 오노야스마로의 묘지명에 나오는 ‘卒之가 쓰인 것이 723년이니 신라의 이두에서는 이미 토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이다. 일본에서는 이 ‘之’가 토로 발달하지 않았으니 한국의 이두문에서 토의 발달과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초기 이두문(또는 속한문)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하던 문장종결사 ‘之’의 용법이 일본의 금석문이나 목간이나 고문서 등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 양국 간에는 문체상 ‘之’의 사용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

12 平川南(2002 : 46)에 사진자료가 실려 있다.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역(漢譯) 불경자료와 한대(漢代)의 간독자료에 나타나는 ‘之’와의 관계

‘之’가 허사로 쓰이는 것 중 한문의 문말에 오는 경우는 ‘焉’, ‘矣’, ‘也’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례는 진한 이전에 간혹 보인다 고 한다.¹³ 한국의 이두와 일본의 변체한문에 공존하는 서술형 문장종결사 또는 서술형 종결어미로 사용한 ‘白之’와 ‘傳之, 來之’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한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불경자료들과 중국의 한대 간독자료 등에서 살펴보자.

먼저, 불경자료들부터 검토한다.

- (37) 佛言十五日有三齋.何等爲三. 齋月八日十四日十五日. 是爲三. 云何爲月八日齋. 月八日齋時. 四王告使者言. 往案行四天下. 觀視萬民. 知世間有孝順父母者不. 有承事沙門婆羅門道人者不. 有敬長老者不. 有齋戒守道者不. 有布施者不. 有信今世後世者不. 使者受教. 四布案行天下. 還具白言. 多有不孝父母. 不敬事沙門婆羅門道人長老. 不齋戒布施. 四天王聞之. 卽不歡喜說言. 今我聞惡語. 是爲減損諸天. 增益阿須倫種. 若多有孝順父母沙門婆羅門道人長老. 多有齋戒布施. 信今世後世者. 具白之. 四天王聞之. 卽大歡喜說言. 我今聞善言. 用人多有作善者. 增益諸天. 減損阿須倫種. 是爲月八日齋.¹⁴ <大樓炭經 卷4 忉利天品>

13 ‘之’의 용법에 대해서는 裴學海(1971), 『古書虛字集釋』, 廣文書局, 719쪽 이하와 金元中(1994 : 806~824), 『虛辭辭典』, 현암사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 이 부분의 한글대장경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열닷새 동안에 세 개의 齋가 있느니라. 무엇이 세 개의 재나 하면 다달이 8일과 14일

(CBETA, T01, no. 23, 298쪽, a25-b12)

- (38) 「吾無飲食無以供養. 留心坐斯. 吾須與還飛之般遮國入王後宮. 觀王夫人臥. 首飾之中有明月珠. 烏鴛馳還. 以奉道士. 夫人[16] 寤寐求之不獲. 卽以上聞. 王勅臣民. 有得之者賞金銀各千斤. 牛馬各千首. 得不貢者罪重滅宗. 道士惠獵者. 獵者縛而白之. 王曰. 汝從[17]何得斯寶乎. 道士深惟. 以狀言之. 卽一國鳥皆死矣」¹⁵〈六度集經 卷5〉(CBETA, T03, no. 152, 28쪽, b6-14)
- (39) 「道人答曰. 朝來入城乞食了無所得. 是以便還所解耳. 老母卽念. 欲得飯眾僧. 而[*]自了無所有. 白諸道人. 我今入城視之. 若得供辦者. 當還白之. 若無者亦當使知消息. 於是眾許可. 各各解住

과 15일 이것이 세 개의 잿날이니라. 무엇이 다달의 8일 재가 되느냐 하면, 달의 8일 재 때는 四王이 사자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사천하를 순찰하며 만백성을 자세히 살펴보되, 세간에서 부모에게 효순하는 이가 있는가. 사문과 바라문 도인을 섬기는 이가 있는가. 장로를 공경하는 이가 있는가. 재계하여 도를 지키는 이가 있는가. 보시하는 이가 있는가. 금생과 후생을 믿는 이가 있는가를 알리라고 하느니라. 사자는 분부를 받고 네 곳으로 분산하여 천하를 순찰하고 돌아와서 자세히 아뢰기를 부모에게 불효하는 이가 많사오며 사문과 바라문 도인이며 장로를 공경하거나 섬기지도 않으며 재계하거나 보시하거나 하지도 아니 하였나이다고 하면 사천왕은 듣고 기뻐하지 아니 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나는 나쁜 말을 들었구나. 이는 여러 하늘들은 줄어지고 이수라 종족만이 늘어나겠도다라고 하느니라. 만약 부모에게 효순하고 사문 바라문 도인을 섬기며 장로를 공경하는 이가 많으며 재계하고 보시하며 금생과 후생을 믿는 이가 많이 있다고 자세히 아뢰면, 사천왕은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제 선한 말을 들었구나. 선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하늘들은 늘어나고 이수라의 종족은 줄어졌도다라고 하니 이것이 다달의 8일 재이니라.” 이하 동일.

- 15 …… 나는 음식이 없어 공양할 수 없사오니 유념하시고 앉아 계십시오. 내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반차국으로 날아가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갔다. 보니 왕의 부인이 누웠는데 목걸이 속에 명월주가 있었다. 까마귀가 머금고 날아서 돌아와 도사께 바치니 부인이 자나 깨나 찾다가 못 찾고 곧 위에 알렸다. 왕이 신민들에게 칙명하기를, 얻어서 받치는 자에게는 상으로 금과 은을 각각 천 근씩 하고 소와 말을 각각 천 마리씩 주리라. 얻고도 바치지 않는 자는 죄를 중히 하여 멸종을 하리라 하였다. 도사가 사냥군에게 주었더니 사냥군이 도사를 묶어 가지고 아뢰었다. 왕이 물었다. 내가 어떻게 이 보배를 얻었느냐 …….

樹下。於是老母還舍啟長者婦。宜用數千錢。今我雖在此作使。願身自賣終身為婢。可立券要」(雜譬喻經 卷1)¹⁶ (CBETA, T04, no. 205, 502쪽, b24-c2)

- (40) 「時有一人。啟白王曰。拘薩羅國。檀彌離長者。家內大有。時王聞之。乘車馬輿。躬自往求。到檀彌離長者門前。時守門人。卽入白之。波斯匿王來在門外。長者歡喜。卽出奉迎。請王入宮。〈賢愚經 卷12, 檀彌離品〉¹⁷ (CBETA, T04, no. 202, 430쪽, c18- 431쪽, a2)

(37)의 ‘구백지(具白之)’는 『대루탄경(大樓炭經)』에¹⁸ 나타나는 것이다. ‘자세하게 아뢰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다. 초기 이두문에 보이는 문장종결사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38)의 ‘엽자박이백지(獵者縛而白之)’는 『육도집경(六度集經)』에 나타나는 용례이다.¹⁹ “사냥꾼이 (도사들) 묶고 나서 아뢰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다. (39)의 ‘당환백지(當還白之)’ [곧 돌아와 말하겠습니다]는 『잡비유경(雜譬喻經)』에 나타나는 예이

16 …… 도인이 대답하였다. 마침내 성에 들어가 걸식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 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들에게 공양하러 하였으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여러 도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성 안에 들어가보아서 만일 공양이 준비되면 곧 돌아와 아뢰어 주십시오. 되지 않더라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도인들은 그리하라 하고 모두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 그리하여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장자 부인에게 아뢰었다. 몇 천 냥의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내가 심부름꾼이 되어 있지마는 내 몸을 팔아 종신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증서라도 쓰겠습니다.

17 그때 어떤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코살라국의 단미리 장자 집에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수레와 말과 가마를 타고 몸소 구하러 떠났다. 단미리 장자네 집 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는 들어가 아뢰었다. 파사닉왕이 문 밖에 계십니다. 장자는 기뻐하며 곧 나와 맞이하고 왕을 맞아 궁중으로 들어갔다 …….

18 『大樓炭經』은 265~316년경에 漢譯된 경전이다. 西晉의 法立·法炬 共譯이다.

19 『六度集經』은 三國時代(220~280年)에 번역된 것이다. 吳·康僧會譯이다.

다.²⁰ (40)의 ‘즉입백지(卽入白之)’[들어가자마자 곧 아뢰었다는 『현우경(賢愚經)』에 쓰인 문장이다.²¹ 이런 ‘之’의 용법은 초기 이두문나 일본의 변체한문에서 사용한 문장종결사 ‘之’와 거의 차이가 없다.

고역 불경 자료에 나타나는 문말어조사 ‘之’는 백제와 신라의 스님들이 저술한 불경 저술에서도 자주 보인다. 이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之’ 자의 사용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41)의 예는 신라 황룡사(皇龍寺) 표원(表員)이 집한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訣問答)』에 나오는 예 중 표원이 작성한 주석(註釋) 부분에 나오는 용례이다.

- (41) ㄱ. 處者(居也) 謂止²²居之處 會者遇也 又大計也(佳苑云四方郡國錄一代之事愬而計之 名曰會也)/ 處는 居이다. 즉, 멈추어 머무는 곳이다. 會는 만남이다. 또한 大計이다. [『佳苑』에²³ 이르기를, 四方의 郡國이 一代의 일을 모아 기록하고 總合하여 計한다. 이것을 일러 會라 한다.] (佐藤本 華嚴文義要訣 004-005행)
- ㄴ. 謂此佛卽攝一切佛故 是故 一說卽一切說也[此義亦當後出之]/ 말하자면, 즉 이 부처님은 곧 모든 부처를 包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一說은 一切說이다. [이 뜻도 나중에 나온다.] (佐藤本 華嚴文義要訣 021-022행)

표원이 집한 『화엄문의요결문답』에는 평서법의 문장종결사로 사용

20 『雜譬喻經』은 姚秦의 鳩摩羅什(334~413年)譯이다.

21 『賢愚經』(Damamūka-nidāna-sūtra)은 元魏(386~534年) 때 慧覺等所 譯이다.

22 이 자형은 석독구결자 ‘ㄷ’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구결자 ‘ㄷ’의 原子를 ‘止’로 본다.

23 ‘佳苑’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술인지는 알 수 없다.

한 ‘之’는 ‘也’와 함께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전체 사용 빈도 중에서 ‘之’는 표원이 직접 작성한 주석 부분에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백제 승(僧) 도장(道藏)이 저술한 『성실론소(成實論疏)』에 나오는 (7)의 “도장소(道藏疏)[운(云)] 가고지(可考之)”와 신라 견등(見登)의 『화엄일승성불묘의』에 보이는 ‘여전기지(如前記之)’[앞에 기록한 것과 같다] 등도 초기 이두문이나 고역 불경자료들에 나오는 문말 종결사 ‘之’와 같은 것이다.

동아시아 문자사에서 ‘之’ 관련된 영향관계를 생각할 때 불경의 고역 한문체의 영향 외에 고대 한대의 간독자로 등에 나타나는 문서류의 고대문체를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42)와 같은 것이다.

(42) 永始二年(B.C. 15년)五月乙酉朔丙午甲渠鄯候護敢言之 (居延新簡 156 : E.P.T4 : 81A)

(42)는 거연신간(居延新簡) 자료다.²⁴ 이 자료에 보이는 ‘감언지(敢言之)’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초기 이두문에 보이는 ‘之’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시(永始) 2년(기원전 15년)에 작성한 문서로 이런 문서의 문체 투식이 고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24 이 예문의 존재를 알려주고 제공해준 翰林大學校 金秉駿 교수께 감사사를 드린다. 金秉駿 교수의 교시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자료들은 더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5. 맺음말

이 글은 한국의 고대 금석문이나 목간 자료 등에 나오는 ‘之’ 자의 용법 중 문장이 종결되는 자리에 쓰인 ‘之’에 대해 그 기능과 한국의 이두문에서 종결어미 ‘之’의 발달 과정 등을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자사에서 ‘之’의 사용과 관련된 상호 영향관계도 밝혔다. 한국의 고대 금석문이나 목간 자료에는 문말에 사용하여 문장을 종결하는 어조사 ‘之’가 생산적으로 쓰인다. 이런 현상은 ‘中’을 처격조사(處格助詞)로 사용하는 용례들과 더불어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것이다. 문장을 종결하는 다른 어조사들에 비하여 한국의 고대 이두문에서 ‘之’자가 평서법의 종결어미로 많이 쓰이는 것은 한국의 고대 문체론의 특징들 중 하나다.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하는 초기 이두문(또는 속한문)에서는 ‘之’가 한문문법에 따르기보다는 국어문법에 따라 문장을 종결하는 평서법의 종결어미에 대응한다. 초기 이두문에서 문장종결사로 ‘之’를 사용한 것은 고대 구어체 한문들에서 사용한 ‘之’의 기능을 차용한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문자자료에도 신라와 같이 초기 이두문이 쓰였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는 달리 한자와 한문을 받아들여 자국화하는 과정이 더 발전적이었다. 신라에는 이미 6세기 중반 부터는 한자를 완전히 국어 어순으로 배열하는 문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7세기 말부터는 국어 어순의 문장에 토까지도 표기에 반영하는 이두문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바로 제2단계 이두문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이두문 중 가장 오래된 자료는 7세기 말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월성해자149호 목간의 이두문이다. 이 자료를 발견하기 전에는 ‘감산사아미타여래조상

기(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720년)의 이두문이 우리말의 토 표기를 반영한 최초의 자료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제2단계의 이두의 발달은 설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라에서는 한문을 우리말로 읽는 구결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졌다.

제2단계 이두문에서 평서법의 종결어미로 사용한 ‘之’의 가장 큰 특징은 ‘교재지’(敎在之)와 같은 용례다. 이것은 동사 ‘敎’에 선어말어미 ‘在(-거-)’와 서술형 종결어미 ‘-之(-다)’가 통합(統合)된 것이다. 이런 표기법은 고대 한문에 보이던 문장 종결어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어 표기에 서만 확인할 수 있는 용법이다.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755년)의 이두문에 나타나는 성내지(成內之)/ 이르는다와 진재지(進在之) 등도 각각 동사 어간 ‘成-’과 ‘進-’에 선어말어미 ‘-內(-느-)’와 ‘-在(-거-)’ 그리고 평서법의 종결어미 ‘-之(-다)’가 결합한 것이다. 이런 예들은 고대 한문에 보이던 문장 종결어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은 주로 제2단계의 이두문에만 나타난다. ‘갈항사석탑명’(785~798년)의 입재지(立在之)와 성내지(成內之), ‘영천청제비정원명’(永川靑堤碑貞元銘, 798년)의 기사내지(了治內之)와 ‘요치내지(起使內之)’, ‘선림원종명’(禪林院鐘銘) (804년)의 ‘성내지(成內之)와 ‘성내재지(成內在之)’, ‘예천명봉사자적선사비음명(醴泉鳴鳳寺慈寂禪師碑會銘)’ (941년)의 ‘성조위내와호역재지(成造爲內臥乎亦在之)’, ‘성조영사지(成造令賜之)’ 등도 다른 어미들 뒤에 종결어미 ‘之(-다)’가 통합한 것이다.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755년)의 이두문에서 한국의 이두 발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된다. 이 자료에는 평서법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기 위하여 ‘之’와 함께 ‘如’(-다)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초기 이두문(또는 속한문)과 제2단계 이두문에서 생산적으로 사용하

던 문말 어조사 ‘之’와 종결어미 ‘-之’는 8세기 중반 이후부터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이두 토 ‘如’(-다)로 교체되기 시작하여 고려초인 10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사라진다. 평서법의 종결어미라는 흔적은 한국의 구결에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결자 ‘丨’^(타)이다. 구결자 ‘丨’는 바로 ‘之’ 자의 초서체(草書體)에서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향가에는 ‘之’를 평서법 종결어미로 사용한 용례는 하나도 없다. 전부 ‘-如’가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는 점도 향가 표기법의 큰 특징이다. 월성해자 149호 목간의 이두문에 나타나는 ‘白丨’의 ‘丨’를 포함하여 구결문자로 사용되는 ‘𠂇’^[등(等)]와 ‘𠂆’^[나(那)], ‘𠂇’^[미(彌)] 등은 한일 양국의 고대 문자 자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반자^[半字, 약체자(略體字)] 들이다. ‘白丨 [白, 백지(白之)]’는 신라의 문서목간이나 일본의 초기 문서목간에서도 자주 쓰이던 표현이다. 이런 사실에서 고대 한일 간에 문자 교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변체한문 자료들에 나타나는 문장 종결어조사 ‘之’는 중국의 한문 용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고대 초기 이두문에 사용한 ‘之’의 용법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니시가와라 유적에서 출토한 421번 목간에 나타나는 ‘棕直傳之’^[棕直이 전한다]와 ‘아자반래지’^[我者反來之, 나는 돌아왔다]에 쓰인 ‘之’도 한국의 초기 이두문에 나타나는 서술형 문장종결사와 같은 것이다. 일본 오사카 쿠와즈^[桑津] 유적에서 출토한 목간의 ‘도장백가지’^(道章白加之)와 ‘각가객’^(各家客) 𠂇^{(등(等))}-之^{는 백제와 관련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이것은 바로 ‘수미지’^(受米之)와 ‘공지’^(貢之), ‘병지’^(井之) 등의 백제의 초기 이두문 용례와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변체한문에서 사용된 ‘之’의 용법은 한국의 초기 이두문에서 문장을 서술적으로 종결하는 ‘之’의 용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일본의 변체한문에는 한국의 제2단계 이두문에서 다른 어미들과 함께 ‘之’를 결합하여 사용한 유형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이두와 일본의 변체한문에 공존하는 서술형 문장 종결어조사 또는 서술형 종결어미로 사용된 ‘白之’와 ‘傳之, 來之’와 같은 ‘之’의 용법은 고역 불경 자료에 나타나는 문말 어조사 ‘之’를 사용한 ‘具白之(자세하게 아뢰었다)’와 ‘엽자박이백지’(獵者縛而白之)[사냥꾼이 (도사들) 묶고나서 아뢰었다], ‘당환백지(當還白之)’ [곧 돌아와 말하겠습니다] 등에서도 확인이 된다. 서술형 종결어조사로 쓰이는 이와 같은 ‘之’는 백제와 신라의 스님들이 저술한 불경 저술에서도 자주 보인다. 이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之’자의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 황룡사 표원이 집한 『화엄문의요결문답』에도 종결 어조사로 사용한 ‘之’는 ‘也’와 함께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전체 사용 빈도 중에서 ‘之’는 표원이 직접 작성한 주석 부분에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도 백제 승려 도장이 저술한 『성실론소(成實論疏)』에 나오는 ‘도장소(道藏疏)[운(云) 가고지(可考之)]와 신라 견등(見登)의 『화엄일승성불묘의(華嚴一乘成佛妙意)』에 보이는 ‘여전기지(如前記之)’ [앞에 기록한 것과 같다] 등도 초기 이두문이나 고역 불경 자료들에 나오는 문말 어조사 ‘之’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문자사에서 ‘之’와 관련된 상호 영향관계를 생각할 때 불경의 고역 한문체의 문체를 한국의 초기 이두문에서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한대의 간독자료에 나타나는 고대 문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초판 1쇄 인쇄 2011년 6월 27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7월 4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군동 26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1

ISBN 978-89-6187-237-9 9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